

# 谷城歲時風俗



谷城文化院



## 목 차

제 1 장 세시풍속 (歲時風俗) .....	7
제 2 장 민속의례 (民俗儀禮) .....	23
제 1 절 출생 (出生) .....	23
4 . 작명 (作名 … 이름짓기) .....	25
제 2 절 관례 (冠禮) .....	33
제 3 절 혼례 (婚禮) .....	41
1 . 궁합 (宮合) .....	42
제 4 절 수연 (壽宴) .....	89
제 5 절 상례 (喪禮) .....	95
3 . 장지 (葬地 … 風水地理說) .....	108
제 6 절 제례 (祭禮) .....	170
제 3 장 토속신 (土俗信) .....	197
제 4 장 오락 (娛樂 … 놀이) .....	233

# 發 刊 辭



谷城文化院長 金 吉 榮

옛부터 우리谷城은 많은 歲時風俗이 傳承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先祖들은 禮와 舞와 樂을 숭상하며 風流的인 生活을 즐겼고 어느 地域보다 人心이 淳朴하고 간사함과 꾸며 댈줄 몰랐으며 特히 不義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歲時風俗은 우리 先祖들이 겪었던 所重한 體驗과 知慧가 것들어 있으며 一體感을 造成하는 共同體 意識이 內在되어 온마을 住民과 집안식구가 같이 生存하기 위한 周期的인 生活文化가 傳承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歲時風俗들이 잘 전승되어 오다가 日帝의 民族文化 말살 政策에 따라 繼承되지 못하고 風俗自體가 퇴색되다가 8.15 해방과 더불어 그 명맥을 이은가 하였더니 갑자기 밀어닥친 産業化 時代에 밀려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멸되어 가고있어 안타깝게 여겨오던중 제가 谷城文化院長 職을 수행하면서부터 문헌과 生存하고 계신 元老들을 찾아 우리고장의 歲時風俗을 調査 整理하게 되었습니다.

이 冊字가 우리고장 谷城의 歲時風俗을 엮은 가치있는 자료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우리 谷城의 風俗을 앞으로 자라는 새싹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期待하면서 本誌를 發刊하기까지 支援을 하여주신 많은 關係者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 祝 刊 辭



谷城郡守 李 起 奉

옛말에 百里가 멀어지면 慣習이 다르고 千里가 멀면 風俗이 달라진다고 하였읍니다.

우리고장 谷城에 傳承되어오는 많은 歲時風俗도 우리 祖上들의 氣像과 知慧가 한데 엉키어 儀禮가 潛在된 內的인것과 諷刺와 諧謔과 律動으로 表出하는 外的인 것들이 時節을 따라 週期的으로 展開되면서 마을 住民들의 一體感을 造成하는 共同體 意識이 內在된 獨창적인 生活文化가 定着되게 된것입니다.

이 冊子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谷城地方에서는 農耕文化圈에 얽힌 歲時風俗이 大部分이있읍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産業社會를 맞아 그 機能과 效用의 價値가 傷失되어 祖上의 일과 숨결이 담겨진 所重한 生活文化였던 歲時風俗들이 차츰 그 자취가 사라져 가는데에 즈음하여 谷城文化院에서 現存하는것과 口傳해 오는것들을 調査 整理하여 「谷城歲時風俗誌」를 發刊케 되니 비록 늦은 感이 없지 않으나 매우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아무쪼록 이 冊子가 우리 고장의 歲時風俗을 理解하고 아울러 祖上의 슬기와 精神을 헤아려 우리의 멋과 矜持를 찾고 가꾸어 아름다운 美風良俗이 繼承되는 契機가 되길 期待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本誌를 發刊하기 위하여 功獻하신 金吉榮 文化院長님의 努苦에 뜨거운 感謝를 드리고 또 이 일에 관계하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 제 1 장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은 조상의 얼과 지혜가 모여서 관습적인 연중행사로 지켜왔으며 이는 농경사회의 절대 생활문화로 토착되었던 것이다.

이 지방의 세시풍속은 이조 순조(純祖) 시대에 홍석모(洪錫謀)가 전해오는 관행(慣行)을 태음력(太陰曆)에 근거하여 정리기록해서 펴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다를바 없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수있다.

## 1. 정월(正月)

### 가. 설 날(元旦:元旦)

설날은 세수(歲首) 연수(年首) 원조(元朝) 원일(元日) 정조(正朝) 라고 불렀으니 이는 한해의 첫날임을 뜻하는 것이다.

설을 한자로 표시하면 신일(愼日)이라 했으며 옛날 사람들은 그해의 운수가 새해 첫날에 달려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설날의 몸가짐을 지극히 조심했었다.

설날은 한해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써 이조시대에도 관공서와 상가에서는 문을 닫고 3일간씩 쉬었다. 일제(日帝) 시대 이후 양력(陽曆)의 신정에만 연휴가 있었으나 1985년 2월 15일부터 음력 설날을 민속의 날로 정하여 1일간 쉬고 있다.

### 나. 설빔(歲粧)

설빔이란 설날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놓은 새옷을 갈아 입는다는 뜻이다. 각자의 생활 수준에 따라 남녀노소 모두의 새옷을 준비했으며 어린이들은 새옷 차림의 즐거움 때문에 그믐날밤의 단잠을 설치기도 하고 세배길에는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 다. 아침차례(正朝茶禮)

설날 아침이면 흠어져 살고 있는 자손들이 장손의 집에 모여서 아침 차례를 지

이 고아진다는 민담이 있다.

### 카. 입춘(立春)

입춘일은 천세력(千歲曆)에 정해진 24 절기의 첫째로써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입춘일은 대개 정초인 경우가 많으며 양력으로는 2월 3일 4일 5일 사이이다.

입춘일을 맞으면 각 가정에서는 대문, 기둥, 대들보 등에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이며 이를 입춘축(立春祝)이라 한다.

이때 상중(喪中)에 있는 집안은 입춘축을 붙이지 않았다. 입춘축의 글귀는 입춘대길(立春大吉)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그밖에 많이 쓰인 글귀로는 건양다경(建陽多慶) 우순풍조(雨順風調) 시화연풍(時和年風) 문신희령(門神戶靈) 가금불상(呵嚙不祥) 국태민안(國泰民安) 요지일월(堯之日月) 등이었다.

### 타. 보름날(上元日：正月十五日)

#### (1) 오곡밥(五穀)

정월 보름 전날밤에 쌀 보리 콩 조 수수를 섞어 밥을 지어서 보름날 아침에 나물과 두부를 반찬으로 하여 김밥을 먹는다.

각기 다른 성(姓)의 세집 밥을 먹으면 그해 운수가 좋다하여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기도 했으며 청소년들은 밤을 세며 밥을 얻으러 다니기도 했다.

#### (2) 약밥(藥)

정월 보름에는 찹쌀 밤 대추 꿀 잣을 섞어서 만든 약밥을 먹으면 그해의 액을 면한다고 전해 왔으며 이는 가마귀와 얽힌 일화가 있다.

신라 21대 소지왕(昭知王) 10년(488)에 천천정(天泉亭)을 순행하고 있을 때 한마리의 가마귀가 나타나 몹시 지저귀면서 날고 있었다. 왕은 이상히 여기고 기사(騎士)로 하여금 가마귀의 뒤를 따르게 했으며 그 기사는 연못가에 이르자 한 노인이 왕에게 올리는 글이라면서 주기에 가지고 왔다.

길봉에는 「이 봉투를 뜯어보면 두사람이 죽고 안 뜯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적혀 있는것을 보고 왕은 두사람보다 한사람 죽는것이 낫겠다고 뜯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일관(日官)은 그 한사람이란 왕을 지칭하는 느낌이어서 왕에게 수차 간청하여 뜯어 보았다. 그속에는 「금갑(琴甲-거문고갑)을 쏘아라」고 쓰여 있



었다.

왕은 궁궐에 돌아온즉시 금갑을 향하여 활을 쏘게했더니 그안에는 내전에서 불교의식을 맡아보는 중(僧)과 궁주(宮主)가 간통하고 있어 결국 두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후 정월 보름날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을 가마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생겼다.

### (3) 부럼

보름날 아침에 밤, 호두, 잣, 은행등을 단번에 깨물면 그해 부스럼이 나지 않고 이가 단단해 진다고 한다.

### (4) 귀 밝이술(耳明酒)

보름날 아침에 찬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일년동안 좋은 소식만 듣는다하여 부너자들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있다.

### (5)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 일찍 소년 소녀들이 이웃 친구집에가서 이름을 부르고 . 그 친구가 대답하면 「내더위」하고 더위를 판다. 한편 그 친구는 미리 알고서 대답대신에 「내 더위를 사라」하고 응수하면 혹 때리갔다가 붙이고 오는 격이된다. 아무튼 더위를 판사람은 그해 더위를 먹지않고 반대로 더위를 산 사람은 남의 땀의 더위까지 먹는것으로 믿어왔다.

### (6) 연날리기

보름날 청소년들은 미리 만들었던 연을 날린다.

한해의 액운(厄運)을 연에 실어서 하늘에 띄워 보내기 위해 연실을 다 풀어 주거나 연줄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한편 연날리기는 높이 오르기 시험도 있고 상대방의 연줄을 끊는 연싸움도 있다.

### (7) 달맞이

보름날 저녁 달이 솟아오를 때면 사람들은 추위를 무릎쓰고 높은산 혹은 높은 나무를 오른다.

등근달이 솟아오르면 저마다의 소원을 기원한다. 보름달을 보고 한해의 농사를 점치는데 달빛이 희면 비가 많이오고 달빛이 붉으면 비가 흔하지 않으며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들고 달빛이 흐리면 흉년이 드는것으로 전해왔다.

### (8) 동신제(洞神祭)

정월 보름날 저녁 혹은 정월 그믐날 저녁이면 동네의 수호신인 산신(山神)을 제사 하는것으로써 동신제 또는 당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짇날 머리를 감으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머리결이 아름다운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 4 사월 (四月)

### 가. 초파일

4월 8일은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신일로써 육불일(浴佛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날은 등불을 켜는 풍속이 있어 이를 연등놀이라고 한다.

불교 신도자들은 절을 찾아가서 연등회(燃燈會)에 참석한다.

1975년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했고 사찰을 중심으로하여 불교신도들은 연등행렬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있다.

## 5 . 오월 (五月)

### 가. 단오 (端午)

5월 5일은 단오, 수리(戌衣日) 또는 천중절(天中節)이라 했으며 단오차례를 지냈다.

사람들은 이날은 주로 녹색(綠色) 혹은 홍색(紅色)의 옷을 입는 습관이 있다.

### 나. 참포 (菖蒲 - 다년생식물)

단오날에는 참포와 쑥을 섞어서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고 윤이난다하여 열심히 감았다.

### 다. 단오빚 (端午粧)

옛날에는 참포 뿌리를 캐서 비너를 만들었고 그 비너에 수(壽) 복(福)자를 세기기도 했으며 혹은 연지로 붉게 칠했다. 이를 단오빚(戌衣日)이라하며 이는

그해의 모든 재앙을 물리친다는 속설이 있다.

라. 익모초(益母草)와 쑥

단오날 오시(午時)에 익모초와 쑥을 뜯어 말려서 약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마. 그네뛰기와 씨름

단오놀이로 여자들은 그네를 뛰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였다.

그네줄은 새끼를 꼬아 만들었고 동네 큰 나무에 매어 달았다.

그네를 뛰면 그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하며 그네는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뛰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모래 밭이나 풀밭에서 씨름판을 벌리고 힘껏 기예를 자랑했다.

## 6 . 유월 (六月)

가. 유두(流頭)

(1)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

6월 15일은 유두일이다.

유두란 동류두목욕을 줄인 말이다.

유두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을 찾아서 목욕하면 그해의 불행을 쫓으며 더위도 이긴다고 한다.

(2) 유두천신(流頭薦新)

새로운 과일이 나오는 철이므로 그 과일과 국수와 떡을 사당에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3) 유두절식(流頭節食)

유두일은 유두면(流頭麵) 수단(水團) 건단(乾團) 연병(連餅) 등이 있으며 특히 유두면을 먹으면 장수하고 더위를 이긴다하여 모두 먹는다.

## 10. 시월 (十月)

### 가. 시제 (時祭)

10 월 15 일을 전후하여 후손들이 모여서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

## 11. 동짓달 (十一月)

### 가. 동지 (冬至)

하지(夏至)에는 낮의 시간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반면에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를 아세(亞歲:작은설)라고 부르기도 한다.

### 나. 동지팔죽

동짓날에는 팔죽을 사당에 차려하고 방이나 마루 혹은 창고 등에 한그릇씩 떠 놓는다.

한편 팔죽을 벽에다 뿌리는 습관이 있으니 이는 팔죽이 액(厄)을 막고 잡귀를 몰아 낸다는 속설이 유래한 것이다.

## 12. 설달 (十二月)

### 가. 납월 (臘月)

12 월을 설달 또는 납월이라 한다.

납(臘)은 엽(獵)이란 뜻으로서 사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옛날에는 이달에 산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 나. 제석 (除夕)

한 해의 마지막날인 12 월 30 일을 설달 그믐 또는 제석, 제야(除夜)라고 불

렀다.

이날은 빛과 외상값을 주고 받는 날이며 만약 이날 못 받으면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독촉을 하지 않는것이 습관이다.

#### 다. 구세배 (舊歲拜)

선달 그믐날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한해가 다 간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사당에 인사 올린 다음 집안 어른에게 인사드리는것을 구세배 또는 묵은 세배라 한다.

#### 라. 수세 (守歲)

선달 그믐날 밤에는 방에는 물론 창고나 부엌등 여러곳에 불을 밝혀 놓으니 이는 잡귀의 출입을 막는다는 뜻이다. 또 이날밤은 잠을 자지 않는 습관이 있다.

### 13. 윤달 (閏月)

윤달이란 한달이 더 있는 달로써 정상의 달이 아니다. 윤달에는 귀신이 쉬는 달이라해서 집안의 수리 또는 묘를 옮겨도 아무런 탈이 없는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 제 2 장 민속의례(民俗儀禮)

우리 조상(祖上)들은 부족(部族)중심에서 농경(農耕)사회에 이르기까지 토속신앙(土俗信仰)을 믿어 왔다. 그러나 이 신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멸(消滅)되고 변천하여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관습(慣習)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고려(高麗)와 이조(李朝)시대에 들어서 관. 혼. 상제(冠婚喪祭)의 4대 예(禮)는 정리 되었으나 유교(儒敎)에 바탕을 두고 있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서 선비들도 시비(是非)가 많았다. 여하튼 우리 선조들은 이와 같은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지니고 있었기에 스스로 동방예의지국(東邦禮儀之國)임을 자처(自處)했었고 또한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그렇게 일컬어 왔다.

그러나 뿌리 깊은 민속문화(民俗文化)는 이제 과학과 물질문명의 그늘에서 서서히 퇴색(退色)되어 가고 있다. 한편 1969년 1월 16일 법률 제 2079호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 따라 의식(儀式)과 경비등을 간소화(簡素化)시켰다.

편집자는 본고(本稿)에서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특히 이 지방에 전해 오고 있는 출생(出生), 관례(冠禮), 혼례(婚禮), 수연(壽宴),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켜왔던 관습(慣習)을 모아서 기술(記述)하고자 한다.

### 제 1 절 출생(出生)

인간이 자식(自息)을 원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理致)이다.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악(七去之惡-아내를 내쫓는 7가지의 이유)에 해당하였다.

출생 이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創造)하는 것으로서 산모(產母)는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몸가짐과 먹는 것을 지극히 조심했으며 태몽이라 하여 좋은 꿈을 꾸려고 애썼다.

부모들은 태어난 새 생명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총명(聰明)하게 기를것인가 하고 예나 지금이나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다만 현대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어린이의 건강을 미신과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을뿐 옛날의 부모나 오늘날을 사는 부모에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所望)은 다를 바 없기에 본

고(本稿)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자식을 낳아서 돌을 맞이 할때까지의 지성(至誠)을 살펴 보고자 한다.

## 1 . 태몽 ( 胎 夢 ) 과 태점 ( 胎 占 )

### 가. 태몽

산모(產母)가 산월에 꿈을 꾸면 경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들 딸로 구분한다.

- 아들—곰, 용, 호랑이, 사슴, 돼지, 토끼, 해, 고추, 과일, 콩, 옥수수, 망치, 은수저, 금비녀
- 딸—뱀, 학, 닭, 물고기, 꽃, 호박, 복숭아, 목화, 밤송이, 은술잔, 은비녀, 금반지, 새끼줄, 달, 구름.

### 나. 태점

음양법(陰陽法)에 의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49를 기본수에 임신했던 달의 수를 더하고(임신월이 3월이라면 49+3) 그 숫자에 임신부의 연령을 빼 다음 천(天-1), 지(地-2), 인(人-3), 사시(四時), 오행(五行), 육률(六律), 칠성(七星), 팔풍(八風)을 합한 수를 빼고 남은 수가 홀수일때는 아들이고 짝수일때는 딸이라고 점을 친다.

「例」: 18세의 여자가 12월에 임신했다면

$$(49+12) - 18 - (1+2+3+4+5+6+7+8) = 7 \text{ 이므로 아들이다.}$$

여기에서 기본수인 49는 어대다 근거를 두었는지 몰라도 49란 수는 불교계에서 존중하고 칠성은 도교 天, 地, 人, 四時, 五行등은 모두 음양·오행설로써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숫자가 동원된 것으로 보아 옛날 사람들은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란 사실주의 보다 대자연과 우주의 이치로 믿어 왔던 것이다.

## 2 . 삼신 ( 三 神 )

산모가 산기(產氣)가 시작되면 밤과국 세 그릇을 산실에 떠 놓고 삼신에게 안산을 기원한다.



여기에서 「三」은「胎」를 의미하여 삼신은 바로 태신(胎神)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 통행제한 ( 通行制限 )

산모가 출산을 마치면 대문에다 남녀의 표시(남자는 고추, 여자는 숯)를 한 금줄(인줄)을 쳐 놓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

### 4 . 작명 ( 作名 )

이름을 미리 지어두는 경우가 있으나 집안에 따라 21 일 혹은 100 일에 지어주기도 한다.

아들은 오행(五行)에 맞추어 행렬이 정해 있으므로 한자만 지으면 되고 딸은 곱고 부르기 좋게 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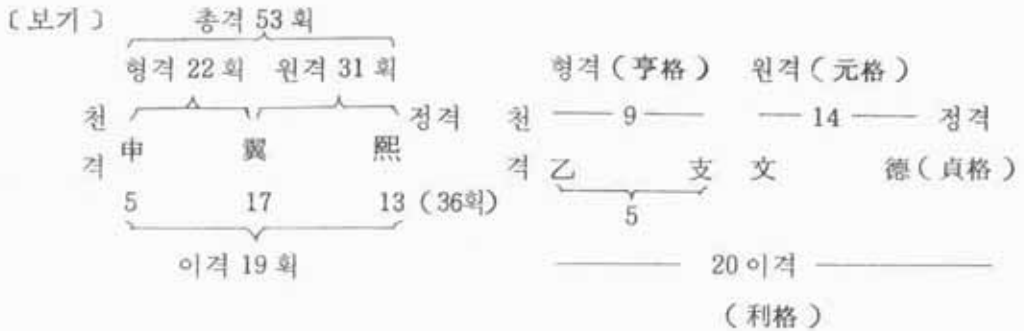
그러나 병으로 아이들이 잘 죽는 집안에서는 행렬에 따르지 않고서 어린시절에 부르는 이름으로 개똥이, 쇠똥이, 돼지, 바우등으로 천하게 지어서 무병을 소망했으며 딸을 많이 낳은 집안에서는 딸막이 딸구만 꼬리등으로 불렀다.

#### 가. 수리해설(數理解說)에 의한 성명(姓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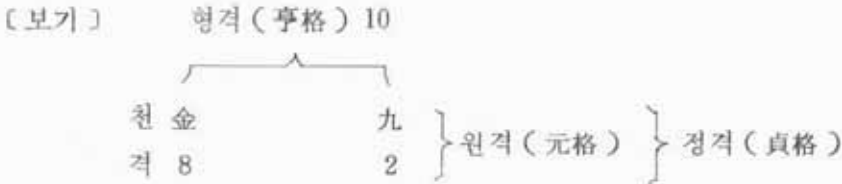
한자(漢字)는 그 획수(劃數)를 세는데 있어 일점(一點)일획(一劃)도 틀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一부터十까지의 숫자에서 七, 八, 九, 十은 그 획수가 2 획이지만 문자의 뜻을 풀이할때 七자는 7 이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7 획으로 八은 8 획, 九는 9 획, 十은 10 획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백(百), 천(千), 만(萬) 등은 기본 숫자라는 성질이 달라서 百은 6 획, 千은 3 획, 萬은 15 획으로 계산한다. 「彡」자는 3 획이나 실은「水」이므로 4 획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淑」자는 12 획, 「洙」자는 10 획으로 「卩」자와 「艸」은 6 획으로 「才」는 「彡」이므로 4 획으로 「卩」의 “左”는 8 획, 右는 7 획이며 「珠」「珣」등의 玉은 玉부이므로 玉이 5 획이나 11 획으로 계산한다.

성자(姓子)가 두자인 경우에는 성자의 획수를 합산하여 보기 때문에 한자의 성과 다름없이 수리(數理)를 계산 하면 된다.



외자 이름의 경우 성은 천격이고 형격은 외자 이름과 성이 되며 외자 이름은 원격이고 성만이 이격이다.



(1) 성명운 (運) 풀이

- 천격의 획수는 그 사람의 기본이 되는 운 (運) 을 말하고 형격의 획수는 일생을 지배하는 것으로 姓字인 천격이 토대운으로써 하늘을 뜻한다.
- 원격은 땅 (地) 을 뜻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이 형격으로서 이는 곧 자기 자신을 뜻하며 중년의 운을 말한다.
- 이격은 말년의 운을 뜻하며 가정 환경과 친구와 사회적인 활동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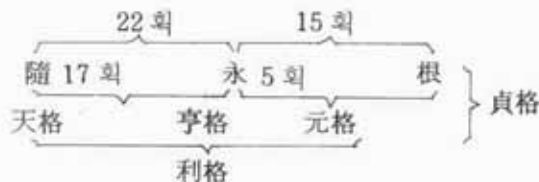
(2) 성명의 획수

姓과 行列은 이미 정해 있으므로 그 획수를 다음표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보기] 隨氏의 行列이 永자라하면 17 회 + 5 회 = 22 회이니

「표 1」에 의해 22 회보다 많은 수에서 빼고 남은 획수를 끝자로 고르면 된다. 또 行列자가 끝자일때는 가운데 글자를 정한다.

「표 1」의 상운의 상인 31 회에서 22 회를 빼면 9 회이니 9 회으로 이름에 많이 쓰이는 글자 즉 南자나 奎자 등이 좋다.



「표 1」 81 회수의 작명일람표

운 수 별	회 수
상운의상	1, 3, 5, 11, 13, 15, 21, 23, 31, 33, 37, 39, 41, 63, 65
상운의중	6, 7, 8, 16, 17, 18, 24, 25, 29, 45, 47, 48, 52, 57, 67
중 운	26, 27, 30, 38, 40, 42, 49, 51, 55, 71
중운의하	4, 42, 14, 23, 46, 50, 53, 59, 69, 72, 79
하 운	2, 9, 10, 19, 20, 28, 34, 36, 43, 44, 54, 56, 60, 62, 64, 66, 70

「표 2」 길운의 「형격수」 일람표

— “성”의 글자와 연결되는 “이름” 첫자의 길운 회수—

운 수 별 회 수	회 수				운 수 별 회 수	회 수			
	상운의상	상운의중	상운의하	중 운		상운의상	상운의중	상운의하	중 운
1 회	2 4 10 14 20 22	12 5 6 7 30 16 17 23	15 31 34 50 24	25 26 22 37 29 47	14 회	1 2 7 17 19 23	9 2 3 4 25 11 15 31	10 18 21 22 34 44 47	12 26 24
2 회	1 3 9 13 19 21	11 4 5 6 19 15 16 22	14 30 34 39 23	24 25 26 36 38 42	15 회	6 5 16 22 24 26	18 1 2 3 48 10 12 14	9 17 20 28 26 43 46 47	11 12 23 25
3 회	2 8 10 28 20 28	12 3 4 5 30 14 15 21	13 29 32 46 22	23 24 26 35 37 29	16 회	4 6 7 17 21 23	15 1 2 8 25 13 29 31	9 16 19 42 32 45 50	10 11 22 24
4 회	1 7 9 17 19 27	11 2 3 4 29 13 14 20	12 28 31 43 21	22 23 24 34 36 37	17 회	4 5 14 18 20 22	16 1 5 7 21 12 28 30	8 15 18 41 31 45 47	9 10 11 13 21 23
5 회	6 8 10 18 26 28	16 1 2 3 32 12 13 19	11 27 30 50 20	21 22 33 35	18 회	3 5 13 19 21 23	15 6 7 11 45 19 30 34	27 14 17 40 39 43 50	8 9 10 20 22 24
6 회	6 7 9 17 25 27	15 1 2 10 31 12 18 19	11 26 29 32 23 39	20 21 31 34 36	19 회	2 4 12 18 20 22	14 5 6 10 43 28 29 33	26 13 16 39 38 42 49	7 8 10 19 21 31
7 회	4 1 8 16 24 16	14 7 10 11 30 18 22 38	17 25 28 40 40	12 20 24 31 33 32	20 회	1 3 11 17 19 21	13 4 5 9 43 27 28 32	25 12 15 38 37 41 48	6 7 18 20 21
8 회	3 5 7 15 23 25	13 8 9 10 29 17 21 37	16 24 27 50 39	18 19 28 30 31 32	21 회	2 12 18 20 42	16 3 4 8 47 26 27 31	24 11 14 37 36 40 47	15 1 7 73 69 21
9 회	2 4 6 14 22 24	12 7 8 9 28 16 20 36	15 23 26 49 38	17 18 27 29 31 32	22 회	1 9 11 17 19 42	15 2 3 7 43 25 26 30	23 19 13 36 35 39 46	4 5 6 16 18 46
10 회	1 1 5 13 21 23	11 6 7 8 27 15 19 35	14 22 25 48 37	16 17 20 28 30 32	23 회	8 14 18 40 41	16 1 2 6 24 25 29	22 9 12 15 34 38 45	3 4 5 15 17 19
11 회	2 4 10 20 26 28	12 5 6 7 30 14 18 34	13 21 24 47 36 50	15 16 19 27 29 31	24 회	7 9 13 17 39 41	15 5 12 14 28 33	23 8 11 34 43 37 44	2 3 6 14 16 18
12 회	1 2 9 19 21 25	11 4 5 6 27 13 17 33	12 20 23 46 35 49	4 15 13 22 28 34	25 회	6 8 12 16 38 40	14 4 20 22 27 32 42	23 71 10 33 36 43 50	1 1 3 51 13 15
13 회	1 8 10 20 24 26	18 4 5 6 28 12 16 32	11 8 19 22 34 45 48 49	13 17 25					

○이름에서 잘 쓰지 않는 글자

글 자	富	星	笑	地	玉	月	光	日	雲	天	春	勝	童	壽	銀	龍	明	國	鐵	松	女	蘭	花	美	石	榮	冬	仁	川	吉	秋	芝	山	子	慶	成	德	福
회 수	12	7	10	7	4	4	6	4	12	4	8	12	12	14	16	8	11	2	8	3	23	10	9	5	14	5	4	3	6	8	7	3	3	10	8	10	14	
	비	박	불	재	쇄	불	박	불	산	불	박	실	하	불	불	불	반	조	불	불	불	고	히	불	불	불	불	박	고	불	박	하	고	가	과	고	박	박
	예	악	운	화	배	우	명	행	재	진	명	배	천	행	신	운	대	난	우	배	행	독	영	신	성	신	진	약	독	화	명	천	독	정	란	독	덕	약
	재	불	박	병	불	고	없	조	불	불	산	파	불	불	박	조	암	불	박	박	불	고	박	파	박	재	불	곤	조	불	불	곤	화	불	무	불	재	
	회	운	약	고	행	과	진	난	진	성	재	란	신	우	명	감	시	행	명	약	운	질	명	란	약	화	우	궁	난	우	우	궁	성	자	행	화		

나. 오행설 (五行說) 에 의한 성명 (姓名)

木火土金水의 오행에 의하여 이름을 짓는 방법이다.

「 표 3 」 五行의 相生相剋과 相比

相 生 (吉함)	相 剋 (凶함)	相 比 (나쁜運)
木 生 火 (木은火를生함)	木 剋 土 (木은土를剋함)	木 比 木
火 生 土	土 剋 水	土 比 土
土 生 金	水 剋 火	火 比 火
金 生 水	火 剋 金	金 比 金
水 生 木	金 剋 木	水 比 水

「 표 4 」 오행해설

五行	해 설		
木 性	어금니 소 리	ㄱ ㅋ	견실하고 독보적인 지반을 담아 성공한다. 자존심이 강하다.
火 性	헛소리	ㄴ ㄹ ㄷ ㅌ	명량하고 개치가 있으며 괴변성이 있다. 다소 경솔한 단점도 있다.
土 性	목구멍 소 리	ㅇ ㅎ	독실 은후하며 치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대성하는 침착한 성품이다.
金 性	잇소리	ㅅ ㅆ ㅈ ㅊ	용감 강인한 실천력으로 곤란을 극복하여 성공한다. 좀 냉정한 편이다.
水 性	입 술 소 리	ㅁ ㅂ ㅍ	사물에 입기 웅변하며 지모가 있으니 의심증을 가지고 있다.

「성명풀이 1」	金	榮	浩
	木	土	土……………(표 3)
	ㄱ	ㅇ	ㅎ……………(표 4)

金榮浩는 木土土로서 「표 3」에 의하면 木은 土를 翹하고 土는土를 比한다고 했으니 이 이름은 나쁘다.

「성명풀이 2」	林	光	鎬
	土	木	土……………(표 3)
	ㅇ	ㄱ	ㅎ……………(표 4)

林光鎬는 土木土로서 「표 3」에 의하면 土는 木을 生하지 않으므로 우선 좋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성명풀이 3」	趙	明	光
	金	水	木……………(표 3)
	ㅅ	ㅁ	ㄱ……………(표 4)

趙明光은 金水木으로서 「표 3」에 의하면 金은 水를 生하고 그 다음 水는 木을 生한다 했으니 이는 五行에 일치되므로 좋은 이름이다.

물론 앞서 수리해설(數理解說)에 의한 획수(劃數)의 운(運)도 좋아야 한다.

○이름에 많이 쓰이는 글자

一劃部：一乙

二劃部：二人卜丁又了力

三劃部：三上下大土土千子女丈寸凡与又己巳方久乞也干于之小山川弓口夕尸

四劃部：不中丹仁元文父夫天乏介以方木火水日月日云太犬井尹公功反午卞牛化昇孔  
王毛巴亢牙允刈勾勿卯双收夭壬少丈尺屯引弔心戶才手支斗久止母比氏片牛

今內斤丑

- 五劃部：丕且世丘丙丞王仔仕付仙他永甲正白外令可石充兄冬立功加北占卯司台只句  
右出刊包半去史古叫召叱央失奴字巨巧左市布平幼式弘弗必戊且本末札氏民  
玉王玄瓦生用田由申皮目矛禾示矢穴乎
- 六劃部：百年件交企伐合伏仲伍全共先北光兆再冲刑列印任同吏后向名吉回因地圭在  
多如好字存字安宅寺州壓池旬早旭三有机朱朴次打求汜禮竹羊羽老雨而耳肉  
臣自白舌舟艮行衣西丞
- 七劃部：亨位但何作伸佳佐佛仰伽兌況冷利初判助勞却呂吳君呈吟址均坊壯妙妥孝宋  
完宏尾局岐巡希序弟形志忍我成攻改壯更李杜材村杓杏汰汎池江汝汗每通甫  
町男兒秀究良見角言谷逐具車辛辰邑妥里延
- 八劃部：京享供來使侍佳信例依金其命兩典函券到協轟權取受叔味周坤坪夜奉奇始妹  
姐姓姉季孟宗宜定宙宛尙居岡岸岩岳宰底府庚店征忠快念所技扶折抄把承把  
政於易昨旺明昇吳昌昔東枝松查果林杰欣武亞玟直社長門兩青
- 九劃部：冠前則勇勉勁府南卽盾品哉奎拓姬威姪姜宜度建彥律怡思性拓招抱施是春昭  
映星昱昂柱柄柔柳咸查始治泰泉沿沼河波泳法炳炯玫玊癸皆省相盾新紅紀美  
盈表計貞革軍重首香亮亭信
- 十劃部：倫俟俸倉倚值個修淮剛原哲城夏紛娘孫容官帝家峰島師座庭徐徑恩時普昶書  
特員俱株桂栽根桐桃校栗殊股洪洙洋洲活唐烈炯津益眞祚祖砲泰純紋翁耕  
藝芝芥花芳記訓財起馬骨高
- 十一劃部：偉健動卿參啓商國基培堅寅宿專將崇崔岡常庸康庵強彩雪魚鳥得吾教試乾  
幹晚皓哲晨畫望梧梁梅浦浚浪珪珠班珀產祥章第符逸翊胡亂苑英茂許邦郎  
偶停颯勘慰張背近迎
- 十二劃部：然理榮傳喜喆園堯勝舜富壽幾弼婉循復惠敦朝期植棟深淡淵現球異皓盛荀  
草象貴賀質述閱院雄集雲黃智晉晶晴景惟惜惠措採授清登發程龍竣統給能  
順問項荀筆
- 十三劃部：備傳勞動森幹意愛感揮敬新會楚楊楓楠極業椿歲湧湖渡湘煜煥照美琦琶瑟  
琴當盟督祿聖莊號詩詮資路載農郁鉉鈴鈺園義經祿阿雉賈豐解詳衛莫肅群  
握提換傳
- 十四劃部：壽瑜寧實慈愼監榮浴溪準益溥瑞瑄芴瑛福順種箕管精維綱與萃華刑誠誘豪  
資趙輔逢道連銀銑銘闈領鳳壽夢境競彰欄槍滋滄態認熏燭腕齊襄

- 十五劃部：樂梁許漫滿漢演範棟興萬葉葛賢贊進逸郭震魯慶調賦儀價億墨嬉寬廣廠  
彰徵德慮慧慕落
- 十六劃部：儒學憲疆憬愷機樹潤晚翰燕潭潔蓋蒼諸運道達都鋼錫陸陳默龍進然翰衛障  
遂錄陪陵陶
- 十七劃部：彌應檀憶變營燦禧總義策蔡遠鍾韓陽駿鮮臨賞優
- 十八劃部：伏濟濠濯熾環禮翼鎔謨顏騎燕
- 十九劃部：麗願韻贊徹羅鄭
- 二〇劃部：嚴寶鐘覺遇孃翰
- 二一劃部：藝鐸欄隨響櫻爛鶴
- 二二劃部：隱權鑑鑄攝邊
- 二三劃部：闌顯鏡隣
- 二四劃部：靈瓊
- 二五劃部：觀

## 5 . 삼일 ( 三日 )

산모는 아침 일찍 목욕하고 어린이도 매를 벗기고서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배래저고리를 입힌다.

## 6 . 이레 ( 七日 )

생후 7일째 되는 날을 첫 이레라고 한다.  
새옷으로 갈아 입히고 한쪽손을 밖으로 내 놓는다.

## 7 . 삼칠일 ( 三七日 )

세이레 ( 21 일 ) 되는날 비로소 아래위의 옷을 갖추어 입히고 몸을 자유롭게 한다.  
산실의 모든 금기 ( 禁忌 ) 가 해제되고 대문의 금줄도 철거하며 산모는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산실은 개방하여 친척과 이웃이 모여서 어린이를 대면하고 축하해 준다.

## 8 . 백일 (百日)

백일을 맞이하여 성숙된 어린이를 축하해 주는 날이다.  
 옛날에는 오래 살아라는 뜻으로 백쪽저고리 (백쪽으로 만든 옷)를 입히기도 했다.  
 친척과 이웃들은 어린이에게 선물하고 건강을 축하해 주었다.  
 백일떡을 이웃에 돌리면 그 그릇에다 돈, 쌀, 실등을 넣어서 답례하는 풍습이 있다.

## 9 . 돌잔치

### 가. 돌잡히기 (試晬試兒試用)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큰 상을 받는다.  
 돌삼에는 쌀, 국수, 대추, 활 (여아는 바늘 가위)자, 책, 청실, 홍실, 붓, 벼루  
 무명필등을 놓고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집도록 유도하여 장래의 운수를  
 점치는 것으로써 이를 돌잡히기 (돌잡이)라 한다. 이때 집은 물건이 돈일때는 복  
 (福)이 많고 실은 오래 산다는 뜻이며 활은 영웅, 문방구는 문필대가로 예언했다.



### 나. 옷차림

- 아들 - ①엷은 가지색 바지에 연두색 저고리 ②남색조끼와 연두색 마고자 ③분홍 두루마기에 남색 금박의 다홍띠 ④검은색 복권 ⑤누비버선 (코에는 수를 놓음) ⑥수주머니



- 딸 - ①노란 단속곳에 다홍(혹은 진분홍)치마 ②노란 갓 호장 저고리 ③남색 배자 ④수놓은 작은 염장과 여러가지 노리개(장도) ⑤은괴물 북뿔(은에다 칠보조 칠한 것) ⑥금박조바위 ⑦오복주머니

## 제 2 절 관례 (冠禮)

관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4예(禮)중 하나로서 성년례(成年禮)를 뜻하며 옛날에는 남자의 땡기머리는 상투머리로 올려주고 여자의 머리는 쪽을 쳐 주었다.

문헌에 의하면 966년(고려光宗16년)에 왕자 유(柚景宗)의 원복례(元服禮)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반적인 관례는 이조(李朝)에 들어서부터 성행 되었으며 관례를 거치지 않고는 결혼을 못했었다.

관례란 미성년 즉 소년 소녀가 청년 처녀로서 성년이 되었음을 본인에게 인식시켜주고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이다.

관례의 의식은 복잡하고도 엄숙했으며 성년이 된것을 축하해 줌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 주고있다.

민법 제 4 조에 의하면 “滿 20 歲로 成年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젊은이들 성년이 되면 법적행위능력을 취득하게 되고 그밖에 여러가지의 자격을 갖게 된다.

### 1 . 관례 (冠禮)

#### 가. 관례의 연혁(沿革)

관례란 관(冠)을 쓰는 예제(禮制)이며 성년례(成年禮)라고도 한다.

고려와 이조시대에는 관례를 마쳐야 결혼을 할수 있었으며 1920(日帝時代)년 대 까지만 해도 이지방에서 성년례가 지속되었다.

근래에는 5월 18일을 성년의날로 정하고 해마다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년식을 베풀어주고 축하와 아울러 어른이된 책임감을 느끼게 해 주고있다.

#### 나. 관례의 시기(冠禮의 時期)

고려시대와 이씨조선 초기에는 동자동녀(童子童女)의 나이 15-20세 사이에

이투어졌으나 이조 중엽부터 결혼을 일찍하는 습관이 있어 관례역시 자연히 빨라져서 10 세 전후에 치루기도 했다.

관례일 (冠禮日)은 해당 가정에서 대개 정월중에 택일하여 시행하였다.

#### 다. 고유 (告諭)

관례일 3일전에 관례자의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부재시 형, 본인)가 사당에 그 뜻을 고한다.

##### ◦ 관례고사축 (冠禮告辭祝)

유세차 태세 몇월 몇일삭 일진 효현손 이름 감소고부  
 維歲次 ○○ 〇月 〇〇朔 〇〇 孝玄孫 ○〇 敢昭告于

현고조고학생부군  
 顯高祖考學生府君

현고조비 유인 본관 성씨  
 顯高祖妣 孺人 ○○ 〇氏

(아버지이름) (이름) 연천 장성 장이 몇월 몇일  
 ○〇之字 ○〇 年漸長成 將以 〇月 〇日

가관어기수 근이 주과용신 진고근고  
 加冠於其首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

「해석」 ○〇년 ○월○일에 현손○〇은 삼가 묘위 (廟位)에 감히 고하나이다.

○〇의 아들 ○〇이 나이 점차 장성하여 이제 곧 관례를 치루워야 하기에 주과를 올리고 이를 삼가 고하나이다.

#### 라. 주례 (主禮)

관례식을 주도할 주례는 덕망이 있는 친척이나 친구중에서 요청하며 이를 계빈 (戒賓: 주례를 칭하다)이라 한다.

#### 마. 관례준비물 (冠禮準備物)

- ① 체일 ② 병풍 ③ 자리 3개 (賓席, 冠者席, 醮席) ④ 대야 2개 ⑤ 술잔 2개
- ⑥ 수건 2개 ⑦ 탁자 3개 ⑧ 치포관 (縹布冠 - 백지를 두겹게 몇겹 붙여서 만든冠)
- ⑨ 무 (武 - 치포관을 쓰면 이마 닿는 곳에 고리모양으로 만든것으로 그 길이는 머리 둘레를 기준으로하여 높이는 1촌 가량됨) ⑩ 비너 (笄 - 치포관을 쓴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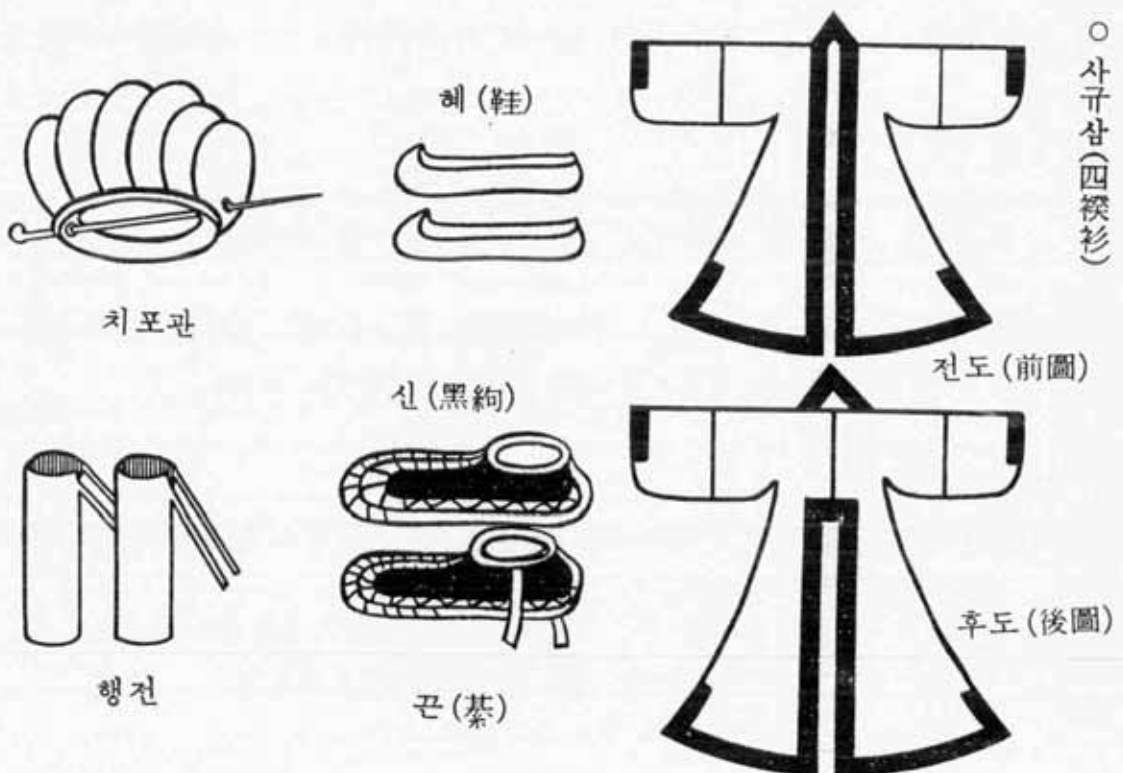
꽃음) ⑩ 폭건(幅巾) ⑪ 심의(深衣) ⑫ 큰띠(大帶 - 심의를 입고 그 위에 두르는 띠) ⑬ 수조(修組 - 큰띠를 두르고 이끈으로 맨다) ⑭ 신(履) ⑮ 모자(帽子) ⑯ 조삼(早衫) ⑰ 혁대(革帶 - 조삼위에 매는 띠) ⑱ 해(鞋 - 가죽신) ⑳ 복두(幘頭 - 두건의 한가지로 사모와 비슷함) ㉑ 난삼(欄衫)과 그띠 ㉒ 빗(櫛) ㉓ 약(掠 - 망건처럼 머리를 싸는것) ㉔ 소반(盤) ㉕ 포혜(脯醢) ㉖ 각사(角柶 - 모양이 수저 비슷함) ㉗ 술병과 잔 ㉘ 술잔대

#### 바. 관례절차(冠禮節次)

##### (1) 서립의(序立儀)

- 가족 또는 친척중 한사람이 대문밖에서 서쪽을 보고 서 있다가 손님을 안내한다.
- 주례가 식당에 도착하면 주인은 식당의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서며 가족과 친척들은 그 뒤에 두줄로 선다.

### 관례(冠禮)의 준비품



- 관례자는 쌍곡(雙髻 - 머리를 쌍상투 모양으로 둥글게 묶음)을 들고 사규삼(四揆衫)을 입으며 행전을 치고 채혜(綵鞋)를 신고서 남쪽을 보고 선다.
- 관례자가 큰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가 그 오른쪽에서 선다.

(2) 시가(始可 - 初加)

- 주례가 관례자에게 읍하고 서쪽을 향하여 자리에 앉히면 찬자(贊者 - 주례 보조인)는 빗과 약(掠)을 가져와서 자리의 원편에 놓고 관례자의 오른쪽에 같이 꿇어 앉는다.
- 찬자는 관례자의 머리를 빗기고 약(掠 - 網巾)을 씌운다.
- 집자(執者)가 관건(冠巾)을 들고 서계(西階)의 일층에서 올려주면 주례는 한계층 내려가서 이를 받아 관례자에게 관을 씌운 후 축(祝)을 읽는다.
- 관례자에게 관을 더하고 찬자가 대(帶)를 매어준다.
- 관례자는 사규삼(四揆衫 - 童子服)을 벗고나서 심의대대(深衣大帶)를 한 다음 신을 신고 단정히 선다.
- 관례자가 딸아들일때는 주례가 읍하고 자리에 앉게하고서 주례가 세수한다.

◦ 시가축(始加祝)

길월영일 시가원복 기이유지 순이성덕 수고유기 이개경복  
 吉月令日 始加元服 棄爾幼志 順爾成德 壽考維祺 以介景福

<해석> 길한달 좋은날에 비로소 원복을 입히노니 너의 어린 뜻을 버리고 성인의 덕을 순하게 함으로서 오래 살며 큰 복 받기를 비노라.

(3) 재가(再加)

- 주례는 관례자에게 읍하고 자리위에 앉힌다음 세수하고 올라오면 주인은 읍하고 제자리에 선다.
- 집사가 주례에게 모자를 주면 주례는 2층에서 받아 관례자에게 씌우고 재가축을 읽는다 이때 보조인은 먼저 관건(冠巾)을 걷는다.
- 보조인은 모자의 끈을 매어 주고 원위치에 선다.

- 관례자는 방에 들어가 심의(深衣)와 신을 벗은 다음 조삼(阜衫)을 입고 혁대(革帶)를 띠고 혜(鞋)를 신고 식장에 들어와서 시가매의 위치로 돌아간다.

◦ 재가축(再加祝)

길월영신 내신이복 근이위의 숙신이덕 수수영년 향수하복  
吉月令辰 乃申爾福 謹以威儀 淑慎爾德 壽壽永年 享受遐福

〈해석〉 길한달 좋은때에 너의 옷을 입힌다. 너는 위의를 삼가하고 덕을 맑게 하여 오래 살되 영원토록 복을 누리기 바란다.

(4) 삼가(三加)

- 주례는 재가 때와 같이 세수한다.
- 집사가 복두(幘頭)를 주면 주례는 서계(西階)로 내려가 반아서 자리에 나가 관례자에게 씌우고 삼가축(三加祝)을 읽는다.
- 집사는 모자 등을 걸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간다.
- 관례자는 방에 들어가 조삼(阜衫)을 벗은 다음 난삼(欄衫)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식장에 나와서 선다.

◦ 삼가축(三加祝)

이세지정 이월지령 함가이복 형제구재 이성권덕 황기무강 수천지경  
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俱在 以成厥德 黃耆無疆 受天之慶

〈해석〉 이해 정월 좋은달과 날에 너의 옷을 다입히노니 형제가 다 있는 가운데 그 덕을 이루고 머리가 누렇게 되도록 오래 살며 하늘에서 내린 경사를 영원토록 받으라.

사. 내초(乃醮)

- 주례가 식장의 중간 서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남쪽을 보고 편다.
- 찬자(보조인)는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떠서 사(柶)를 나란히 해서 방 밖으로 나와서 서향하고 주례에게 드린다.
- 주례는 술잔을 받아 그자리에서 북향(北向)하고서 초례축(醮禮祝)을 읽는다.
- 관례자는 재배(再拜)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南向)하고서 잔을 잡으면

주례는 제 자리로 돌아가 동향(東向) 답배(答拜)한다.

- 관례자는 왼손으로 잔을 잡고 오른손으로 포해(脯醢)를 잡고 자리앞 빈 자리에 놓는다. 그다음 자리 끝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술을 약간 마시고 물러난다.
- 집사는 잔대와 포해 등을 걷은후 방안으로 들어간다.
- 관례자가 남향재배하면 손님은 동향재배한다.
- 관례자가 찬자에게 절하면 찬자는 동향재배한다.

◦ 초례축(酬禮祝)

지주기청 가천령방 배수제지 이정이상 승천지휴 수고불망  
旨酒既清 嘉薦令芳 拜受祭之 以定爾祥 承天之休 壽考不忘

<해석> 맛있고 맑은 술을 꽃다운 너에게 권한다. 절하고 받아서 제사를 지내어 상서로운 일을 정하고 하늘이 내리는 아름다움을 이어 받아 오래살면서 잊지 말기 바란다.

아. 자관자(字冠者)

주례가 서계(西階)로 내려가 그앞에 동향하고 주인은 서향하며 관례자도 서계로 내려가서 주례의 약간 동쪽에서 남향하고 있으면 주례 혹은 손님중에서 관례자에게 자(字)를 지어주고 주례는 축을 읽는다. 이로써 관례는 끝나고 모두 식장을 퇴장하며 이를 내퇴(乃退)라 한다.

◦ 자관자축(字冠者祝)

예의기비 영월길일 소고이자 원자공가  
禮儀既備 令月吉日 昭告爾子 爰字孔嘉

모사유의 선지우하 영수보지  
髦士攸宜 宜之于殿 永受保之

<해석> 예의를 이미 갖추었기에 좋은달 길한날에 너의자(字-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를 맑게 짓는다. 글자가 매우 아름다워 뛰어난 선비의 자로 알맞고 너의 복에도 적당하니 받아서 영원히 보존하여라.

자. 사당현알(祠堂見謁)

- 아버지는 관례자와 사당에 가서 인사 올린다.
- 관례자는 부모의 방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북향재배하고 가까운 친척 어른

들에게 인사 드린다음 아래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다.

◦ 사당 현알축(祠堂見壽祝)

모지자 (이름) 금일관필 감현  
某之子 ○○ 今日冠畢 敢見

## 2 . 계례 (笄禮)

### 가. 계례의준비 (笄禮準備)

- 여자나이 15 세가 되면 비록 정혼하지 않았어도 계례즉 처녀가 처음으로 비녀를 꽂는 의식으로서 이지방에서는 이조말까지 전례해 왔었다.
- 친척중에서 예의 범절이 밝은 부인을 주례로 정하고 3일전에 알린다.
- 준비
  - ① 시자(侍者) ② 탁자 3개 ③ 관(冠-중국의 鳳冠이며 흔히 華冠이라 함) ④비녀(笄) ⑤ 사(纒-길이 6尺 가량의 검은 비단으로서 이를 걸쳐 이마에 둘러서 쪽<남자>에 매는것) ⑥ 배자(背子-길이는 치마와 같고 두섵<對衿>이 직선으로 끝까지 달려있고 옆을 타 놓았으며 둥근 소매 혹은 반소매 또는 소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⑦ 쟁반(盤) ⑧ 술병 ⑨ 술잔 ⑩ 대야

### 나. 서립의 (序立儀)

- 주부는 관례때와 같이 주인의 위치인 조계하(阼階下)에서 서쪽을 보고 서 있고
- 계례자는 머리를 두 갈래로 하여 붙이고 방안에서 남쪽을 보고 서 있다.

### 다. 영 빈 (迎賓)

- 주례가 도착하면 주부는 조계로 오르고 주례는 서계로 올라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주부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주례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선다.
- 시자(侍者)는 동계(東階) 위쪽에 자리를 펴고 남향하여 선다.

라. 과관계 (加冠筓)

- 계례자가 방에서 나오면 시자가 빗을 자리의 왼쪽에 놓는다.
- 주례가 계례자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서양하고 자리에 앉게 한다. 이때 시자는 서향하여 꿇어 앉아서 계례자의 머리를 빗기고 쌍곡(雙鬪 - 쌍상투 모양으로 둥글게 함)을 하여 준다.
- 주례와 주부는 세수하고 올라와서 정좌(定座)하면 시자가 관계(冠筓)를 주례에게 건네주고 주례는 계례자에게 관계 즉 비녀를 꽂아 주고 축을 읽는다.
- 계례자는 방안으로 들어가서 배자(背子)를 입고 나온다.
- 축은 관례의 시가축, 초례축, 자축과 같으나 다만 자사(字辭)에 있어 모사(髦士)라는 두자를 여사(女士)로 고칠뿐이다.

마. 내초 (乃醮)

- 시자가 술잔을 들고 계례자의 왼쪽에 서면 주례는 계례자에게 읊하고 자리로 인도한다.
- 계례자가 사배(四拜)하면 주례는 이에 답배한다.
- 계례자는 꿇어앉아 시자가 주는 술을 조금 마신후 또 네번 절한다.

바. 내자 (乃字)

- 주례와 주부가 함께 내려가서 주부는 동쪽에 주례는 서쪽에 선다.
- 계례자가 서계(西階)로 내려가 남향하면 주례가 자(字)를 지어주고 축을 읽는다.
- 계례자는 사배(四拜)하고 이때 주례는 답배하지 않으며 다른곳에 가서 선다.

사. 사당일현 (祠堂謁見)

- 사당 일현의 절차는 앞의 관례배와 같다. 다만 아버지가 아닌 주부가 계례하는 딸을 데리고 가서 참배한뒤 다음과 같이 축을 읽는다.
- 사당 현알축 (祠堂見謁祝)

모 지제 (몇째) 딸    금 일 계 필    감 현  
 某之第 ○ 女    今日筓畢    敢見



### 제 3 절 혼례 (婚禮)

혼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의 4례(四禮) 가운데 하나로써 가장 심스럽고 경사스러운 의식이다.

어떤 철인(哲人)은 결혼을 두번째의 태어남이라고 했다.

결혼식장은 서로 다른 심성(心性)을 가지고 각기 다른 환경속에서 자라왔던 두사람이 결합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하면서 미래에 도전(挑戰)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자는 약속(約束)의 장(場)이라 할수있다.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중대한 혼례식이기 때문에 너무도 엄숙하게 거행 되었으며 또 혼례가 이루어질때 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복잡했다. 그러나 결혼대상자의 의견은 전혀 무시(無視)된채 집안끼리의 만남이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맺어준 인연(因緣)이라하여 고을건 미움건 이상(理想)이 맞건 안맞건 참고서 평생을 같이 했다. 더구나 여자들에게는 하늘천(天)자의 위를 뚫고 솟아있는 글자가 지아비부(夫)자이니 그야말로 남편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유교사상(儒敎思想)의 지배하에서도 아무런 불평없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살아오셨던 우리들 할머니였으니 이를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 또는 동양의 미덕(美德)이라고 일컬어 왔던것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쉽게 만나서 쉽게 갈리는 것을 보면 결혼이란 일생에 단 한 번이란 개념(概念)이 어느듯 우리 생활 주변에서 퇴색(退色)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예식장에서의 간소화된 결혼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일부 젊은이들이 구식 결혼식을 선호하고 있기에 본고(本稿)에서는 구식결혼과 현대식 결혼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I. 구식결혼 (舊式結婚)

### 1. 의혼 (議婚)

#### 가. 궁합 (宮合)

〈編輯註〉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궁합이 맞아야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그 풍습(風習)은 지금도 잔존(殘存)하고 있다.

궁합이란 남녀의 사주(四柱-생년월일)를 근거로 하여 성혼(成婚)에 대한 운수를 예언(豫言)하는 것이다.

궁합을 보는 방법(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강 남녀의 생년(生年)과 생월(生月)을 맞추어 보고 혼인의 가부(可否)를 결정하며 이는 출생년도의 간지(干支)만 알면 누구나 쉽게 알수있다.

#### (1) 상생상극론 (相生相剋論)

상생과 상극은 육십갑자의 납음(六十甲子納音)에 의하여 남녀의 생년(生年·干支)을 맞추어서 구분하는 방법이다.

납음(納音)이란 육십갑자를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 등 다섯가지의 음(音)으로 나누어서 이를 다시 육십갑자에 배정하여 오행(五行-金木水火土)으로 나타낸것을 의미한다.

궁합을 보는 방법은 다음의 납음표(納音表)와 같이 육십갑자에 각각 오행이 표기(標記)되어 있으니 남자가 태어난 해의 간지 오행과 여자가 태어난 해의 간지 오행을 맞추어보면 아래와 같이 상생과 상극으로 구분할수 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  
·상생(相生) :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水生木

(예) 남자가 甲子生이면 오행이 「金」이요, 여자가 庚午生이면 오행이 「土」이니 「土生金」으로서 상생관계로 좋으며 이때 남자가 庚午生이고 여자가 甲子生으로 바뀌어도 물론 좋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수

◦ 상극(相剋) :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예) 남자가 甲子生이면 「金」이요 여자가 戊辰生이면 「木」이니 「金剋木」에 해당하므로 상극관계이며 이때 남녀의 간지가 서로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 육십갑자의 남음표(六十甲子納音表)

간 지 (干支)	오 행 설 (五行說)	간 지 (干支)	오 행 설 (五行說)	간 지 (干支)	오 행 설 (五行說)
甲子(갑자) 乙丑(을축)	海中金(해중금)	丙寅(병인) 丁卯(정묘)	爐中火(노중화)	戊辰(무진) 己巳(기사)	大林木(대림목)
庚午(경오) 辛未(신미)	路傍土(노방토)	壬申(임신) 癸酉(계유)	劍鋒金(검봉금)	甲戌(갑술) 乙亥(을해)	山頭火(산두화)
丙子(병자) 丁丑(정축)	潤下水(간하수)	戊寅(무인) 己卯(기묘)	城頭土(성두토)	庚辰(경진) 辛巳(신사)	白蠟金(백납금)
壬午(임오) 癸未(계미)	楊柳木(양류목)	甲申(갑신) 乙酉(을유)	泉中水(천중수)	丙戌(병술) 丁亥(정해)	屋上土(옥상토)
戊子(무자) 己丑(기축)	霹靂火(벽력화)	庚寅(경인) 辛卯(신묘)	松柏木(송백목)	壬辰(임진) 癸巳(계사)	長流水(장류수)
甲午(갑오) 乙未(을미)	沙中金(사중금)	丙申(병신) 丁酉(정유)	山下火(산하화)	戊戌(무술) 己亥(기해)	平地木(평지목)
庚子(경자) 辛丑(신축)	壁上土(벽상토)	壬寅(임인) 癸卯(계묘)	金箔金(금박금)	甲辰(갑진) 乙巳(을사)	覆燈火(복등화)
丙午(병오) 丁未(정미)	天河水(천하수)	戊申(무신) 己酉(기유)	大驛土(대역토)	庚戌(경술) 辛亥(신해)	鉞釧金(차천금)
壬子(임자) 癸丑(계축)	桑石木(상석목)	甲寅(갑인) 乙卯(을묘)	大溪水(대계수)	丙辰(병진) 丁巳(정사)	沙中土(사중토)
戊午(무오) 己未(기미)	天上火(천상화)	庚申(경신) 辛酉(신유)	石榴木(석류목)	壬戌(임술) 癸亥(계해)	大海水(대해수)

◦ 상생 상극론해설(相生相剋論解說)

五行說 (오행설)	해	설
男金女金	용변화어 龍變化魚	○ 용이 변해서 고기가 된다. △ 평생 이익이 없으니 서로 동거하지 못한다.
男金女木	유어선수 遊魚先水	○ 노는 고기가 물을 잃는다. △ 부모자손이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
男金女水	사마득태 驢馬得馱	○ 네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에 짐이 얻어지다. △ 자손이 많고 효도하며 영화를 누린다.

五行說 (오행설)	해	설
男金女火	수마중대 瘦馬重駄	○ 병든 말이 무거운 짐을 얻은 형상이다. △ 이별하기 쉽고 자손 기르기가 어렵다.
男金女土	선득토목 仙得土木	○ 신선이 흙과 나무를 얻었다. △ 부귀하고 자손이 많으며 명예를 떨친다.
男木女金	와우부초 臥牛負草	○ 누어 있는 소가 풀을 씹어지다. △ 남편을 사별하며 평생 근심한다.
男木女木	주실계견 主失鷄犬	○ 닭과 개를 잃어버리다. △ 처음은 부자이나 말년은 병중에 있고 가난해진다.
男木女水	조변성옹 鳥變成鷹	○ 새가 매로 변하다. △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은 벼슬을 얻는다.
男木女火	삼하봉선 三夏逢	○ 더운 여름에 부채를 얻었다. △ 평생을 동락하고 자손도 많으며 선인의 칭호를 얻는다.
男木女土	입동재의 入冬裁衣	○ 겨울을 맞이해서 비로소 옷을 만든다. △ 부부의 금슬이 안 좋으며 친척간에도 화목하지 못하다.
男水女金	삼객봉제 三客逢弟	○ 삼객이 동생을 만나다. △ 부귀 다남하고 친척과 화목하다.
男水女木	교변위룡 蛟變爲龍	○ 상어가 용이 되다. △ 부귀 장수하고 자손이 왕성하다.
男水女水	병마봉침 病馬逢針	○ 병든 말이 바늘을 만나다. △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자손이 번창하며 재물이 많다.
男水女火	화락봉서 花落逢暑	○ 꽃이 지고 여름을 만나다. △ 부부애가 없고 자손은 불효하며 손재가 많다.
男水女土	만물봉상 萬物逢霜	○ 만물이 서리를 만나다. △ 상부(喪夫)하고 불효하며 재물이 없다.
男火女金	용실명주 龍失明珠	○ 용이 여의주를 잃다. △ 자손과 재물이 없고 부부간에 불화하다.
男火女木	조변성학 鳥變成鶴	○ 새가 학으로 변하다. △ 부귀 영화를 누리고 위아래가 화목하다.
男火女水	노각도교 老脚渡橋	○ 늙은이가 다리를 건너다. △ 부부간에 불화하고 손재가 많아 파산된다.
男火女火	용변위어 龍變爲魚	○ 용이 고기로 변하다. △ 두분이 만났으니 서로 다투고 재산도 없으며 재앙이 많다.
男火女土	인변성선 人變成仙	○ 사람이 신선으로 변하다. △ 불과혹이 만났으니 장수하고 자손도 많으며 출세한다.
男土女金	조변성옹 鳥變成鷹	○ 새가 매로 변하다. △ 부귀 영화를 누리고 높은 벼슬을 얻는다.
男土女木	고목봉수 枯木逢秋	○ 고목이 가을을 만나다. △ 쇠졌고 감옥에 가며 재물이 없다.
男土女水	음주비가 飲酒悲歌	○ 술을 마시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 자손이 적고 고독하며 재물이 흩어지다.

五行說 (오행설)	해설	
男土女火	어변성용 魚變成龍	○ 고기가 용으로 변하다. △ 부귀 다남하고 장수하며 경사스러운일이 많다.
男土女土	개화만지 開花滿枝	○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다. △ 부귀 공명하고 장수하며 자식의 효를 받는다.

### (2) 오행 상극중상생법 (五行相剋中相生法)

상극가운데 다음과 같이 통변(通變)의 도(道)로 상생할수 있다.

사중절봉 沙中劍鋒「金」, 逢「火」喜成形	사중의 검봉금은 불을 만나므로 기쁘게 그릇을 이룬다.
벽력산하 霹靂山下「火」, 得「水」福祿榮	벽력화와 산하화는 물을 얻어야 복록 영화를 얻게된다.
평지일수 平地一秀「林」, 無「金」不就榮	평지에 수기가 있는 나무는 금이 아니면 영화를 누릴수 없다.
하중대역 河中大驛「土」, 非「木」誤平生	하중 대역 흙은 나무가 아니면 평생을 그르친다.
천하대해 天河大海「水」, 遇「土」自然亨	천하 대해수는 흙을 만나야 자연스럽게 형통된다.

### (3) 남녀원진구기 (男女元辰拘忌)

다음 표와 같이 결혼하면 이별 또는 사별한다는 설(說)이다.

간지(干支:띠)	해설	
쥐(子)와염소(未)	서기양두각 鼠忌羊頭角	○ 쥐는 염소머리의 뿔을 싫어한다.
범(寅)과 닭(酉)	호형계취단 虎嫌鷄嘴短	○ 호랑이는 닭의 부리가 짧음을 미워한다.
용(辰)과 돼지(亥)	용증저면흑 龍憎豬面黑	○ 용은 돼지의 검은 얼굴을 미워한다.
소(丑)와 말(午)	우진마불경 牛噴馬不耕	○ 소는 말이 밭갈이 하지 않는것을 노여워한다.
토끼(卯)와원숭이(申)	토한후불평 兎恨猴不平	○ 토끼는 원숭이 같이 생기지 않은것을 후회한다.
뱀(巳)과 개(戌)	사경견한성 蛇驚犬恨聲	○ 뱀은 개가 짖는 소리에 놀란다.

(4) 합혼폐개설 (合婚閉開說)

다음표와 같이 여자가 태어난해 (干支)와 나이를 대조하여 대개 (大開 - 좋음) 반개 (半開 -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음) 폐개 (閉開 - 이별하기 쉽고 나쁘다)로 구분하여 그해의 나이가 폐개년에 해당할때는 결혼을 삼가하는 풍습이다.

구분 \ 간지	子 午 卯 酉 生	寅 申 己 亥 生	辰 戌 丑 未 生
대 개	14 세 . 17 세 20 세 23 세 26 세 29 세	13 세 16 세 19 세 22 세 25 세 28 세	12 세 15 세 18 세 21 세 24 세 27 세
반 개	15 세 18 세 21 세 24 세 27 세 30 세	14 세 17 세 20 세 23 세 26 세 29 세	13 세 16 세 19 세 22 세 25 세 28 세
폐 개	16 세 19 세 22 세 25 세 28 세 31 세	15 세 18 세 21 세 24 세 27 세 30 세	14 세 17 세 20 세 23 세 26 세 29 세

(5) 혼삼재설 (婚三災說)

다음표와 같이 싫어하는 띠 (干支)끼리 결혼하면 사별 (死別)하거나 질병이 많으며 중도에서 좌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것으로 믿고 있으며 다만 혼삼재의 경우라도 오행이 상생하면 좋은것으로 풀이한다.

생년 (生年 : 干支 : 띠)			싫어하는 띠 (干支)		
범띠 寅	말띠 午	개띠 戌	쥐띠 子	소띠 丑	범띠 寅
돼지 亥	토끼 卯	양 未	닭 酉	개 戌	돼지 亥
뱀 巳	닭 酉	소 丑	토끼 卯	용 辰	뱀 巳
원숭이 申	쥐 子	용 辰	말 午	양 未	원숭이 申

(6) 월별불혼설 (月別不婚說)

다음표의 생월 (生月)끼리 결혼하면 이별하기 쉬운것으로 알려져 왔다.

남자의 생 월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여자의 생 월	6월	3	5	1:10	8	1:7	11	12	10	1:4	2	5

#### 나. 매 파 (媒婆)

- (1) 혼기에 처한 아들의 집안에서는 매 파를 시켜서 처녀의 용모와 성품 그리고 집안 내력을 미리 살펴보고서 합당하면 청혼한다.
- (2) 청혼을 받은 규수댁에서도 매 파로 하여금 신랑 될 사람의 인격과 학식 그리고 가통 (家統) 등을 알아보고서 마땅할때는 허혼 (許婚) 하게 된다. 이때 남자의 집에서는 정식으로 청혼서를 보내고 여자집에서는 허혼서를 보내며 이를 의혼이라 한다.

#### o 청혼서 (請婚書)

복유맹춘  
伏惟孟春 (계절에 따라 다름)

존체후이시만중 양소구구지지  
尊體候以時萬重 仰素區久之至

제가아친사 연급가관 삼무지합처  
第家兒親事 年及加冠 尙無指合處

근문 읍면동 씨가 규양숙철운  
近聞 ○○邑面洞 ○○氏家 閨養淑哲云

능기권유 사결진진지의여하  
能其勸誘 使結秦晉之誼如何

여불비례근배상장  
餘不備禮謹拜上狀

年 月 日

弟 ○ ○ ○ 拜上

〈해석〉 때는 이른봄 춘채후 항시 대안하신지요? 평소에 존경하고 사모해 왔읍니다. 저의 미거한 자식(손자)이 혼인할 나이가 되었으나 아직 적당한 곳이 없어서 혼인을 못하고 있었는데 근자에 들으니 ○○동 ○씨댁의 규수가 숙현하다고 권하기에 이렇게 청혼하오니 귀하의 딸과 저의 자식을 배필로 맺어 주심이 어떠하십니까? 삼가 예를 다 갖추지 못하고 글월을 올립니다.

○ 허혼서 (許婚書)

복유맹춘  
伏惟孟春

존체동지후만중 양위구지치  
尊體動止候萬重 仰慰區之至

제여아친사 불비한루 여시근권  
第女兒親事 不鄙寒陋 如是勤勸

감불청종 여불비복유  
敢不聽從 餘不備伏惟

존조근배 상강  
尊照謹拜 上狀

年 月 日

弟 ○ ○ ○ 拜上

〈해석〉 이른 봄철에 춘채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귀하를 존경해 오던차에 그와 같은 글을 주시니 실로 영광입니다.

저의 미거한 딸자식의 혼사에 저의집이 한미한것도 구애치 않으시고 이와 같이 청혼해 주시니 감히 귀하의 뜻에 따르지 않을수 없습니다.

글로는 다 인사를 갖추지 못하며 삼가 귀하에게 절하며 글월을 올리나이다.



## 2. 납채 (納采—四星)

### 가. 신랑택 (新郎宅)

신랑택 (新郎宅)에서 사자(使者)로 하여금 규수택 (閨秀宅)으로 납채 즉 사성 (四星—四柱—신랑의 생년월일)과 예물을 보낸다. 이때 신랑의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이 서신을 들고 사당에 가서 고유 (告諭)한다.

### 나. 규수택 (閨秀宅)

납채일은 이미 중매인을 통하여 알고 있으므로 의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자가 도착하면 가풍에 따라 북향재배 혹은 납채를 소반에 정중히 받아서 개봉한다.

이때 사자는 자리를 피하고 담배도 하지 않는다.

규수의 아버지는 사당에 가서 고유하고 답서를 써서 다소의 폐물과 함께 사자에게 준다.

### o 납채서식 (納采書式)

본관 이름 재배  
○○ ○○○再拜

복유맹하  
伏惟孟夏

존체동지만중 앙소구구 취친사  
尊體動止萬重 仰溯矩矩 就親事

기승 경락 사가지행 자수강의겸  
既承 鼎諾 私家之幸 玆修剛議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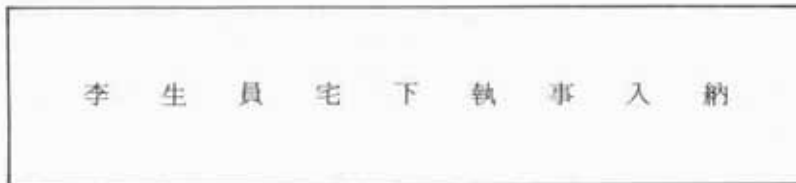
경주단 종속연길희시연하 근선복유  
呈柱單 從速捐吉回示如何 謹宣伏惟

존조 근배 상장  
尊照 謹拜 上狀

〈해석〉 이른 여름을 맞이하여 존체 만중하십니까? 저희들 혼사에 대하여는 이미 서로 승락한 터이라 저희 집안에는 다행한 일입니다. 이에 예의를 갖추어 사주단지를 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연걸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엄드려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존체께서 살펴주시기를 재배드리며 글월을 올립니다.

○ 사성 서식 (四星書式)

봉투앞면



봉투뒷면



내 용



○ 납채답서 (納采答書)

경주최 이름 백  
 慶州崔 ○○ 白

과평 윤참봉 김사 복승  
 坡平 尹參奉 執事 伏承

존자 불기한루 과청매서지언 택복지장녀 작배  
 尊慈 不棄寒陋 過聽媒氏之言 擇僕之長女 作配

귀영운 양식준우우불능교 기욕채택  
 貴今允 弱息蠢愚又不能教 既辱采擇

감불배종 복유  
 敢不拜從 伏惟

존자특사  
 尊者特賜

감념불선  
 鑑念不宜

年 月 日

<해석> 경주최씨 후인 ○○은 과평후인이신 윤참봉의 집사님께 답서를 올립니다. 귀하께서는 저의집이 한미한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중매인의 말을 받아 들이시어 저희 장녀로 하여금 귀하의 아드님과 짝을 정하여 주심에 대하여 사실은 제 딸 자식은 어리고 어리석으며 교육도 제대로 못시키었는데 이미 귀하께서 채택하여 주시었으므로 감히 절하고 따를수밖에 없음을 엮드려 생각합니다.

※ 집사(執事)란 원래 사무를 보는 사람을 지칭한 것이나 여기에서는 귀인을 직접 지칭하기가 곤란하므로 귀인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집사에게라는 뜻으로 편지에서 귀인의 성명 밑에 쓰는 귀인의 대명사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 3 . 연길 (涓吉)

혼례의 의식을 거행할 길일을 택하는것을 연길이라 한다.

즉 신랑의 사성(四星)을 받은 신부덕에서는 집안의 형편과 신부의 생리일등을 고려하여 택일한 날자를 신랑덕으로 보낸다.

○ 연길서간 (涓吉書簡)

복승화합 감하무량  
伏承華翰 感荷無量

근미심자시  
謹未審茲時

존체후만중 앙위구구지지 제여아친사  
尊體候萬重 仰慰區區之至 弟女兒親事

기승주단 한문경사  
既承柱單 寒門慶事

연길록정 강제회시여하 여불비복유  
涓吉錄呈 掌製回示如何 餘不備伏惟

존조 근배 상장  
尊照 謹拜 上狀

전주후인 이 이 름 재배  
全州後人 李 ○ ○ 再拜

<해석> 편지를 받자오니 감사한 마음 한량없습니다.

근자에 존체 만중하시온지 문안드립니다. 저희딸 혼사는 이미 사주단  
자를 받았으니 비천한 저희집의 경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혼례날자를 가  
려서 삼가 보내오니 신랑의 의복 치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길서식

金 生 員 宅 下 執 事 入 納

봉투앞면

涓 吉

## 연길내용

洞	吉
乾	甲子
坤	丁卯
尊雁	十五日己時
納幣	同 辰時
大禮	丁亥 十二月十五日 午時
于歸	同 十七日辰時

## 4. 납폐 (納幣)

납폐란 신랑댁에서 신부댁에 혼인을 승락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보내는 옷감이다. 납폐할때 큰함에는 폐백(幣帛)을 담고 작은함에는 예서(禮書-納幣書狀)를 담는다.

함을 봉할때는 함안에 깨끗한 종이를 깔고 물목을 넣고서 홍단(紅緞)을 덮고 그위에 청단을 올려 놓으며 예물마다 양쪽끝을 청사(靑絲)와 홍사로 묶은다음 종이를 덮고 쓰리나무가지 혹은 수수대로 예물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고서 함을 닿는다.

함은 홍보(紅襟)로 싸는데 네 귀를 맞추어 싸매고 남은 귀를 모아서 종이로 감고 근봉(謹封)이라 쓴다.

함을 지고 가기 위하여 무명배 8자로 3자는 땅에 끌리게하고 멜방을 만든다.

이때 함부(函夫-함을 지고 가는사람)는 반드시 첫아들을 낳고 내외간에 금술이 좋은 사람으로 가려서 홍단형을 입게 하였으며 3사람이 햇불을 들고 인도했다. (납폐는 밤에 행하는것이 습관이다)

옛날에는 납폐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예물이므로 분수에 맞게 두가지 이상으로 마련했으나 최근에는 재력이있는 일부 신랑댁에서는 사치성 예물을 보내어 과시하고 있다.

신부댁에서는 납폐가 도착하기전에 대청에 화문석을 깔고 소반에 봉채떡을 올

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납폐가 당도하면 사자로부터 납폐서를 공손히 받아 집사에게 주고 예물을 받은다음 재배한다. 이때 사자는 자리를 피하고 답례하지 않는다. 신부덕에서는 사자와 함부일행을 대접하고 답서를 전해준다.

◦ 납폐서 (納幣書)

칭친 동 (성명) 백 군 (관직)  
 忝親 ○○洞 ○○○ 白 ○○郡 ○方

존친집사 복승 가명허이  
 尊親執事 伏承 嘉命許以

영녀 황실 복자자 (이름) 자유선인지예  
 令女 航室 僕之子 ○○ 茲有先人之禮

경전사자 행납폐지례 복유  
 敬遣使者 行納幣之禮 伏惟

존자특사 감념불선  
 尊慈特賜 鑑念不宣

年 月 日  
 忝親 ○○ 再拜

◦ 납폐물목 (納幣物目)

物 目 玄 壹段 (靑緞) 種 壹段 (紅緞) 際 年 月 日 ○○后 人 ○○○ (手決)
---

봉투앞면

上 狀 ○○郡 ○○官 尊親執事 忝親 ○○○ 謹封
-------------------------------

봉투뒷면



◦ 납폐 답서 (納幣答書)

침친            동            백  
 忝親   ○○洞   ○○○白

         동            관    존친집사    복승  
 ○○洞   ○○官   尊親執事   伏承

가명    위금한종    고유약식    교훈무소  
 嘉命   委禽寒宗   顧惟弱食   教訓無素

절원불감    자우몽순선전    황이중례  
 切怨不堪   玆又蒙顧先典   貺以重禮

존자특사  
 尊玆特賜

감념불선  
 鑑念不宜

年        月        日

忝親 ○○○ 再拜

<해석> 보잘것 없는 ○○동네에 사는 ○○○은 ○○동 ○○관직의 존칭의 집사를 엮드려 받들면서 아웁니다.

가명을 입어서 저희들의 가세가 힘겨움고 교훈도 변변치 못함에도 혼사를 기꺼히 허락하여 주시어 두려움고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다시 선인의 예에 따라 납폐의식을 베풀어 주시니 딸을 보내야 할 저희 처지에서는 몸 돌바를 모르겠으며 무어라 말씀드릴수가 없나이다. 높으신 사랑으로 특별히 내려주신 예물을 마음깊히 느끼오니 이루다 말씀을 못드립니다.

## 5 . 친영 (親迎 - 婚行)

## 가. 친영례 (親迎禮)

친영례란 신랑이 성혼하기 위하여 신부덕에 가서 혼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절차의 의식을 말한다.

문헌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덕에서 무기한 체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1518년 이조 중종(中宗)은 2일간만 체재하도록 친영례에 대하여 전교(傳敎)를 내렸다.

그후 이조말엽부터는 반친영례(半親迎禮), 즉 혼례식을 마친 다음날 신랑덕으로 돌아왔다.

## 나. 친영의 준비 (親迎準備)

(1) 신부덕에서는 친영전일에 사인(使人)을 시켜서 혼례식에 사용하는 다음의 물건들을 신랑덕으로 보낸다.

- ① 전육(잠자리용 요) 2개 ② 자리(席, 蓆, 席) 2개 ③ 이불 2채  
④ 벼개 2개 ⑤ 유막(포장 혹은 병풍) ⑥ 의류약간 ⑦ 광주리 ⑧ 상자(箱)  
⑨ 자물쇠

(2) 신랑덕에서는 혼례식 당일 신랑은 아침 일찍 성복(盛服) 하고 아버지와 함께 남채매와 같이 사당에 고하고 신부덕으로 떠나며 이때 혼례식때 사용하는 사모(紗帽) 단령(團領-관복) 품대(品帶) 흑화(黑靴-수혜자) 등을 사당에 진설한다.

## (3) 신랑에 대한 훈계 (新郎訓戒)

혼례일을 앞둔 신랑의 아버지는 늦어도 혼례일 전일까지는 아들에게 훈계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ㄱ 탁자 혹은 상위에 술잔과 술병을 준비하여 집안의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놓는다.

ㄴ 주혼자(신랑의 아버지)는 집안의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서고 신랑의 자리는 서북쪽에서 남향하고 편다.

ㄷ 신랑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퍼놓은 자리의 서남쪽에 선다.



태 집사가 술잔을 들고 신랑앞으로 가면 신랑은 재배하고 자리위로 올라와서 잔을 받아 꺾어 앉아서 조금마신다.

태 신랑은 집사에게 잔을 돌려주고 재배한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꺾어 앉는다.

태 아버지는 신부를 맞이하여 처신을 잘하고 가문에 욕됨이 없도록 하라고 훈계하고 아들은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태 신랑은 어머니 방으로 가서 인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훈화를 보충해주며 특히 첫날밤을 원만히 치르도록 성(性)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도 한다.

#### (4) 신부에 대한 훈계 (新婦訓戒)

태 아버지는 딸에게 출가의인(出家外人)임을 강조하고

태 하늘천(天)자 위로 더 높게나오게 쓴 글씨가 지아비부(夫)자이니 남편을 하늘과 같이 공경하고

태 그 집안 가풍을 하루속히 배워서 시부모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태 남편 형제간의 우애는 물론 동시(同孃)들끼리도 차례를 잘지켜서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교훈한다.

태 어머니는 여자의 생활전반은 물론 첫날밤의 예법과 인사 그리고 몸가짐에 이르기까지 시가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자세한 주의를 당부한다.

#### (5) 신부의 성복 (新婦盛腹)

신부는 혼례일(大禮日)을 맞이하여

태 원삼(圓衫-연두빛과 자주빛 깃을 달고 색동을 달아서 만든옷)을 입고

태 족두리(부녀자 예복을 입을때 머리에 이는 검은 화관)를 쓰며

태 양쪽 볼에는 연지(紅粉)를 바르고 눈에는 왜밀기름(향로를 섞어서 만든 밀 기름임)을 발라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 마치 요즈음의 인형처럼 단장 시켰으며

태 청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그위에 활옷(袖衣)을 입는다.

태 성복을 마치면 수모(手母-신부의 화장과 예식을 도와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당에 인사드린다.

### (6) 사처 (舍處)

사처란 신랑이 타고온 말(나귀)에서 내려 신부댁에 들어오기전에 잠시 쉬는곳으로서 이웃집을 이용하기도하고 따로 장막을 쳐서 만들기도 한다.

### (7) 안내 (案内)

신랑은 수행인(백부, 숙부중 한사람)과 함께 말혹은 당나귀를 타고 안부(雁夫-기러기를 갖고가는 사람)의 안내를 받으며 신부댁으로 간다. 이때 안부는 기러기(生雁 또는 木雁)를 색보에 싸들고 정중하게 신랑을 인도한다.

## 6. 전안례 (奠雁禮)

전안례란 신랑이 초례청(醮禮廳)에서 신부와 혼인식을 거행하기전에 가지고 간 목안(木雁)을 상(床)위에 올려놓는 의식을 말한다.

가. 신랑이 신부댁 문전에 당도하면 찬인(贊人-신부의 오빠 혹은 친척중 젊은이)이 세번 읊하고 신랑도 이에 따라 세번 읊하고 찬인을 따라 전안석으로 간다. 만약 주혼자가 맞이할때는 신랑은 대문에서 안부로 부터 목안을 받아서 머리가 왼편으로 향하게 하고 대청을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옆에 놓고 있다가 시중이 기러기를 받으러 오면 신랑은 일어서서 재배하고, 이때 주혼자는 답례하지 않는다.

나. 기러기는 초례상 앞에 놓인 전안상에 올려놓으며 그 위치는 신부의 방문 앞 마당에다 병풍을 치고 놓는것이 관례이다.

다. 이렇게 기러기가 안상에 놓아지는 의식이 끝나면 신부댁의 가족이 나와서 이 기러기를 신부방에 갖고 가서 신부앞에 놓는다.

### ◎ 전안례의 유래

천상북두구진(天上北斗九辰)중에 자미성군(紫薇聖君-紫薇란 북두성의 북쪽에 있는 星座로서 天帝가 거처하는 곳이라하여 자미성군이 라고함)은 인간의 수복(壽福)을 맡은 천재(天帝)이므로 결국 혼인도 자미성군이 주선하여 천생연분을 맺어 준것으로 믿고 기러기를 선물하여 예를 드리고 또 기러기를 본받아 백년해로(百年偕老)할것을 맹세하며 행복하게 오래살고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데서 시작된 것으로 믿어진다.

- 기러기를 사용하는 이유 -

첫째, 봄이면 북녘으로 갔다 가을 즉 음기(陰氣)가 시작될 무렵 찾아오는 철새로서 음양의 승강(升降)과 왕래(往來)하고 천리(天理)를 따르는 영물(靈物)이며

둘째, 기러기는 금수(禽獸) 가운데 가장 믿음과 절개(節介)가 있고 부부유별(夫婦有別)의 분별이 확실하며 한쌍중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다시 짝을 구하지 아니하고 수절(守節)한다 하며

셋째, 날아 갈때도 어미와 새끼들이 엄격한 차례를 지키는 동물로서 신랑, 신부도 기러기의 생활을 본 받으라는 뜻으로 짐작할수 있다.

## 7. 교배례 (交拜禮)

### 가. 식장 (式場)

교배례란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만나서 예를 교환하는 절차이다.

교배례의 식장은 대청, 또는 마당에 차일을 치고 마련한다. 식장의 장치는 원칙적으로 남북으로 놓으며 위치에 따라 동서 또는 편리하게 놓아도 무방하다.

다만, 교배상(交拜床)을 남북으로 놓으면 병풍을 동서로 치고 교배상을 동서로 놓았을 때는 병풍을 남북으로 친다.

### 나. 교배상 (交拜床)

촛대 한 쌍에 불을 켜 놓고 송죽(松竹)한쌍과 쌀 두그릇, 닭한쌍, 세수대야(속에 수건을 깔고 그위에 물 두 종지를 놓음)

### 다. 교배례의 의식 (交拜禮儀式)

- (1) 신랑이 초례청에 동향하고 서면 신부는 이마에 두손을 합쳐 가리고 두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다.
- (2) 신부가 나와 서면 신랑은 정면으로 서향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면 신부는 부축을 받으며 신랑에게 재배한다.
- (3) 신부가 재배한후 꿇어앉으면 신랑도 부축을 받으며 한번 절하고 꿇어 앉는다.
- (4) 신부가 다시 재배하면 신랑도 일배 답례한다.

- (5) 신부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각각 음하고 끊어 앉는다.
- (6) 시자(侍者)가 미리 준비한 대야를 신랑 신부에게 각각주면 신랑 신부는 종지에 담겨있는 물에다 손을 씻는 흉내를 낸다.

## 8 . 합근례 (合巹禮)

합근례란 신랑 신부가 서로 바꾸어 마시는 표주박처럼 생긴 술잔이란 뜻이다. 이것이 바뀌어 오늘날 혼례(婚禮)의 뜻으로 변하였다. 교배례가 끝나면 이 합근례의 의식이 진행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가. 대례(大禮)를 주관 진행하는 창홀자(唱笏者)가 합근분치서부지전(合巹分置婚婦之前)하고 말하면, 신랑의 시자(侍者)와 신부의 수모(手母)는 표주박처럼 생긴 술잔을 신랑 신부앞에 갖다 놓는다.
- 나. 창홀자가 다시 시자잠주(侍者斟酒)라고 외이면 시중드는 사람은 신랑 신부앞에 놓여있는 술잔에 술을 따른다.
- 다. 시음부거음(婿揖婦舉飲)하고 창홀하면 신부측의 수모가 신부앞에 놓여 있는 술잔을 들어 신부에 주면 신부는 잔을 받아 마시지 않고 다시 수모에 준다. 수모는 신랑측의 시자에게 건네주고 시자는 신랑에게 준다. 신랑은 제주(祭酒-술을 땅위에 조금 기우려 붓는다.)하고 약간 마신다음 시자에 건네어준다. 시자는 술잔을 받아서 상위에 올려 놓는다. 이는 신랑신부가 서로 한차례씩 바꾸어서 환음(歡飲)한것을 나타내며 이를 합환주(合歡酒)라고한다.
- 라. 진찬(進饌)하고 창홀하면 시자와 수모는 각각 세차례에 걸쳐 신랑과 신부에게 안주를 집어주고 신랑 신부는 받아먹거나 혹은 받아서 상위에 놓는다.
- 마. 집사가 필례(畢禮)라고 창홀하면 대례가 끝났음을 뜻하고 예필선언(禮畢宣言)하면 신랑 신부는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 9 . 동방화촉 (洞房花燭)

신랑 신부가 첫날밤에 한방에서 지내는 것을 동방화촉이라하며 옛날에는 청사 초롱불을 밝히고 시녀가 좌우로 서서 신랑을 안내했다.

부녀자들은 신방(新房)의 앞뒤문에 구멍을 뚫고 신랑신부의 모습과 대화를 엿듣

는 습관이 전해오고 있다. 이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유교 교육에서 이성교제(異性交際)가 전혀 없었던 시대이므로 신랑신부의 언행이 궁극하고 걱정된 나머지 부모들이 집안의 부녀자를 시켜서 은밀하게 신방을 지켜보게 했던것으로 짐작된다.

## 10. 우례 (于禮新行)

우례란 신부가 시집으로 가는것을 말하며 우귀(于歸)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초례후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있다가 신행하기도 했으나 이조말엽부터는 첫날밤을 신부덕에서 지내고 다음날 또는 3일후에 우례하였다.

신행때는 신부의 아버지 혹은 가까운 친척이 함께 간다.

신랑은 신행길의 신부가 가마에 오르기전에 문을 열어놓고 읍한채 기다린다.

신랑은 가마 혹은 말을 타고 앞서고 신부는 그뒤를 따른다.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랑이 신부의 가마앞에서 읍하고 서있으면 신부는 나와서 미리 마련해 놓은 방으로 들어가고 신랑은 아버님에게 가서 무사히 다녀왔다고 인사한다.

## 11. 현구고례와 폐백(見舅姑禮 幣帛)

현구례는 신부가 우귀일에 신랑의 부모에게 첫인사 드리는 의식이며, 폐백은 신부덕에서 마련한 대추와 꿩, 혹은 닭을 시부모에게 인사드릴때 올리는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 지방에서는 시부모를 비롯하여 가족과 친척들을 처음 대면하는 절차로 통념(通念)하고 있다.

### 가. 폐백의준비(幣帛準備)

#### ㉠ 대추(大棗)

대추 1말에 청주 1컵, 물 반컵을 붓고 잘 섞어서 뚜껑있는 그릇에 담아서 따뜻한 방에 3~4 시간정도 문어두었다 꺼내면 윤기가 난다. 대추의 꼭지를 따고 실백(實栢-겉질을 벗긴 알맹이 잣)을 끼워 다홍실에 20 여개씩 묶어서 장식한다.

(1) 폐백 꿩 (닭을 대신씀)

건치 (乾雉 - 말린 꿩고기)는 꿩두마리를 머리를 잘라내고 껌통에 찢서 꺾기 지고 말린다음 보자기에 싸서 잠깐 눌러 두었다가 꺼내서 두마리를 하나처럼 포개서 다시 늘린다.

건치의 다리와 목에는 청홍사로 감고, 날개는 여러가지 색지로 꼬쟁이를 만들어서 꽂는다.

한편 닭을 삼거나 찢서 색지로 싸고, 입에는 대추를 물리고, 귀에다는 밤을 붙여서 통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 따라 겨울에는 편포 (片脯)를, 여름에는 포 (脯)를 사용하기도 한다.

(2) 폐백보 (幣帛褙)

겉보는 홍색으로 사방이 3자 3푼 (약 1m)이며, 네귀에는 연두색 금전지 (삼각 종이로 만든 장식품)를 단다.

속보는 폐백드릴 대상의 수대로 각각 따로싼다. 즉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족 친지등 3개이며 시조부모가 계실때는 5개를 준비해야 한다.

(3) 근봉 (謹封)

폐백보는 잡아메지 않고 네 모서리를 모아서 근봉으로 끼운다. 근봉은 뺏뺏한 장지 (壯紙)로 아래위 없이 둥글게 말아서 붙인다음 2치 정도로 잘라서 세로로 근봉이라 쓴다. 근봉위로 수술이 달린 네 귀를 각각 젓혀서 늘어지게 하면 마치 연꽃 모양으로 아름답다.

(4) 입뺏상 (代用食)

신행길의 피로와 긴장을 풀고 폐백을 준비하는 동안 신부에게 간단한 대용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입뺏상이라 한다.

입뺏상으로는 국수, 수정과 화채 (꿀이나 설탕을 탄 五味子국에 꽃감 또는 과일을 썰어서 넣고 갖을 띄운 청량음료임)등 간단하게 마련한다.

(5) 폐백장소

안방이나 대청 혹은 따로 마련한 장소에 병풍을 치고 시아버지는 동쪽에 시어머니는 서쪽으로 앉는다.

폐백을 올려 놓을 상을 갖다 놓는다.

나. 폐백드리기

시조부모가 생존하고 있을때 시부모는 자기 부모에게 인사올리고 폐백을 먼저 받

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조부모 부터 폐백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방에서는 전자를 많이 택하고 있다.

폐백은 신부가 시댁의 부모와 가족 친지들에게 처음드리는 인사이므로 신랑은 절은 하지 않고 따로 서 있으면 된다.

사당이 있는 집은 사당폐백을 먼저한다.

### (1) 시부모에게

#### ◦시아버지

신부는 수모의 도움을 받으며 시아버지에게 첫번째의 큰절을 한다.

이때 하님은 신부 양쪽에서 동이머리(큰머리-어머머리위에 나무로 만든 큰머리틀을 올린머리, 예식때 여자들의 머리에 크게 틀어 땅아서 얹은머리)를 조심스럽게 붓잡아 준다.

신부가 두번째 절을 하기전에 수모는 대추를 신부앞에 거처서 폐백상에 올려 놓는다.

신부는 세번째 절을 하고 앉으면서 다시 반절을 함으로서 4배가 끝난다.

시아버지는, 너는 이제 내집 식구가 되었으니 우리집의 가풍을 지키고 효도 할것이며 남편을 잘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할것을 당부한다.

####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똑같이 4배하되 다만 폐백담을 올려 놓는것이 다르다.

#### ◦대추를 주는 습관

시부모에게 인사가 끝나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고, 수모는 이를 원삼 소매 안에 넣어주면서 아들 낳으라고 덕담을 하고 뒤에 신부방에 갔다 두었다가 밤에 신랑신부가 먹는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대추를 던질때 폐백담을 두드리는데 이는 며느리의 흉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신부가 사당고유를 마치고 나오면 시어머니는「너의 시아버지가 주는것이다」하면서 대추 몇개를 그릇에 담아서 며느리에게 준다고 한다.

폐백감으로 대추를 사용하는것은 신선(神仙)의 선물로서 장수하라는 뜻과 아들을 낳으라는 소원이라고 한다.

(2) 가족 친지에게

수모는 시부모의 폐백이 끝나면 상위에 있는 폐백감을 다른것과 바꾸어 놓는다. 백숙모에게는 각각 4배하고 시삼촌과 시고모는 두분을 같이 앉게 하여 4배한다. 같은 항렬은 차례로 내외분에게 1배하며 물론 맞절해야 한다. 절한다. 손 아래 동시는 먼저 절하고 신부는 답례하며 이로서 의식상 폐백은 끝난다.

(3) 인사 (人事)

## ◦ 남자머리

폐백이 끝나면 신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큰머리를 비치게로 갈라주면 수모는 두줄로 땀아서 쪽을 치고 남자머리에 족두리를 한다. 두줄로 쪽을 치는 것은 이성이합(二性之合)을 뜻한다고 한다.

## ◦ 의복과 장식품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연두결마기, 다홍접치마, 12폭대무지기, 8폭중무지기, 6폭연봉무지기, 소무지기, 모시분홍속적삼, 노랑속저고리등을 주어서 갈아입게 하고 대삼작(大三作 -여자가 차는 노리개) 소삼작등 장식품을 옷에 달게하여 원삼(元衫)을 입게하여

◦ 비로소 어른들에게 평절(보통인사)을 한다. 이때 동항렬은 원삼을 벗고 당의(唐衣)를 입는다.

◦ 이렇게 하여 폐백에 대한 모든 인사가 끝나게 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큰상을 내리고 이 큰상은 잠시후에 걸어서 사돈택으로 보내는것이 풍습이다.

(4) 문안 (門安)

신부는 3일동안 아침 저녁으로 족두리를 쓰고 원삼을 입고서 하님이나 유모의 안내를 받으면서 시부모에게 문안을 드린다.

이때 신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안방에서 두번째의 기침소리가 나면 문안을 간다.



## 12. 근친 (覲親) 과 재행 (再行)

### 가. 신부의근친

신부가 시댁에서 3일 (어느집안은 1년)이 지나면 시부모는 친정에 보내어 친정부모에게 인사드리게 한다.

옛날 선비의 집에서는 신부가 친정에 있는 동안에도 연두저고리에 남치마를 입히고 머리를 엮은 하님을 매일 시댁으로 보내어 문안인사를 올렸다.

일정기간 친정에 있다가 시댁으로 갈때는 시부모와 신랑의 옷은 물론 가세의 형편에 따라 장농등 새댁이 평생동안 사용할 생활도구와 많은 음식을 가지고 갔으며 시댁의 형편이 넉넉하면 유모와 몸종까지 따라 가기도 했다.

### 나. 신랑의재행

신랑이 신부댁에 두번째 가며 음식을 마련하여 갖고가서 장인 장모에게 인사드리고 처가의 친척을 찾아본다.

### 다. 동상례 (東床禮)

신랑의 재행을 맞이하여 많은 친척과 마을의 청년들이 모여서 신랑과 인사도 나누고 축하도 해준다.

이때 이른바 동상례 즉 신랑에게 한턱내라고 강요아닌 강요를 하면 신부댁에서 대신하여 그들을 대접한다.

방안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신랑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언변을 알아보고 또 방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랑에게 집중으로 질문공세를 편다.

신랑은 여러사람의 물음에 혼자 대답하다가 막히거나 혹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유도 질문에 반대이론을 내세우면 이를 구실로하여 신랑을 달아메고 목침 (木枕) 등으로 발바닥을 아프게 때린다.

이렇게 하여 신랑이 당하는 곤욕과 위기는 장난꾼들이 요구하는 음식을 장모가 갖다주고 면하게 해주는 것이 풍습이었다.

### 13. 혼례의 흘기(婚禮笏記)

흘기란 의식을 거행하는 순서를 적어 놓은것을 말하며 참고로 혼례에서 사용하는 흘기를 열거해 본다.

#### 가. 전안례 참홀예문 (奠雁禮唱笏例文)

- (1) 新郎下馬拱立 (신랑하마공립) - 신랑은 말(가마)에서 내려 두손을 마주잡고 선다.
- (2) 贊引揖 (찬인읍) - 찬인은 신랑에게 읍한다.
- (3) 新郎答揖 (신랑답읍) - 신랑은 찬인에게 읍하여 답한다.
- (4) 新郎就奠雁所 (신랑취전안소) - 신랑은 전안(기러기상)하는자리로 나간다.
- (5) 新郎跪 (신랑계) - 신랑이 꿇어 앉는다.
- (6) 新郎抱雁 (신랑포안) - 신랑이 목안(나무기러기)을 안는다.
- (7) 置安於地 (치안어지) - 목안을 상(소반)위에 올려 놓는다.
- (8) 新郎興 (신랑흥) - 신랑이 일어난다.
- (9) 新郎再拜 (신랑재배) - 신랑이 두번 절한다.

#### 나. 초례 참홀예문 (醮禮唱笏例文)

- (1) 新郎就禮廳 (신랑취례청) - 신랑은 초례청으로 나아간다.
- (2) 新郎東向立 (신랑동향립) - 신랑은 동쪽을 향하여 선다.
- (3) 新婦出 (신부출) - 신부가 나온다.
- (4) 新郎正向 (신랑정향) - 신랑이 바로 선다.
- (5) 新郎新婦跪 (신랑신부계) - 신랑신부가 꿇어앉는다(무릎을 꿇고 궁둥이가 발에 닿지 않게 몸을 펴고 앉는다).
- (6) 盥洗執巾 (관세집건)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 (7) 新郎新婦興 (신랑신부흥) - 신랑신부가 일어난다.
- (8) 新郎揖婦就席 (신랑읍부취석) -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각각제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 (9) 新婦再拜 (신부재배) - 신부가 두번 절한다.
- (10) 新婦跪 (신부기) - 신부가 꿇어 앉는다.
- (11) 新郎答一拜 (신랑답일배) - 신랑이 답배로 한번 절한다.
- (12) 新婦興 (신부흥) - 신부가 일어선다.
- (13) 新婦再拜 (신부재배) - 신부가 두번 절한다.
- (14) 新婦跪 (신부기) - 신부가 꿇어 앉는다.
- (15) 新郎答一拜 (신랑답일배) - 신랑이 답배로 한번 절한다.
- (16) 新郎跪 (신랑기) - 신랑이 꿇어 앉는다.
- (17) 行砂盃禮 (행사배례) - 신랑신부가 서로 술잔으로 교배(交拜)한다.
- (18) 行瓢盃禮 (행표배례) - 순번을 바꾸어 교배한다. (이때는 술잔대신 표주박을 사용한다.)
- (19) 禮畢 (예필) - 혼례식이 끝났다.
- (20) 新郎新婦歸處所 (신랑신부귀처소) - 신랑 신부가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 다. 교배례 창출예문 (交拜禮唱笏例文)

- (1) 婿之席末 (서지석말) - 신랑이 초례청 동편 자리에 선다.
- (2) 姆導婦出 (모도부출) - 백포(白布)를 깔아 놓은 위로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가 나온다.
- (3) 婿東婦婿 (서동부서) - 초례상을 중심으로 신랑은 동쪽신부는 서쪽으로 마주보고 선다.
- (4) 進盥進洗 · 婿盥進洗 · 婿盥于南 · 婦盥于北 (진관진세 · 서관우남 · 부관우북) - 신랑의 손을 씻을 대야는 남쪽에 신부의 손을 씻을 대야는 북쪽에 놓는다.
- (5) 婿婦盥洗 (서부관세) - 신랑 신부는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 (6) 婦先再拜 (부선재배) - 신부가 먼저 두번절한다.
- (7) 婿答一拜 (서답일배) - 신랑이 답례로 일배한다.
- (8) 婦又再拜 (부우재배) - 신부가 다시 재배한다.
- (9) 婿答又一拜 (서답우일배) - 신랑이 답례로 다시 일배한다.

#### 라. 합근례 창출예문 (合覯禮唱笏例文)

- (1) 婿揖婦各跪坐 (서읍부각계좌) -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각각 꿇어 앉는다.
- (2) 侍者進饌 (시자진찬) - 시자가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각각 준다.

- (3) 侍者各斟酒 (시자각침주) - 시자가 각각 잔에다 술을 부어준다.
- (4) 婿揖婦祭酒舉肴 (서음부제주거효) - 신랑은 신부에게 읊하고 술을 기울여 제주하고 안주를 짓가탁으로 집어서 상위에 놓는다.
- (5) 又斟酒 (우침주) - 시자가 다시 잔에 술을 붓는다.
- (6) 婿揖婦舉飲不祭無肴 (서음부거음불제무효) - 신랑은 신부에게 읊하고 술을 마시되 안주는 들지 않는다.
- (7) 又取盞婿婦之前 (우취근서부지전) - 표주박으로 된 술잔을 신랑 신신부앞에 갖다 놓는다.
- (8) 侍者各斟酒 (시자각침주) - 시자가 표주박 술잔에 각각 술을 붓는다.
- (9) 舉盃相互婿上婦下 (거배상호서상부하) - 신랑 신부는 표주박 술잔을 서로 바꾼다.
- (10) 各舉飲 (각거음) - 신랑 신부는 각기 표주박잔을 들어 술을 마신다.
- (11) 禮畢撤床 (예필철상) - 예가 끝나고 상을 치운다.
- (12) 各從其所 (각종기소) - 신랑 신부는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 14. 상수와 사돈지(床需와 查頓紙)

### 가. 상수 (床需)

신부덕에서 혼례식이 끝난뒤 여러가지 잔치음식을 신랑덕으로 당일 혹은 우귀 일에 보내는것을 상수라한다. 이때 상수송서장(床需送書狀)을 쓰고 별지에 보내는 물목을 적어 보낸다.

### 나. 사돈지 (查頓紙)

신부의 어머니가 신행길에 신랑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상수와 함께 보내지고 있으며 신랑덕에서는 이를 보고 며느리를 길러준 사돈덕의 범절과 정성을 짐작한다.

한편 신랑어머니는 재행길에 신부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이 사돈지는 한 글로 썼다.

## II. 현대식결혼 (現代式結婚)

앞에서 살펴본 구식결혼(舊式結婚)은 14세기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속(風俗)이었으며 이조 태종(太宗 1401-1418) 때 부터 간선(看選-선을보는것)이 이루어져서 현행구식결혼(現行舊式結婚)의 절차(節次)와 의식(儀式)으로 변하게 되었다.

1950 년대에 들어서 이른바 연애결혼(戀愛結婚)이 성행하였고 결혼식도 서구식으로 예식장(禮式場)에서 거행되기 시작했다.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대식결혼(現代式結婚)은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 의하여 간소화(簡素化)되었다. 그러나 의식(儀式)과 경비의 절약등을 제외하고는 성혼(成婚)의 과정이 크게 변한것이 아니므로 본고(本稿)에서는 14세기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던 현행 구식결혼을 시대성(時代性)을 고려하여 자세히 설명해서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에 이해(理解)를 도움고자 한다.

### 1. 결혼연령 (結婚年令)

#### 가. 구식결혼 (舊式結婚)

1424년(李朝世宗 6年)에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적용하여 남자는 16세에서 30세까지, 여자는 14세부터 20세 사이에 혼인하도록 나라에서 정해주었다.

19세기(李朝末葉)에 이르러 조혼(早婚)의 풍습이 있어 남자는 10세미만 여자는 14세-20세사이에 결혼을 시켜 7-8세의 나이 차이가 있어 여자들의 결혼생활은 원만한 부부생활이란 기대할수도 없고 한(恨)많은 세월이었다.

#### 나. 현대식결혼 (現代式結婚)

민법(民法) 제 807조에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16세가 되면 혼인할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 제 808조에 미성년자가 혼인 할때는 부모의 동의(同意)를 얻어서 혼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면 보통 27 ~ 28 세가 되고 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또는 사회생활을 3 ~ 4 년하고 나면 24 ~ 25 세에 이르므로 이때가 결혼의 적기로 본다.

## 2 . 간선 (看選)

간선이란 결혼 당사자는 물론 양가의 부모 형제들이 대면하여 선을 보는 것이다.

고대 구식결혼 (古代舊式結婚)에서는 결혼상대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그야말로 집안과 집안끼리의 혼인이었으나 이조 태종 (李朝太宗 1401 - 1418) 때의 간택 (揀擇 - 王子王女の 배후자를 전국적으로 고르는 일)에서 비롯하여 민가 (民家)에서도 간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가. 선택의 조건 (選擇條件)

#### (1) 양가 공통의조건

옛날에는 문벌 (門閥 - 조상의벼슬)과 가풍 (家風 - 집안에서 행세하는 범절)을 중요시 했으나 최근에는 상대방의 인품 즉 학력 교양 직업 건강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2) 남자측에서의 원하는 여자

- 심성이 온후 하면서도 정숙하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
- 두뇌가 명석하고 이해력이 많은 사람
- 용모가 단정하고 건강한 사람
-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할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받은자

#### (3) 여자측에서 원하는 남자

- 신체 건강하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생활력이 강하고 장래성이 있는 사람
- 자격증 또는 특수한 기술의 소유자

### 나. 중매 (仲媒)

결혼상담소는 중매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신상카드를 비치하고 서로 걸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지만 중매인은 찾아가서 권고로 이루어지게 하므로 대상인

의 모든것을 파악해야 한다. 결혼상담소 또는 중매인에게 주는 사진은 반듯이 최근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야외에서 스냅을 걸드려 정성이 담긴 사진이면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줄수있다.

#### 다. 신원조사(身元調査)

사진을 보고 중매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서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면 맞선을 보기전에 자세한 신원을 알아보아야 한다.

호적등본을 보면 집안의 연혁, 부모 형제 자매의 수와 이혼, 배후자의 생모여 부등을 알수있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현재의 동거인, 내연의 배후자와의 동거여 부를 알수있으며 신원증명을 보면 전과 여부를 알수있다.

그밖에 출신학교의 성적과 학창생활, 특히 가까운 친구와의 면담은 매우 유익하다.

#### 라. 맞선

##### (1) 장소(場所)

커피숍, 다방, 제과점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면할수 있는 분위기를 이루어 주어야 한다. 결혼상담소의 사무실 혹은 중매인의 응접실등이 더 좋을 것이다.

##### (2) 시간(時間)

예로부터 선을 보러가서 음식대접을 받으면 성사가 안된다는 속설이 지금도 전래하고 있으므로 맞선은 식사 시간을 피해서 오후가 좋고 맞선 보는 시간은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 (3) 옷차림

맞선은 상대방을 보면서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을 보여주므로 옷차림은 호화스럽지 않은것이 좋다. 모처럼 곱게 단장하고 입고간 옷이 몸을 움직일때 부자연스러우면 상대방이 보기에 어색하다. 평소 입던 옷가운데 남들이 어울린다고 칭찬 받은 옷이 가장 무난하고 활발하다.

##### (4) 태도(態度)

맞선볼때 고개만 숙이고 묻는 말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잘 안들릴 정도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기 자량을 늘어놓고 묻지도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며 의미없이 자주 웃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검을 썰거나 상대방을 자주 흘겨보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맞선은 영원한 만남이 될수도 있고 사소한 실수로 한번의 만남으로 끝날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묻는 말에 확실히 대답해 주어야 한다.

#### (5) 동행인 (同行人)

맞선볼때 많은 일가 친척이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옆에서는 자신의 경륜(經綸)을 통한 조언을 주어야지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동행인으로는 남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수, 여자의 경우는 아버지와 오빠가 적당하다.

#### (6) 소개 (紹介)

중매인은 사회자가 되어 미리서 Program을 짜서 실수없이 진행해야 하고 공통의 화제도 준비하여 맞선의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도록 주선해야 한다.

소개할때는 남자쪽을 먼저하고 다음에 여자쪽을 소개하는것이 관례이다.

소개를 받으면 앉아서 고개만 끄덕 할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인사하는 것이 예의이다.

#### (7) 대화 (對話)

당사자끼리 단 둘이 앉아 있을때 침묵만 지킬것이 아니라 우선 남자쪽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로 말문을 여는것이 좋다.

예를들면 존경하는 선생님의 근황 혹은 최근 TV의 내용등 양쪽이 부담없이 서로 대화에 참여할수 있는 화제꺼리면 된다.

대화의 요령은 원래 자신의 변명과 주장보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슴없이 이야기하도록 Leader 해주는 것이 기술이다.

대화의 내용은 이미 신원조사로 알고있는 가족관계의 질문은 삼가하고 특히 유석한채 하고 일부러 어려운 말을 하지 말것이며 취미(趣味)와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理想)의 공통성(同性)과 갈등(葛藤)을 발견할수 있다.

#### (8) 거절 (拒絕)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때는 지체없이 중매인을 통하여 확실히 거절해야 한다. 이때 동행인은 적당하다 하며 상대방에서도 결혼하자고 할경우 난처할때가 있다.



그러나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결혼이므로 분명히 거절해야 하며 중매인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등 적당히 전달해야 한다.

옛날에는 맞선까지 보고 거절을 당하면 본인의 수치는 물론 집안의 불행으로 여기고 혼사에 큰 지장을 주었던 때가 있었다.

### 3. 약혼 (約婚)

#### 가. 약혼 (約婚) 전의 교제 (交際)

맞선을 보고 보통 남자쪽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더 교제해 보자고 한다.

물론 당사자끼리 전화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명하지 못하며 애써 중매해준 사람에게 실례가 되니 미리서 중매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이때부터 부모의 허락하에 당사자들이 만나기 때문에 언행 (言行)에 신중을 기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부모에게 보고해야 한다.

물론 이 교제기간은 너무 길어서도 안되며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약혼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맞선후의 교제는 맞선때 보았던 첫인상이 틀리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할 뿐이지 단순히 약혼중의 Date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 나. 청혼 (請婚)

약혼전의 교제 끝에 두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서 결혼하기로 하면 그 뜻을 부모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때 남자쪽의 부모는 여자의 부모에게 청혼의 편지를 보내고 여자쪽에서는 찬성할 경우 허혼 (許婚)의 답신을 보낸다. 최근에는 중매인을 통하여 청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

◦ 청혼의 편지(한문식 청혼서와 한글식 청혼서가 있음)

삼가 아뢰옵니다.

존당의 만복을 기원하며 이번 규댁의 ○○규수와 소생의 둘째아들 ○○와의 혼담이 성립되었음을 저희 가문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삼가 청혼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 ○ ○ 귀하

◦ 허혼의 답서

존체의 건안과 귀댁의 만복을 축원합니다.

아드님 ○○수재와 영아○○사이의 청혼의 글월을 받고 저희 가문에서는 영광으로 생각하오니 금후의 절차에 관해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①

○ ○ ○ 귀하

다. 약혼식 (約婚式)

가정의례준칙 제 5 조 (약혼)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 1의 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하고 별도의 의식은 거행하지 않는다.

약혼이란 당사자가 결혼할것을 양가의 부모와 친척앞에서 서약하는 것으로서 많은 비용을 드려서 여러사람을 초대하여 호화스러운 예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양가의 부모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의 증표로 간단한 기념품을 선물하고 어른들의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필자 (筆者)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것은 가정의례준칙에 명시된 건강진단서의 교환이다. 두사람의 결합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 건강이란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금까지 알아볼것은 다 알아 보았으나 건강문제는 알아볼수 없었으므로 반듯이 건강진단서를 교환하여 서로 믿고 기약 하는것이 현명하다.

(1) 약혼일자와 장소 (約婚日字와 場所)

두 집안의 행사이므로 서로 상의해서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모일수 있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의 점심시간이 좋을 것이다.

장소는 신부또는 중매인의 자택이 좋으나 불가피할때는 식당을 이용하는것도 무방하다.

(2) 약혼식의 진행 (約婚式의 進行)

약혼식에는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사람을 사회자로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물은 남자쪽에서 약혼 반지를 준비하는것이 상례이고 여자쪽에서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안해도 좋으나 만년필이나 시계를 기념으로 주고있는 것이 관례이다.

## (별지 1) 약혼서식

## 약 혼 서

구 분	남	여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호주의주소성명		

위 두사람은 다음과 같이 혼인할것을 약속함.

1. 결혼예정일 19    년    월    일

2. 기 타 조 건

19    년    월    일

약혼자

남           ○       ○       ○    인

여           ○       ○       ○    인

입회인

남자측 주소

성명

여자측 주소

성명

※ 첨부 호적 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민법 제 808 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회인도 그 동의권자로 한다.

· 약혼식순

1. 개식사 1. 약력소개 1. 예물교환 1. 약혼서교환 1. 주례사 1. 케익자르기 1. 가족소개 1. 폐식사

(3) 약혼식의 비용 (約婚式費用)

약혼식의 비용은 여자측에서 부담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4 . 약혼후의 교제(約婚後交際)

약혼후의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하여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가족들과도 자주 만나서 친숙해지야 한다.

약혼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6개월이 적당하며 하등이유없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자는 Date Course 를 정할때도 임의로 할것이 아니라 약혼녀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여자편에서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약혼기간은 어디까지나 결혼을 약속한것이지 결혼한 것이 아니며 교제하는 동안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어 파혼해야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처녀의 가치성과 매력은 아름다운 여성미와 아울러 청순함과 신비성을 간직하고 있을때 돋보이는 것이다.

약혼했다 하여 남자의 의견에 무조건 고집을 부리거나 반면에 남자의 요구에 거리낌없이 응했을때 남자는 순간의 만족다움에 실망이 뒤따른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약혼기간에 지나치게 자주 만나거나 약속시간을 어길때 또는 상대방에게 오해 받기 쉬운 행동을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해야 한다.

5 . 파혼 (破婚)

가. 약혼의 해제사유 (約婚解除事由)

민법 제 804 조 (약혼해제의사유)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의 선고를 받은때
- ② 약혼후 금치산(禁治産) 또는 한정치산(限定治産)의 선고를 받은때
- ③ 성병, 폐병, 기타 불치(不治)의 악질(惡疾)이 있을때 (상대방이 이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약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 했을때
- ⑤ 약혼후 타인과 간음했을때
- ⑥ 약혼후 2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不明)할때
- ⑦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할때
-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나. 약혼해제의 방법(約婚解除方法)

민법제 805 조(약혼해제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수없을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 된것으로 본다.

#### 다. 손해배상(損害賠償)

민법 제 806 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訴)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예물의 반환(禮物返還)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할때 교환된 예물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한쪽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혼될 경우는 무책자(無責者)만이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마. 파혼의 결정 (破婚決定)

약혼기간에 사귀다보면 뜻하지 않게 상대방의 과실이 들어나기도 하고 성격이나 취미, 즉 이상(理想)이 맞지 않아서 결혼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 이때는 부모에게 사실을 밝히고 주저없이 파혼해야 한다. 중매인의 입장 혹은 사회의 이목이 두려워서 우물쭈물하고 결혼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하며 이로 인하여 이혼(離婚)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람은 만남보다 갈라지기가 어려운 것이니 사소한 일을 가지고 트집을 부리거나 무리를 야기시켜서 고의로 파혼해서는 안되며 이를 막기 위하여 앞서 열거한 민법의 규정이 있다.

6. 결혼식의 준비 (結婚準備)

가. 사성 (四星)

약혼기간이 지나서 결혼식을 서두르게 되면 남자집에서는 여자집으로 사성(四柱-生年月日時)을 보낸다.

옛날에는 사주 저고리만 보냈는데 최근에는 치마, 저고리감을 한벌 또는 두벌씩 사성과 함께 보내고 있다.

사주는 가로 35cm, 세로 25cm 정도의 백지(창호지)를 5칸으로 접어서 가운데 줄에 붓글씨로 쓴다.

사주보(四柱褌)는 겉에 것은 홍색, 안보는 청색으로 한다.

◦ 사주 쓰는식



봉투앞면



봉투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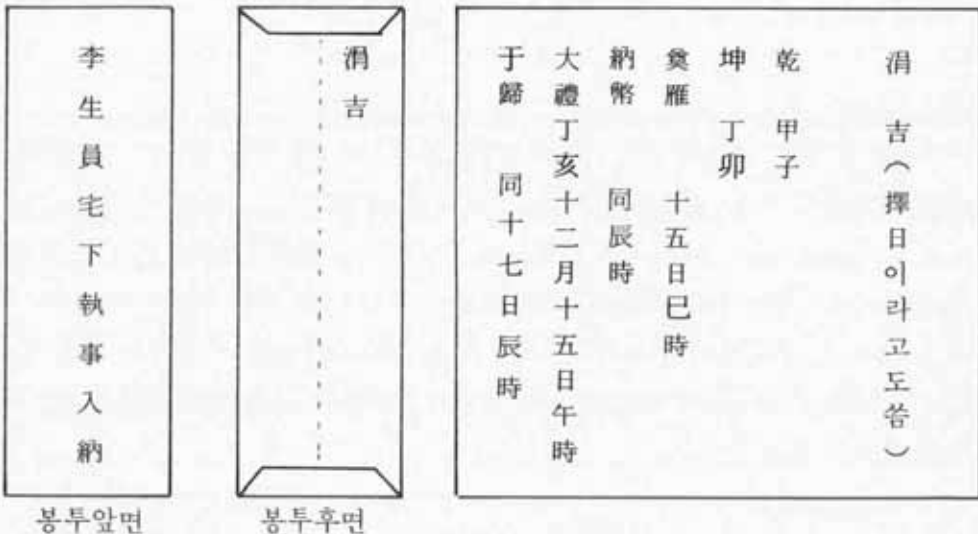
- 사주를 보낼때는 사돈에게 안부를 묻고 사주를 보내오니 택일하여 보내 주라는 내용의 서신을 함께 보낸다.

#### 나. 택일 (擇日 - 결혼일)

신부대에서 결혼일을 받아서 신랑대에 보내는 것으로서 연길 (潤吉)이라고 한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혼인일을 정하되 특히 신부에게 물어서 생리일은 피해야 한다.

- 연길쓰는식 (규격은 사주와 비슷함)



#### 다. 장소 (場所)

가정의례준칙 제 6 조 (혼인)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혼인식의 장소는 당사자가 일방의 가정 공회당이나 법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결혼예식장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최근의 결혼식은 대부분 예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약 장소가 교회일 경우는 신부가 다니는 교회를 선택하는것이 관례이다.

예식장의 사용료는 양가에서 공동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며 다만 폐백실의 사용료는 신부측에서 부담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라. 주례 (主禮)

주례는 결혼식을 주재 (主宰) 하고 성혼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앞으로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지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랑신부의 주위에서 찾아 미리서 교섭해야 한다.

최근 사회명사 (社會名士)라 하여 모르는 사람을 주례로 모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허세를 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주례는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신부를 사전에 만나서 두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주례사에서 다 언급할 수 없는 말을 해 주는것이 좋으며 식장에서의 주례사는 축하객들이 실증나지 않게 하는것이 명주례 (名主禮)이다.

사회자 (司會者) 역시 미리 교섭하여 결정해 두어야 한다.

마. 청첩 (請牒)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제 4 조 (허례허식행위의금지)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상부상조 (相扶相助) 하는 미풍양속 (美風良俗)이 있다. 예로부터 혼례 (婚禮)와 상제례 (喪祭禮)에는 반드시 찾아와서 축하 또는 위로해주고 축의금 (祝儀金)이나 부조금 (扶助金)을 전해왔던 아름다운 풍속이 있다.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안내인이 청첩장 (請牒狀)이 아닌 서신 (書信)이나 전화로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 서신내용의 예

모 시 는 글

삼가 아뢰옵니다.

김 ○ ○ 씨의 딸아들 ○ ○ 군  
이 ○ ○ 씨의 둘째딸 ○ ○ 양  
이 두분은 일생을 함께 하고자 뜻을 모아서 주례 ○ ○ ○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어른과 벗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예를  
올리려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 부디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때 : 19      년      월      일      시

· 곳 : ○ ○ 예식장

19      년      월      일  
안내인 ○ ○ ○



### 바. 혼수(婚需)

신부댁의 혼수준비는 끝이 없으니 분수에 맞게 하고 만약 여유가 있다면 저금통장으로 주는 것이 현명하며 이 지방의 풍습에 따라 기본적인 혼수품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 침구(이불, 요, 베타개) (2) 의장(옷장, 경대) (3) 의류(계절에 따라 당분간 입을 옷) (4) 장식품(수예, 악세사리) (5) 바느질도구(가위, 바늘, 실) (6) 신랑의복(양복, 와이셔츠, 코트, 잠옷, 구두) (7) 기타 생활용품(가전제품포함)  
 (8) 시댁의 예물(시부모 형제) (9) 웨딩드레스 (10) 폐백때 입을 한복(신랑의 한복도 준비) (11) 여행복

## 7. 함부(函夫 - 함잡이)

가정의례준칙 제 6 조(혼인) 제 2 항 「혼인에 있어서 “함잡이”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아니한다.」

언제 부터서인지 결혼 전날밤에 신랑의 친구들이 「함」을 지고 신부댁의 골목길을 서성거리고 이른바 「함사려」를 외치면서 돈을 요구하는 폐습이 있는데 이는 경사를 앞두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대 혼례(古代婚禮)에 의하면 신랑댁에서 혼인을 승락해준 신부댁에 감사의 뜻으로 납폐(納幣) 즉 예물을 보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채단(採緞)으로 바뀌었다.

이때 함부는 반듯이 첫아들을 낳고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사람으로 가렸다.

이와같이 선조들의 아름다운 정신과는 달리 그 반대의 행위를 알고도 계속 한다는 것은 민속문화(民俗文化)의 흐름을 외면(外面)하는 처사이다.

## 8. 결혼식(結婚式)

가정의례준칙 제 6 조(혼인) 제 4 항 「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 혼인서약 성혼 선언의 요령은 별지 2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항에 의거 진행의 순서를 적어본다.

가. 개식 (開式)

사회자는 식을 진행하기 전에 주례에게 인사하고 참고될 지시를 미리서 받아두는 것이 좋을것이다.

명사회자 (名司會者)는 장내를 파악하고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말은 지나치게 화술을 부리거나 거칠고 딱딱해서는 안되며 특히 뒤에 있는 하객 (賓客)들이 확실히 알아듣게 해야 한다.

식순에 따라 계절과 간단한 명언을 곁드려서 Scenario 를 작성하여 보면서 진행하면 실수를 주릴 수 있다.

- 사회자 : 양가 대표로 하여금 촛불을 밝히게 하고
- 사회자 : 지금으로부터 신랑의 은사이시며 현재 ○ ○ 대학 교수이신 ○○○ 박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신랑○○○군과 신부○○○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 신랑입장 (新郎入場)

- 사회자 : 식순에 따라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 신 랑 : 보통의 걸음걸이로 똑바로 앞을 보고 늙늙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 와서 주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드린다.
- △ 주 례 : 한층내려가 뒤로 돌아서서 신부를 맞이하라고 지시한다.
- 신 랑 : 지시에 따른다.

다. 신부입장 (新婦入場)

- 사 회 : 다음은 이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Wedding march (신부입장의 행진곡)
- 신 부 : 아버지 또는 오빠의 인도를 받으며 행진곡에 맞추어 천천히 걸어 들어 온다. 이때 행진곡에 발을 맞추려고 신경을 쓰다보면 Dress 의 자락을 밟기 쉬우니 아버지의 발걸음에 맞추도록 하는것이 좋다.
- 신 랑 : 신부가 단 가까히오면 단밑으로 내려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신부를 부축하여 단상으로 올라가서 주례를보고 나란히 선다.

#### 라. 신랑신부 맞절

- △ 주례 : 신랑은 한걸음 떨어져서 서로 맞 보고 서 주십시오 (신부는 몸놀림이 불편하므로 그대로 서있게 함)
- 신랑 : 면사포가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있을때는 면사포를 걷어올려 주어야 한다.
- △ 주례 : 신랑 신부 경례
- 신랑신부 : 신랑신부는 최소한 45도이상 구부러서 절을 하는것이 예의이고 하객들이 보기에도 곱게 보인다.

#### 마. 혼인서약 (婚姻誓約)

- 사회 : 이어서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 △ 주례 : 신랑 ○○○군과 신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것을 맹세합니까?  
먼저 신랑에게 묻습니다.
- 신랑 : 예
- △ 주례 : 다음 신부도 맹세할수 있습니까?
- 신부 : 예

#### 바. 성혼선언 (成婚宣言)

- 사회 : 신랑 신부가 즐기우나 괴로우나 백년해로의 뜻을 굳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어서 주례 선생님께서로부터 두사람이 성혼하였음을 선언 하시겠습니다.
- △ 주례 :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19      년      월      일

주례 ○   ○   ○

사. 혼인신고서날인 (婚姻申告書捺印)

※ 혼인신고서는 신랑이 사전에 준비하여 당일 사회자에 주고 사회자는 예식이 시작되기전에 주례앞에 놓아두어야 한다.

○ 사회 : 다음은 혼인신고서에 신랑 신부가 서명 날인하겠습니다.

△ 주례 : 탁상위에 있는 혼인신고서에 신랑신부가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아. 주례사 (主禮辭)

○ 사회 : 결실 (結實)의 계절에 두사람은 만인의 축복속에서 한쌍의 부부로 탄생하여 이제 행복의 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두분을 축하해주고 아울러 앞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당부하여 주시겠습니다.

△ 주례 : 주례사는 간절하면서도 신랑신부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침과 교훈으로 간직할 수 있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 주례사에 인용할수 있는 금언 (金言)

• 괴테의 격언과 반성

임금이건 농부이건 자기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낼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 중국의 격언

가정을 다스린다는것은 왕국 (王國)을 통치하는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 키엘케골 (사랑의 기법)

사랑은 모든것을 믿으며 그러면서도 속지 아니한다. 사랑은 모든것을 바라면서도 결코 멸망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 죽고 (전집에서)

사랑은 상부 (喪夫)이며 단념 (斷念)이다. 사랑은 모든것을 다 주었을때 가장 뛰어난다.

• 마티어스 (그라우디스詩)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철문도 자물쇠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것을 꿰뚫고 나아간다. 사랑에는 처음이 없으며 영구히 그 노래를 피득인다.

• 트루게네프 (산문시)

사랑은 죽음보다도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욱 강하다. 사랑, 다만 이것에 의해서만 인생은 주어지고 진보(進步)도 계속되어 가는 것이다.

◦ 톨스토이

사람들은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이며 신과 재인(才人)에 대한 사랑은 생(生)의 시초이다.

◦ 포이엘바하(기독교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인간 최고의 본질이라면 또한 실천적인 최고 최상의 규율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면 아니된다.

자. 신랑신부 인사(新郎新婦人事)

○ 사회 : 다음은 신랑 신부가 하객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순서입니다.

△ 주례 : 신랑 신부에게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도록 지시한다.

□ 신랑신부 : 신랑신부는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간다.

△ 주례 : 두사람이 성혼하고 처음드리는 인사이니 하객여러분께서는 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경례

□ 신랑신부 : 45도이상 숙이고 천천히 축하객에게 절을 한다.

※ 축하객에 앞서 양가 부모에게 먼저 인사드리기도 한다.

차. 신랑신부 행진(新郎新婦行進)

○ 사회 : 이제 이 두사람은 부부로 결합하여 첫발을 내딛고 있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신랑 신부는 험찬 새출발을 기약하는 뜻에서 당당하게 행진하여 주시고 하객 여러분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지켜 보시면서 많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 행진이 있겠습니다. 신랑신부 앞으로 가

※ Wedding march

파. 폐식(閉式)

- 신랑 신부가 예식장 입구까지 갔을때 -

- 사회 : 이상으로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때 안내사항을 알린다.

- 사진 촬영 -

## 9 . 종교의 결혼식순 (宗教結婚式順)

### 가. 천주교 (天主教)

(1) 입장식

입당송 - 시 19.3.5

본기도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 창세 1, 26 - 28, 31

제 2독서 - 고린 전 6, 13~15, 17-20

복 음 - 마태 19, 3-6

강 론

(3) 혼례식

동 의 (신랑신부)

반지 축성과 교환 (신랑신부)

(4) 신자들의 기도

(5) 성찬의 전례 - 봉헌기도, 감사송, 영성체송, 영성체 후기도, 미사끝강복

### 나. 기독교 (基督教)

- ①주악 ②찬송가 ③성서낭독 (목사) ④기도 ⑤신랑신부입장 ⑥서약 (목사)  
⑦예물교환 ⑧찬송가 ⑨축사축전 ⑩송영 ⑪축도 ⑫주악 ⑬신랑신부퇴장

#### 다. 불교 (佛敎)

- (1) 하객일동좌정 (賀客一同座定) (2) 주악 (奏樂) (3) 신랑신부입당 (新郎新婦入堂) (4) 사혼자 불전에 경백문 (敬白文) 낭독 (5) 상견례 (相見禮) (6) 사혼자가 신랑신부에게 각각 염주 (念珠) 를 쥐어주고 사혼자가 말하면 두사람이 서약함. (7) 예물교환 (8) 사혼사 (司婚辭) (9) 양가대표인사 (10) 폐식

#### 라. 천도교 (天道敎)

- (1) 청수봉진 (淸水奉展) (2) 신랑신부예탁 (禮卓) 을 향해 경배 (3) 상견례 (4) 고전문낭독 (참례자일동기립) (5) 신랑신부 심고 (心告) 고 (苦) (6) 예물교환 (7) 상향배례 (相向拜禮) (8) 고사 (주례사) (9) 축복기원 (참례자일동) (10) 신랑신부내빈에게 경례 (참례자일동기립) (11) 폐식

## 10. 축의 (祝儀)

### 가. 축전 (祝電)

예식장에 참석하지 못할경우 체신부에서 정한 경축전보를 결혼식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보낸다.

### 나. 축의금품 (祝儀金品)

안내장 (案内狀) 을 받은 사람이 전통적인 미풍양속 (美風良俗) 으로 받아드리지 않고 납세고지서 (納稅告知書) 로 여길정도의 사람에게는 안내장을 보내서는 안된다.

안내장을 주고 받는것은 흔히 품앗이라고도 한다.

축의금품은 분수에 맞게 정을 표시하는 것이니 부담을 갖일 필요는 없다.

#### ○ 봉투에 쓰는글

祝結婚, 祝華婚, 祝聖婚, 祝盛典, 祝儀賀儀, 謹儀

祝 華 婚

一金 ○ ○ ○ 원 整

年 月 日

郡 邑 里

面

○ ○ ○ 謹呈

○ ○ ○ 貴下

결혼을 축하합니다.

금 ○ ○ ○ 원

년 월 일

군 읍 리

면

○ ○ ○ 드림

○ ○ ○ 귀하

○ ○ ○ (物目을 씀)

두분의 結婚을 祝福드리며 祝賀의 뜻을 表하나이다.

年 月 日

郡 邑 里

面

○ ○ ○ 謹呈

新郎 ○ ○ ○ 貴下



## 제 4 절 수연 ( 壽宴 )

사람이 태어나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일각(一角)에서 자기자리를 지키면서 때로는 힘든 삶에 지칠때도 있으나 자식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마치고 결혼하여 직장에 나가면 가는 세월은 어느듯 60 평생(平生)을 맞이 하게 된다. 그동안 즐거웠고 괴로웠던 일들을 되새겨 회상해 보면 실로 감회가 깊다.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내외분이 함께 할때는 그야말로 복(福)받은 사람들이다.

예로부터 자식들은 부모의 회갑(回甲)이나 진갑(進甲)을 맞이할 때는 친지와 어른들을 모셔놓고 수연을 베풀어서 장수(長壽)를 자축(自祝)하는 아름다운 풍속(風俗)이 있다.

최근에는 잔치를 생략하고 부모를 여행시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잔치 비용으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미덕(美德)도 있으며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있다.

1970년대 부터는 우리나라도 의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성장되어 식생활이 개선되므로써 평균 수명도 늘어감에 따라 이제 6순(六旬-60세)은 노인(老人)으로 대접하기 보다는 한참 일할 나이로 여기고 있으니 자식들은 소일(消日)거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방법이다.

### 1. 회갑 ( 回甲 )

회갑이란 자기가 태어난 해의 육갑년(六甲年-육십 갑자가 다시 돌아옴)을 다시 맞이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나이로 61세가 되는 해를 말한다.

회갑을 주갑(周甲) 또는 화갑(華甲)이라 하며 이 지방에서는 환갑(還甲)이라고도 한다.

회갑은 자녀들이 그 동안 받아만왔던 부모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다는 뜻에서 수연을 베풀고 건강과 계속된 장수를 축원하며 친지와 이웃 어른들을 초대하여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다.

## 2. 헌수 (獻壽)

헌수란 회갑을 맞이한 자녀들이 큰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축수(祝壽)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드리는 순서는 장남의 내외부터 차례대로 직계손이 먼저하고 친척과 하객(賓客)들이 축배(祝杯)를 올린다.

이때 회갑을 당한 사람의 부모가 생존시에는 오른쪽에 큰상을 차리거나 또는 같은상의 가운데에 모시고서 먼저 인사드린 다음 자녀들로부터 헌수를 받는다.

## 3. 잔치 (宴會)

### 가. 음식의 준비 (飲食準備)

- (1) 다식 (茶食) …… 송화다식, 흑임자다식, 녹말다식, 참깨다식
- (2) 건과 (乾果) …… 밤, 대추, 은행, 호도, 잣, 꽃감
- (3) 생과 (生果) …… 사과, 감, 배, 꺾임 계절의 과일
- (4) 유과 (油果) …… 약과, 강정, 빈사과, 세반, 매화
- (5) 편 (餅) …… 백편, 물편, 찰편, 초편, 주약 (5색)
- (6) 당숙 (糖屬) …… 옥춘, 팔보당, 줄병, 양국화, 발선과, 환자당
- (7) 정과 (正果) …… 청매, 연근, 산과, 모과, 생강, 유자
- (8) 포 (脯) …… 어포, 육포, 건적포
- (9) 적 (炙) …… 쇠고기적, 닭적, 화양적
- (10) 전 (煎) …… 생선전, 갈남, 고기전
- (11) 잡과 (雜果) …… 약과, 만두과, 한과
- (12) 강정 (糖精) …… 깨, 세반, 매화, 연, 계백
- (13) 어물 (魚物) …… 문어, 생조기, 송어, 청어
- (14) 초 (炒) …… 전복초
- (15) 김치 …… 나박김치
- (16) 간장 …… 초간장
- (17) 식혜 …… 식혜

- (8) 면 ( 麵 ) ……국수  
 (9) 신선로 ( 神仙爐 ) …까스렌지  
 (10) 주전자 ……주전자와 술잔  
 (11) 상 ( 床 ) ……큰상 ( 큰상옆에 놓을 곁상과 술상 )

#### 나. 상 ( 床 ) 차리기

- (1) 큰상 앞에는 술상, 옆에는 곁상을 놓는다.  
 (2) 음식을 괴어 담는 높이는 그릇에서 부터 9 cm, 15 cm, 21 cm, 27 cm, 33 cm 등 홀수로 하는 것이 관례이고, 고임 접시는 쌀을 담아서 편편히 고른 다음 백지로 싸서 음식을 괴이면 좋다.  
 (3) 곁상에는 신선로, 국수, 식혜, 나박김치, 화채, 초간장등을 차린다.  
 (4) 큰상에는  
 과실과류는 앞쪽, 편류는 옆쪽, 적은 뒤,  
 ㉠ 은행은 까서 볶고 대추는 실백을 찌서 박은후 실에 꿰어 쌓는다.  
 ㉡ 생과일은 쌓기가 곤란하므로 아래, 위 부분을 잘라내고 쌓아서 대꽃이로 꽃는다.  
 ㉢ 과자류는 백지를 붙여 가면서 쌓는다.

#### ○ 회갑상 차리기

대추	밤	꽃감	사과	배	귤	은행	잣	
율란	용단육	옥준당	팥보당	증과	강정	다식	산과	
반사과	타래과	다식과	묘약과	증계	식혜	수정과	편청	편
적	신선로	담팜	해삼염	어젬	갈비젬	잡채	어갈남	육갈남

#### 다. 수연의 식순 ( 壽宴式順 )

- (1) 개식 ( 開式 ) (2) 헌화 ( 獻花 ) (3) 식사 ( 式辭 ) (4) 약력소개 ( 略歷紹介 ) (5) 헌수 ( 獻壽 ) (6) 하사 ( 賀詞 ) (7) 축하 ( 祝辭 ) (8) 축하 ( 祝歌 ) (9) 송시 ( 頌詩 ) (10) 영창 ( 詠唱 ) (11) 예사 ( 禮辭 ) (12) 폐식 ( 閉式 )

#### 4. 초청 (招請)

회갑연 (回甲宴)의 초청에 있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에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의 초청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친척 회갑을 맞은 분의 친구, 자녀들의 친구에게 전화 또는 서신으로 연락해야 한다.

○ 서신의 예 (書信例)

○ ○ ○ 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저희 아버님의 회갑일을 맞이하여 자식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수연을 베풀 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큰 아들    ○    ○    ○

둘째 아들    ○    ○

큰 딸       ○    ○ 함께 올림

○ 수연단자 (壽宴單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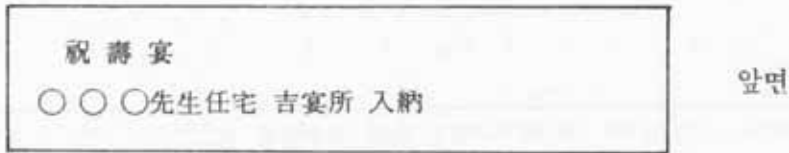
□ 그의 아들에게 보낼때

<p style="text-align: center;">祝 義</p> <p style="text-align: center;">○ ○ ○ 氏</p> <p style="text-align: center;">椿堂 ( 또는 玆堂 ) 壽宴時</p> <p style="text-align: center;">一 金    ○    ○    ○ 원整</p> <p style="text-align: center;">年    月    日</p> <p style="text-align: right;">○ ○ ○ 謹呈</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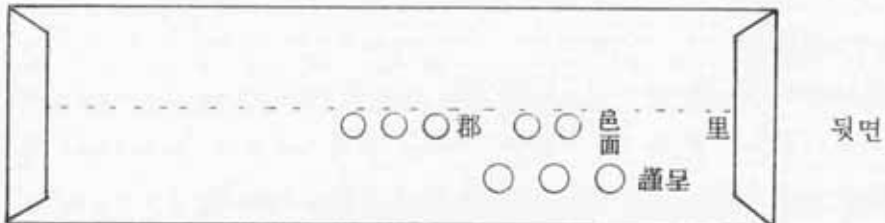
□ 당사자에게 보낼때

<p style="text-align: center;">김 선생님께</p> <p style="text-align: center;">삼가 수연을 축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 (기념품명)</p> <p style="text-align: center;">年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 ○ 올림</p>
--

△ 봉투글씨



※ 壽儀, 祝儀, 祝選甲, 賀儀, 祝禮筵



## 5. 장수잔치 (長壽)

### 가. 진갑 (進甲, 辰甲)

회갑 다음해의 생일을 진갑이라 한다.

형편에 따라 회갑잔치를 못했을 때는 진갑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진갑은 딸이 모셔다 잔치를하는 풍습이 있다.

### 나. 칠순 (七旬)

70세를 고희 (古稀)라 하며 자손들이 모여서 장수잔치를 베풀어 장수를 축하한다.

칠순잔치를 망팔 (望八) 또는 희연 (稀宴)이라고도 한다.

고희란 「두보」 (杜甫)의 시 (詩)에서 「인생 칠십 고래회」란 약어이며 사람이 70세까지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 다. 팔순 (八旬)

80세가 되면 또 잔치를 베풀다.

이밖에 88세에 베풀어 드리는 미수연 (米壽宴)이 있고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여 회혼례 (回婚禮)를 거행해 드린다.

## 제 5 절 상례 (喪禮)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理致)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에 두고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名譽)도 이세상에 남겨둔 채 정든 고향을 떠나 다시 못을 저승으로 가야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가족들은 슬픔속에서도 정해진 절차(節次)에 의하여 장례(葬禮)를 치루어야 한다.

고대(古代)의 상례(喪禮)는 왕실(王室)을 비롯하여 사대부(士大夫)와 선비들이 온갖 정성(精誠)을 들여서 지켜왔으며 서민(庶民)들은 그 중 일부를 본받아서 시행(施行)하여 오는동안 지방과 가문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간소화된 상례가 차츰 자리 잡히고 있으므로 본고(本稿)에서는 재래식상례(在來式喪禮)와 현대식상례(現代式喪禮)로 구분하고자 했으며 특히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의한 묘(墓)자리를 알기쉽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 재래식상례 (在來式喪禮)

### 1 . 초종 (初終)

#### 가. 신질 (愼疾)

신질이란 병환 (病患)을 정중히 받든다는 뜻이며 천거정침 (遷居正寢)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회생 (回生)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독해지면 이때 부모 혹은 조부모 일 경우는 큰방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외내안정 외내개소 동수어복우하 칠의가신의속광  
外內安靜 外內皆掃 東首於北牀下 徹衣加新衣屬橫

〈해석〉안 밖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여 북쪽의 창문 아래에 편안하게 눕히고서 새옷으로 갈아 입힌 다음 깨끗한 솜을 코 밑에 붙여준다.

※ 솜을 코 밑에 붙이는 이유는 환자의 숨결이 완전히 끝났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나. 유언 (遺言)

환자가 남긴 유서 (遺書)가 없고 재산분배등을 유언으로 할때는 여러 사람앞에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면 생존시의 육성도 보존할 수 있다.

#### 다. 임종 (臨終)

임종이란 부모가 운명 (讞命)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드리는 것이다.

임종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간단한 문답으로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떠한 미련이 있어하면 소망대로 해드리겠다고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여 모든것을 잊고서 편안하게 운명하시도록 해야한다.

남자불절어부인수 부인 불절어남자지수  
男子不絕於婦人手하고 婦人은 不絕於男子之手하라

〈해석〉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지말고 여자는 남자의 손을 잡지말라 부녀간이라도 다소 거리를 두고 운명하면 슬프게 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손을 잡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라. 정제수시 (整齊收屍)

환자의 코밑에 붙인 솜이 흔들리지 않을때가 운명한 것이니 임종을 모신 사람들은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어야 한다.

◦ 정제수시의 차례와 요령

- ①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린다.
- ② 소독솜으로 입 코 귀를 막는다.
- ③ 시체가 굳기전에 손발을 고무 주물러 펴서 두손을 배위로 곱게 올려 놓고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 오게 함) 서로 닿지 않게 간격을 두고서 백지 (배의 천도 무방함)로 묶는다.
- ④ 두 다리도 곱게 펴서 발끝이 위로 가도록 똑바로 모아서 흠어지지 않게 백지로 동인다.
- ⑤ 솜을 알콜에 적시어 얼굴, 손, 발을 깨끗이 닦는다.
- ⑥ 북침 (北枕 - 머리를 북쪽으로함) 한다.
- ⑦ 백포 (白布)로 얼굴을 가리거나 훗이불 (뒤에 대림시 사용)을 머리까지 덮는다.
- ⑧ 가족들은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한다.
- ⑨ 병풍으로 앞을 가린다.

마. 고복 (擧復)

고복이란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몸에서 떠난 혼백 (魂魄)을 불러서 되돌아오게 하여 몸에 붙게 한다는 뜻이며 예문 (禮文)에는 복 (復) 또는 초혼 (初魂)이라고도 한다.

◦ 고복의 차례와 요령

- ① 시체를 대하지 않은 사람이 밥세그릇, 짚신세켄에 동전을 채반에 담아서 대문 밖에 놓는다.
- ② 남상 (男喪)은 남자, 여상 (女喪)은 여자가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을 가지고 치마 밑을 통하여 지붕위로 올라간다.
- ③ 왼손으로 옷깃을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옷을 휘두르면서 크고 긴 목소리로 남상은 주소와 직함 (관직)과 성명을, 여상은 주소와 본



관과 성씨를 외친다음 「복,복,복」하고 세번 외친다.

④ 옷은 지붕위에 두거나 혹은 시체위에 놓고 홑이불을 덮는다.

△ 복을 세번 부르는것은 혼(魂)이 하늘(天)과 땅(地)과 공간(空間)에서 온다하여 세번 부른다고 한다.

△ 채반에 밥세그릇, 짚신세켄레 동전을 놓아둔것은 속칭 사자밥이라 하여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온 명부(冥府)의 차사(差使)를 대접하여 죽은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해 달라는 뜻이다.

#### 바. 설위와 상천사(設幃床遷屍)

시신의 자리를 옮긴다. 평상(平床-평상이 없으면 자리만 편다)을 놓고 그 위에 자리를 깔고 짚으로 만든 베게 세개를 시체의 머리(頭上), 허리(腰),아래(下部) 부분에 놓은 다음 망인(亡人)의 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게 옮기고 병풍 또는 포장을 친다.

#### 사. 발상과 상주(發喪·喪主)

발상이란 상(喪)을 공표(公表)한다는 뜻이다.

##### (1) 발상(發喪)

역복(易服) 즉 현재의 옷을 갈아 입는다. 화사한 색의 옷을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는다.

옛날에는 남자는 심의(深衣)를 입고 옷 섹을 여미지 않았고 여자는 백장의(白長衣)를 입었으며 이때 맨발에 신도 신지 않았다.

최근에는 주상인 남자는 흰색 두루마기를 부상(父喪)일때는 왼쪽,모상(母喪)일때는 오른쪽의 팔을 빼고 소매를 늘어 뜨린채 입는 경우도 있고 혹은 검은색양복으로 갈아입기도 한다.

옛날 발상은 아들 딸 며느리는 머리를 풀었으나 양자간 아들과 시집간 딸은 비너만 빼었다.

##### (2) 상주(喪主)

상주는 장자가 되고 부재시는 장손이 된다. 장손도 부재일때는 차자(次子)나 차

손 (次孫)이 승중 (承重)한다.

상제는 망인 (亡人)의 배후자와 직계존비속이 된다.

복인 (服人)의 범위는 고인 (故人)의 8촌 이내가 된다.

발상이 끝나고 상주가 정해지면 초상을 발표한다.

최근에는 근조 (謹吊)라고 쓴 등을 문 앞에 달아 놓거나 대문에 기중 (忌中)이라고 써서 붙인다.

#### 아. 호상 (護喪)

호상은 상중 (喪中)의 초종범절 (初終凡禮)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복인이 아닌 친족이나 친지중에서 정한다.

사서 (司書 - 문서, 금전 방명록 책임) 사화 (司貨 - 喪財 현금출납 물품구입책임) 상례 (相禮 - 초상의 진행 책임) 측관등을 지명하여 호상을 보좌케 한다.)

#### 자. 내전 (乃奠)

생시 (生時)와 다름없이 올리는 것이 전 (祭物 - 주로 과일, 포동)이다. 시신을 가린 병풍앞에 백지를 깔고 상을 놓고서 차려 놓는다.

평소 망인이 즐기던 음식과 과일등을 집사 (執事)가 올리고 하루에 한번 이상 교체한다.

최근에는 흰색 또는 흑장미 등을 꽃아서 정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차. 치관 (治棺)

호상이 목공 (木工)이나 관장 (棺匠)을 시켜서 관을 만들게 한다.

관목 (棺木)은 유삼 (油衫 - 기름에 절인 衫木)이 좋고 그다음 잣나무를 사용했다.

관재 (棺材)는 천판 (天板) 1매, 지판 (地板) 1매, 사방판 (四旁板) 2매로 하고 두께는 3치 혹은 2.5치로하고 높이와 길이는 시신에 따라 결정한다.

칠성판 (七星板)은 염습 (歛襲)할때 시신의 밑에 까는 널 판자로 두께는 5푼이며 북두칠성 모양의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칠성판이라 부른다.

친지들에게 사망의 부음(訃音)을 알리는 것이다.

【부고서식 1】

某碩士○○大人某月某日得病不幸於

某月某日棄世傳人(우송시“人”을“書”로訃)訃告

年 月 日

護喪 ○ ○ ○ 上

某碩士座前

【부고서식 2】

某姓名大夫人某封某氏以宿患

某月某日某時別世茲以訃告

年 月 日

護喪 ○ ○ ○ 上

某位 貴下

【부고서식 3】

某碩士某大人學生(有官則官名)慶州金公以宿患

某月某日某時別世茲以傳人(우송시「人」을「書」로)訃告

年 月 日

護喪 ○ ○ ○ 上

某碩士座前

【부고서식 4】

○○○氏嚴親 ○○氏は 急性心臓炎으로 지난 ○月○日 午前 ○時 ○○分  
서울醫大附屬病院에서 別世하시였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發軔 ○月 ○日 上午○時 醫大病院永訣式場

○葬地 郡 面 里 山 ○○墓地

年 月 日

主喪	長子	○	○	○
	次子	○	○	○
	孫	○	○	○
	弟	○	○	○

貴 下

【 부고서식 5 】

金某氏大人學生慶州金公 (○○) 以宿患 (老人은老患)

某月某日 (陰某月某日) 午前 某時於自宅別世 茲以告訃

發 訃 ○月 ○日 午前 某時

葬地 郡 面 里 某 山

年 月 日

嗣子	○	○	○
次子	○	○	○
孫	○	○	○
弟	○	○	○
姪	○	○	○
婿	○	○	○
親族代表	○	○	○
友人代表	○	○	○
護 喪	○	○	○

○ 사망자의칭호 (상주를기준)

△ 조부 (祖父) - 왕대인 (王大人)

△ 조모 (祖母) - 왕대부인 (王大夫人)

△ 부 (父) - 대인 (大人)

△ 모 (母) - 대부인 (大夫人)

○ 처 (妻) - 망실 (亡室)

실인 (室人)

부인 (夫人)

## 2. 습과 염 (襲·斂)

습이란 수의(壽衣)를 입히기 위하여 향탕수(香湯水 - 향나무 삶은물) 혹은 썩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는것을 말하며 이때 남상(男喪)은 남자가 여상(女喪)은 여자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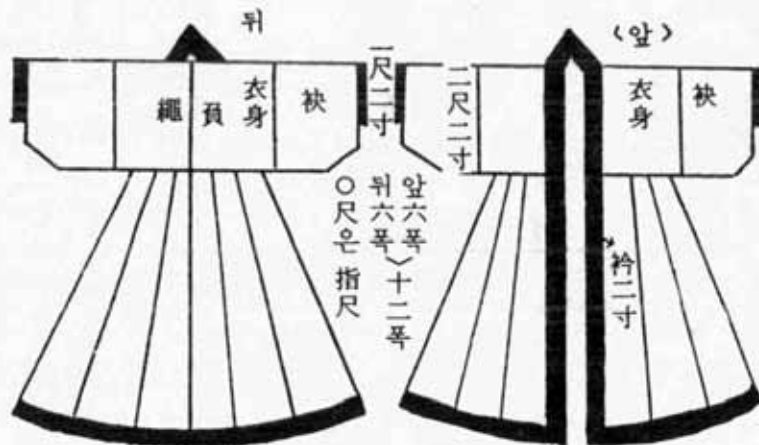
염이란 수의를 입힌 다음 매장포(埋葬布)로 시신을 싸아서 단단히 묶는 절차를 말한다.

### 가. 수의(壽衣)

노인(老人)을 모시고 있을 때는 윤달(閏月)에 미리서 수의를 마련해 둔다. 최근에는 포목점이나 장의사에서 쉽게 구할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수의는 비단이나 마직(고운 부포 혹은베)등 자연 섬유로하고 색은 대개 흰색으로 하며 크게 겹옷으로 만든다.

#### ◦深衣



### 나. 준비물(準備物)

- (1) 향탕수 (지금은 옥시풀을 대응) (2) 시신을 올려 놓는상(牀), 자리(席), 요(褥), 베개, 목욕수건 3개 (하나는 머리를 닦고 하나는 위부분, 하나는 아래 부분) (3) 식건(拭巾 - 마른수건) 2개 (4) 금, 은, 진주 (반함때 사용하는 것으로 금, 진주가 반함시에는 패를 3준비 - 패(貝)란 금, 옥, 돈을 말하며 이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값싼 무공주(구슬)를 대응해도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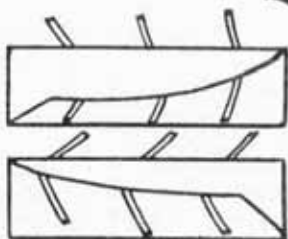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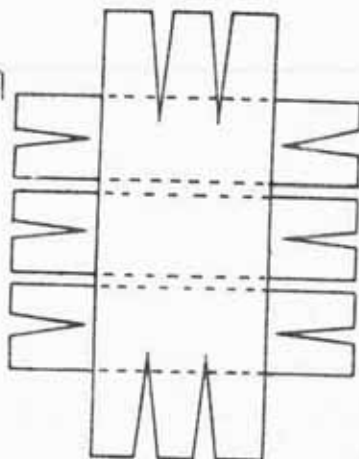
○ 斂襲할때의 準備物

큰띠 (大帶)



고다리

<대렴금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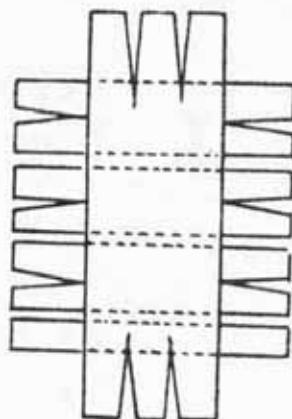


모 (冒)



충이 (充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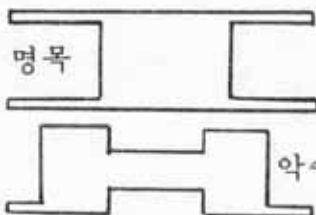
<소렴금 교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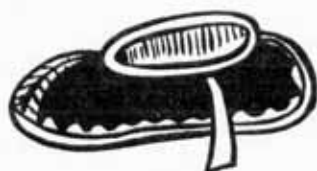
쪽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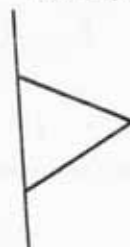
명목

악수

<함영>



흑이 (黑履)



- (5) 정백미(精白米-쌀 약간) (6) 버들수저(버드나무로 만든것) (7) 물수건  
 (8) 소낭(小囊) 5개(머리털, 좌우손 발톱) (9) 세수대야

#### 다. 반함(飯含)

반함이란 시신의 입안에 구슬(無孔珠)과 쌀을 물려주는것을 말하며 소렴(小斂) 절차의 일부이다.

##### • 반함의 차례와 요령

- (1) 상주는 곡을 하며 왼쪽 소매를 벗어서 바른편 허리에 꿋는다.
- (2) 무공주 3개 담은 그릇과 쌀(반수저 정도) 그릇에 버드나무 수저를 꿋아서 가지고 들어간다.
- (3) 상주는 시신의 동쪽 발치로부터 서쪽으로 올라와서 동쪽을 향해 앉아서 시신을 덮은 명건(幪巾)을 들고
- (4) 버드나무 수저로 쌀을 조금 떠서 오른쪽의 입에 넣고 이어서 무공주 구슬을 넣는다.
- (5) 쌀과 무공주를 입의 왼쪽과 가운데에도 넣는다.
- (6) 숨을 명주에 싸서 턱 아래를 채우고 폭건(幅巾)을 씌운다.
- (7) 충이(充耳)로 좌우 귀를 막고 명목(幪目)을 덮고 신을 신긴다.
- (8) 심의(深衣)를 걸우어 옷깃을 산사람의 반대인 오른쪽으로 여민다.
- (9) 조대(組帶)와 대대(大帶)를 동심결(同心結)로 매고 악수(握手)를 맨다.

△ 버드나무 수저로 쌀을 떠 넣으면서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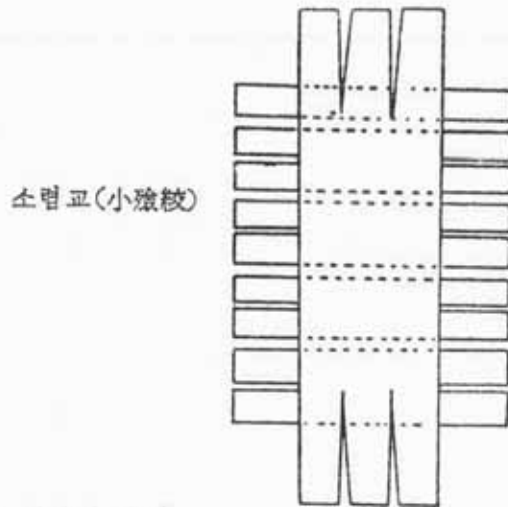
##### ※ 사계(沙溪)의 말

상주는 염할때 당연히 스스로 해야한다. 다시 못볼 종천(終天)에 즈음하여 타인을 시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 라. 소렴(小斂)

소렴이란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며 옛날에는 2일째 되는날 아침에 시행했다.

소렴은 남상(男喪)은 남자가 여상은 여자가 한다.



◦ 소렴의 차례와 요령

- (1) 소렴상(小斂床) 위에 돛자리를 깔고 그위에 지금(地禽)을 피 놓는다.
- (2) 속포(束布) 20 마를 일곱구비로 서려서 놓고 장포(長布) 7 자를 길이로 깎는다.
- (3) 여섯사람이 시신의 좌우에 서서 머리 허리 양쪽의팔 다리를 들어서 옮긴다.
- (4) 위아래 옷을 각각 겹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입힌다.
- (5) 시신의 머리를 반듯하게 고이고 양쪽 다리의 빈곳을 옷으로 채우고 바르게 한다.
- (6) 수의는 왼쪽으로부터 여미고 옷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로 싸맨다.
- (7) 폭건(幅巾)과 두건(頭巾)을 씌우고 이불로 고르게 싣는다.
- (8) 장포(長布)끝을 셋으로 찢어서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은 다음 끊어서 속포의 한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베폭은 7 폭이지만 묶는 매수는 21 매가 된다.)
- (9) 시신을 시상에 모시고 남자 상제들은 포두건(布頭巾)을 하고 베중단을 입고 여자들은 풀었던 머리를 걸어올린다.
- (10) 집사는 소렴전에 차려놓은 음식을 새로 바꾸고 상제들은 절은 안하고 애곡(哀哭)한다.



### 마. 대렴(大斂)

대렴은 입관(入棺)의 의식이며 3일째 한다.

#### ◦ 대렴의 차례와 요령

- (1) 관(棺)을 시상(屍牀)의 서쪽에 옮겨놓고 관의 밑바닥에 칠성판(七星板)을 깔고 지금(地衾)을 깐다.
- (2) 대렴포(大斂布) 30 자에 횡포 3 폭을 놓고 이를 각각 반씩조개면 좌우로 각 6 폭이 된다.
- (3) 장포(長布) 한폭을 놓고 양끝을 셋으로 조개후 그위에 대렴금(大斂衾)을 펴놓고 소렴한 시신을 그위로 옮긴다.
- (4) 왼발 오른발 머리의 순서로 여미고 장포를 세매로 묶고 횡포를 5 매로 묶고서 한쪽을 놓아둔다
- (5) 시신을 조심스럽게 관속에 넣는다.
- (6) 다섯 주머니에 담은 머리털과 손발톱의 주머니를 구분해서 넣는다.
- (7) 비어 있는 곳은 망인의 옷을 말아서 채우고 폐물을 넣기도 한다.
- (8) 천금(天衾)을 관속에 덮고 상제들은 애곡(哀哭)한다.
- (9) 목수를 불러서 두꺼를 덮고 은정(나무못)을 박는다.
- (10) 시신(屍身)을 누웠던 상(牀)을 치우고 관을 덮는다.
- (11) 두꺼운 종이로 관을 싸서 노끈 50 발로 묶은 다음 초석(짚자리)으로 싸고 백지로 짠 가느다란 동아줄로 묶는다.
- (12) 구의(柩衣)로 관을 덮고 영좌를 설치하며 병풍으로 가린다.
- (13) 전(奠)을 올리고 상제는 요질(腰經)과 수질(首經)을 벗지 아니하며 조석으로 곡을 한다.

### 바. 영상(靈牀)

대렴이 끝나면 병풍앞에 교의(交椅)에 사진이나 혼백(魂帛)을 모시고 제상(祭床)앞에다 향안(香安), 향로(香爐), 향합(香盒), 모사그릇 촛대(한쌍) 더 등매(薦-짚자리) 베개 수건등을 준비하고 망인이 평소 사용하던 거울 빗 담배 빨지 등을 놓아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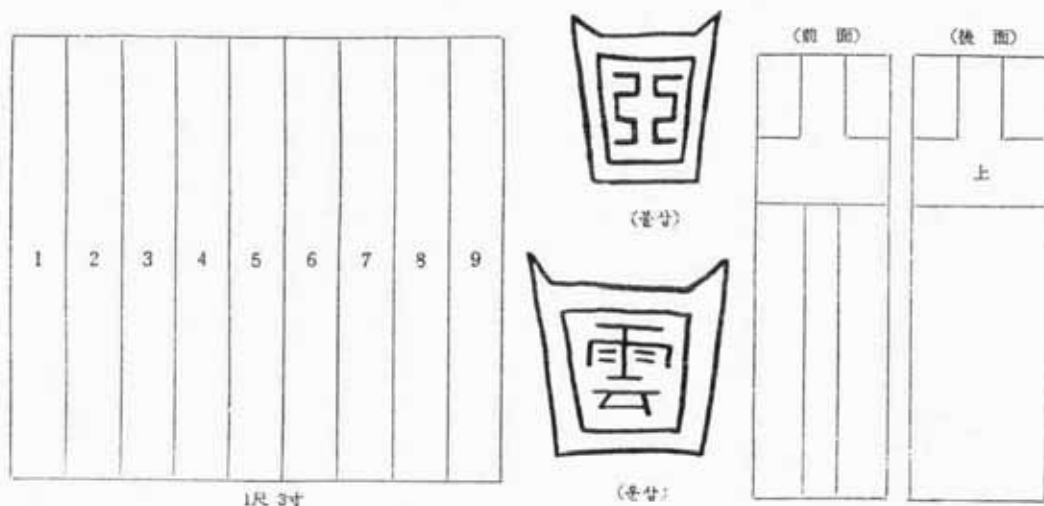
사. 혼백 (魂帛)

혼백은 신주 (神主)를 만들기전에 마포 (麻布)나 백지로 접어서 만드는 임시의 신 위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신주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빈소 (殯所)에 모셨다가 대상(大祥)이 지난 후에는 묘소 (墓所)에 묻는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접은 혼백에 5백설로 만든 동심결 (同心結)을 끼워 혼백함에 넣어서 모신다. 깨끗한 백지로 고인의 옷과 지방을 싸서 함에 넣기도 하고 사진으로 대신 하기도 한다.

(1) 혼백 (魂帛) 접는법



- ① 도표의번호 ①을 ②와 맞닿게 접는다.
- ② 도표의번호 ③을 반 등분하되 ③이 보이게 접어 ①의 뒷면으로 가게 접는다.
- ③ 도표의번호 ④를 접되 ④가 보이게하여 ②의 뒤에 가게 접어야 한다.
- ④ 도표의번호 ⑤의 중간을 접되 ⑤가 속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①의 뒷면에가서 ③과 마주되게 접으면 ⑤는 보이지 않게된다.
- ⑤ 도표의번호 ⑥과 ④가 서로 맞닿게 접으면 ⑥은 자연히 보이지 않는다.
- ⑥ 도표의번호 ⑦은 접어서 ⑥의 뒷면에 붙이면 ⑦은 보이게 된다.
- ⑦ 도표의번호 ⑧은 ⑦과 맞닿게 붙여서 접어야 한다.
- ⑧ 도표의번호 ④와 ⑥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의 변을 한치 (寸)로 접어서 ④와

- ⑥에 붙게 안으로 접는다.
- ⑨ 도표의번호 ⑦과⑧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의 아래변을 한치로 접어서 ⑦과⑧이 붙게 안으로 접고 벌리기 전대로 접는다.
- ⑩ 도표의번호 ⑨를접되 번호 ④의 아래변의 접은 것을 사서 꽃으면 된다.
- ⑪ 도표와 같이 위를 백지로 표시하되 번호 ⑧의 뒷면이 앞으로 가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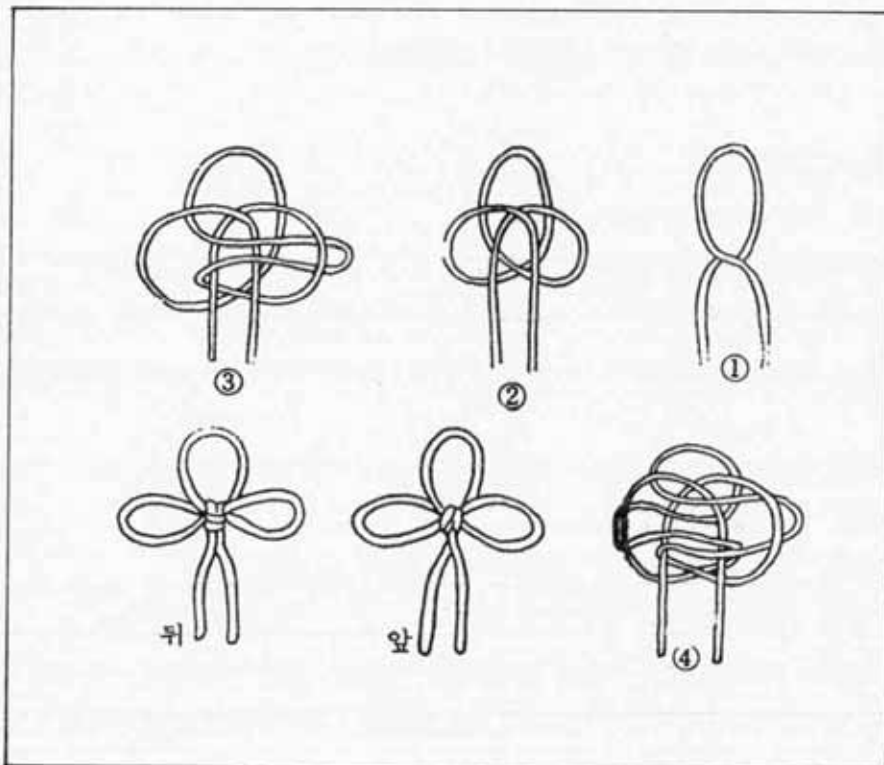
### (2) 혼백상자 (魂帛箱子)

혼백상자는 종이를 서너겹으로 붙여서 밑바닥에 붙인 종이는 사방이 6치로 하고 높이는 5 - 6푼가량 되게한다.

앞에는 전(前)이라고 쓰고 복판에는 손잡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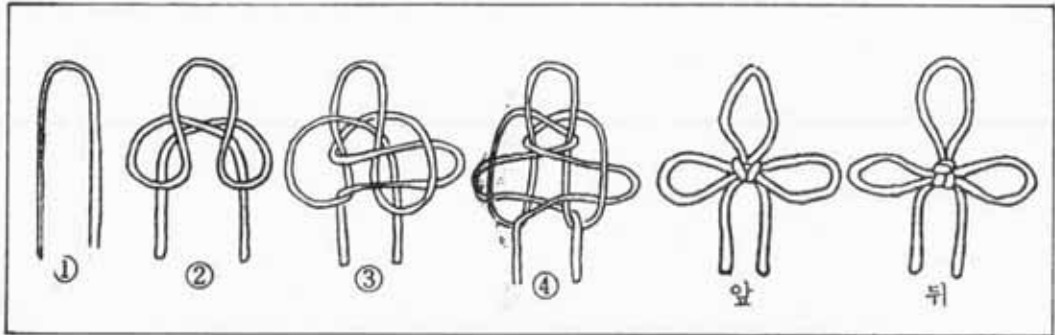
### (3) 동심결 (同心結)

한자 정도의 오색실을 합해서 실가락 한가운데를 손가락에 감아서 그림과 같이 맨다.



(경사(慶事) 동심결)

· 흉사 (凶事) 동심결



아. 공포 (功布)

공포는 상여의 길잡이로서 도로 (道路)의 높고 낮음이 있을때 또는 길이 좌우로 꺾일때 이 공포를 방향별로 흔들면서 알린다.

공포의 길이는 3자로하되 대공포 (大功布)로 한다.

3 . 장일과 장지 (葬日 · 葬地)

가. 장일 (葬日)

상 (喪)을 당하면 먼저 장일을 정한다.

상사 (喪事)에는 짝수를 쓰지 않고 홀수 즉 3, 5, 7, 9 일 장으로 한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장사일을 차별했고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좋은 묘지 (墓地) 자리를 찾기에 날짜가 걸렸으며 또 길일 (吉日)을 택하면서 시일이 경과되었다.

나. 장지 (葬地)

(1) 묘 (墓) 자리의 선정 (選定)

상 (喪)을 당하면 장사일과 함께 장지를 바로 정해야 한다.

선산 (先山) 또는 집안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선영 (先塋)이 없을때는 공동 묘지를 사전에 답사하여 묘자리를 정하거나 아니면 산을 사야한다. 장지의 후보지로 선정할때는 도시계획의 구획정리, 경지정리, 공장부지, 도로부지등 행정 사항을 알아보고 전망도 해 보아야 한다.

## 【編輯者註】

◦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대하여

우리 조상(祖上)들은 선조(先祖)를 명당(明堂)에 모시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그 풍속(風俗)은 전(傳)해 오고있다.

풍수지리에 관한 저서(著書)는 한두가지가 아니며 또한 혈(穴-묘자리)을 찾아서 정(定)하는 방법은 설왕설래(說往說來)하여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할지 모른다.

풍수지리설을 론(論)하기에 앞서 먼저 역학(易學)에 밝은 지식이 있어야하며 예로부터 명당을 얻으려면 훌륭한 지사(地師)를 만나라고 했다.

오늘날 정통의 역학을 이수하고 대명산(大名山)을 두루 살펴보고 많은 묘(墓)를 감정해본 지사(地師)가 과연 몇명이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의 지관(地官)이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명당설(明堂說)에 연연(戀戀)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련서적을 통하여 기초지식을 얻고 풍수지리설 즉「바람」「물」「흙」에 대한 상식을 스스로 터득하여 내조상의 묘자리는 내 손으로 선정해 보겠다는 마음 가짐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 (2) 풍수지리의 개념(風水地理概念)

명당(明堂)은 내명당(內明堂)과 외명당(外明堂)으로 구분하고 이는 모든 산세(山勢)가 집합(集合)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묘(墓)의 뒷산은 마치 병풍처럼 둘러서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맑은물이 흘러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멈추어 있는것 같아야하며 혈(穴-묘자리)에는 흙과 그 색이 고아야 한다. 또 묘 뒤의 주령(主嶺)은 물론 전면안(前面案)도 좋아야 한다.

다음은 복호혈(伏虎穴), 와우혈(臥牛穴), 증혈(甌穴), 장대혈(將臺穴), 비룡혈(飛龍穴), 잠룡혈(潛龍穴), 유구혈(乳拘穴), 매화혈(梅花穴), 장혈(掌穴) 성혈(聲穴) 등 수(數)없이 많은 형(形)이 있으니 이를 확실히 살펴보아야 하며 형국(形局)에 따라서는 좌청룡(左靑龍)과 우백호(右白虎)그리고 주조종산(主祖宗山)에 구애받지 않고서 혈(穴)을 산마루 혹은 산기슭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理解)를 돕기 위하여 예(例)를 들어보면 서울 동작동(銅雀洞)의 국립묘지(國立墓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명당으로 꼽고 있다. 이곳은 마치 공작(孔雀)이 알을 품고있는 형상이다.

앞에는 수십리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한강(漢江)이 있고 관악산(冠岳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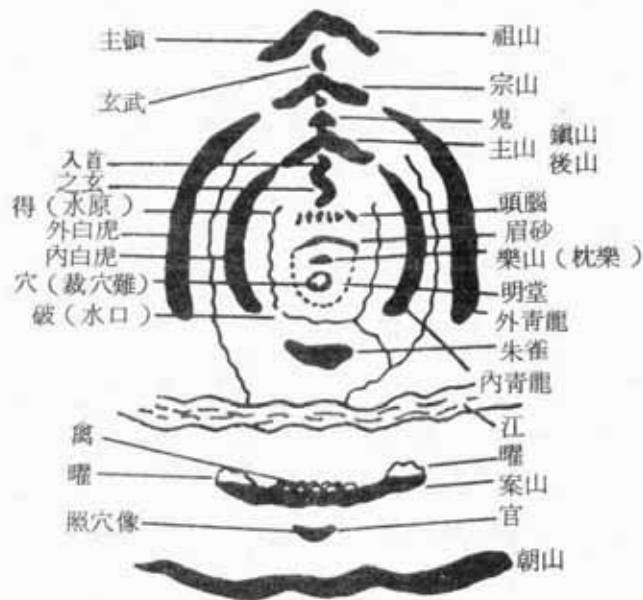
조산(祖山)으로 내룡(來龍) 한 현무(玄武)는 관기정통(官氣正統)하며 후강(後岡)의 낙산(樂山)은 풍부한 침탁(枕樂)이 될수있다.

종산(宗山) 주산(主山)으로부터 내려 뺀은 청룡백호(靑龍白虎)의 높낮이와 기복(起伏)이 알맞으며 안산(案山)을 전망해보면 남산(南山)은朱雀(朱雀)의 명무상(鳴舞狀)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요(禽曜), 관귀(官鬼), 득과(得破)등이 모두 정확하며 조산(朝山)은 삼각산(三角山)이요 북악산(北岳山)은 관봉(官峰)이다.

그밖에 공동묘지(共同墓地)를 관찰해 보면 풍수지리설을 뒷 받침해 준다.

### (3) 묘(墓)자리를 보는 방법(方法)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의하면 산(山)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진혈(鎭穴)이 있고 산(山)이 집합(集合)하는 곳에는 명혈(名穴)이 있다. 그 혈(穴)을 찾아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세통설 (四勢統說)

사세 (四勢)는朱雀 (朱雀), 현무 (玄武), 청룡 (靑龍), 백호 (白虎)를 가르키며 묘 (墓)자리를 볼때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 ①朱雀 (朱雀)

朱雀은 남쪽하늘을 맡은 신령 (神靈)으로써 붉은 봉황 (鳳凰)의 형상 (形狀)을 상징하며 풍수지리설에서는 묘 (墓:穴)자리앞에 자리하고 있는 안산 (案山)을 뜻한다.

안산은 공작 (孔雀)이 날개를 펴고 춤을 추드시 감싸고 돌아서서 주객이 상대방을 다정하게 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면 좋다. 안산을 감고 도는 물이 잔잔하면 자손들이 부귀하고 만약 안산이 등을진 형상 (形狀)이면 불길 (不吉)하다.

#### ②현무 (玄武)

현무는 사신 (四神)의 하나로 북쪽을 지키는 신령으로써 거북과 뱀의 모양을 상징하며 풍수지리설에는 위에서 따라 내려온 산맥 (山脈—龍)을 가르킨다.

현무는 머리가 곧고 알개 구비쳐서 정통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것이 좋으며 봉고 (峰高)가 혈 (穴)에서 한층 더 높으면 더욱 좋다.

현무가 뺨어 내려오면서 기복 (起伏)이 없으면 불귀 (不貴)하며 만약 현무가 없을 경우는 후맥 (後脈)이 좋아야 한다.

#### ③청룡 (靑龍)

청룡은 사신 (四神)의 하나로 동쪽하늘을 지키는 신령으로써 푸른용 (龍)의 형상을 상징하며 풍수지리설에는 왼쪽을 둘러싸고 뺨어내려 온 산줄기를 말한다.

청룡이 겹겹으로 쌓여서 힘이 넘치고 꿈틀거리는 형국으로 내려와서 혈 (穴)을 감싸주면 좋으며 특히 본손 (本孫)이 손세 (孫勢)하고 관운이 있다.

청룡이 혈 (穴)을 호위하지 않고 곧바로 뺨어내려 가거나 혹은 반궁형상 (反弓形像)으로 굽어서 내려가면 불길 (不吉)하다.

#### ④백호 (白虎)

백호는朱雀, 현무, 청룡과 함께 사신 (四神)의 하나로 서쪽하늘을 지키는 신

령으로써 호랑이의 모습을 상징하며 풍수지리설에서는 오른쪽을 둘러싸고 뺨어 내려오는 산줄기를 말한다.

백호의 산세 (山勢)는 치닫지 않은 형상으로 순수하게 엮드려서 혈 (穴)을 호위하는 복호형국 (伏虎形局)이어야 한다.

백호상이 좋으면 본손에게는 재물이 왕성하고 외손세 (外孫勢)도 좋다.

둘째, 사령통설 (四靈統說)

사령이라 함은 관귀리요 (官鬼厲曜)를 말하고 관과 귀는 숨어 있어서 외면 (外面)에 나타나지 않으며 리와 요는 외면에 표현되므로 숨기지 못한다.



① 관 (官)

관은 안산 (案山)의 뒤에 있는 봉두 (峰頭)를 말한다. 관의 형국이 즉 돌아앉은 회두 (回斗)가 혈 (穴)을 정면으로 비추어 주는듯한 상 (像)을 조혈상 (照穴像)이라 하며 매우 좋은 자리이다.

혈 (穴)은 얻었으나 관봉이 없으면 좋은자리로 볼수없다.

② 귀 (鬼)

귀는 주산 (主山)의 뒤에 있는 봉두 (峰頭)를 말한다.

귀가 너무 커도 불귀 (不貴)하고 없어도 귀혈 (貴穴)이 못된다.

귀상 (鬼相)이 배후에 있어도 봉우리 하나가 단정해야 한다.

③ 리 (厲)

리는 암석소산 (岩石小山)이 수구주변에 있는것을 뜻한다.

리봉 (厲峰)은 항상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 바라보는듯한 국 (局)을 말한다.

혈 (穴)에 리봉이 있으면 대명 (大榮)의 형국 (形局)이다.

④ 요 (曜)

요는 소산암석 (小山岩石)이 청룡두 (靑龍頭)와 백호두 (白虎頭)의 밖에서 마주보고 있는것을 의미한다.



요는 청룡 백호와 서로 협조하는 형상이어야 한다.  
요산(曜山)에 암석이 있으면 대영국(大榮局)이다.

#### 셋째, 오성통설(五星統說)

오성이라 함은 산을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로 구분하여 그 형국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오성의 설명은 용어해설(用語解說)의 7.8.9.10.11을 참조)

#### 넷째, 나성정설(羅城定說)

나성이란 동서남북의 주위에 둘러 서 있는 산을 말한다. 옛날의 도시에 비하면 성곽과 같이 높고낮은 산맥들이 이어지고 또 성곽의 필요한 곳에 성문(城門)이 있듯이 나성에도 반듯이 수류(水流)의 입구와 출구가 있어야 한다.

#### 다섯째, 조안정설(朝案定說)

부조안(夫朝案)은 혈(穴)앞에 있는 산을 말한다.

안산(案山)뒤에 있는 산을 조산(朝山)이라 한다.

안산이 있으면 앞이 허하지 않고 수습이 되며 주밀하여 사방이 아담하게 보여서 좋다. 조산은 안산보다 높아야 혈(穴)에서 보기에 돋보인다.

안산은 있어도 조산(朝山)이 없고 조산은 있어도 안산이 없는것은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

(안산과 조산의 설명은 용어해설(用語解說) 4. 5 참조)

그밖에 묘(墓-穴) 자리를 볼때는 암상정설(岩相定說-用語解說 49) 수상정설(水相定說-用語解說 50) 토상정설(土相定說-用語解說 51)도 보아야 한다.

#### (4) 용신결혈상생과상극(龍身結穴相生, 相剋)

##### 가) 용신결혈상생(龍身結穴相生)

오성(五星)의 변화가 주산(主山)으로부터 결혈지(結穴地)까지 기복(起伏)의 마디마다 상생함을 이르며 이는 부귀는 물론 충의 효열(忠義孝烈)이 속출한 대국(大局)이다.

##### 나) 용신결혈상극(龍身結穴相剋)

오성(五星)의 변화가 주산(主山)으로부터 결혈지까지 기

龍身結穴相生 龍身結穴相剋



복의 마디마다 상극함을 이르며 이는 불충불효불의(不忠不孝不義)가 속출하여 패가 될 지리(地理)이다. 그러나 상극체(相剋體)에 있어서도 전환 변화가 있어서 금성행룡(金星行龍)이 목성(木星)에 작혈(作穴)하면 금목(金木)은 상극(相剋)하므로 흉격(凶格)을 제지해 주고 또 수성(水星)을 얻으면 수성의 도움으로 전흉위길(轉凶爲吉)할수있다.

#### ㉔ 산세(山勢)의 보기

- 산높고 물깊은 곳에 들이 넓으면 인심이 온후하고 도량이 넓은 인재가 나온다.
- 천을(天乙)과 태을(太乙)에 속한 산이 구름위에 솟아있으면 명 관관이 나온다.
- 유출하는 수구가 금수의 형국으로 산과 암석이 감싸주면 명학자가 나온다.
- 향좌산형(向左山形)이 깃발이 날으는듯하고 오른쪽이 격고(擊鼓 - 북을 두드림)의 형국이면 장군이 나온다.
- 산이 원형으로 높낮이가 없이 둘러싸이면 옥막형(玉幕形)이라 하여 명상(名相)이 나온다.
- 산의 형국(形局)이 초생달처럼 가늘고 미인의 눈썹같이 생긴것을 아미산형(娥眉山形)이라하여 귀비(貴妃)가 나온다.

여기에 천마(天馬)의 형국이 남쪽에 위치하여 말이 머리를 번쩍 드는것 같이 솟아있고 산줄기가 약간 낮아져서 평탄하게 내려오다가 말 꼬리 부분이 똑 떨어진 산형이면 왕후가 나올 자리이다.

- 산세(山勢)의 앞뒤와 양쪽이 수려하게 뻗어내려오고 대소봉두(大小峯頭)가 첩첩히 호위한 형국은 삼천궁녀의 상이요 앞뒤로 전개되는 낮은 연봉이 팔백형화(八百炯火)를 늘어 놓은것 같으면 이는 훌륭한 제왕이 탄생한다.

△ 산과 들이 매마르고 골짜기가 길면 인심이 각박하고 빈곤하다.

△ 산천이 험악하면 표독하거나 음흉한자가 나온다.

△ 산세가 배신하고 달아나는것 같은 형(形)이면 파산국(破產局)이다.

△ 유수형(流水形)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자손들이 성공하기 어렵다.

△ 산형(山形)이 어지러운 치마자락같이 생기면 음부(淫婦)가 나온다.

△ 유수(流水)가 당국안을 꿰뚫고 흘러가면 절손(絕孫)의 형국이다.

◎ 방위(方位)상으로는 음양택간에 서북방은 손재혈(損財穴)이라 하여 싫어하고 남동방을 좋아한다. 그러나 형국이 좋을때는 상관치 않는다.

## (5) 좌향(坐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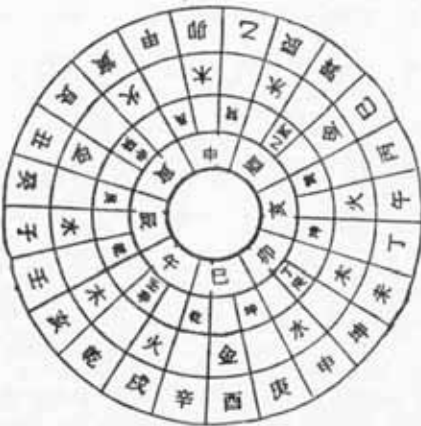
혈(穴)의 중심 즉 널(棺)을 묻는 곳을 좌(坐)라 한다.

좌(坐)가 정면(正面)하는 방위(方位)를 향(向)이라하며 좌향(坐向)은 일직선상에 있다. 내명당의 중앙에指南침을 놓고 자침(磁針)의 회전축과 좌(坐)를 연결한 직선이 갑방위(甲方位-보통 24 방위를씀)의 오른쪽으로 뻗을 때는 갑좌(甲坐) 그 반대로 을방위(乙方位)로 뻗을 때는 을향(乙向)이라 부른다.

다시 말하여 자좌오향(子坐午向)이란 좌(坐)가 정북방에 있고 그 향(向)이 정남방을 향하고 있는것을 뜻한다.

정북(正北)은 24 방위의 자(子)에 해당되고 정면은 오(午)에 해당된다.

풍수지리에 있어 보통 동서남북의 명칭을 4괘(卦) 8간(干) 12지(支)를 결합해서 사용한다.



## ◎ 산지입명좌운(山地込命坐運)

吉凶運 命生	旺人丁	多權勢	多憂患	凶墳墓	長壽命	多子孫	害子孫	多富貴
亥未卯 生	亥卯未 坐	巽庚癸 坐	巳酉丑 坐	乾甲丁 坐	寅午戌 坐	坤壬乙 坐	申子辰 坐	艮丙辛 坐
申子辰 生	申子辰 坐	艮丙辛 坐	庚午戌 坐	坤壬乙 坐	亥卯未 坐	巽庚癸 坐	巳酉丑 坐	乾甲丁 坐
寅午戌 生	寅午戌 坐	坤壬乙 坐	申子辰 坐	艮丙辛 坐	己酉丑 坐	乾甲丁 坐	亥卯未 坐	巽庚癸 坐
巳酉丑 生	巳酉丑 坐	乾甲丁 坐	坤壬乙 坐	巽庚癸 坐	申子辰 坐	艮丙辛 坐	寅午戌 坐	亥卯未 坐

(6) 坐向 (方位) 配置圖



◎ 범례 (凡例)

1. 太極 (兩儀圖) - 中心部
2. 正方位
3. 8 卦
4. 8 曜水
5. 黃泉殺
6. 12 度 (12 方)
7. 縫針 24 山
8. 正針 24 山
9. 分金 (胎骨龍)
10. 240 分金
11. 24 節
12. 正針 120 分金
13. 360 度
14. 28 宿分度

- 子針板을 使用하여 正北, 正南을 정확히 표시한뒤 南北으로 一直線을 그은 다음 輪圖를 一直線으로 그어진 것과 子午方이 一致하도록 安置해 놓고 各方位를 본다.
- 第 7 線 (縫針) 과 第 8 線 (正針) 을 참고하면 龍은 어느 方에서 뻗어왔으며 入水 得水 得破등은 어느 方인가를 살피고 殺은 어느 方이므로 坐向을 어느坐로 定해야 하는지 상세히 보아야 한다.
- 坐를 대략 정한뒤 第 9 選 第 10 線에서 分金法과 아울러 第 13 線 28 宿度의 吉凶을 구분한다.

◎ 正針 24 山 分金兼 加度 吉凶定局表

坐向	區分	分 金	兼	坐	度	吉凶	備 考
壬坐丙向		丁亥	亥 2 分	室	12 度	吉	
		辛亥	子 2 "	危	12.3 "	"	
子坐午向		丙子	壬 2 "	危	34 "	"	
		庚子	癸 2 "	虎	6.7 "	"	

坐向	區分	分金	兼	坐 度	吉凶	備 考
癸坐丁向		丙子	子 2 分	女 9.10 度	吉	
		庚子	丑 2 "	女 2.3 "	"	
丑坐未向		丁丑	癸 2 "	牛 1.2 "	"	
		辛丑	艮 2 "	斗 17.8 "	"	
艮坐坤向		丁丑	丑 2 "	斗 8.9 "	"	
		辛丑	寅 2 "	斗 3.4 "	"	
寅坐申向		丙寅	艮 2 "	箕 3.4.5 "	"	
		庚寅	甲 2 "	尾 18 "	"	
甲坐庚向		丙寅	寅 2 "	尾 7.8.9 "	"	
		庚寅	卯 2 "	房 2.3 "	"	
卯坐酉向		丁卯	甲 2 "	房 2.3 "	"	
		辛卯	乙 2 "	氏 13.4 "	"	
乙坐辛向		丁卯	卯 2 "	氏 3.4 "	"	
		辛卯	辰 2 "	亢 6.7 "	"	
辰坐戌向		丙辰	乙 2 "	亢 11 "	不吉	
		庚辰	巳 2 "	角 4.5 "	吉	
巽坐乾向		丙辰	辰 2 "	軫 14 "	吉	
		庚辰	巳 2 "	角 4.5 "	"	
巳坐亥向		丁巳	巳 2 "	翼 16 "	"	
		辛巳	丙 2 "	參 10 "	"	
丙坐壬向		丁巳	巳 2 "	翼 1.23 "	"	
		辛巳	午 2 "	張 15.6 "	"	
午坐子向		丙午	丙 2 "	張 5.6.7 "	"	
		庚午	丁 2 "	星 7 張 1 "	"	
丁坐子向		丙午	午 2 "	柳 13 "	"	
		庚午	未 2 "	井 6.7 "	"	
未坐丑向		丁未	丁 2 "	井 26 "	"	
		辛未	坤 2 "	井 13 "	"	
坤坐艮向		丁未	未 2 "	井 13 "	"	
		辛未	申 2 "	胃 12.3 "	"	
申坐寅向		丙申	坤 2 "	參 8.9 "	"	
		庚申	庚 2 "	參 2.3 "	"	
庚坐甲向		丙申	申 2 "	華 11 "	"	
		庚申	酉 2 "	畢 2.3 "	"	
酉坐卯向		丁酉	庚 2 "	昂 6 "	"	
		辛酉	辛 2 "	胃 13 "	"	
辛坐乙向		丁酉	酉 2 "	胃 5.6 "	"	
		辛酉	戌 2 "	婁 12.3 "	"	
戌坐辰向		丙戌	辛 2 "	婁 2 "	"	
		庚戌	乾 2 "	奎 11.2 "	"	
乾坐巽向		丙戌	戌 2 "	奎 34 "	"	
		庚戌	亥 2 "	壁 8.9 "	"	
亥坐巳向		丁亥	乾 2 "	室 15 "	"	
		辛亥	壬 2 "	室 9.11 "	"	

## (7) 용어해설 (用語解說)



순위	용어	해설	
1	조산 (祖山)	모든 용의 맥은 그 출처가 있으니 그 시발한 원산(元山), 넓은 의미로 내룡(來龍)중 그 혈(穴)에서 가장 멀고 높은 산	
2	종산 (宗山)	조산과는 반대로 혈에서 가장 가깝고 높은 산	
3	주산 (主山)	내룡맥절(來龍脈節)중 혈(穴)뒤에 높이 솟아 있는 산 묘지뒤에 있는 산을 뜻하며 흔히 후산(后山)이라 함	
4	안산 (案山)	혈앞에 있는 사(砂)의 일종으로 좀 낮고 작은 산	
5	조산 (朝山)	혈 앞에 있는 사(砂)의 일종으로 안산의 뒤에 있으며 안산보다 높고 큰 산, 구성산(九星山) 또는 구요산(九曜山)이라고도 함	
6	낙산 (樂山)	혈의 뒤에 베개같이 있는 산, 산룡(山龍)이 혈을 뱃을 때 꼭 이에 의지한 침락(枕樂)이 필요함	
7	금산 (金山)	마치 종을 얹어 놓은 것처럼 산마루는 둥글고 아래에 내려 오면서 차차 넓어진 산, 금산은 맑고 밝으며 그 형이 바르다 때문에 산형태(山形体)는 금성으로서 태양(太陽)이라 했으며 반면에 낮으막한 산봉은 태음(太陰)이라 함. 금성의 행룡낙맥(行龍落脈)에는 봉무혈(鳳舞穴)이나 비조혈(飛鳥穴)의 형국이 많음(將軍穴大相穴)	
8	목산 (木山)	산등성이(山頭)가 약간 원형(円形)이고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흰출하게 생긴 산, 목산은 목성(木星)으로 칭수하여 높이 솟아 있어 겉으로는 강하고 안으로는 유하며 마디마디가 결혈됨이 삼정혈(三停穴) 통소형의 일자목형(一字木形) 인형(人形) 등에 낙맥될 경우가 많음(名相·大學者)	
9	수산 (水山)	연봉(連蜂)이 파도처럼 나간 산, 수성(水星)은 형체가 유하게 굴곡하며 그 성(性)이 다변(多變)하여 바른 모양이 적고 형국이 굽음이 많아 행룡낙맥(行龍落脈)에 있어서 용혈(龍穴)이 많은 대신에 사혈(蛇穴)도 많음. 결혈(結穴)은 평지연맥(平地連脈)에 많으나 식별하기 곤란함(王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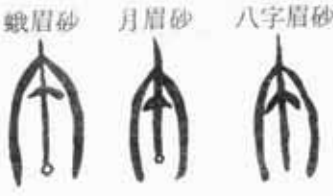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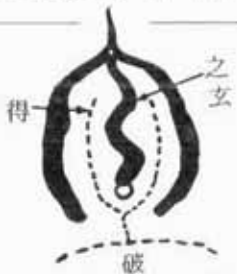
순위	용어	해설
10	화산 (火山)	산등성이(山頭)가 하늘을 찌를듯이 뾰족한 산. 화성(火星)은 항상 위 끝이 호동(好動)하므로 조종산체(祖宗山体)가 높이 솟아 하늘을 찌를듯한 형세로서 밑으로는 급게 깔렸고 명혈(名穴)이 있으며 용혈득국(龍穴得局)이 청룡하면 큰 인물이 나온다.(忠節, 聖賢)
11	토산 (土山)	전후 사방이 중후하고 평평한 산. 토성(土星)은 그 형이 순후하므로 행룡낙맥(行龍落脈)에 있어 먼류(冕旒), 옥병(玉屏), 금서(金書), 예축(脂軸) 등이 이 형국에서 결혈됨, 야혈(野穴)의 낮으막한 곳에 국(局)이 작은 혈(穴)을 얻으면 큰 인물이 나오고 토성의 연맥(連脈)이 멀리 뻗쳐져 있다면 대부국(大富局)임.(牧民官, 富者)
12	동산 (童山)	초목이 성장하지 못하고 산사태가 잘 나는 산. 이곳은 지기(地氣)가 없으므로 음향이 화합되지 못하니 결맥재혈(結脈裁穴)도 없고 있어도 묘를 쓸수 없는 땅임.
13	석산 (石山)	흙이 별로 없고 거의 암석으로 된 산. 지기(地氣)란 흙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흙이 없으면 지기가 흐를수 없으니 이곳에 묘를 쓰면 망한다함.
14	과산 (過山)	산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 있는 산. 지기(地氣)란 산세가 멈추는 곳에 뭉쳐있기 마련인데 이런 산에는 지기가 없으므로 이런 곳에 묘를 쓰면 패가(敗家)됨.
15	독산 (獨山)	산맥이 이어져 여러 산이 어울리지 않고 홀로 서 있는 산. 이런산은 지기(地氣)가 면면히 흘러 뭉치지 않고 지기 자체도 생겨나지 않아서 묘를 쓰기에 적합하지 않음.
16	음택 (陰宅)	죽은 사람의 집. 묘지를 뜻함. 산 사람은 양(陽), 죽은 사람은 음(陰)으로 통함.
17	양기 (陽基)	산 사람의 집. 읍촌(邑村) 또는 도성(都城)을 뜻함.
18	용 (龍)	산맥(山脈)을 용(龍)으로 부르는 이유는 산의 변태(變態)가 실로 천형만상(千形萬象)하기 때문이다. 크고 작으며(大小), 일어나고(起), 엎드리고(伏), 거슬러고(逆), 뛰고(躍), 날고(飛), 숨고(隱), 나타나고(現出)되어 그야말로 산줄기(支龍)는 가까이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변화불측(變化不

순위	용 어	내 용
18	용 (龍)	<p>測)하므로 이러한 형태를 용의변화 혹은 용의 꿈틀거림에 비유(比喩)한 것임. 왼쪽으로 뻗어내린 산맥을 좌선룡(左旋龍), 오른쪽으로 감아서 힘차게 뻗어내리면 우선룡(右旋龍), 곧게 뻗어내려온 산맥을 직룡(直龍), 질주(疾走)하던 산맥이 방향을 돌아서면 회룡(回龍)야산지대로 부드럽게 내려온 형국(形局)을 순룡(順龍), 역주(力走)하던 산맥이 고개를 들고 반대방향으로 다시 뻗어 나가면역룡(逆龍), 질주하던 산맥이 용기(隆起)하여 안산(案山)을 뛰어 넘는 형국을 비룡(飛龍), 용두(龍頭)가 평야로 내려와서 었드린 형국을 복룡(伏龍), 용두가 평야로 내려와서 땅밑으로 숨어버린 형국을 잠룡(潛龍), 길게 뻗어있으면 장룡(長龍), 짧게 뻗어있으면 단룡(短龍), 서러서러 뭉쳐 있으면 반룡(蟠龍)이라 함.</p>
19	내 룡 (來龍)	<p>일국일혈(一局一穴)에 이르는 용맥(龍脈)에 붙인 이름이며 그 맥이 혈(穴)에 들어가려는 지점을 뜻함.</p>
20	집살룡 (劫殺龍)	<p>행룡(行龍)의 변화가 심해서 오행을 분별하기 어렵고 상행상극(相行相克)으로 가다가 정맥(正脈)을 이탈하여 산만불숙(散慢不淑)하며 급맥탈기(劫脈奪氣)한 용신(龍身)을 뜻함. (大凶大敗)</p>
21	번화룡 (翻花龍)	<p>행룡낙맥(行龍落脈)의 세(勢)가 거의 양쪽으로 가치를 놓고 달리는 것이 보통 산맥의 모양임. 이를 용의 귀족(貴足) 혹은 지내발이라고도 함. 번화룡이란 내룡(來龍)의 지각(肢脚)이 순하게 뻗이지 않고 역(逆)으로 뻗쳐있는 모양을 뜻하며 바꾸어 말하면 용신(龍身)을 호위하지 않고 포악(暴惡)한 형세임. (敗家)</p>
22	간 룡 (看龍)	<p>산맥의 내왕을 답사하여 그 생사혈(生死穴)과 그 진위(眞僞)를 찾는것을 말하며 심룡(尋龍)이라고도 함.</p>
23	청룡백호 (靑龍白虎)	<p>혈(穴)이 남향(南向)인 자좌오(子坐午)일때 혈의 뒤쪽인 주산(主山)에서 발원한 산맥이 혈(穴)의 동쪽을 호위하며 뻗어내려와서 혈(穴)을 감싸듯하고 용두(龍頭)가 서향으로 돌려서 그친 산맥을 청룡(靑龍)이라하고 역시 주산(主山)에서 발원한 산맥이 혈(穴)의 서쪽으로 호위하면 서 뻗어내려와서 용두(龍頭)를 동향으로 돌려서 그친 산맥을 백호(白虎)라 함. 청룡이 좋으면 본손(本孫)이 번창하고 백호가 좋으면 외손(外孫)이 번창한다는 설이 있음.</p>






순위	용 어	내 용
24	백룡도 (白龍圖)	내룡(來龍)이 겹겹히 넓게 벌려져 있어서 개자중압(個子中押)하여 수려하고 단아하게 결렬됨을 뜻함.
25	길 용 (吉龍)	내룡(來龍)이 점점이 개장(開帳)하여 다른 산세를 억누르고 단아하게 결지(結地)된 혁국을 뜻하며 이는 길지(吉地)임. 吉龍 
26	생 룡 (生龍)	용형의 변화가 망측하나 생룡에 있어서는 내룡(來龍)됨이 사생(死生)으로 호환(呼喚)하여 횡룡(橫龍)이건 순룡(順龍)이건 회룡(回龍)은 용필요숙기(龍必要束氣)의 진국(眞局)임 (富貴大發의 吉地) 生龍 
27	지 현 (之玄)	내룡(來龍)이 혈(穴)로 들어서면서 꾸불꾸불하게 갈지(之)자나 가물현(玄)자 모양으로 생긴 형곡(形曲)을 뜻함.
28	혈 (穴)	산수(山水)의 영기(靈氣)가 묻혀있는 곳으로 바로 묘소(墓所)를 쓸 자리임. 사람의 몸은 어떤곳의 혈(穴)을 지르면 죽고 사는 것과 같이 산맥(山脈)에도 이와같이 사활(死活)의 혈(穴)이 있다는 주장이며 이 혈을 옳게 찾아서 묘(墓)를 쓰면 자손이 흥왕(興旺)하고 잘 못 찾아서 묘를 쓰면 쇠망한다는 설(說)
29	직룡직혈 (直龍直穴)	용이란 어떠한 낙맥(落脈)을 막론하고 주산(主山)을 중심으로 하여 한 산맥의 곡직기복(曲直起伏)이 천변만화(千變萬化)하여 뻗어나간 그 형곡(形曲)이 비대(肥大)하며 원만하고 두미(頭尾)가 단정하며 음양이 분명하면 이를 직룡직혈이라 함.
30	재 혈 (裁穴)	산기운이 묻혀있는 지점을 찾기에겐 쉽지 않으며 만약 이 곳을 제대로 찾아서 묘를 쓰면 자손에게 음덕이 있음.
31	맥 (脈)	용신(龍身)에는 음양(陰陽)의 생기(生氣)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마치 인체내(人體內)의 혈맥(血脈)과 같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이 지기(地氣)가 연류(連流)하는 곳을 맥(脈)이라 함.
32	절 (節)	맥(脈)이 일기일복(一起一伏)하고 좌절우곡(左折右曲)하는 것을 목간(木幹)이라 하며 여기에서 가지가 뻗어난 것을 절(節)이라함

순위	용 어	내 용
33	사 (砂)	묘지(穴) 주변의 형세를 사(砂)라 함. 지상술(地相術)이 전해 오면서 모래를 가지고 그 형세를 부를때 사(砂)라 함.
34	입 수 (入首)	좁은 의미에서 내룡(來龍)이 혈(穴)을 향하여 들어가려는 것을 입수(入首)라 하며 그 용두(龍頭)가 멈춘 곳이 바로 혈(穴)임.
35	두 뇌 (頭腦)	입수와 혈과의 접합점(接合點)에서 좀 높게 솟아 있는 곳.마치 용의 이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두뇌라 함.
36	미 사 (尾砂)	입수에서 두뇌를 거쳐 혈로 옮겨지는 약간 높은 중원(中原) 또는 관(瓣)을 이룬곳을 말함. 모양에 따라 아미사(蛾尾砂), 월미사(月尾砂), 팔자미사(八字尾砂)라 부름.
		
37	국 (局)	혈(穴)과 사(砂)를 합쳐서 양기(陽基)나 혹은 음택(陰宅)이냐 하는것을 국(局)이라 하며 음택국(陰宅局)과 양기국(陽基局)으로 구분함.
38	성 (城)	두뇌, 입수, 혈과의 접합점(接合點)에서 혈맥(穴脈)이 일어나서 혈의 주위에 둘러쳐진 것을 성(城) 또는 사성(砂城)이라 함.
39	득과파 (得, 破)	혈 또는 내명당(內明堂)의 양쪽인 청룡백호사이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물의 발원처가 득(得)이며 그 물줄기가 청룡두(靑龍頭)와 백호두(白虎頭)사이로 흘러나가는 유수구(流水口)를 파(破) 또는 수구(水口)라 함.
		
40	형 세 (形勢)	용이 혈을 뱃을때 내면적으로 생기(生氣)가 내려와서 머물고 융결(融結)한 곳을 찾으려면 산국(山局)의 형세를 살피고 호위하는 제사(諸砂)가 구비됨을 형세라고 함.
41	주 작 (朱雀)	이 지점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바람을 막아 주는 밑부분의 중심부를 뜻함. 물이 주작을 가로질러 흘러가야 산기운이 재혈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함.

순위	용 어	내 용
42	현 무 (玄武)	산의 정상을 가르키며 방향은 북쪽을 뜻함.
43	오 성 (五星)	산의 모양을 성(星), 요(曜)로 부르는 경우가 있음. 이는 산형(山形)을 오행(五行)에 배(配)할때 또는 구성(九星), 구요(九曜)에 배할 때 붙이는 이름임. 나무가 바로 선것과 같이 솟아있는 산을 목성의산(木星山), 불길처럼 뽕족하게 솟아 있는 산을 화성의산(火星山), 편편하고 벽돌같은 산을 토성의 산(土星山), 구불구불하여 움직이는 물결과 같이 뻗어있는 산을 수성의산(水星山), 산마루는 둥글고 아래는 넓어 마치 종을 얹어놓은 것과 같은 산을 금성의산(金星山)이라 함.
44	구 성 (九星)	오성의 정체에서 꺼리는 변체(變體)이며 이곳에 묘를 쓰면 망함. ○금성의 변체...무곡(武曲), 파군(破軍), 좌보(左輔), 우필(右弼), 중언(中彥). ○수성의 변체...문곡(文曲) ○목성의 변체...빈랑(貧狼) ○화성의 변체...염정(廉貞) ○토성의 변체...복존(祿存)
45	구 요 (九曜)	구요란 다시 구성(九星)에서 다시 변형된 것이며 이는 모두 기국(奇局)임. ○태양(太陽) ○태음(太陰) ○금수(金水) ○자기(紫氣) ○천재(天財) ○천강(天罡) ○손요(孫曜) ○조토(燥土) ○소탕(掃蕩).
46	원진수도 (元辰水圖)	원진자(元辰者)는 혈의 득수(得水)가 끈게 흘러가는 것 이와같은 수로형국(水路形局)을 당문파(堂門破)라 하여 속망속패(速亡速敗)하는 충격의 혈이라 함. 그러나 앞에 나무가 우거쳐 있으면 초년에 발복이 없어도 늦게는 길지(吉地)가 될수 있음. 한편 모든것이 구비 되었고 다만 이 수로 한가지가 실격일 경우 인위적으로 축대를 높이 쌓거나 지면을 증감하여 제혈(除穴)하면 길지가 된다는 주장임.
47	반도수도 (反跳水圖)	허체가 미묘하고 삼방이 조밀하며 형국은 좋다해도 수류(水流)가 혈(穴)을 배반하여 도사(跳斜)로 흘러 빠지면 절대 안됨. (葬后破產)



순위	용어	내용
48	반포수도 (反抱水圖)	<p>형국이 절묘한 명혈(名穴)이라 해도 수류(水流)가 입수(入首)하여 배수(背水)하면 자손이 쉽게 망함.</p> 
49	암상정설 (岩相定說)	<p>암석(岩石)에도 복암(福岩)과 흉암(凶岩)이 있다함. 바위가 크고 적고간에 순종형(順從形)이면 복암이고, 거역형(拒逆形)이면 흉암(凶岩)이며, 백호안(白虎案)에 암석봉(岩石峰)이 있으면 이는 노적봉(露積峰)으로 볼 수 있음. 혈의 상하에 귀암(貴岩)이 있으면 장군혈(將軍穴)이고, 혈 아래에 낮은 벼랑(斷崖)이 둘러쳐져 있으면 보혈이나 높은 벼랑은 불귀함.</p> <p>혈의 주위와 안산(案山), 조산(朝山), 주작(朱雀)등지에 대소의 암석은 장군혈일때는 군촌이며 부혈(富穴)일때는 수재암(守財岩)이니 제거해서는 안됨.</p> <p>뿌리가 박힌 암석은 지기(地氣)의 연속이므로 그 형상의 순역(順逆)에 따라 길흉이 결정되고 뿌리가 없는 암석은 부기(浮氣)이므로 나무를 가꾸어서 가려주는 것이 좋음.</p>
50	수상정설 (水相定說)	<p>물은 이동하는 강천하수(江川河水)의 유수형(流水形)과 정지한 지호해수(地湖海水)의 유형(留形)이 있으며 정지한 물을 혈후(穴后)만 아니면 어느곳이라도 득(得)임. 유수(流水)가 반대방향으로 도주하지 않으면 상관없고 정면으로 들어오면 대명혈(大名穴)이며 돌아 들어오는 것도 무방하지만 물결소리가 소란하면 풍파나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설 임.</p>
51	토상정설 (土相定說)	<p>토질(土質)은 푸석푸석하지 않고 굳어야 좋으며 또 오색(五色)이 명동하고 서기(瑞氣)가 보이듯이 윤택해야 좋음. 지하수맥이 혈(穴)을 침범할때는 수로(水路)를 끊어서 물줄기를 돌려주면 되고 또 솟아오르는 물일때는 샘을파서 치수(治水)하면 무방함.</p>

## 다. 성복제 (成服制)

### (1) 성복 (成服)

성복이란 상제들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 절차이다. 이날은 날이 밝으면 5복(五服—다섯등급의 상복)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복(服)을 입는다.

#### (가) 남자의 상복(喪服)

머리에 효건(孝巾)을 쓰고 그 위에 상관(喪冠)을 쓰며 그 위에 수질(首絰—짚과 삼을 섞어서 만든 테)을 맨다.

깃겹바지 저고리에 깃 두루마기를 입고 중단(中單)과 제복을 입으며 요질(腰絰)을 띠고 짚신을 신는다.

장기(杖藜—지팡이를 짚고 1년 복을 입는다.) 이상의 복인은 지팡이를 갖출다.

#### (나) 여자의 상복(喪服)

깃치마 저고리에 중단을 입고 제복을 입으며 수질(首絰), 요질(腰絰), 짚신 지팡이를 갖출다.

### (2) 성복제 (成服祭)

성복제전(成服祭奠)은 4일째의 조전(朝奠)과 동시에 행(行)하나 3일장에는 2일째에 입관하여 성복하고 성복제를 지낸다.

상복(喪服)을 갈아입고 영좌(靈座)앞에 제상(祭床)을 가추고서 혼백을 교의(交椅)에 모신다.

상주가 분향제배하고 아들, 사위, 아우, 조카의 순서로 잔을 올린다.

남자는 영구(靈柩)의 동쪽에 여자는 서쪽으로 서서 상향곡(相向哭)한다.

## 4. 삼당오복제 (三黨五服制)

### 가. 성복준비 (成服準備)

#### (1) 남자 (男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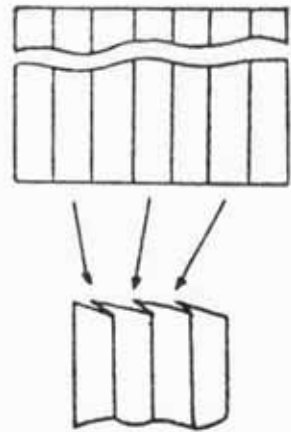
- 굴건 (屈巾) ○ 효건 (孝巾) ○ 최의 (衰衣) ○ 중의 (中衣)
- 행건 (行纊)



소공(小功)



대공(大功)



중의 접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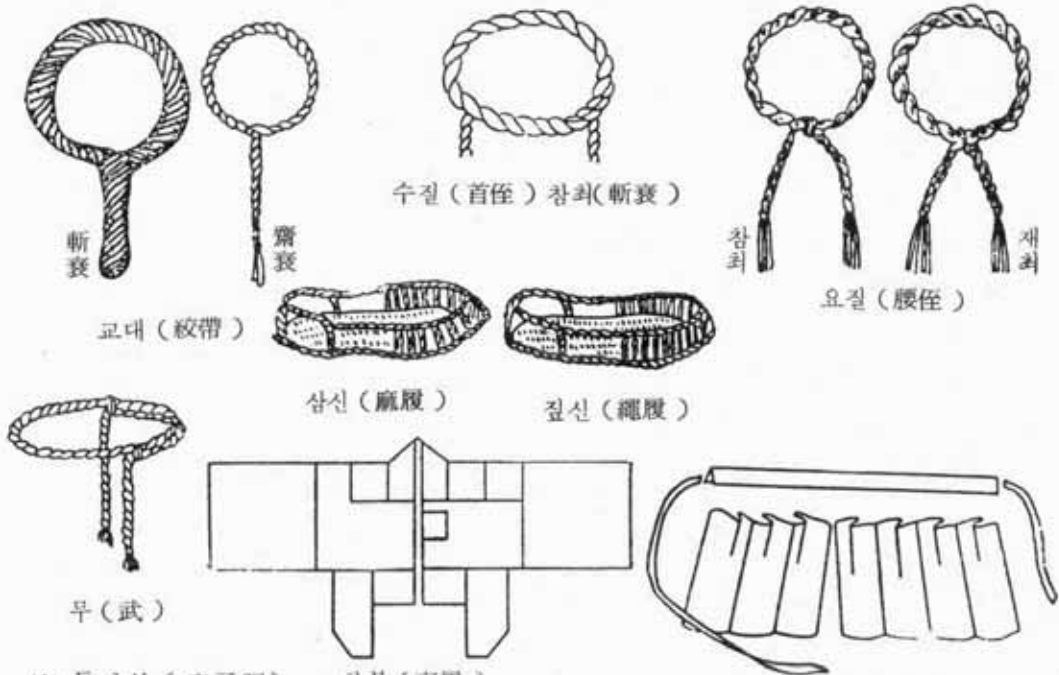


(2) 여자 (女子)

- 개두 (蓋頭 - 머리부터 둘러쓰고 몸을 가리는것 - 참쇠에는 그 갓 (邊) 을 꼬매지 아니한다)
- 소관 (素冠)    ○ 쇠의 (衰衣)

(3) 공용

- 수질 (首絛 - 굵기가 참쇠에는 9촌 재쇠에는 7.2촌 대공에는 5.7촌 소공에는 4.6촌 시마에는 3.5촌)
- 요질 (腰絛 - 허리에 두르는데 斬衰에는 7.2촌 再衰에는 5.7촌 大功에는 4.6촌 小功에는 3.5촌 緦麻에는 2.8촌의 굵기로 함)
- 교대 (絞帶)    ○지팡이 (부친상은 대나무 모친상은 오동나무)



(4) 동자복 (童子服)    쇠복 (衰履) .

어른의 것과 같으나 두건 (頭巾)과 수질 (首絛)은 없이 지팡이는 짚는다.

(5) 시자복 (侍者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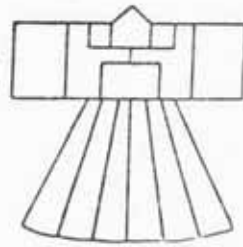
직령 (直領 - 옷웃의한가지)과 같으며 없으면 중단을 입고 효건 환질 교대를 갖춘다.

6) 처비복 (妻婢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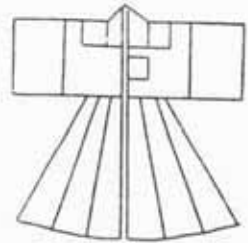
생포 배자 주목잡 (朱木簪) 교대

7) 제물 (祭物)

제사를 지내는 주과포해



부인 치의 뒷면



부인 치의 앞면

나. 성복절차 (成服節次)

성복은 결명 (厥明 - 날이 밝을 때)에 행사 (行祀)한다.

- (1) 오복 (五服)을 입는 사람들은 각각 순차 (順次)대로 서서 서로 바라보면서 조상한다.
- (2) 상주부와 복인들은 각각 복제 (服制)에 해당하는 복 (服)을 입고 남자들은 영구 (靈柩)의 동쪽에서 서향 (西向)하고 여자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복 (服)의 차서대로 서서 슬프게 곡 (哭)하면서 서로 조상한다.
- (3) 먼저 자제와 손자들은 그들의 조부와 부친 앞가서 꿇어 앉아서 애곡 (哀哭)하고 다음에는 조모와 모친 앞에서 애곡한다.  
부녀자들은 먼저 그들의 조모와 모친 앞에 꿇어 앉아서 곡을하고 다음에는 조부와 부친 앞가서 애곡한다.
- (4) 성복을 마치면 주인 형제는 비로소 죽을 먹는다고 한다. 처침 (妻妾)과 기연 (旣年) 9월상에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채소와 과일등은 먹지 않으며 5월과 3월에 해당하는 복 (服)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나 경사스러운 잔치집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 (5) 상주 (喪主)는 이로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한 출입을 삼가하며 부득히 나가야 할때는 방랍 (方笠)을 쓰고 직령 (直領)을 입으며 옛날에는 말안장을 삼베로 싸기도하고 헨가마를 탔다고한다.

※ 상주는 성복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조례 (弔禮)도 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예례였다.

성복제 (成服祭)에는 축문도 없고 잔도 한번만 올린다. 특히 유념할것은 소렴 (小斂)한 날부터 조석전 (朝夕奠)을 올리고 대렴 (大斂)한 날로부터 조석곡 (朝夕哭)을 시작하며 성복일로부터 조석상식 (朝夕上食)을 3년상이 끝날때까지 올리며 소상을 지낸뒤에는 조석곡은 하지 않는다.



### 다. 삼당오복 (三黨五服)

#### (1) 삼당

부당(父黨), 모당(母黨), 처당(妻黨),

부당은 아버지쪽의 본종(本宗), 모당은 외가(外家), 처당은 처가(妻家)를 말한다.

#### (2) 오복

오복이란 복(服)을 입는 다섯가지의 등급을 말한다.

㉠ 참취(斬衰) 3년 ㉡ 재취(齊衰) 3년 재취장기(齊衰杖基) 재취부장기(齊衰不杖基) 1년 ㉢ 대공(大功) 9월 ㉣ 소공(小功) 5월 ㉤ 시마(緦麻) 3월

○ 부제모상(父在母喪)은 장기(杖基) 부제처상(父在喪)은 부장기(不杖基)

※ 참취는 상복의 갓을 꿰매지 않고 수질(首絰) 요질(腰絰)의 끈을 삼(麻)으로 하고 상장(喪杖)은 대나무로 한다.

재취는 상복의 갓을 꿰매고 수질 요질의 끈을 마포(麻布)로 만든다.

### 라. 참취 (斬衰)

#### (1) 외간상복 (外艱喪服)

(2) 승중(承重 - 아버지가 돌아가신 말아들이 조부모의 초상을 당했을때)에 조부 증고조복(曾高祖服)

(3)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복을 입을때

(4) 아내가 남편의 복을 입을때 (첩이 남편의 복을 입을때도 같음)

(5)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입어주는 복도 참취 3년에 해당한다.

※ 승중(承重)을 했어도 3년복을 입지 못할때

① 적손(嫡孫)이지만 폐질(廢疾)로 인하여 사당에 제사를 지낼수 없는자

② 서손(庶孫)이 그 뒤를 이었을때

③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때

※ 아들이 그 아버지를 여위고 복을 입다가 소상(小祥)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때부터 복을 받아서 입는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 라. 재취 (齊衰)

(1) 승중(承重)에 조모 증고조모의 복

- (2) 계모의 복
- (3) 부친 사망후 모친복
- (4) 모친이 장남의 복을 입을때
- (5)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복을 입을때
- (6) 계모가 장남의 복을 입을때

※ 아버지가 생존시 모친상을 당했거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의 복을 입을때는 3년을 입지 않는다.

서자는 생모(生母)의 복(服)도 3년을 입지 않는다.

적손(嫡孫)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때 조모,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는 승중한자와 어머니가 적자(嫡子)를 위해서도 같다.

또한 아버지가 죽은지 3년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기년(暮年)만 복을 입는다. 아버지 생존시 모친상에는 재최 1년으로 조부모의 1년상과 같다.

마. 장기(杖褻)

- (1) 부친이 생존하고 모친이 사망했을때
- (2) 조부가 생존하고 조모가 사망했을때
- (3) 적모 혹은 계모의복
- (4) 부친 사망후 계모가 출가시에 같이 따랐으면 입는다.
- (5) 상처했을때

바. 부상기(不杖褻)

- (1) 조부모의복 (출가한 여자도 같음)
- (2) 백숙부모(白叔父母)의복
- (3) 형제의복
- (4) 조카의복
- (5) 장남이외의 다른아들
- (6) 고모 자매복(출가전)
- (7) 달며느리 복
- (8) 친정 부모의복
- (9) 장손의복

- (10) 생부의복
- (11) 의부(義父)의복(대공 이상의 친족이 없을때)
- (12) 계모개가시 전부(前父)의 아들과 동거시 입는복
- (13) 첩이 큰부인을 위해 첩이 남편의 중자(重子)를 위해 시부모가 적부(嫡婦)를 위해서 입는복

사. 재최(齊衰 - 5月)

증조부모의복(출가한 여자도 같고 승중은 3년)

아. 재최(齊衰 - 3月)

- (1) 고조부모의복
- (2) 의부(義父)의 복
- ※ 현재 동거치 않을때의 복 또는 동거시라도 그 부자(父子)가 대공 이상의 친척이 있을때의 복

자. 대공(大功 - 9月)

- (1) 종형제(從兄弟)
- (2) 장손(長孫)이외 증손복(衆孫服)
- (3) 남편의 조부모
- (4) 서손 승중자복(庶孫承重者服)
- (5) 질부복(姪婦服)
- (6) 남편의 백숙부모복(伯叔父母服)
- (7) 장자부이외 차부복(長子婦以外次婦服)
- (8) 계조모복(繼祖母服)
- (9) 이부동모(異父同母) 형제 자매
- (10) 남편의생가(生家)시부모
- (11) 손녀 출가후 이혼당한자
- (12) 고모로서 출가한자

자. 소공 (小功 - 5 月)

- (1) 종조부모 (2) 당숙부모 (3) 재종형제 (4) 외조부모 (5) 외숙 (6) 생질 (甥姪)
- (7) 이모 (姨母) (8) 부인의 이질 (9) 부인의 종조부모 (10) 부인의 당질 (堂姪)
- (11) 부인의 종손 (12) 남편의 고모, 자매 (13) 친정조카 부부 (14) 동서 (同親)
- (15) 서자가 적모의 부모형제 자매의복 (16) 계모의 부모형제 자매 (17) 남편의 형제 자매
- (18) 제부 (婦婦)와 사부 (嫂婦)끼리

카. 시마 (緦麻 - 3 月)

- (1) 증증조부모 (2) 증증손 (3) 재증조부모 (4) 재증숙부모 (5) 삼종형제 (6) 증손과 현손 (玄孫)
- (7) 외손 (8) 이종 형제 자매 (9) 내종 형제 자매 (10) 외종 형제 자매
- (11) 남편의 증증손 (12) 남편의 증조와 고조 (13) 남편의 재증조부모 (14) 남편의 당고모 (堂姑母)
- (15) 남편의 재증손 (16) 남편의 종형제 내외 (17) 남편의 당숙부모
- (18) 남편의 종자매 (19) 남편의 재종형제 자매 (20) 남편의 당질부 (21) 남편의 재종질
- (22) 차증손 (次曾孫) (23) 남편의 증손부 (24) 차현손부 (次玄孫婦) (25) 남편의 증손녀
- (26) 재증손부부 (27) 차손부 (次孫婦) (28) 남편의 외조부모 (29) 남편의 외숙 (30) 이질부 (姨姪婦)
- (31) 남편의 이모 (32) 생질부 (甥姪婦) (33) 외손부 (34) 장인장모-사위
- (35) 친정의 종형제의 처 (36) 서모 (庶母) 유모 (乳母)

타. 심상 (心喪)

심상이란 오복지인 (五服之人)이 아니므로 배움을 입지는 않으나 스승의 사별을 슬퍼하며 3년 동안 마음의 복을 입어준다는 뜻이다.

파. 복제판의 (服制辨疑)

(1) 부친이 조부장사 (祖父葬事)를 마치지 못하고 별세 (別世)하면 그 손자가 승중 (承重)을 행한다. 승중손의 처는 남편을 따라 승중복을 입는다. 이때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으면 복을 입지 못한다.

(2) 승중손이 복중에 죽고 없으면 차손 (次孫)은 복을 못입어도 행사 (行祀)는 대신할 수 있다.

(3) 부친이 조사중에 별세하면 그 남은 복을 대수 (代受)한다.

(4) 부생존시 모친상은 기년 (祔年)이나 이때 아버지 장사전이면 3년상이다.

(5) 부모상중에 상처(喪妻)하면 출상 당시에는 처상(妻喪)을 입는다.

(6) 처상(妻喪)에 장부상(杖不杖)은 부친이 계시면 부장(不杖)이다. 왜냐하면 부친이 주상(主喪)이 되므로 그의 자식된 남편은 작지를 짚지 못하는 것이다. 부친이 안계실때는 남편이 작지를 짚는다.

#### 하. 상중기제관의(喪中忌祭辦疑)

(1) 상중(喪中)에 기제사(忌祭祀)를 당하면 장사전에는 제사를 모시고 장사 후에는 경한자로 하여금 무축단잔(無祝單盞)으로 모신다.

(2) 부친상중(父親喪中)에 모친의 기제를 당하여 신위(神位)를 작성할때에 망처(亡妻)로 쓰는것과 현비(顯妣)로 쓰는 시시비가 있으나 신주(神主)로 모셔 있을때는 개제(改題)하기 곤란하나 지위(地位)를 모실때는 복이 경한 근친자로 하여금 현비(顯妣)로 제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 5. 조상(吊喪)

### 가. 조문(吊問)

옛날에는 조문갈때는 소복(素服)을 했다.

향 차 양초 술 과일 등을 가지고 가서 울리고 부의는 돈이나 비단으로 했다. 손님은 호상의 안내로 영좌 앞에 가서 곡(哭)하면서 두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향을 피운다.

집사가 주는 잔을 받아서 다시 집사에 주면 집사는 영좌앞에 놓는다.

호상은 상제들의 곡을 그치게 하고 축관은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제문(祭文)을 읽는다. (이때 제문은 손님이 준비해 가지고 갔을때에 한함)

손님은 가지고 온 부조를 오른쪽에 두고 두번 절하고 일어서 나오면 축관은 제문을 불사르고 상주는 곡하면서 들의 계단 아래에 내려와서 서쪽을 향하여 두번 절한다.

손님은 동쪽을 향하여 곡하면서 두번 답례하고 상주앞으로 다가가서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

【손님】 「불의에 상사를 당하셨으니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상주】 「제가 죄역이 침중해서 그 화가 엄친(嚴親-母喪은 茲親)에게 까지 미

쳤습니다. 이제 제물까지 주심을 엮드려 반자옴고 아울러 위로함까지 주시니 슬픈 감회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 손님은 상주가 손위일때는 행동을 상주보다 느리게 해야한다.

「명(命)이 길고 짧은것은 모두 운수가 있는것인데 너무 슬퍼하시면 어찌합니까? 원컨데 마음을 억제하시고 예제(禮制)에 따르십시오.

손님은 호상의 안내로 밖으로 나오고 상주는 들어가서 곡(哭)을 그친다. 손님은 망인(亡人)과 면식(面識)이 없거나 아랫사람이거나 여자는 면식이 있어도 나이 차이가 작으면 빈소(殯所)에 절은 하지 않고 곡(哭)하면서 상주에게만 인사한다.

#### 나. 곡(哭)

곡이란 슬퍼서 우는 것이다. 시간, 장소, 형식에 구애될 필요없이 언제나 슬프면 곡(哭)하고 통곡하거나 오열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상주(喪主)로서 조객을 대할때는 일정한 예(禮)로서 곡하는것이 도리이다.

(1) 통곡(痛哭)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처자 등 근친상(近親喪)을 당해 그 슬픔이 극(極)에 달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고 우는것을 뜻하며 특히 부모상과 승중상(承重喪)을 당했을때는 망극지통(罔極之痛)이라 한다.

(2) 애곡(哀哭) 상(喪)을 당하여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의 정도가 자연히 처음보다는 덜하다. 물론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몸부림까지는 치지 않으며 우는것을 애곡이라 할수있다.

(3) 예곡(禮哭) 상주가 손님을 맞이하여 예(禮)로서 하는 곡이다. 손님이 이르면 아이고 아이고(哀號哀號)하고 낮은 소리로 곡하다가 손님이 자리를 떠나면 그친다. 옛말에 「상주는 손님을 곡으로 맞이하여 곡으로 떠나보낸다」고 했다.

#### (4) 조객의 곡(吊客哭)

조객은 허희허희(嗚嗚)하며 슬퍼한다.

그런데 이 「허희허희」는 「어어어어」로 발음되는 것이 상례이다.

## 가. 단자서식 (單子書式)

傳 儀	
一 金	○ ○ ○ 圓 整
	年 月 日
	○ ○ ○ 謹 上
○ ○ ○ 洞	謹 喪 所 入 納

傳 儀	
白 酒	○ ○ 斗
	年 月 日
	○ ○ ○ 謹 上
護 喪 所	入 納

- 초상 (初喪) — 근조 (謹吊), 조의 (吊儀), 향촉대 (香燭代)
- 소대상 (小大喪) — 향전 (香奠), 전의 (奠儀), 비의 (菲儀), 비품 (菲品)
- 조의장서식 (吊儀狀書式)

구위 김영식  
具位 金榮植

청주 일두  
淸酒 一斗

우 근전 송상  
右 (上) 謹專送上

군수 장수 황공 (벼슬이 없으면 學生 夫人은 孺人水原白氏)

영연 요비전의 복유  
靈筵 聊備奠儀 伏惟

흥납근장  
啟納謹狀

年 月 日

具位 金 榮 植 狀

• 피봉식 (皮封式)

狀 上				
郡守長水黃公				
靈篋	具位	金	榮 植	謹封

• 제문식 (祭文式)

유세차    간지몇    간지삭몇일간지    황이름    근이청작서수저준  
 維歲次    ○○○月○○朔○日○○    黃○○    謹以清酌庶羞之奠

치제우    모관    장수황공저구    운운  
 致祭于    某官    長水黃公之柩    云云

## 7 . 문상 (聞喪)

상주가 객지에 있다가 부모상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문상(聞喪)이라 한다. 부음(訃音)을 들은 즉시 곡(哭)하며 부고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절을 하고 흰옷으로 갈아 입고서 본가(本家)를 향해 떠난다.

## 8 . 상식과 조석전 (上食 · 朝夕奠)

성복(成服)후 부터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올리고 곡(哭)을 하는것을 조석전(朝夕奠)이라 한다.

메(밥) 찬(반찬) 다(송향)등 상식은 식사때 올린다.

제상에 제수를 진설하고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으며 젓가락은 수저 그릇위에 가지런히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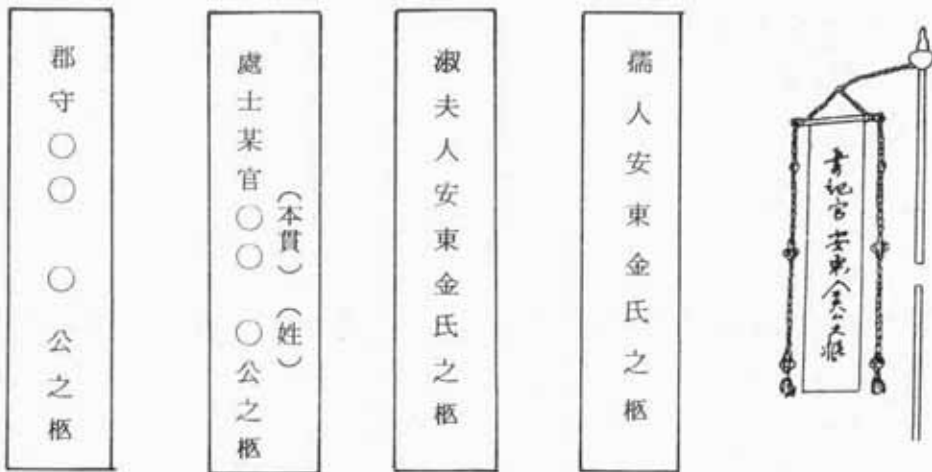
한참 곡을 한다음 갹(국)을 물리고 송향을 올려서 메를 세차례 말고 잔반과 잔외에는 치운다.

조석 상식은 3년간을 드리고 소상(小祥)전의 초하루(朔)와 보름(望)을 맞이할때는 곡(哭)을 하며 이를 삭망전(朔望奠)이라 한다.



## 9. 명전과 만장 (銘旌, 輓章)

## 가. 명전 (銘旌)



## 나. 만장 (輓章)

만장이란 망인(亡人)을 애도하는 뜻에서 글을 지어 보내는 것으로 만사(輓詞)라고도 한다.

만장의 첫머리에는 근조(謹吊)라 쓰고 끝에는 자기의 성명을 쓰되 ○○(本貫) 後人○○(이름) 哭再拜라 쓴다.

공수래 공수거 세상사 여부운  
○ 空手來 空手去 世上事 如浮雲

고분성객산후 산적적월 황혼  
孤墳成客散後 山寂寂月黃昏

<해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세상사는 뜬 구름과 같다.  
외로운 무덤은 성분되고 빈객은 사라지니 청산은 적적하고  
달 마저 어두어 지는구나.

문군하사 작사행 인사친붕 송차결  
 ◦ 問君何事 作斯行 隣社親朋 送此訣

적강신선 반옥경 잠연휘루 불침정  
 謫降神仙 返玉京 潛然揮淚 不堪情

<해석> 그대는 어찌하여 떠난단 말이요 아마 그대는 본시 하늘의  
 신선으로써 잠시 인간에 귀양 왔다가 이제 다시 물러가는  
 모양이요 이웃 동리 사람들이 모두나와서 영결하는데 누  
 구인들 슬퍼하지 않으리오?

증식인생 일몽장 나하감인 송사행  
 ◦ 曾識人生 一夢場 奈何敢忍 送斯行

부모해제 영결지 해가호곡 총치량  
 父老孩提 永訣地 薤歌呼哭 總悽涼

<해석> 인간 세상이 꿈같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대를 이처럼  
 떠나 보내니 견딜수 없구려 어린이들까지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통곡군령 누불경 여하선아 상제경요억소상  
 ◦ 慟哭君靈 淚不輕 如何先我 上帝京遙憶蕭湘

한야월 인하척 안오열성  
 寒夜月 忍何隻 雁鳴咽聲

<해석> 그대의 영좌 앞에서 통곡하니 눈물이 그치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가  
 나보다 먼저 저승길을 앞선단 말이요 아득한 소상강 달밤에 짝 잃  
 은 외기러기의 울음을 어찌 들으오리까?

남무아미타불  
 ◦ 南無阿彌陀佛

<해석>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세계로 간다는 뜻

## 10. 치장 (治葬)

치장이란 사람이 죽어서 매장(埋葬)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사대부(士大夫)는 3개월 사(士)는 1개월 후에 장사를 지냈고  
 그 이전은 가매장 했다.

### 가. 산역 (山役)

영결 (永訣)을 하기전에 묘 (墓)자리를 정해서 다듬어 놓아야 한다.

장지 (葬地)를 결정했으면 영구 (靈柩)앞에 고유 (告諭)한다.

今日得地於 ○郡○面○里山  
 금일 득지어 모군모면모리산 (先塋局內면「先塋下」를 넣음)

모좌원 장이 모일 양봉 감고  
 ○坐源 將以 ○日 襄奉 敢告

<해석> ○○군 ○○면 ○○리 ○○좌향의 언덕에 묘자리를 정했으며 앞으로 ○  
 월○일에 올려 모실것을 감히 고하나이다.

### 나. 천광 (穿壙)

묘자리가 정해지면 천광 (穿壙)과 회격 (灰隔)을 해야한다.

상주 (喪主)는 집사 (執士)와 같이 산에가서 광중 (壙中 - 무덤을 파는곳)의  
 앞뒤와 가운데에 표목 (標目)을 세운다.

상가 (喪家)의 먼 친척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산신제 (山神祭 - 土神祭라고도  
 함)를 지낸다.

가운데 표목 왼편에 남쪽을 향하여 제상 (祭床)을 마련하고 술 과일 포혜 (酒  
 果脯醢)를 차려 놓는다.

제주는 길복 (吉服)을 하고 제상이 있는 위 (位)앞에 꿇어 앉아서 먼저 강신  
 (降神)을 하고 두번 절한다음 술을 부어 위 (位)앞에 돌리고 정저 (正筋) 한  
 다음 독축 (讀祝)한다.

축문 (祝文)은 토지축 (土地祝 - 斬破土祝, 開土祝)이라 하며 독축이 끝나면  
 하저 (下筋)하고 두번 절한다.

산신제가 끝나면 땅을 파서 광중 (壙中)을 만들고 회 (灰)를 다진다.

합평 (合窆 - 合葬)할때는 선장위 (先葬位 - 먼저쓴묘)에 고유해야 한다.

### ○ 산신제고사축 (山神祭告辭祝 - 軟草破土祝)

(그달초하루일진)  
 유세차 (干支) 몇월            삭    몇일            유학성    명감소고우  
 維歲次 ○○ 某月 ○○朔 ○日○○ 幼學○○○敢昭告于

토지 지신 금위 학생 (本貫)박공 영건택조  
土地之神 今爲學生 商山朴公 營建宅兆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 청작포해 지처우 신상 향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淸酌脯醢 祇薦于 神尙 饗

<해석> ○○년 ○월○일 (이름)은 토지 지신에 감히 고하나이다.

이제 상산박공의 묘를 마련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맑은 술과 포해로써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幼學 아래 이름은 산신제의 계주 이름이고 學生商山 朴公은 여자일때는 孺人商山朴氏之墓라고 쓴다.

◦ 부장시구묘고사 (耐葬時告辭)

상주 (喪主) 또는 친척복인 (親戚服人)이 고하며 멀어서 당일에는 참파전 (斬破前)에 고한다.

장지 (葬地)가 선영묘 (先塋墓) 국내일때는 최존 (最尊)의 조상 일위 (一位)에만 고유하며 선영제 (先塋祭)의 절차는 산신제 (山神祭)와 같다.

유세차감지뫋월간저삭뫋일간저오대손 이름감소고우  
維歲次○○○月○○朔○○日○○五代孫 ○○敢昭告于

현오대조고 처사 부군 금위현손  
顯五代祖考 處士 府君 今爲玄孫

처사공 장부장우계하  
處士公 將耐葬于階下 (墓右이면 墓右라고 쓴다.)

복유존령 무혹진경 특수보우 근이  
伏惟尊靈 無或震驚 特垂保佑 謹以

주과용신 진고근고  
酒果用伸 虔告謹告 (葬前日에 告하면 處士公以下에 某月某日이라 쓰고 또 特垂保佑를 지운다.)

<해석> ○○년 ○월 ○일 오대손 ○○은 감히 고하나이다.

오대 조부님 이제 고손 (구묘와의관계) 처사공의 묘를 계하여 마련코저 하오니 엿드려 아뢰옵는바 높으신 영께서는 놀라시지 마시고 내리 도와 주시기를 삼가 주과를 펴 놓고 경건하게 고하나이다.

## 11. 발인 (發靱)

### 가. 천구 (遷柩)

발인전일의 조전 (朝奠) 때 천구할것을 고한다.

영구를 받들고 사당에 가서 뵈웁고 본래 있는 곳으로 모신다.

이튿날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에 모시고 견전 (遣奠) 을 지낸다.

#### ○ 천구청사축 (遷柩廳事祝)

今以吉辰遷柩敢告 (아내 이하는 茲告라고 씀)

<해석> 이제 좋은날 (吉日)에 천구하겠음을 고하나이다.

※ 영구 (靈柩)를 옮길때는 부인들은 피하고 상주이하 제관이 모두서서 지켜본다.

집사가 사당에 제물을 준비하면 축관은 혼백을 모시고 그 다음 명정 (銘旌)이 따르고 계속해서 영구를 모시면 상제들은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이때 혼백이 영구를 대신해도 무방하며 이 경우는 제물, 명정, 혼백의 순서로 간다.

사당 앞에 이르면 북쪽을 향하여 혼백을 자리에 놓고 영구를 마루로 옮기. 고서 마루에 포장을 친다. 영구를 왼쪽으로 돌아서 자리위에 모실때는 머리를 남쪽으로 두게한다.

축관이 영좌를 마련하고 영구앞에 제물이 준비되면 상제들은 제자리에 가서 곡한다.

제기 (祭器)는 진설했다가 해가 진 뒤에 조전 (祖奠)을 올린다.

조전 (祖奠)을 올릴때는 축관이 술을 딸고 북쪽을 향하여 엎드려서 고사 (告辭)를 읽고 나면 상제들은 곡하면서 두번 절한다.

#### ○ 천구축 (遷柩祝)

청천구우청사

請遷柩于廳事 (청사가 없으면 관의 머리를 세번 들었다 놓았다 한다.)

발인을 위하여 관을 상여로 옮길때에도 다음과 같이 고사를 읽는다.

금천구취여감고

今遷柩就輦敢告

<해석> 이제 널을 옮겨 상여에 나감에 고하나이다.

- 조전축(祖奠祝 - 朝奠처럼 지낸다. 저녁 上食과 같이 지내기도 한다.)

영친지례 영친불유 금봉주거 식준조도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朝道

〈해석〉 영원히 가시는 예이오며 좋은 때가 머무르지 아니하여 상여를 받들겠어  
오니 아침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 나. 견전 (遣奠)

견전이란 영구(靈柩)가 떠날때 지내는 제사이다.

영구를 상여에 실은뒤 마지막으로 전(奠)을 올리며 흔히 발인제(發柩祭)또  
는 영결식(永訣式)이라고도 한다.

제물은 조전(朝奠)과 같고 축관이 술을 올리고 고사(告辭)를 읽으면 상제  
들은 곡하고 절한다.

상주는 과일 나물 포 식혜 등을 올리고 향불을 피우며 단酌(單酌)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친척과 손님들이 분향 재배한다.

이때 매와 국을 쓰지 않으며 가풍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견전축(遣奠祝)

영이기가 왕즉 유택 세진견례 영결종천  
靈輅既駕 往即 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해석〉 상여를 메게 되었어오니 다음은 곧 무덤으로 가지게 될것입니다.

보내오는 예를 드리오니 영원토록 이별하옵심을 고하나이다.

※ 상제들은 운구(運柩)하여 나올때부터 축을 읽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곡을  
한다.

※ 발인식은 대문밖의 상여에 영구를 모시고 행한다.

#### 다. 발인행렬 (發柩行列)

발인의 행렬은 다음 순서와 같다.

- (1) 방상(方相) (2) 명정(銘旌) (3) 영거(靈車) (4) 만장(輓章)
- (5) 공포(功布) (6) 대여(大輿) (7) 상주(喪主) (8) 존장(奠長)
- (9) 무복지친(無服之親) (10) 빈객(賓客)

## ○ 상여나갈때의 소리

못가겠네 못가겠네 그리운 내고향을  
 버리고 못가겠네 나는 못가겠네  
 “후렴” 원호 원호 원호라 원호  
 그리운 내집아 그리운 내고향아  
 그리운 내자식아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 라. 노제 (路祭)

장지에 가는 도중 거릿제를 지낸다.

노제 (路祭)는 고인과 친한 조객 (吊客) 또는 친척중에서 스스로 조전자 (吊奠者)가 되어 제물을 준비하여 지낸다.

적당한 곳에 장소를 마련하여 상여를 모시고 그앞에 병풍혹은 장막을 치고서 제물을 차린다.

상제들이 제자리에 서면 조전자 (吊奠者)가 분향하고 제문 (祭文)을 읽고 배곡 (拜哭)하면 상제들도 제배한다.

## ○ 노제축 (路祭祝)

유세차 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유학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幼學 (吊奠者) 敢昭告于

현모관부군 지령 구 평소후덕 사회사업 그공불미  
 顯某官府君 之靈 (柩) 平素厚德 社會事業 其功不微

영세불망 근이 청작포과 경전우 신상 향  
 永世不忘 謹以 淸酌脯果 敬奠于 神尙 饗

<해석> ○○○은 감히 某公의 영전에 고하나이다.

(고인의 덕행과 업적등을 씀) 흠향하소서

## 마. 정상 (停喪)

집사자는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영악 (靈輿)을 마련하여 차일 (遮日)안에 병풍을 치고 영구를 안치한다.

훈백은 영좌상에 모셔야 하며 영구의 외결관 (外結棺)을 풀어서 괴임을 놓고 공포

로 관을 닦은 다음 구의(柩衣)로 관을 덮고 그위에 명정으로 덮는다. 이때 영과 앞에는 과일과 포를 진설하고 상주는 곡배한다.

#### 바. 하관(下棺)

천광(穿纊)과 회격(灰隔)이 끝나면 좌향(坐向)을 잘 맞추어 관이 움직이거나 기울지 않게 조심하면서 하관 한다.

집사가 현훈(玄纁 - 山神에 바치는 패백 - 파랑색 혹은 검거나 붉은색의 비단을 同心結로 묶은것)을 상주에게 주고 상주는 다시 축관에게 준다.

축관은 광중(壙中 - 무덤속)에 들어가서 관의 동쪽(관의 원편)에 바친다. 혹은 현은 관의 동쪽위에 훈은 서쪽 아래에 넣기도 한다.

상제들의 호곡제배(號哭再拜)가 끝나면 금정틀(金井機)을 광위에 바로 놓고 짧은 목강(木杠) 2개를 광중위에 나란히 놓은다음 긴 강목(長木) 2개를 움직이지 않게 가지런히 놓는다. 하관포(下棺布 - 10자 정도의 배 2개)로 관의 허리를 묶고 관을 들어서 광중위에 바로 놓는다.

하관포를 풀어서 각기 양쪽에 두사람씩 네사람이 금정틀 위의 횡강(橫杠) 놓은것을 빼내고 관을 광중위 짧은 강목(杠木)위에 걸쳐 놓은 다음 다시 하관포로 관을 들고 강목을 다 빼내고 바르게 놓는다. 관위의 먼지를 설명자(雪棉子)로 깨끗이 닦고 구의(柩衣)를 덮고 그위에 명정(銘旌)을 펴 놓는다.

석회를 처음 넣을때 관위의 횡판(橫板)을 대서 회가 관에 직접 닿지 않게하고 백회로 관위를 채운다.

상주는 두루마기 혹은 옷자락에 깨끗한 흙을 담아서 「취토, 취토, 취토」 하고 세번 외치면서 관의 네 모퉁이와 가운데에 흙을 떠 넣는다.

흙을 한자쯤 채우고 지석(誌石)대를 넣고 성분(成墳)한다.

#### ○ 달구질 하면서 하는소리

“메김소리” 오오호 달고

“받는소리” 오오호 달고

“메김소리” 산천조종은 곤뜰산이요

“받는소리” 오오호 달고

#### 사. 평토제(平土祭)

평토제는 광중을 평토한 후에 행하는 제사이다.



묘(墓)앞에 병풍을 치고 혼백(魂帛)을 모시고 제상을 놓고 제물을 차린다.  
상주는 분향 제배하고 퇴주제배(憵酒再拜)한다음 술을 올리고 축을 읽는다.  
이때 상제들은 곡제배하고 칠상(撤床)한다.  
상제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호상이 산역(山役)을 감독한다.  
평토후 후토(后土-土地神)에게 제사 지낼때는 묘의 왼편에서 한다.

○ 평토후사토지지신축(平土後祀土地之神祝)

유세차간지 몇월간지삭 몇일간지모관성 명 감소고우  
維歲次干支○月干支朔 ○日干支某官○○○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모관 봉시 범자유택 신기보우  
土地之神 今爲某官 封盛 窆茲幽宅 神其保佑

비무후간 근이 청작포례 지천우  
卑無後艱 謹以 淸酌脯醢 祇薦于

신 상향  
神 尙饗

<해석> ○년 ○월○일 무슨 벼슬을 했던 ○○○는 감히 밝게 토지의 신에게 고  
하나이다. ○○○공의 무덤을 여기에 정하오니 신께서 보호하사 뒤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 삼가 맑은 술과 포과로써 공경하여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평토후제주제축(平土後題主祭祝)

유세차간지 몇월간지삭 몇일간지 고자 이름  
維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孤子 ○○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 모관 봉시부군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기성  
顯考 某官 封盛府君 形歸寗宅 神返室堂 神主既成

복유 존령 사구종신 시빙시의  
伏惟(妻, 弟는 惟靈으로씀) 尊靈 舍舊從新 是憑是依(神主를 만들지 않을때는  
尊靈以下8字를 魂籍猶存 仍舊是依로씀)

〈해석〉 ○년 ○월○일 외로운 아들 ○○은 밝게 고하나이다.

현고 무슨 벼슬한 어른께서 형제는 관중으로 들어가셨아오나  
신혼(神魂)은 집으로 돌아가옵소서 신주를 이미 미루었으니  
엿드려 생각하건대 높으신 영혼은 옛것을 버리시고 새것을 좋아 하심에  
여기에 기대시고 의지하소서

※ 題主(神主를 씌) 할때는 따로 제물을 올리지 않고 글씨만 써서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린 다음 축문만 읽는다.

※ 祝文쓸때의 주의

△ 孤子 -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부친상에 고자라 쓰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모친상때는 애자(哀子)라 하며 양친이 돌아가셨을때는 고애자(孤哀子) 라고 쓴다.

△ 신주를 모시지 않을 때의 축문

神主未成魂帛仍存伏惟尊靈是憑是依로 써야함.

아. 지석(誌石)

지석은 망인의 이름 생졸년월일 행적 무덤의 방향등을 적어서 무덤안에 묻는 돌로써 상하 2개로 되어있다.

윗돌(上蓋)에는 「國會議員水原白公之墓」라 쓰고 밑돌(下底)에는 성명 자(字)호 주소 생년월일 약력 사망년월일 묘의좌향 상주 성명등을 쓰고 여자는 어디사는 누구의 딸이며 부군, 아들등 상세하게 기록하여 새긴다.

윗돌과 아랫돌을 묶어서 묻는다. 글씨가 나오게 뾰고 글씨가 잘 보이도록 숯 또는 회가루를 바른다.

지석의 대응으로 쓰이는 것으로써 사발 안쪽에 좌향과 누구의 묘라는 것만을 먹이나 회회청(回回靑-사기 그릇에 올리는 물감)으로 간단히 써서 숯가루를 담아서 묻는다. 또 하관한 뒤에 광중을 채우고 그위에 석회(石灰)로 다진후 누구의 묘라고 글씨를 쓰고서 숯가루로 덮는 경우도 있다.

자. 성분(成墳)

평토(平土)가 끝나면 후일 이장 또는 합장할때 참고하기 위하여 금정기(金井

機 - 묘의 구덩이를 팔때 가로 세로의 넓이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井」모양의 나무 틀)안에 숯가루 혹은 석회를 뿌려서 표시해 둔다.

묘의 앞뒤에 표말을 꽂아서 좌향(坐向)이 틀리지 않게 한다. 무덤의 높이는 평토에서 1.2 정도가 적당하다.

### 자. 반곡(返哭)

반곡이란 장례가 끝나고 혼백을 집으로 모셔가는 것을 의미한다.

상제들은 신주를 모시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곡(哭)을 한다.

영거(靈車-신주를 모신 요여)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祝官)이 신주를 영좌(靈座)에 모시며 상제들은 이때까지 곡한다.

## 12. 우제(虞祭)

### 가. 초우(初虞)

초우제는 장례의 당일 즉 반곡(返哭)과 동시에 지낸다.

상제들은 반드시 목욕을 해야하고 다만 빗질은 하지 않는다.

초우부터 제례(祭禮)의 의식이며 가문에 따라 그 절차가 다르다.

#### (1) 우제절차(虞祭節次)

##### ㄱ) 강신(降神)

과일 나물 잔반을 먼저 차려놓고 술을 따라 놓는다.

축관이 신주(지금은 신주가 없고 혼백상자를 연다)를 모신다.

상제들은 상장(喪杖)을 짚고 곡(哭)하면서 영좌앞에 차례로 선다.

축관(祝官)은 곡을 그치게하고 강신을 시작한다.

상주는 서쪽 뜰로 내려가서 손을 씻고 영좌앞으로 나가서 분향제배한다.

집사 한사람은 술병을 들고 상주의 오른쪽에 다른 집사는 잔반을 들고 상주의 왼편에 꿇어 앉는다.

상주는 오른쪽 집사가 술을 따라 주면 그 술을 떠(茅)에 붓고 빈잔을 왼쪽 집사에 주고 왼쪽 집사는 탁자위에 놓는다.

상주는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두번 절한다.

강신이 끝나면 축관은 집사의 도움으로 고기간(肝), 국수, 메, 국등 제물을 차린다.

㉔ 초헌 (初獻)

초헌이란 첫번째의 잔으로써 상주는 집사가 따라주는 술을 모사(茅沙) 위에 삼제(三除)하고 집사를 준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집사는 잔을 받아 다시 영좌앞에 놓고 밥그릇의 뚜껑을 열어 놓는다.

상주이하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축관은 상주 왼쪽에서 축을 읽는다.

축 읽기가 끝나면 상제들은 곡제배(哭再拜)한다.

이때 집사는 술잔을 비우고 빈잔을 잔대위에 놓는다.

㉕ 아헌 (亞獻)

두번째의 잔으로써 주부가 하고 장자가 사망하여 승중(承重)이 될때는 손부(孫婦)가 하며 절차는 초헌과 같다. (축은생략)

㉖ 종헌 (終獻)

상주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으로써 남녀는 관계 없으며 절차는 아헌과 같다.

㉗ 유식 (脩食)

유식이란 식사를 즐겁게 들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집사는 다른 잔에 술을 따라서 제상위에 술잔에 첨가해 붓는다.

수저를 밥그릇의 가운데에 꽂고 서쪽에 있는 젓가락을 그릇위에 바로 놓는다.

이때 상제들은 밖으로 나가고 축관이 합문한다.

㉘ 합문 (闔門)

합문이란 문을 닫는다는 말이다. 문이 없을 때는 발(屨)을 내려놓는다.

상주는 밖에 나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남자들은 차례대로 상주의 뒤에 선다.

주부는 문 서쪽에 서서 동쪽을 향하고 그밖의 여자들은 그 뒤에 선다.

축관이 북쪽에서 잠시후 세번 기침하고 문을 열면 상제들은 곡을 하면서 들어온다.

(사) 계문사신 (啓門辭神)

계문이란 합문을 연다는 뜻이며 사신이란 신위를 작별한다는 말이다.  
 집사는 국을 거두고 송냥으로 바꾸어서 밥을 세번 떠넣는다.

(바) 이성 (利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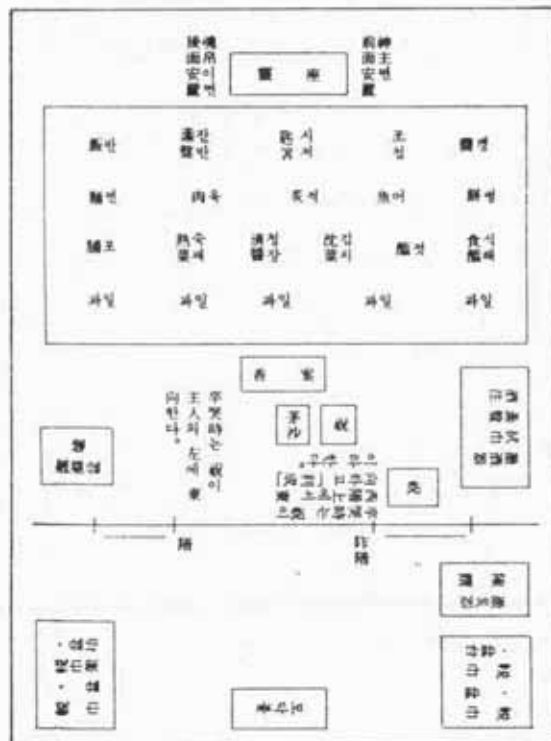
이성이란 신위에 음식올리는 일이 끝났음을 뜻한다.  
 집사는 수저를 송냥 대접에서 거두고 밥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상제들은 곡하면서 두번 절하고 축관은 축문을 불사르면 제사는 끝난다.

○ 초우축문 (初虞祝文)

유세차 大歲 몇월 干支 몇일 干支 고자이름감소고우  
 維歲次 ○○ ○月 ○○朔○日○○ 孤子○○敢昭告于  
 현고 학생부군 일월불거 엄급초우 (再虞) 숙흥야처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三虞) 夙興夜處  
 애모불녕 근이 청작서수 애칠 험사 (再虞 - 虞事) 상향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垂 哀薦 裕事 (三虞 - 成事) 尙饗

<해석>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느덧 초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할수가 없습니다. 삼가 청주와 음식으로 제사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자) 우제 (虞祭)와 졸곡(卒哭) 때의 진설 (陳設)



나. 재우 (再虞)

재우는 초우를 지내고 유일 (柔日 - 乙丁辛癸의 干支에 해당되는날)을 골라서 지낸다.

날이 밝으려 할 시간에 제사를 지내고 절차는 초우와 같다.

다. 삼우 (三虞)

삼우는 재우를 지낸다음 첫 강일 (剛日 - 日辰天下의 十干中에서 甲丙戊庚壬이 든 날을 말함)에 지내며 절차는 재우때와 같다.

라. 졸곡 (卒哭)

삼우를 마친후 3개월만에 강일을 택하여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삼우와 같으며 이로써 조석에 울지 않는다.

○ 졸곡축 (卒哭祝)

유세차 태세 몇월 (初 1日日辰) 삭 몇 일 (日辰) 고자 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太歲○月 ○○ 朔○日○○ 孤子○○ 敢昭告于

현고 학생부군 일월불거엄급졸곡 숙흥야처 고지호천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奄及卒哭 夙興夜處 叩地號天

오정마케 애모불령 근이 청작시수 애천성사상향  
五情摩潰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成事尙饗

<해석> ○년 ○월○일 아무개는 감히 아버님 신위전에 고하나이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느덧 졸곡할 때가 왔습니다.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할수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올리오니 흠향하십시오소서

마. 부제 (祔祭)

부제란 기왕 모시고 있는 조상의 신주 옆에 새로 신주를 모실때 지내는 제사이다.

이 제사는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낸다.

신주가 없을 때는 지방 (紙榜)으로 대신해도 좋으나 이때는 강신을 먼저하고

참신(參神)을 한다.

제사의 절차는 졸곡매와 같으며 다만 사당에서 지내는것이 다르다.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의 자리는 한 가운데에 마련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새로 모시는 아버지의 자리는 동남쪽에 위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한다.

모상(母喪)에는 조고(祖考)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 부사축(祔祀祝)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효증손이름군이  
 維歲次 ○○○月○○朔○日○○ 孝會孫○○謹以

청작서수적우  
 淸酌庶羞適于

현증조고처사 학생 모관 부군 제부  
 顯曾祖考處士(學生또는某官)府君 際祔

손 처사 학생 모관 상향  
 孫 處士(學生또는某官) 尙饗

<해석> ○년○월○일 증손○○은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차리고 증조고와 함께 손(증조고와의 관계)처사의 부제를 배푸오니 흠향하옵소서

○ 부사시고망위축(祔祀時告亡位祝 -새神主에 읽는祝)

유세차 간지몇월간지 몇일간지고자이름 군이  
 維歲次 ○○○月○○朔○日○○孤子○○ 謹以

청작서수 애천 부사우  
 淸酌庶羞 哀薦 祔祀于

<해석> ○년○월○일 외로운 아들 ○○은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차리고 슬픈 마음으로 부사를 배푸나이다.

아버님께서는 증조부님을 맞이하시와 함께 흠향하시옵소서

### 13. 소상 (小祥)

상(喪)을 당한지 1주년을 맞이한것이 소상이다.

옛날 부모상을 당하면 자식은 생존시 봉양을 잘 못한 것이 한스럽고 죄가되어 육식(肉食)을 삼가하고 산소에 초막(草幕)을 치고서 기거(起居)하면서 1년을 무사히 보낸것을 다행이라 하여 소상(小祥)이라 했고 이와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2년째 맞이하면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라 해서 대상(大祥)이라 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는 이때 탈상하며 의식의 절차는 졸곡(卒哭)과 같다.

#### ○ 소상축(小祥祝)

유세차경술십월임진삭초오일병신 고자  
維歲次庚戌十月壬辰朔初五日丙申 孤子○○

감소고우  
敢昭告于(卑幼에는 敢字를 쓰지 않음)

현고처사 학생 모관 부군 일월본거엄급소상  
顯考處士(學生또는某官)府君 日月不居奄及小祥

숙흥야처 소심의기 불타기신 애모불영  
夙興夜處 小心畏忌 不隨其身 哀慕不寧

근이 청작서수 애천 상향  
謹以 淸酌庶羞 哀薦 尙饗

<해석> 경술년 십월초오일 고자 ○○은 감히 고하나이다.

아버지 돌아가신날이 돌아오니 영원토록 애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 14. 연상 (練喪)

연상이란 처(妻)가 사망한 날로부터 11개월째 되는 달의 중순(中旬)이나 하순(下旬)의 정일(丁日)을 받아서 지내는 제사로 흔히 정일제사(丁日祭祀)라고 한다.

### ◦ 연상축 (練喪祝)

유세차 신묘삼월갑자삭초사일정묘 부이름소고우  
 維歲次 辛卯三月甲字朔初四日丁卯 夫○○昭告于  
 고실 망실 유인인동장씨 일월불거 엄급소상  
 故室(亡室) 孺人仁同張氏 日月不居 奄及小祥  
 비도산고 불자승감 자이 청작서수  
 悲悼酸苦 不自勝堪 茲以 清酌庶羞  
 진차상사 상 향  
 陳此常事 尚 饗

### ◦ 아들이 祝을 쓸때

유세차 신묘삼월갑자삭초사일정묘 애자이름감소고우  
 維歲次 辛卯三月甲字朔初四日丁卯 哀子○○敢昭告于  
 현비 유인인동장씨 일신반함 은의불경  
 顯妣 孺人仁同張氏 一身絆合 恩義不輕  
 복수기단 구삼년례 자상이계 원십일월삭  
 服雖褊斷 具三年禮 自喪以計 遠十一月朔  
 금자서일 선행연사 연사 근이 청작서수  
 今茲筮日 先行練祀(練事) 謹以 清酌庶羞  
 천차상사 상 향  
 薦此常事 尚 饗

<해석> 신묘년 3월 4일에 애자○○는 삼가 어머니에게 고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몸을 받고 은의가 가볍지 않습니다. 복이 비록 기년에 끝난다. 해도 상일로 부터 3년의 예를 갖추어야 하겠기에 십일삭에 날을 받아 먼저 연사를 행하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드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 15. 대상 (大祥)

의식의 절차는 소상때와 같고 혼백(魂帛)을 모신 경우는 제사를 마치고 묘역

(墓域)에 묻는다.

가. 대상에 쓰이는 연복(練服)

(1) 백립(白笠) (2) 망건(綱巾 - 白細布로 만듦) (3) 직령대(直領帶 - 白細布로 만듦) (4) 부인의상(婦人衣裳 - 긴 치마)

나. 제사가 끝나면

영좌를 철수하고 상주는 백립을 쓰고 직령을 입으며 부인은 흰옷을 입는다. 짚신등 필요치 않은 것들을 태운다. 신주(神主)일때는 사당에 안치해야 한다.

○대상축(大祥祝)

소상축과 같으며 다만 「엄급소상」(奄及小祥)을 「대상」(大祥)으로 「애천상사」(哀薦常事)의 상사(常事)를 상사(詳事)로 고쳐쓰기만 하면 된다.

○ 1년 탈상(一年脫喪)때의 축(祝)

유세차 임진오월갑자삭초칠일병인 고자이름감소고우  
 雜歲次 壬辰五月甲子朔初七日丙寅 孤子○○敢昭告于  
 원고치사 학생 모관 부군 일월불거 엄급기상  
 願考慮士(學生 또는 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恭祥  
 숙흥야처 애모불녕 삼년봉상 어례지당  
 夙興夜處 哀慕不寧 三年奉喪 於禮至堂  
 사세불계 혼귀분묘 근이청작서수  
 事歲不逮 魂歸墳墓 謹以清酌庶羞  
 애천상사 상 할  
 哀薦祥事 尚 饗

< 해석 > 아버님 돌아가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여 3년을 봉상하여야 하오나 시속에 따라 혼이 분묘에 돌아가시기를 바라오며 이에 맑은 술과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百日脫喪時는 「奄及百祥」이라고 魂帛을 태울때는 「魂歸墳墓」를 「魂歸仙墳」로 고쳐 쓴다.

## 16. 담제사 (禫祭祀)

담제사는 담제 (禫祭) 라고도하며 사망일로부터 27개월째 (大祥日로부터 3個月後) 되는 달 하순(下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날을 받아서 지내는 제사이다.

3년상을 무사히 마치고 자손의 마음이 담담(淡淡)하고 평안하다는 것이다.

의식의 절차는 신위를 영좌가 있던 곳에 모시고 제상을 차리며 대상의 절차에 따른다.

## 17. 길제 (吉祭)

길제는 담제사를 지낸 1개월 이내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정침(正寢)에 설전(設奠)하고 기제사와 같이 지낸다.

부모의 상을 무사히 마치었다하여 길제(吉祭)라 한다.

상기(喪期)에 영좌(靈座)에 머물러 있던 신(神)이 비로소 조상의 묘에 차례함과 동시에 일반 기제(忌祭)로 옮겨지고 따라서 5대조고비(五代祖考妣)는 기제에서 묘제(墓祭)로 옮겨지는 것이다.

### • 길제 축(吉祭祝)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오대손(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五代孫 ○○ 敢昭告于  
 현오대조고부군 현오대조비본관성  
 顯五代祖考府君 顯五代祖妣○○○氏  
 현고조고부군 현고조비본관성  
 顯高祖考府君 顯高祖妣○○○氏  
 현증조고부군 현증조비본관성  
 顯曾祖考府君 顯曾祖妣○○○氏  
 현조고부군 현조비본관성  
 顯祖考府君 顯祖妣○○○氏  
 자이 선고부군 상기이진 예당천주입묘  
 玆以 先考府君 喪期已盡 禮堂遷主入廟  
 오대조고부군 오대조비본관성 친진신주당조  
 五代祖考府君 五代祖妣○○○氏 親盡神主當誦  
 현고조고부군 현고조비본관성  
 顯高祖考府君 顯高祖妣○○○氏  
 현증조고부군 현증조비본관성  
 顯曾祖考府君 顯曾祖妣○○○氏

현 조고부군 현 조비본관성  
顯祖考府君 顯祖妣○○○氏

신 주금장개제 세 차질권 불승감창  
神主今將改題 世次迭遷 不勝感愴

근이주과 용신진고 근고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해석> ○년 ○월○일 5대손 ○○은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5대조부와 5대조모 ○○○씨 고조부와 고조모○○○씨

증조부와 증조모○○○씨 조부와 조모○○○씨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기(喪期)가 이미 다 되어서 마땅히 신주를 옮겨 사당에 모시려 합니다. 5대조부와 5대조모○○○씨는 가까움이 다 하여 신주를 마땅히 체천(遞遷)하여야 하겠으며 고조모, 증조부, 조부 조모의 신주를 고쳐 쓰겠으므로 대(代)의 차례가 옮기게 되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술과 과일을 올리면서 정성껏 고하나이다.

### 18. 이장 (移葬 - 改葬)

이장이란 묘(墓)를 옮기고 개장이란 묘(墓)를 개수(改修)하는 것이다.

가. 이장운 (移葬運 - 動塚運, 莎草運)

壬子癸丑丙午丁未坐 - 辰戌丑未年 좋음, 子午卯酉年 보통, 寅申巳亥年不利  
艮寅甲卯坤申庚酉坐 - 子午卯酉年 좋음, 寅申巳亥年 보통, 辰戌丑未年不利  
乙辰巽巳辛戌乾亥坐 - 寅申巳亥年 좋음, 辰戌丑未年 보통, 子午卯酉年不利  
이 장은 불리운(不利運)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시일이 급박하거나 묘(墓)의 좌향(坐向)을 모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망일(空亡日)을 택하는 것이 좋다.

○천상천하대공망일(天上天下大空亡日)

乙丑, 甲戌, 乙亥, 癸未, 甲申, 乙酉, 壬辰, 甲午, 壬寅, 壬子.

나. 이장의 절차(移葬節次)

(1)장사 지낼 자리를 고르고 관을 만들며 염상(斂牀)과 염습(斂襲)할 베와 이불과 복인(服人)의 옷을 준비한다.

- (2) 날짜를 잡아서 영역(塋域)을 열고 토지지신(土地之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3) 광중(壙中)을 파고 회(灰)를 바르는 것은 모두 장사지널때와 같다.  
 (4) 개장 하루전에 장사할 신위(3년상 안에는 영좌 앞)앞에 주과를 차리고 고한다.

○고사축(告辭祝)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효증손 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孝曾孫 ○○ 敢昭告于

현증조고학생부군 체백탁비기지 공유의외지환경동  
 顯曾祖考學生府君 體魄托非其地 恐有意外之患驚動

선령 불승우구 장복이시월몇일 개장우묘소  
 先靈 不勝憂懼 將卜以是月○日 改葬于墓所

근이주과 용신전고근고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해석>○년○월○일은 효증손은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증조 할아버지시여 그 땅은 체백의 의탁하실 곳이 아니어서 의외로 신령께서 놀라실까 근심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장차 이달○일을 가려○○곳으로 개장하고자 정성껏 주과를 펴놓고 삼가 고하나이다.

○선산축(先山祝—舊墓에서)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몇대손이름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代孫○○敢昭告于

현몇대조고 학생부군  
 顯○代祖考 學生府君

현몇대조비 유인본관성서지묘 자이선고 택조불리  
 顯○代祖妣 孺人○○○氏之墓 茲以先告 宅兆不利

장개장우 근이철작포해 지천우 신상 향  
 將改葬于 謹以清酌脯醢 祇薦于 神尙 饗

<해석>○년○월○일 ○대손 ○○은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대 조부와 ○대 조모○○○씨 어른의 무덤이 불리해서 장차○○으로 개장을 하려 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포해로서 공경하여 신께 천신하오니 흠향하소서.

○ 산신 축 (山神祝)

유세차 간지 몇월간지 삭몇일간지 유학성명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幼學○○○敢昭告于

토지지신 자유학생 본관성공 북택자지 공유타환  
土地之神 幼學生 ○○○公 卜宅茲地 恐有地患

장개침천우타소 근이침작포해 지천우  
將改窆遷于他所 謹以清酌脯醢 祇薦于

신기보우 비무후간 상 향  
神其保佑 俾無後艱 尚 饗

<해석> ○년○월○일 유학○○○은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어른의 묘를 이곳에 세 놓고 생각하니 다른 근심으로 두려워서 장차 묘혈을 열어 다른 곳에 옮겨 가려 합니다. 신에게 삼가 맑은 술과 포해로서 공경하오니 신께서는 도와주시고 아무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 파묘 축 (破墓祝—舊山)

유세차 간지 몇월간지 삭몇일간지 효자이름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孝子○○○敢昭告于

현모위척사부군 장우자지 세월자구  
顯某位處士府君 葬于茲地 歲月滋久

채백불녕 금장개장 복유존령 불진불경  
體魄不寧 今將改葬 伏惟尊靈 不震不驚

<해석> —前略—이곳에 장사 지낸지 오래 되어서 채백이 편안치 못할까 염려되어 타소로 옮기고저 하오니 존령은 놀라지 마시옵소서.

(5) 파묘하여 영구를 상여로 옮길때 (초상때와 같이 포장밖에 둬) 제물을 거두고 축관은 북향하여

금일천 구취련 감고  
今日遷 柩就輿 敢告하고 고사(告辭)를 읽는다.

(6) 상여에 영구를 옮겼으면 영좌와 탁자를 영구앞에 남향으로 마련하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영이재가 왕족신택  
靈輅載駕 往卻新宅하고 고사를 읽는다.

## ○개장시 신산토지축(改葬時新山土地祝一斬破祝)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유학성명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幼學○○○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처사모공  
 土地之神 今爲處士某公(舊山山新祝을 參照)

택조불리 장개장우차 신기보우  
 宅兆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佑

비무후간 근이청작포해 지천우 신상함  
 俾無後艱 謹以清酌脯醢 祇薦于神尙饗

<해석>—前略—토지 신령이시여 이제 처사 모공의 유택이 불리해서 이곳에 개장하기로 했으니 신령께서는 이를 도와 주시고 후일에 환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삼가 맑은 술과 포해를 공손히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 ○개장시 평토후사 토지축(改葬時平土後祀土地祝一新山寫神祝)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유학 성명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幼學 ○○○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처사 중화양공건자택조 신기보우  
 土地之神 今爲處士 中和楊公建茲宅兆 神其保佑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해 과 지천우신 상함  
 俾無後艱 謹以清酌 脯醢(果) 祇薦于神 尙饗

<해석>—前略—토지지신이요, 처사 중화양공의 택조를 이곳에 마련했아오니 신께서 후환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며 삼가 맑은 술과 포해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개장우계축(改葬處祭祀)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효자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孝子○○○ 敢昭告于

현고처사 모관부군 신개유택 예필종우  
 顯考處士 某官府君 新改幽宅 禮畢終虞

숙야미녕 제호망극 근이청작서수  
 夙夜靡寧 啼號罔極 謹以清酌庶羞

지천우사 상 향  
紙薦虞事 尙 饗

<해석>— —아버님의 유택을 새로 마련하옵고 우제(종우)의 예를 올리오니  
이른 새벽부터 마음이 어수선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삼가 맑  
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옥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개장성분축 (改葬成墳祝)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효증손이름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孝曾孫○○敢昭告于

현증조고 학생부군 지묘 신개유택 사필봉영 복유  
顯曾祖考 學生府君 之墓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

존령 영안체백  
尊靈 永安體魄

<해석>—前略—증조부님의 무덤을 새로 고쳐서 봉분을 마쳤읍니다. 엿드려 생  
각컨대 높이신 혼령은 영원히 넓이 편안하소서.

○고사축 개장사필(告辭祝 改葬事畢)

금이 현증조고 학생부군 개장사필 감청 신주  
今以 顯曾祖考 學生府君 改葬事畢 敢請 神主

출취정침 공신 존고  
出就正寢 恭伸 奠告

<해석>이제 증조부님의 개장을 마치고 삼가 신주를 정침으로 내가기를 청하오  
며 정성들여 전을 올리면서 고하나이다.

○반곡고사축(返哭告辭祝)

유세차 간지몇월간지삭몇일간지 효증손 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月干支朔○日干支 孝曾孫 ○○ 敢昭告于

현증조고 학생부군 신개유택 예필반곡  
顯曾祖考 學生府君 新改幽宅 禮畢反哭

숙야미령 불승추감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고 상 향  
夙夜靡寧 不勝追感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告 尙 饗



〈해석〉—前略—증조부님의 개 장의 예의를 마치고 돌아와 곡을하니 밤이나 낮이나 사모하는 감회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정정들여 올리오니 흠함하소서

## II. 현대식상례 (現代式喪禮)

(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상례)

### 1. 임종과 유언 (臨終遺言)

#### 가. 임종 (臨終)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의사의 진단 또는 가족들의 예감으로 짐작할 수 있다. 외지에서 살고 있는 직계가족에게 연락하여 임종을 지켜 볼 수 있게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

운명이 가깝다고 판단되면 안방에 옮겨서 옷을 갈아 입히고 잠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 나. 유언 (遺言)

운명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길말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만약 유언이 있을때는 녹음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 (1)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

(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자필증서(自筆證書)로서 내용, 작성년월일, 주소를 쓰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때는 내용, 년월일 성명을 구술(口述)하고 증인이 확인한 뒤에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다) 유언자가 두사람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을 하면 이를 기록하여 확인 및 승인한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서명 날인한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언자가 내용이 든 봉투를 봉인하고 성명을 기입한 후 두사람 이상의 증인앞에서 자신의 유서임을 설명하고 증인의 서명을 받아서 5일이내로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

(마) 유언자가 두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하면 이를 기록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서명날인한다. 이때 유언자 혹은 증인에게 급박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7일이내에 법원에 검인(檢認)을 신청해야 한다.

(2)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유언

- (가)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
- (나) 금치산자(禁治產者)
- (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產者)
- (라)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 2. 수시 (收屍)

수시(收屍)란 시신(尸身)이 굳어지기전에 주물러서 틀어지지 않게 바로 펴 주는 것을 말한다.

재례식 상례에서 이미 설명 한바와 같이 소독솜으로 코, 귀, 항문등을 막고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 다음 머리를 바르게 괴이고 손발을 바로 잡아 준다.

손과 발을 묶어서 나무판위에 시신을 옮겨 누이고 홑이불로 덮은뒤에 병풍이나 포장으로 가린다.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슬프게 운다.

## 3. 발상 (發喪)

발상이란 초상을 발표함을 뜻한다.

장의사에 부탁해서 검은 줄을 친 장막을 벽에 쳐 놓거나 혹은 기중(忌中) 상중(喪中)이란 네모 종이를 대문에 붙여서 초상을 알린다.

상주는 좌단(左袒-왼쪽 소매를 들어내 놓은것)하고 조등(吊燈)을 달아서 조객들이 쉽게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 4. 주상 (主喪)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때는 장손(長孫)이 승중(承重)하여 아버지를 대신하며 상처했을때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 시 아버지가 주상이 된다.

## 5. 상제 (喪制)

상제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주상이 된다.  
 복인(服人)은 사망자의 팔촌 이내로 한다.

## 6. 호상 (護喪)

호상은 주상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

호상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부고)조객록 사망신고 매장허가등 예와 사무적인 모든것을 주상을 대신하여 진행해야 한다.

## 7. 장일 (葬日)

초상이 나면 장일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근래에는 3일장이 보통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는 2일장 혹은 4일장도 무방하다.

## 8. 장지 (葬地)

장지는 장일과 동시에 결정하여 부고해야 한다.

선산(先山)이 있으면 그곳에 모시는 것이 좋으나 없을때는 장지를 빨리 정해야 한다.

## 9. 부고 (訃告)

사망의 소식을 전화, 서신, 인편으로 연락한다.

인쇄물에 의한 부고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삼가해야 한다.

부고는 부고를 받고 진심으로 슬픔을 느끼는 사람에게 내야한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을 위반했을때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  
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부고서식

喪主姓名 엄친 本貫姓씨께서 19〇〇년 〇월〇일〇시에  
노환 (숙명 혹은 병명)으로 별세 하였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큰 아들 〇 〇 〇

둘째 아들 〇 〇 〇

딸 〇 〇 〇

손자 〇 〇 〇

사위 〇 〇 〇

○ 장 일 : 19 〇〇년 월 일 시

○ 영결식장 :

○ 장 지 :

19 년 월 일

호상 〇 〇 〇

귀하

### 10. 염습 (斂襲)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닦고 수의 (壽衣)를 입혀서 매장포 (埋葬布)로 싸서  
입관 (入棺)하는 일을 말한다.

옛날에는 습 (襲), 소림 (小斂), 대림 (大斂)의 절차를 따로 했으나 지금은  
사망 다음날 염습을 동시에 하고 있다.

여자의 수의는 여자가 입히고 목욕시킨 물과 수건등은 땅속에 묻고 병중에 입  
었던 옷이나 생활도구는 불태우는 것이 위생적이다.

수의는 각기 한 번씩 입히기가 곤란하므로 미리서 여러가지 옷을 겹쳐서 아래  
옷부터 옷옷의 차례로 입히고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 것은 산 사람과 반대 (오

른쪽)으로 여민다.

## 11. 입관 (入棺)

관(棺)의 벽면과 시체 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벽지(창호지)나 마포(麻布) 혹은 망인의 옷으로 채워서 관속에서 시체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불로 덮은 다음 관의 뚜껑을 덮고 은정(隱釘-나무로 만든 못)을 박는다.

관상명정(棺上銘旌)을 쓰고 장지(壯紙)로 싸서 노끈으로 결관한다.

## 12. 영좌 (靈座)

입관이 끝나면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리고 따로 영좌를 마련하여 사진을 모시고 서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銘旌)을 세우고 영좌앞에는 탁자를 놓고 술잔과 과실을 차려 놓으며 평상시와 같이 분향한다.

## 13. 명정 (銘旌)

붉은 비단(紅布)에 흰색으로 <sup>직함 본관 성명</sup> 「○○○○의 구」라고 쓰며 크기는 <sup>닐</sup> 오른쪽으로 길이는 2m 정도로 한다.

명정

本貫公  
學生 ○○○ 之 柩

本貫姓  
孺人 ○○○ 氏 之 柩

## 14. 상복 (喪服)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한다.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왼쪽 가슴에 상장 혹은 흰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굴건제복(屈巾祭服)의 착용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일체 금하고 있다.

## 15. 성복 (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을 하되 성복제는 올리지 않는다.  
성복제를 지낼 경우는 제수를 올리고 향불을 피우며 축문을 읽지 않는다.  
성복이전에는 조례 (弔禮)와 배례 (拜禮)는 하지 않는다.

## 16. 조문 (弔問)

조문객에게 주류 (酒類)와 음식물의 접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조문객은 상주가 있는 영좌앞에 가서 꿇어앉아 분향 (焚香)하고 두번 절한다.  
망인 (亡人)과 생시에 대면한 일이 없거나 여자일 경우에는 상주에게만 인사한다.  
상주와 인사할때는 「얼마나 슬프십니까」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신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상주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답례한다.

## 17. 만장 (輓章)

만장이란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지은 글을 비단에 써서 기로만들어 상여 앞에 가지고 가는것을 말한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만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 18. 천광 (穿壙)

묘 (墓)자리는 출상 (出喪)전에 약 1.5 m의 깊이로 미리서 파두는 것이 좋다.  
개토제 (開土祭)는 일하는 사람들이 술을 뿌리면서 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 묘소의 왼편에 제상을 남향이 되도록 차려놓고 북향하여 분향한 다음 개토고사 (開土告辭)를 읽는 관습이 있다.

선산 (先山)내에 장사 (葬事)할때는 선영 (先塋)에게 고사를 지내는데 제일 위의 어른 또는 묘소에서 가장 가까운 어른에게 지낸다.

## 19. 횡대 및 지석(橫帶 · 誌石)

횡대는 나무판 또는 대나무로 한다.

하관하고 석회를 덮을 때 회가 판에 직접 닿지 않도록 덮는다.

지석은 돌, 회벽돌 또는 질그릇으로 하고 글자를 쓰거나 새긴다.

지석에 쓰는 글은 왼쪽은 누구의 묘라는 것을 쓰고 밑바닥에는 약력과 인적관계를 쓴다.

## 20. 발인제 (發靱祭)

발인제는 영구가 장례식장(상가)을 떠나기 직전에 지낸다.

장례식은 영구를 상여 또는 영구차에 실어놓고 그앞에 제상을 차려 놓고서 상주가 분향하고 건전고사(遺奠告辭)를 읽는다.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앞에 사진과 혼백옆에는 명정을 세운다.

○발인식의 순서

- ①개식 ②상주 및 상제들의 분향 ③고인의 약력소개 ④조사 ⑤조객분향 ⑥호상인사 ⑦폐식

## 21. 운구 (運柩)

운구의 순서는 사진, 명정, 영구, 상주, 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행렬한다. 묘지(墓地)까지 가는 도중에 고인의 친구나 친척이 스스로 제물을 마련하여 노제(路祭)를 지낸다. 이때 조전자(弔奠者)가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며 제문을 읽으면 모두 재배한다.

## 22. 하관과 성분(下棺 · 成墳)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위에 덮고 상제들이 마주서서 두번 절한다.

하관 시간을 마추어 결관(結棺)을 풀고 영구의 좌향(座向)을 바르게 하여 천개(天蓋—松, 竹등으로 만든 양산같이 생긴것을 덮는다) 하고서 평토(平土)한 다음 지석(誌石)을 묻고 성분(成墳)한다.

하관할때는 산패(山幣—산에서 드리는 폐백)를 드린다. 이것을 현(玄—파랑실), 훈(纁—붉은실)이라 하며 집사자가 상주에 주면 상주는 측관에게 주어서 현, 은 관의 동쪽 위편에, 훈은 서쪽 아래편에 놓고 또한 운삼(雲褻)과 불삼(黻褻)을 넣는데 운(雲)은, 현(玄), 불(亞字形상)은 훈(纁)과 같이 넣는다.

### 23. 위령제 (慰靈祭)

위령제는 성분(成墳)이 끝난뒤 영좌를 묘(墓)앞으로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서 다음 순서로 지낸다.

①분향 ②잔올리기 ③축문읽기 ④두번절하기

○위령제의 축문

아들(또는 손자)○○는 아버님(할아버님)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아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년 월 일

### 24. 반우 (返虞)

반우란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신주(神主)를 영여(靈輿)에 모시고 집사자가 분향하고 술을 부어 놓고서 반혼고사(返魂告辭)를 읽으면 상제들은 곡하면서 두번 절한다.

신주를 모신 영여를 모시고 처음 왔던 길로 되돌아 온다.

### 25. 성묘 (省墓)

성묘는 각자의 편의(장례지낸 3일이 관습)대로 한다.

배례방법은 재배(再拜) 또는 묵념으로 하고 제수는 마련하지 않는다. 첫 성묘



를 가기전에 우제(虞祭)를 지낸다.

우제는 혼백(魂帛)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초우(初虞)는 묘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에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제례(祭禮)로 지낸다.

재우(再虞)는 장사지낸 그 이튿날 식전에 지내되 그날의 일진(日辰)이 강일(剛日-甲丙戊庚壬)이면 그 다음날인 유일(柔日-乙丁巳辛癸)에 지낸다.

삼우(三虞)는 재우를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낸다.

## 26. 탈상(脫喪)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고 그외는 장일(葬日)까지로 한다.

상기중 제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하며 탈상제(脫喪祭)는 기제(忌祭)에 준한다.

### ○탈상제축문

아들 ○○는 아버님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상기를 마치게 되었아오니 애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강림하시와 흠향하시옵소서.

년 월 일

## 27. 석비와 석상(石碑·石像)

무덤앞에 돌을 세워 표지(標識)한 것을 석비라고 한다.

비석돌은 오석(烏石)이 가장 좋고, 황등석(黃登石), 애석(艾石), 화강석(花崗石)을 쓴다.

비석에는 비(碑)와 갈(碣)이 있는데 비는 비몸(碑身)과 비갓(螭首)과 밑발임돌로 되어 있으며 갈은 비갓이 없고 위를 둥글게 한것으로서 소석비라고도 한다.

근래에는 석상(石像-石人)을 세우는 일은 드물다.

옛날의 석상을 보면 문관(文官)의 형상을 문석(文石), 무관(武官)의 형상을 무석(武石)이라하여 구분하였다.

## 제 6 절 제례 (祭禮)

첨단(尖端) 과학과 산업사회속에서 핵가족화(核家族化)되어 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조상(祖上)의 뿌리를 백번 강조해도 부족(不足)하지 않다.

제사(祭祀)를 지내면서 혹은 무덤을 찾으면서 현재의 내가 있기까지를 살펴 보고 조상에 대한 숭배(崇拜)정신과 효(孝)하는 마음 가짐이 나라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역(周易)에 이런 말이 있다.

「동쪽의 이웃이 소를 잡고 푸짐하게 지낸 제사보다 서쪽의 가난한 이웃이 간소하나마 정성껏 지내는 제사가 더 훌륭하다.」

제사(祭祀)에 대한 개념(概念)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제례(祭禮)는 4례(四禮)중의 하나이며 조상(祖上)에게 음식을 올리고 제사 지내는 순서(順序)와 형식(形式)을 총칭한 것이다.

에로부터 제사 자랑말고 남의 집 제상에 감놔라 배노아라 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제례를 잘 모르는 소치에서 오는 말일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이 지방에 전해오는 구식제례(舊式祭禮)를 자세히 설명하고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현대식제례도 간단히 소개 하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제사(祭祀)를 모시는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로한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恩惠)는 이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부모님의 은혜는 흔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 그와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서 살다가 생일(生日)을 맞이하여 되새기곤 한다.

더구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야 말로 점차 잊혀지고 1년에 한번 기일(忌日)을 맞이해서야 가족들이 모여서 생시(生時)의 부모님을 회상해 본다.

지금은 한줌의 흙으로 변해가고있는 무덤속의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것이 없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베풀어만 주셨던 부모님의 은혜에 마음껏 보답해 드리고 싶으나 보답해 드릴것이 없다. 다만 있다면 추석전에 벌초(伐草)해드리고 명절에 찾아뵙고 기일을 맞이하여 제사(祭祀)모시는 것이 전부(全部)이다.

우리는 이러한 뜻에서 기일(忌日)을 맞이하면 경건(敬虔)한 마음가짐으로 정성(精誠)을 드려서 제사(祭祀)를 모셔야 할것이다.

## I . 구식제례 (舊式祭禮)

### 1 . 사당참례 (祠堂參禮)

#### 가 . 사당 (祠堂)

종손(宗孫)의 집에 사당을 세운다.

규모는 3칸을 나무판자로 벽과 바닥을 깔고 중간 시렁밑에 중문(中間)을 매칸의 앞 시렁밑에 사선문(四扇門)을 만든다. 문(門)밖에는 섬돌 두개를 설치하고 동쪽에 있는 것은 조계(階階), 서쪽에 있는것은 서계(西階)라 부른다.

사당의 향배(向背)는 어디로 했던 앞은 남쪽, 뒤는 북쪽으로 한다.

사당의 섬돌 아래는 사당과 연결하여 정자각(丁字閣-제사지낼때 서있을수 있게 지붕을 만듬)을 만들고 두 섬돌 사이에는 향탁(香卓)을 설치하여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놓는다.

사당의 내부는 북쪽에 가까운 벽에 감실(龕室) 4개소를 마련하고 그 앞에는 각각 탁자를 놓는다.

신주는 독(櫝)에 넣어서 남쪽을 향해 탁자위에 진열하는데 그 순서는 서쪽으로 부터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祖), 부(父)로 한다.

감실 밖에는 각각 조그마한 대발을 드리우고 발 밖에는 향탁을 준비하여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놓는다.

제기(祭器)는 삼석(牀席)교의 탁자 주석(酒食)을 담은 그릇등으로 이는 창고나 큰 케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 나 . 사당 모신자의 범절

##### (1)출입필고(出入必告)

(가)주인(主人-主婦포함)은 대문(大門)밖에 나갈때는 대문에 서서 예(禮)를 올리고 돌아와서도 또한 같다.

(나)하루밤이라도 외지에서 숙박할때는 사당에 분향 재배하고 10여일 출타할때는 행선지를 고하며 돌아와서도 감견(敢見)한다.

(타) 사당에 오르고 내릴때 주인은 조계 (昨階-東階) 를 주부와 그밖의 사람들은 서계 (西階) 를 이용 한다.

(2) 삭망참례 (朔望參禮)

정월 (正月) 동지 (冬至) 의 초하루 보름 그믐에 감실 (翁室) 마다 포과 (脯果) 잔반 모사 향안을 놓고 제사들 지낸다.

정월에는 떡국을, 동지에는 팔죽을 올린다.

망일 (望日-보름) 에는 신주를 내놓지 않고 술도 올리지 않으며 그외의 절차는 같다.

(3) 제사절차 (祭祀節次)

(가) 강신 (降神)

○주인과 주부는 위전 (位前) 에 올라가서 독문 (櫺門) 을 열고 신주 (神主) 가 보이게 한다.

○비위 (妣位) 는 고위 (考位) 의 동쪽에 위치한다.

○주인과 집사자 (執事者) 가 꿇어 앉아서 주인은 집사자가 따라준 술을 모사에 기울이고 잔을 집사자에 돌려주면 집사자는 그 잔을 제자리에 놓으며 주인은 재배 (再拜) 한다.

(나) 참신 (參神)

○주인은 뒤로 물러나서 참석자 전원과 함께 다시 재배한다.

(다) 헌작 (獻酌)

○주인이 각 신주앞에 술을 따라 놓고 재배하며 제자리로 돌아와서 참석자 전원과 함께 다시 재배한다.

(라) 사신 (辭神)

○주인과 주부는 독문을 땡는다.

(4) 속절천헌 (俗節薦獻)

속절은 삼진 청명 한식 단오 중양 (九日) 을 의미한다.

율곡 (栗谷) 선생은 속절을 음력 1월 15일,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과 남향 (臘享) 이라고 했다.

## (5) 유사즉고 (有事則告)

언제든지 유사시 (有事時)에는 반드시 사당에 고한다.

절차는 삭참지의 (朔參之儀)와 같고 고사할때의 축판(祝板)은 삼대축(三代祝)을 같이하며 고사의 기준은 최존(最尊)한 이를 위주로 한다.

## ○유관시축(有官時祝)

유세차 운운 효손 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云云 孝孫 ○○ 敢昭告于

현고조고학생부군 현고조비유인모관모시  
顯高祖考學生府君 顯高祖妣孺人某貫某氏

현증조고학생부군 현증조비유인모관모시  
顯曾祖考學生府君 顯曾祖妣孺人某貫某氏

현조고학생부군 현조비유인모관모시  
顯祖考學生府君 顯祖妣孺人某貫某氏

현고학생부군 현비유인모관모시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某貫某氏

모이모월모일 목은수모관모봉승 선훈 학점록위  
某以某月某日 蒙恩授某官某奉承 先訓 獲諸祿位

여경소급 불승감모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餘慶所及 不勝感冒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해석> ○년○월○일 ○○는 어린나이로 나라에서 은혜를 입어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대(先代)의 훈계와 여경이 녹을 얻는데 감동하고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삼가 주과를 정성껏 올리고 고하나이다.

## 2. 사시제 (四時祭)

## 가. 택일(擇日)

시제는 매년 중월(仲月)의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을 가려서 지낸다. 중월이란 음력 2월, 5월, 8월, 11월을 말하며 이를 중삭(仲朔)이라고도 한다.

## ○택일고사축(擇日告辭祝)

효손 이름 장이래월 몇일 지천세사우 조고복기득길감고  
孝孫 ○○ 將以來月 ○日 祇薦歲事于 祖告卜既得吉敢告

## 나. 제사절차(祭祀節次)

## (1)재계(齊戒)

시제일(時祭日) 3일전에 제주부부는 목욕을 하고 고기를 먹지않으며 조문(吊

問)을 가지 않는다.

### (2) 설위 (設位)

시제일 전일에 제주이하 모든 제관(祭官)들은 심의(深衣) 혹은 도포를 입고 정당(正堂-正寢-큰방)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고조(高祖)이하 4대신주(四大神主)와 부위(祔位-合祀하는 神主)모실 자리를 정침시제지도(正寢時祭之圖)와 같이 설위한다. 향안(香案)은 방가운데에 놓고 그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고 그앞에 모사(茅沙)를 놓는다.

### (3) 제구와 제찬(諸具祭饌)

#### (가) 기물(器物)

① 향안(香案-향로를 놓은 상) ② 향로(香爐-향불 그릇) ③ 향합(香盒-향을 담은 그릇) ④ 촛대 ⑤ 모사(茅沙-모토 그릇) 5개 ⑥ 탁자(桌子) 2개 ⑦ 축판(祝板) 4개 ⑧ 주주(酒注-술병) ⑨ 잔대(잔 받침) ⑩ 현주병(玄酒瓶) ⑪ 주가(酒架-술병을 올려 놓은 작은 탁자) ⑫ 식건(拭巾-술병의 마개를 마고 닦는 수건) ⑬ 철주기(徹酒器-퇴주 그릇) ⑭ 철적기(徹炙器-사용한 炙을 담은 그릇) ⑮ 대상(大牀-큰상) ⑯ 수조반(受胙盤-수조하는 쟁반) ⑰ 수조석(受胙席-수조하는 자리) ⑱ 물동이 ⑲ 햇불 ⑳ 세수대야 ㉑ 술잔 4개 ㉒ 수건 4개 ㉓ 시저첩(匙筋牒)

(나) 제찬(祭饌-各位마다 다음과 같이 진설한다.)

① 과일 6 가지 ② 포(補-마른고기) ③ 해(盃-젓, 식해, 어해) ④ 소채(蔬菜-익은 나물과 김치) ⑤ 청장(淸蔣-간장) ⑥ 초(醋-식초) ⑦ 미식(米食-떡) ⑧ 면(麵-국수) ⑨ 반(飯-메) ⑩ 갱(羹-국) ⑪ 육(肉) ⑫ 어(魚) ⑬ 주(酒-술) ⑭ 적(炙-肝炙 1꾸러미는 初獻때 肉炙 2꾸러미는 亞獻과 三獻때 올린다.) ⑮ 다(茶-차대신 송남을 대용한다.)

### (4) 소과주찬(蔬果酒饌)의 진설(陳設)

질명(厥明-다음날 날이 밝을 무렵)에 각 위전(位前)에 소, 과, 포, 해(蔬果脯醢)와 잔반시첩(盞盤匙牒)을 놓고 현주(玄酒)와 술병을 작은 탁자 위에 놓고서 촛불을 밝힌다.

질명(質明-날이 흰하게 밝을 무렵)에 주인과 제사에 참석자들은 세수하고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한 다음 사당앞에 차례로 선다. 제주가 동쪽계단으로 올라가서 분향하면 축관은 다음과 같이 출주축(出主祝)을 읽는다.

축을 읽으면 집사 두 사람이 정위(正位)와 부위(副位)를 만들어 앞을 서고 제주와 주부는 뒤따른다.

제주(祭主)는 독문(櫺門)을 열고 각 고위신주(考位神主)를 내어 모시고 주부는 각 비위신주(妣位神主)를 모시며 집사는 부위(副位)를 내어 모신 후 각각 제자리로 돌아간다.

### ○출주축(出主祝)

효손 이름 금이중춘 지절 유사우  
孝孫 ○○ 今以仲春 之節 有事于

현고조고학생부군 현고조비유인모관모시  
顯高祖考學生府君 顯高祖妣孺人某貫某氏

현증조고학생부군 현증조비유인모관모시  
顯曾祖考學生府君 顯曾祖妣孺人某貫某氏

현조고학생부군 현조비유인모관모시  
顯祖考學生府君 顯祖妣孺人某貫某氏

현고학생부군 현비유인모관모시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某貫某氏

이모친 학생부군 모친 유인 모관모시 부식 감청  
以某親 學生府君 某親 孺人 某貫某氏 附食 敢請

신주 출취정침 대청 행사 청사 공신전헌  
神主 出就正寢(大廳에서 行事하면 廳事라 함) 恭伸奠獻

<해석> 효손○○는 이제 중춘의 달에 고조부님과 그 이하 여러 조부모님의 영전에 부하여 잡수시게 하겠아오니 신주께서는 정청으로 나오시어서 제사 받으시기를 감히 청하나이다.

※ 불천위(不薦位) 사당 출주축에는 以某以下 17字를 빼고 正寢을 廳事라 한다.

### (5) 제사(祭祀)지내는 순서(順序)

#### (가) 참신(參神)

제주이하 참석자들은 차례로 서서 제배한다.

이때 존장(奠長)은 다른 곳에서 잠시 선다.

#### (나) 강신(降神)

제주가 제단에 나아가 분향제배하고 약간 뒤로 물러 선다.

##### ① 퇴주제배(酌酒再拜)

① 제주가 꿇어 앉으면 왼쪽 술병에 술을 따라 놓고 집사가 동계(東階)쪽 탁자위의 잔반을 내려서 제주 앞으로 내밀면 왼쪽 집사가 술을 따른다.

제주는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서 모사에다 기울인 다음 잔을 다시 잔대에 올리면 오른쪽 집사는 받아서 증전의 위치에 올려 놓는다.

(ㄷ) 강복위 (降復位)

제주는 잠시 숙였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먼저의 자리로 돌아간다.

(ㄹ) 진찬 (進饌)

집사 한 사람은 어육(魚肉)을 다른 집사는 떡과 국수를 또 다른 사람이 메와 국 그릇을 받들고 있으면 제주는 먼저 육(肉)을 주부는 국수를 받아 올리고 그 다음 제주는 국을 주부는 메를 진설한다.

(ㅁ) 초헌 (初獻)

① 헌작 (獻酌)

제주가 재단에 나아가 먼저 고조위(高祖位)의 잔반을 내려들고 향안(香案)앞에서 동향(東向)하고 선다.

집사가 서향(西向)하고 술을 따고 그 술잔을 받아서 위전(位前)에 올린다.

다음은 고조비(高祖妣)의 순위로 앞에와 같다.

② 제주 (祭酒)

두 집사가 각각 고조고(高祖考)와 고조비(高祖妣)의 잔반을 내려들고 제주의 좌우에 서면 제주는 꿇어 앉고 집사들도 꿇어 앉아서 술을 따른다.

제주는 먼저 고조고의 잔대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는 잔을 잡고서 모사위에 세차례 조금씩 기울이고 반쯤 남은 술잔을 집사에 되돌려 주면 집사는 위전(位前)에 올린다. 다음은 고조비의 순위로 앞에와 같이하고 잠시 머리를 숙였다가 일어나서 뒤로 물러선다.

③ 진적 (進炙)

집사가 간적(肝炙)을 제주의 형제(들째)에게 주면 이를 받아 올리고 재배하며 집사는 반개(메의 두껍)를 연다.

④ 독축 (讀祝)

제주이하 모두 꿇어 앉고 축관이 축을 읽으면 일어서서 재배한다.



## ⑤예제위헌작(詣諸位獻酌)

증조고비위(曾祖考妣位)에게 앞서 고조고비위(高祖考妣位)와 같이 축을 읽고 헌작, 제주, 진적을 한다음 조고비위(祖考妣位)와 고비위(考妣位)에게도 똑같이 한다.

## ⑥분진작부위(分進酌附位)

아헌관(亞獻官)이나 종헌관(終獻官)이 아닌 다른 자손들이 각각 부위(附位)를 맡아서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 ⑦퇴주 퇴적(退酒 退炙)

집사는 각 위전(位前)에 올린 잔을 내려서 퇴주하고 간적(肝炙)을 내려서 빈 그릇에 담는다.

## (바)아헌(亞獻)

아헌은 ①헌작(獻酌) ②제주(祭注) ③진적재배(進炙再拜) ④예제위헌작(詣諸位獻酌) ⑤퇴주퇴적(退酒退炙)의 순서로 초헌(初獻)과 같이 진행하되 다만 축을 읽지 않는다. 아헌관(亞獻官)은 주부가 되고 없을때는 둘째 아들이 한다.

## (사)종헌(終獻)

종헌은 ①헌작(獻酌) ②제주(祭酒) ③진적재배(進炙再拜) ④예제위헌작(詣諸位獻酌) ⑤분에진부위헌작(分詣進附位獻酌)의 순서로 아헌과 같이 진행하며 다만 퇴주와 퇴적을 하지 않는다.

종헌관은 둘째아들 혹은 제주의 장남이나 친족(親族)이 맡는다.

## (아)유식(侑食)

## ①침작(添酌)

제주가 고조고비위(高祖考妣位)부터 차례로 각위(各位)의 술잔에 술을 덧붙여 가득채우고 향안의 동남쪽에 선다.

## ②입시(入匙)

주부는 수저를 매 그릇 가운데에 꽂고 서향(西向)하여 정저(正筋 - 첫가락을 시첩위에 세번 툭툭 치는것)하고 향안 앞에서 서남향하여 서면 일동은 북향 4배(北向四拜)한다.

## ③예제부위헌작(詣諸附位獻酌)

자제(子弟)와 부녀자들은 부위(附位)에 입시(入匙) 정저(正筋)만 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

(㉔) 합문 (闔門)

제주이하 모두 중당 (中堂) 밖으로 나오고 축관은 독 (讀)의 문을 당는다.  
제주와 남자들은 문 동쪽에서 서향하고 부녀자들은 서편에서 동향하여 선다.

(㉕) 계문 (啓門)

① 개문입 (開門入)

축관이 기침을 세번하고 문을 열면 제주이하 모두가 들어온다.

② 진다 (進茶)

주부는 국 그릇을 내리고 송냥 그릇을 올려 메를 3번 떠서 물에 만다.

③ 분진제부위 (分進諸祔位)

자제와 부녀자들은 부위 (祔位)의 국을 내리고 송냥을 올려 메를 3번씩  
떠서 물에 만다.

(㉖) 수조 (受胙)

① 설석 (設席)

집사가 향안 앞에 자리를 깔면 제주는 그 위에 북향하고 선다.

② 취주 (醉酒)

축관이 고조고의 잔대를 내려들고 제주의 오른편에 제주와 함께 꿇어 앉  
아서 그 잔대를 제주 (祭酒) 한다.

③ 축하사 (祝殿辭)

축관이 제위의 메를 조금씩 떠 가지고 제주 왼편에 꿇어 앉는다.

제주는 술잔을 자리앞에 놓고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서 재배한 다음 메밥  
을 먹고 술을 마신다.

④ 축고이성 (祝告利成)

축관은 잔을 받아 주주 (酒注) 옆에 놓고 서계위에서 동향하고 이성 (利  
成)이라 부른다.

⑤ 철시 (撤匙)

집사가 수저를 거두어 시침위에 놓고 메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㉗) 사신 (辭神)

제주 (祭主)이하 모두는 재배한다.

(㉘) 납주 (納主)

① 분축 (焚祝)

축관이 축을 불에 태운다.

② 남주고처(納主故處)

제주 내외는 제단으로 나아가 신주(神主)를 독(櫛)에 넣고 주독(主櫛)을 받들고 사당에서 처음 나왔던 길로가서 원위치에 모신다.

③ 철상(撤床)

모든 제찬(祭饌)을 내린다.

④ 귀조(歸胙)

제사지낸 음식을 존장 및 친지에게 보내고 모여 앉아서 음복(飲福) 한다.

○ 초헌축문(初獻祝文)

유세차 병신 이월갑진삭 초사일정미 효손 이를 감소고우  
維歲次 丙申 二月甲辰朔 初四日丁未 孝孫 ○○ 敢昭告于

원고조고학생부군 원고조비유인전주이씨  
顯高祖考學生府君 顯高祖妣孺人全州李氏

기서유역 시유중춘 추원감시 불승영모  
氣序流易 時維仲春 追遠感時 不勝永慕

감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이모친 학생부군  
敢以 淸酌庶羞 祇薦歲事 以某親 學生府君

모친 모관모시 부식 상향  
某親 某貫某氏 耐食 尙饗

<해석> ○년○월○일 효손 ○○는 고조부모님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새봄을 맞이하여 영원토록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시제를 올리오니 두 어른께서는 함께 음향하소서

○ 증조(曾祖) 이하 아버지 어머니까지 축을 읽되 다만 부모의 축문에는 不勝永慕를 昊天罔極으로 고치고 耐位에 대한 축문은 없다.

○ 축관(祝板)은 나무쪽으로 길이 1尺 5寸 정도로 하고 축문은 백지에 써서 붙이며 제사가 끝나면 축을 불사른다.

○ 耐位式은 伯叔祖父母는 曾祖에 妻 및 형제와 형제의처는 祖父에, 子姪婦는 父에, 孫 및 孫婦는 祖에 耐하고 西向하여 가로로 향해서 놓는다.

○ 삼상(三喪- 20세 전 사망자)도 耐하는데 下喪의 祭는 부모의 생전에, 中喪의 祭는 형제의 생전, 長喪의 祭는 兄弟之子의 생전에 行하고 비록 성인이라 해도 무후(無后)한자는 형제지손의 생존까지만 행한다.

### 3. 묘제 (墓祭)

묘제는 세일제 (歲一祭), 묘사 (墓祀), 시제 (時祭), 시사 (時祀) 라고도 한다.

5대조 이상의 산소 (山所) 앞에 제수 (祭需) 를 차려놓고 참신 (參神), 강신 (降神), 초헌 (初獻), 아헌 (亞獻), 종헌 (終獻), 사신 (辭神) 의 순서로 지낸다.

제물 (祭物) 은 시제 (時祭) 와 같고 메 국수, 고기, 생선, 과일등을 더 마련하여 토지신 (土地神—石狀) 에 진설하고 향로 향함을 놓고 家齊의 의식에 따라 제사함) 에게 먼저 제사한다.

묘제는 정초 (正朝), 한식 (寒食), 단오 (端午), 중양절 (重陽節—9月9日) 과 10월중 (代가 지난 묘제는 10月1일이 좋음) 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

#### ○묘제축 (墓祭祝)

유세차 운운 모친모관 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云云 某親某官 ○○ 敢昭告于  
 현모친모관 부군지묘 기서유역 우로기우 침소봉영  
 顯某親某官 府君之墓 氣序流易 雨露既濡 瞻掃封塋  
 불승감모 근이 청작서수 지천제사 삼 향  
 不勝感慕 謹以 清酌庶羞 祇薦歲事 尚 饗

<해석> ○년○월○일 불이 ○○는 감히 밝게 ○○불이 ○○벼슬한 어른의 묘에 고하나이다. 세월이 흐르고 철이 바뀌어 산소가 이미 비와 이슬에 젖었음을 보며 감동하고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산소를 깨끗이하고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제사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合窆位는 妣位도 함께 쓴다.

#### ○代가 지난 묘제축 (墓祭祝)

유세차 운운 몇대손 학생 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云云 ○代孫 學生 ○○ 敢昭告于  
 현몇대조고 모관부군지묘 금이초목귀근지시  
 顯○代祖考 某官府君之墓 今以草木歸根之時  
 추유보본 예불감망 침소봉영 불승감모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塋 不勝感慕

근이청 작서수 지천세사 상 향  
謹以清酌庶羞 祇薦歲事 尙 饗

<해석> ○년○월○일 ○대손 학생○○은 감히 밝게 ○대조 할아버님 ○○벼슬  
한 어른의 묘에 고하나이다.

이제 초목이 뿌리로 돌아가는 철을 맞아 미루어 근본을 생각하고 감사  
한 마음을 잊지못하겠으므로 산소를 보면 감동되고 사모하는 마음 이  
길수가 없어서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  
소서

○토지지신에의 축문(後土祭祝)

유세차 운운 학생 이를 감소고우  
維歲次 云云 學生 ○○ 敢昭告于  
토지지신 이름공 수세 사우 모친모관부군지묘  
土地之神 ○○恭 修歲事于 某親某官府君之墓  
유시보우 실외신휴 감이주찬 경신진헌상 향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尙 饗

<해석> ○년○월○일 학생○○은 감히 밝게 토지지신에게 고하나이다. ○○는  
공경하여 세사를 아무개 ○○벼슬을 하신 어른의 묘에 올리면서  
오직 보우하시고 도와주신 신의 덕택을 참으로 감사하여기며 술과  
찬을 펴놓고 전을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4. 연중절사(年中節祀-名節祭祀)

명절이란 설(元日)을 비롯하여 원소절(元宵節-正月十五日)

삼진(三辰-三月 三日)단오(端午-五月五日)유두(流頭-六月十五日) 칠  
석(七夕-七月七日)백중(百中-七月十五日)추석(秋夕-八月十五日) 중양절  
(重陽節-九月九日)한식(寒食)등을 말하지만 그중 설과 추석이 가장 큰 명  
절이므로 조삼에게 차례(茶禮)를 드리며 대삼은 기제(忌祭-高祖考以下)에 한  
한다.

가. 정조와 추석차례(正朝秋夕茶禮)

(1) 사당(祠堂)

사당에 주과포(酒果脯)를 차려놓고 모든 자손들이 참신(參神)한 다음 종손(宗孫)과 집사(執事)만이 사당(祠堂)에 나아가 강신(降神)한다. 이어서 종손이 헌잔(獻盞)하고 유식(脩食)으로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집사가 제단위에 올라서 칠시(撤匙)하면 일등은 재배사신(再拜辭神)하고 음복(飲福)한다

(2)지방(紙榜)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큰 방에 병풍(屏風)을 두르고 고조고비위부터 부모까지 지방 한장에 열서하여 모신다.

제사는 기제사(忌祭祀)순서와 비슷하나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생략하고 단헌(單獻)으로 모시며 함문(闔門)을 하지 않는다.

설에는 메(飯)대신 떡국을 추석에는 햅쌀밥을 올리고 축(祝)이 있으면 각대(各代)마다 따로 지내고 축이 없으면 누대병제(累代並祭)하는 것이 관례이다

나. 한식성묘(寒食省墓)

묘소(墓所)를 다듬는다.

제수(祭需)는 술과 포(脯)만 사용했던 것이 풍습이다.

의식은 재배만 하고 그친다.

○정조축(正朝祝)

유세차 운운 효헌손 이를 감소고우  
 維歲次 云云 孝玄孫 〇〇 敢昭告于  
 현고조고학생부군 현고조비유인모관모서지묘  
 顯高祖考學生府君 顯高祖妣孺人某貫某氏之墓  
 기서유역 청양철회 침소봉영 불승감모  
 氣序流易 靑陽載回 瞻掃封塋 不勝感慕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향  
 謹以 淸酌庶羞 祇薦歲事 尙饗

○추석축(秋夕祝)

유세차 운운 효헌손 이를 감소고우  
 維歲次 云云 孝玄孫 〇〇 敢昭告于  
 현고조고학생부군 현고조비유인모관모서지묘  
 顯高祖考學生府君 顯高祖妣孺人某貫某氏之墓  
 기서유역 침소봉영 불승감모 근이청작서수  
 氣序流易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淸酌庶羞

※父母祝은 不勝感慕를 昊天罔極으로 한다.

○한식축(寒食祝)

유세차 무신 삼월갑자삭 이십일계사 효현손 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戊申 三月甲子朔 二十日癸巳 孝玄孫 ○○ 敢昭告于  
 顯高祖學生府君 顯高祖妣 孺人某貫某氏 之墓  
 기서유역 우로기유 칠소봉영 불승감모  
 氣序流易 雨露既濡 瞻掃封塋 不勝感慕  
 근이청작서수 지천세사 상향  
 謹以清酌庶羞 祇薦歲事 尙饗

## 5. 기제(忌祭)

### 가. 기제의 의의(忌祭意義)

기제는 선대(先代)의 기일(忌日)을 맞이하여 그 은덕을 기리며 추모의 정을 새롭게 하면서 사친(事親)의 지극한 효심으로 추도하는 의식이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의 뿌리를 살펴보고 생시(生時)의 부모님에게 못다한 효심(孝心)을 사죄하는 한편 다음 세대에게 스스로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는 자리이다.

때문에 기제는 제물의 넉넉함 보다는 진실한 정성이 담겨져야 하고 의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나. 체천위(遞遷位)

우리는 예로부터 고조(高祖 - 4代)까지만 제사를 지냈다.

그 이유는 옛날 장수하면 흔히 현손(玄孫)을 보았기에 그 현손은 고조할아버지에 대한 정을 끊을 수 없는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고조고비위(高祖考妣位)는 장손의 현손이 죽으면 다음의 현손집으로 그 현손도 죽으면 또 다른 현손집에서 제향(祭享)을 받다가 마지막으로 5代 장손의 집으로 되돌아와서 고별제(告別祭)와 동시에 기제(忌祭)는 끝나며 여기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신위(神位)를 체천위(遞遷位)라 한다.

○ 고별제 축문 (告別祭祝文)

선왕제례 사지사대 심수무궁 분즉유한  
先王制禮에 祀止四代하니 心雖無窮이나 分則有限하여  
신주당조매 우묘소  
神主當桃埋于墓所하나이다.

다. 불천위 (不遷位)

불천위는 천위의 반대로 몇 백년을 지나도 옮겨다니지 않는 신위이다.

학덕이 높으신 현조(賢祖) 국가에 지대한 공으로 시호(諡號)를 받은 조상, 서원(書院)에 배향(配享)될 조상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中興祖)는 직차자손(支次子孫)에 옮겨가지 않는다.

라. 전시 (奠時)

기제(忌祭)는 자정(子正)이 약간 지나서 참신(參神)하고 첫담이 올기전에 끝내는 것이 풍속(風俗)이었다.

근래에는 야간 통행금지등 시대의 변천으로 입제일(入祭日)의 저녁 혹은 정제일(正祭日)의 저녁에 행사(行祀)하는 경우가 있다.

고증(考證)에 의하면 「獻明夙興 設蔬果 酒餼質明主人以雙服詣祠堂奉神主」  
—먼동이 트면 일어나 세수하고 소제와 술과 찬을 차려놓고 날이 밝아 오면 예복으로 갈아입고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모셔온다—로 되어 있다.

마. 제수진설 (祭需陳設)

제수의 진설은 남노간(南老間—남인과 노론)의 예행 해설과 지방 또는 문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위(神位)의 북좌남향(北坐南向)등 원례(原禮)는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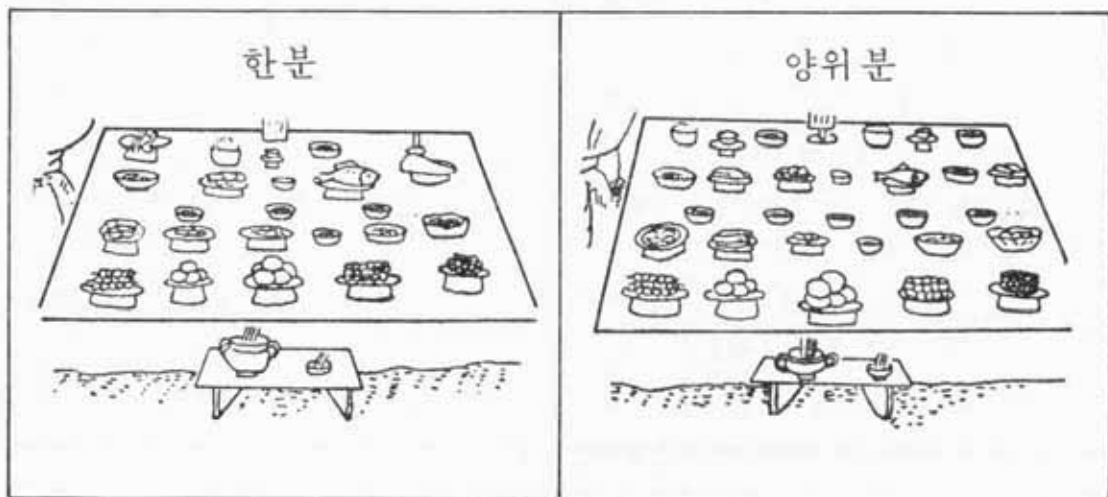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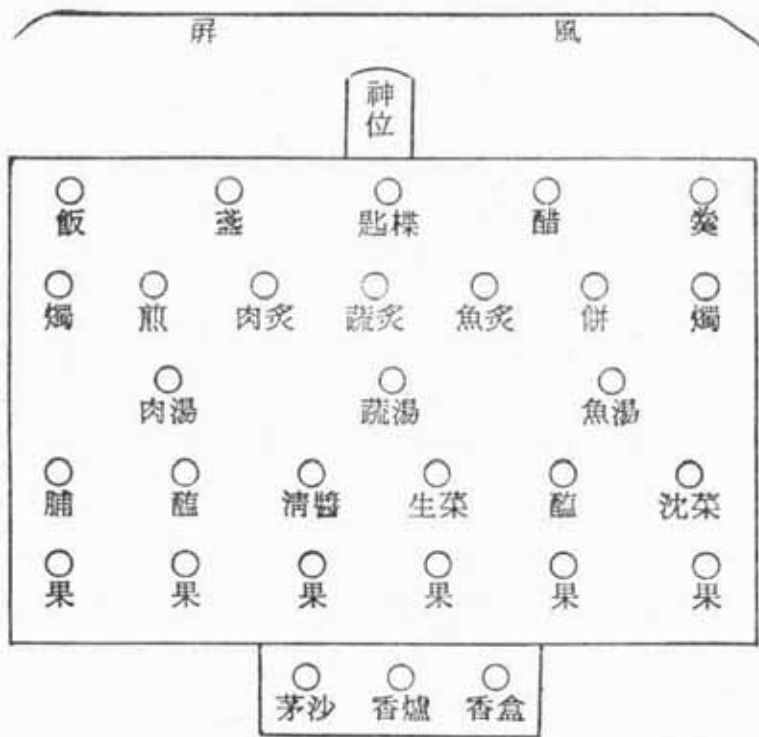
- (1) 「東爲左陽西爲右陰」—동쪽은 좌편이니 양에 속하고 우편은 서편이니 음에 속한다.
- (2) 「生者從陰而居右熟者從陽而居左」날것은 음에 속하므로 바른쪽(서쪽)에 익힌것은 양에 속하므로 왼쪽(동쪽)에 놓는다.
- (3) 「天實處高位先地種處低爲下」높은 곳에서 구한것은 바른쪽(선) 낮은곳에서 구한것을 왼쪽(아래)에 놓는다.
- (4) 「陸產爲上而先 海山爲下而次」육산물을 높여서 먼저 차리고 해산물을 낮추



어서 뒤에 놓는다.

- (5) 「混者從陰而居右 燥者從陽而居左」진것은 음에 속하므로 바른쪽에 먼저 놓고 마른것은 양에 속하므로 왼쪽에 뒤에 놓는다.
- (6) 명태(明太)와 포(脯)는 미숙자(未熟者)이므로 도적(屠炙)보다 먼저 진설하고 적(炙)가운데에서도 고기(肉)는 육산이니 먼저이고 물고기(魚)는 해산물이니 뒤에 놓는다.
- (7) 생채(生菜)는 음이니 오른쪽, 숙채(熟菜)는 양(陽)이니 왼쪽이며, 숙(熟)중에도 콩나물은 습하므로 오른쪽에 지짐은 마른것이니 왼쪽으로 놓는다.
- (8) 면(麵)은 습음(濕陰)하므로 오른쪽 변(餅)은 조양(燥陽)하니 왼쪽이다.
- (9) 메(飯)는 지산물(地產物)로서 음하므로 오른쪽, 갱(羹)은 고기(肉)이므로 천산물(天產物)인 까닭에 양하여 왼쪽에 놓는다.
- (10) 조율시이사과건시(棗栗柿梨沙果乾柿)는 주과육품(主果肉品)으로 먼저 진설하고 은행백자도(銀杏栢紫桃)등은 부과(副果)이므로 다음에 차리며 단석태유과(丹石飴柔果), 양과류(洋果類)등의 순서로 놓는다.
- (11) 주잔(酒盞)은 飯羹之正中이라 古人臨食必戒咽先飯酒沃之所以酒居飯羹之先也라 하였다.
- (12) 어육(魚肉)은 홀수로 쓰고 과실(果實)과 소채(蔬菜)는 짝수를 쓴다.  
 이상은 진설의 좌우를 구분했고 다음은 세로의 순서는
- 제 1열—우로부터면, 메, 갱, 예, 병(麵, 飯, 羹, 醃, 餅)
  - 제 2열—주잔(酒盞)
  - 제 3열—건어포(乾魚脯), 도적(屠炙—鳥肉, 陸肉, 水魚, 海魚 生熟順)과 5탕(五湯)
  - 제 4열—김(海苔), 생채(生菜), 장(醬), 김치(沈菜), 숙채(熟菜) 작채(灼菜)
  - 제 5열—대추, 밤, 꽃감, 감, 배, 사과, 은행, 잣(栢), 자도(紫桃), 오이, 단석(丹石), 옛, 유과(柔果), 양과(洋果)
  - 좌포우醃(左脯右醃)—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다.
  - 어동육서(魚東肉西)—어류는 동쪽,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 두동미서(頭東尾西)—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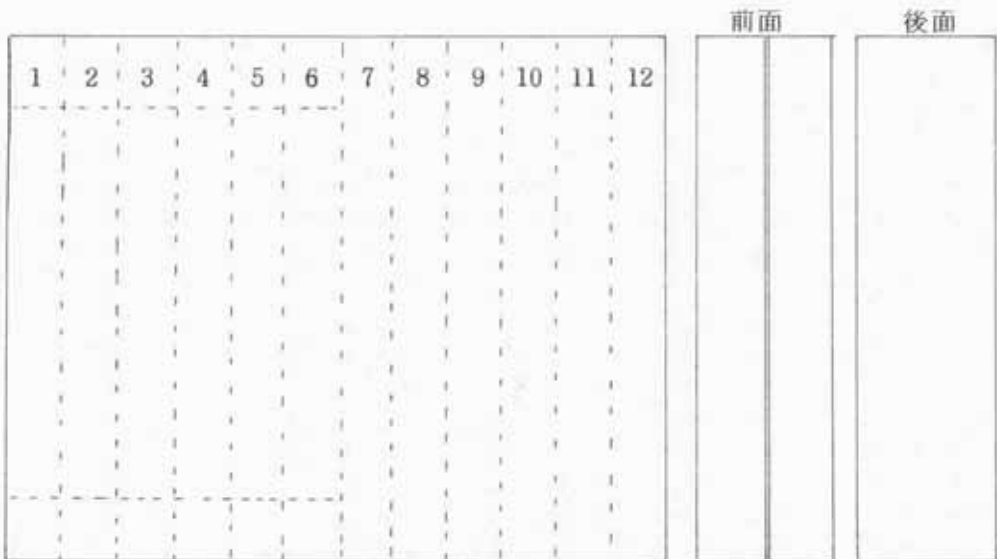
### 제수진설





伯仲叔父	兄 內 外	弟 內 外	夫	妻	子	子婦
顯伯 (仲) 叔父學生府君	顯兄 學生府君	亡弟 學生 ○ ○	顯 辭處士 (學生) 府君	亡 (故) 室孺人光山金氏	亡子 秀才 (士) ○ ○ 之	亡婦 全州李氏 之
顯伯 (仲) 叔母孺人慶州李氏	顯兄 批孺人海州吳氏	亡弟 嫂孺人平海黃氏				
神位	神位	神位	神位	神位	靈	靈

○ 紙榜 접는 방법



○ 길이 2尺 넓이 2尺 6寸

○ 백지의 가운데를 접으면 2間 또 접으면 4間 그것을 3등분하여 접으면 12間이 되고 線은 11선이 된다.

○ 왼쪽에서부터 12선을 연결쳐 좌로 접어 제 3선을 띄우고 4선을 기준하여

○좌의 부분을 우로 접어 5선을 기준해서 다시 좌로 접으면 6, 7, 8, 9, 10, 11선이 보이며 이를 접어진 그대로 뒤집어서 6선을 좌로 싸서 접으면 7, 8, 9, 10, 11선이 남는다.

그림의 점선을 접고 다시 8선을 우로 접어 10선까지 접어서 11선을 끼워 넣으면 된다.

#### 사. 제사의 절차(祭祀節次)

삼헌(三獻)이란 참제관(參祭官)을 3분해서 모두 헌작(獻酌)에 참여하는 의식이다.

초헌(初獻)은 친자손의 남자들이 모두 초헌관이 되고 종자(宗子)가 집잔 헌작(執盞獻酌)할때 함께 예전(詣前)하여 곡궁(曲窮)했다가 독축후(讀祝後) 종자와 같이 재배하고 제자리에 선다.

아헌(亞獻)은 여자들이 종부(宗婦)가 헌작(獻酌)할때 함께 곡궁했다가 4배(四拜)한다.

종헌(終獻)은 방친(傍親)과 남은 참여자들이 모두 예전(詣前)하여 곡궁하고 그 중 한사람이 헌작후에 다함께 재배한다.

#### (1)계청 및 진설(啓廳, 陳設)

(가)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은 계청(祭廳)하여 차례로 선다.

(나) 집사(執事)는 제상(祭床)에 제수(祭需)를 차린다

(다) 독(櫝)을 열고 지방을 붙인다.

#### (2)강신(降神)

신위(神位)께서 강림하시어 음식을 흠향(歆饗)하시라는 뜻이다.

(가)분향재배(焚香再拜)

제주(祭主)가 향안 앞에 꿇어 앉아 분향한 뒤 재배하고 제자리로 선다.

(나)퇴주재배(酌酒再拜)

강신에 앞서 제주는 신위(神位)를 모셔온다는 뜻으로 대문밖까지 나왔다가 들어가고 제사가 끝나면 역시 대문밖까지 배웅하는 풍속을 지킨 가정도 있다.

제주가 향안(香案)앞에 꿇어 앉으면 우집사(右執事-子, 姪)는 술병을 들고

제주의 오른쪽에 꿇어 앉고 좌집사는 잔반(강신용이 따로 있음)을 들고 제주의 왼쪽에 꿇어 앉는다.

제주가 좌집사로 부터 잔반을 받으면 우집사는 술을 따른다.

제주는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들고서 모사(茅沙)에 술을 세번 나누어서 딸고 잔반을 좌집사에 주면 좌집사는 빈잔을 위전(位前)에 올려 놓으며 이때 제주는 재배한다.

### (3) 참신(參神)

신주(神主)를 모신 제사는 강신에 앞서 참신을 한다.

신위가 오신것으로 생각하여 참사자 모두는 지방을 향하여 재배한다.

육(肉), 면(麵), 어(魚), 떡, 갱(羹), 반(飯) 등 6품(六品)은 참신뒤에, 그밖에 잔반(盞盤), 시첩(匙櫛), 과(果), 소채(蔬菜) 등 모든 제물은 참신전에 진찬(進饌)한다.

6품을 차릴때 집사는 육(肉), 어(魚), 갱(羹) 등의 순서로 올리고 주부는 국수, 떡, 메를 올린다.

### (4) 초헌(初獻)

제주는 향안전에 나아가 꿇어 앉고 참사자(參祀者)들은 제주뒤에 차례로 꿇어 앉아서 곡궁한다.

#### (가) 헌작(獻酌)

제주는 먼저 고위(考位)앞에 놓인 잔대를 내려서 향안앞에 동향(東向)하고 서면 우집사는 서향(西向)하고 서서 술을 가득히 따른다.

제주는 잔반을 왼손으로 잡고 술잔을 오른손에 들고서 모사(茅沙)위에 세번 기울이고(三除) 양손으로 잔반을 받들어 고위(考位)앞에 올린 다음 비위전(妣位前)에도 이와같은 절차로 술을 올린다.

#### (나) 진적계개(進炙啓蓋)

제주의 동생이 간적(肝炙)을 올리고 좌우집사는 고위(考位)와 비위(妣位)의 반개(飯蓋)를 열어 놓는다.

#### (다) 독축(讀祝)

축관(祝官)은 제주의 왼편에 동향하고 꿇어 앉아서 축을 읽으면 참사자(參

祀者) 모두는 재배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다음 아헌(亞獻)의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준다.

(4) 칠주칠적(撤酒撤炙)

집사는 고비위전(考妣位前)의 술잔을 비우고 제자리에 놓고서 간적(肝炙)을 내려서 빈 그릇에 담는다.

(5) 아헌(亞獻)

아헌이란 두번째 올리는 술잔이며 제주(祭酒)의 처(妻)가 되며 부재시는 제주의 동생이 대신한다.

집사(執事)도 여자로 대체(代替)하고 계개(啓蓋)와 독축(讀祝)이 없을 뿐 순서는 초헌(初獻)때와 같고 사배(四拜)하는것이 다르다.

(6) 종헌(終獻)

종헌이란 마지막(세번째)의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가) 본자손 이외(本子孫以外-사위, 외손, 방친, 제자)의 참사자들중에서 헌관(獻官)을 삼고 분향한 뒤 헌작(獻酌)하면 종헌 참여자들은 곡궁 재배한다.

(나) 집사자 계반(밥뚜껑을 연다.)하고 급시(扳匙-수저를 메에 꽂음) 하는것을 삼시(插匙)라고 한다.

(다) 제주이하 모두가 제청(祭廳)의 문을 닫고(闔門)밖으로 나왔다가 몇분뒤에 개문(開門)하고 들어가서 모두 제자리에 선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 몇분후에 세차례의 기침을 하고 일어선다.

(7) 진다(進茶)

집사는 국 그릇을 내리고 송냥을 올리는 것을 진다(進茶)라고 한다.

유식(脩食)이라 하여 수저로 메를 세번 떠서 물에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수저를 거두어서 식첩위에 놓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술잔에 세번 첨작(添酌)하고 잠시 기다린다.

(8) 사신(辭神)

사신이란 신위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올리는 절차이다.  
참사자들은 마음속으로 안녕히 가시기를 빌면서 재배하고 제주는 향안앞에 나와  
집사에게 사신을 올린다.

집사는 하저(下著)하고 낙시(落匙)하며 복반(覆飯)한 다음 출입문(동쪽)  
을 향하여 이성(利成)을 고한다.

제주는 축과 지방을 분축(焚祝-축지방을 불대워서 향로위에 놓는다.)한다.  
집사와 여자들은 철상(撤床)하고 제사에 참여한 모두는 음복한다.

○기제축(忌祭祝)

△아버지

유세차 무신 오월정유삭 십오일신해 효자이름감소고우  
維歲次 戊申 五月正酉朔 十五日辛亥 孝子○○敢昭告于

현고 학생부군  
顯考 學生府君

현비유인함평이씨 세서친역  
顯妣孺人咸平李氏 歲序遷易

현고 학생부군 위일부림 추원감시  
顯考 學生府君 諱日復臨 追遠感時

호천망극 근이청자서수 공신전헌 상향  
昊天罔極 謹以清酌庶羞 恭伸奠獻 尙饗

<해석> 무신년 5월 15일 신해에 효자○○는 아버님 어머니께 아뢰옵니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이하여 부모님을 생각하  
니 하늘 같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기에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마련  
하여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어머니의 축문은 내용은 아버지축문과 같고 다만 순위만 바꾸어 쓴다.

△처(妻)

유세차 임자 이월갑자삭 초육일신해 부이름감소고우  
維歲次 壬子 二月甲子朔 初六日辛亥 夫○○敢昭告于

고실유인파평윤씨 세서친이  
故室孺人坡平尹氏 歲序遷易

망일부지 불승비고 자이청자서수  
亡日復至 不勝悲苦 茲以清酌庶羞

신차전의 상향  
伸此尊儀 尙饗

○처제대자축(妻祭代子祝)

유세차 윤윤 부성명 사자 이름 감소고우  
維歲次 云云 夫姓名 使子 ○○ 敢昭告于



망실유인분과성세 세서천역 만일부지 불승비공  
 亡室孺人○○○氏 歲序遷易 亡日復至 不勝悲苦  
 자이청작서수 신차건의 삼향  
 茲以清酌庶羞 伸此奠獻 尙饗

## △夫(부)

유세차 운운 주부 이씨 감소고우  
 維歲次 云云 主婦 李氏 敢昭告于  
 현벽 학생부군 세서천역  
 顯辟 學生府君 歲序遷易  
 위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청작서수 공신전현 삼향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清酌庶羞 恭伸奠獻 尙饗

※남편의 제사에 아내가 제주가 될 경우에는 子姪兄弟 叔父가 없거나 아들이 10세 미만일 때임

## 6 . 예제 (禴祭)

예(禴)란 아버지의 사당을 의미한다.

예제는 추수를 마치고 9월중에 날을 받아서 특별히 부모를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택일(擇日)과 의식은 사시제(四時祭)와 같다.

## ○명사식(命歲式)

효자모 장이래월모일 추이세사적기고비 삼향  
 孝子某 將以來月某日 趣以歲事適其考妣 尙饗

<해석> 효자○○는 장차 내달 ○일에 세사를 모시고자 물으오니 아버님과 어머니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 ○택일고사축(擇日告事祝)

효자모 장이래월모일 지천세사우 고비 복기득길 감고  
 孝子某 將以來月某日 祇薦歲事于 考妣 卜既得吉 敢告

<해석> 효자○○는 매월○○일에 아버님과 어머니께 제사를 올리기로 날을 받아 놓고 삼가 고하나이다.

## ○출주고사(出主告辭)

효자모 금이계추 성물지시 유사우 현고처사부군  
 孝子某 今以季秋 成物之始 有事于 顯考慮士府君

현비유인 모시감청 신주 출취청침 공신정헌  
 顯妣孺人 某氏敢請 神主 出就正寢 恭伸奠獻

○ 행사절목 (行事節目)

- ① 참신 (參神) ② 강신 (降神) ③ 진찬 (進饌) ④ 초헌 (初獻) ⑤ 아헌 (亞獻)  
 ⑥ 종헌 (終獻) ⑦ 유식 (侑食) ⑧ 함문 (闔門) ⑨ 계문 (啓門) ⑩ 수조 (受陟)  
 ⑪ 사신 (辭神) ⑫ 납주 (納主) ⑬ 철상 (徹床) ⑭ 준 (饌)

참신, 강신, 진찬, 초헌등은 사시제와 같다.

○ 축문식 (祝文式)

유세차 간지 몇월간지삭 몇일간지 효자 모관모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孝子 某官某 敢昭告于  
 현고처사부군 현비유인모시 금이계추 성물지시  
 顯考處士府君 顯妣孺人某氏 今以季秋 成物之始  
 감시추모 호천망극 감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향  
 感時追慕 昊天罔極 敢以 清酌庶羞 祇薦歲事 尙 饗

< 해석 > ○일○○벼슬했던○○는 감히 부모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이제 가을도 깊어서 만물이 결실하는 즈음에 부모님의 정을 추모하는  
 마음 이길수가 없나이다. 맑은 술과 여러 음식을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7 . 사갑제 (祀甲祭)

회갑(回甲)전에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의식은 기제(忌祭)와 같으나 다만 장남이 초헌을 하고 축을 읽은 다음 차남을  
 비롯한 근친이 모두 잔을 올리는 것이 다르다.

사갑제 축문 (祀甲祭祝文)

유세차 간지 몇월간지삭 몇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維歲次 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현비유인모시 세시천역 요급회갑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某氏 歲時遷易 遠及回甲  
 생시유경 물영감망 호천망극 근이청작서수 식차진헌 상 향  
 生時有慶 沒寧敢忘 昊天罔極 謹以清酌庶羞 式此奠獻 尙 饗

< 해석 > ○년○월○일 효자○○는 감히 부모님 영전에 밝게 고하나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회갑을 맞으시니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경사이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죄송합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올리오니 흠향하소  
서

## Ⅱ. 현대식제례 (現代式祭禮)

### 1. 기제 (忌祭)

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제사는 사망한 날의 해가진뒤에  
지내며 참사자는 직계 자손으로 제한했다.

### 2. 절사 (節祀)

추석날 아침에 종손집에서 직계조상을 모신다.

### 3. 연시제 (年始祭)

1월 1일 아침 직계조상을 직계자손이 모신다.

### 4. 제례의 절차(祭禮節次)

#### 가. 혼령모시기

제주는 분향하고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가 모두 재배한다.

#### 나. 잔올리기

술잔은 한번만 올린다.

#### 다. 축문읽기

축문을 읽고 묵념한다.

#### 라. 물림절

참사자 모두가 재배한다.

○현대식 지방



○신위는 사진으로하고 없을 경우 지방을 쓴다.

부조(父祖)의 축문

년 월 일

아들(또는 손자)○○는 아버님(또는 할아버님) 신위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아버님(또는 할아버님)께서 별세하시던 날을 다시 맞이하오니 추  
모의 정을 금할수 없나이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오니 기림하시와  
흠향하시옵소서

아내의 축문

년 월 일

남편 ○○는 당신의 신위 앞에 고합니다.

당신이 별세하던 날을 다시 당하니 옛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간소한 제수를 드리니 흠향하소서

## 제 3 장 토속신(土俗神)

우리 선조들은 옛날 부족(部族)생활에서부터 믿어 왔던 속신(俗神)들이 뿌리 박혀 전해오고 있다.

선조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많은 금기(禁忌)사항이 신앙(信仰)처럼 우상화되어 토착(土着)되었던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속신이란 한낱 미신(迷信)에 불과하고 사리(事理)에 맞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선조들은 오랜 체험에서 얻어진 하나의 교훈(教訓)으로 간직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었었다.

그러나 과학과 문화의 발달속도에 따라 토속신역시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기에 여기에 참고로 1,000 가지의 속신(俗信)을 모아서 수록한다.

### 1 . 결혼 (結婚)

1. 혼인날 비가오면 불길하다.
2. 혼인날 눈이 오면 부자가 된다.
3. 혼인날 마당에 차일을 얹치면 해를 입는다.
4. 혼인날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 잘 살 수 없다.
5. 혼인날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
6. 혼인날 신랑이 웃으면 첫 아들을 낳는다.
7. 신방의 촛불을 손으로 끄지 않고 입으로 불면 복 달아난다.
8. 첫날 밤에 문 열어 놓고 자면 복달아난다.
9. 혼인 첫날 신부가 부엌에 들어가면 시어머니에게 말 대답한다.
10. 노총각이 남의 혼인집 음식을 먹으면 장가는 더 늦어진다.
11. 선달 결혼은 행복하지 못하다.
12. 신랑의 가마가 들어올때 굴뚝에 서있으면 재수 없다.
13. 신랑의 가마가 들어올때 처마끝에 서 있으면 재수 없다.

14. 시집가는날 술뚜껑을 만지고 가야 잘 산다.
15. 신부를 돕는 사람은 임신부나 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16. 시집갈때 글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면 딸을 많이 낳는다.
17. 6월의 혼인은 불행하다.
18. 처녀가 상위에 바가지를 올려 놓으면 시집을 늦게 간다.
19. 첫날밤에 밖에 나가면 복 달아난다.
20.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의 저고리를 먼저 벗기면 앓는다.
21. 춘삼월에 결혼하면 행복하다.
22. 함속에서 붉은 옷을 먼저 꺼내면 첫아들 푸른옷을 꺼내면 첫딸을 난다.
23. 함속의 염낭에서 콩이 나오면 딸을 낳는다.
24. 혼인날 신랑가는 길에 상주를 보면 부정탄다.

## 2. 임신 (妊娠)

25. 임신부가 방고칠때 구들을 넘어가면 께보를 난다.
26. 임신부가 절구통에 앉으면 께보를 난다.
27. 임신부가 개고기를 먹으면 앓는다.
28. 임신부가 오리고기 먹으면 손가락이 붉은 아이를 낳는다.
29. 임신부는 상가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30. 임신부가 말 고삐나 새끼줄을 넘어서는 앓는다.
31. 임신부는 시루나 무거운 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32. 임신부는 쪽 밤을 먹지 않는다.
33. 임신부는 몸속에 불결한 것을 품고자면 앓는다.
34. 임신부는 무너진 담장을 넘지 않는다.
35. 임신부는 벌레먹은 과일이나 빼뚫어진 과일을 먹어서는 앓는다.
36. 임신부가 남을 속이면 아기가 거짓말 한다.
37. 임신부가 담을 넘어우면 어린이가 도둑된다.
38. 임신부가 닭발을 먹으면 아이가 닭발된다.
39. 임신했을때 우물이나 굴뚝을 고치면 아이에게 해롭다.
40. 임신부가 부엌비를 깔고 앉으면 쌍둥이 난다.

41. 임산부가 죽은 사람을 보면 **않** 좋다.
42. 임산부는 동물을 죽일때 보아서는 **않** 된다.
43. 임신했을때 집을 고치면 **해**롭다.
44. 임산부가 남을 미워하거나 흠을 잡으면 어린이가 그렇게 된다
45. 임산부가 밧줄을 넘으면 열 두달만에 아이를 낳는다.
46. 임산부가 숯불을 피우면 **좋**지 않다.

### 3 . 출산 (出產)

47. 미역을 날것으로 먹어서는 **아**니 된다.
48. 부정한 사람이 산실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49. 첫 이래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50. 산후 삼칠일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탄다.
51. 이웃집에서 출산하면 **빨**래를 하지 **않**는다.
52. 산후 21일간은 금줄을 쳐야 한다.
53. 한집에서 두 사람이 출산하면 한 사람이 **친**다.

### 4 . 사망 (死亡)

54. 혼인을 앞둔 집은 상가에 가지 **않**는다.
55. 초상이 나면 장례가 끝날때까지 **빨**래를 하지 **않**는다.
56. 사람이 죽으면 고양이가 못들어가게 아궁이를 막는다.(만약 고양이가 아궁이에 들어가면 시체가 일어선다고 믿어왔다.)
57. 상가에서는 탈복할때까지 머리에 빗질을 하지 **않**는다.
58. 사람이 죽었을때 기름냄새를 풍기면 **해**를 입는다.
59. 관위로 칼을 넘기면 시체가 일어선다.
60. 상가는 장례를 마칠때까지 마당을 쓸지 **않**는다.
61. 상여가 나갈때 우물을 던지 **않**으면 물이 마른다.
62. 상중에 이웃에서 바느질하면 그집은 **망**한다.
63. 상주가 새옷을 입으면 저승의 부모님이 걷는 길이 **어**둡다.

- 64. 어린이는 시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
- 65. 염할때 시체위로 칼을 넘기면 아니된다.
- 66. 객사(외출중 사망)했을때는 시체를 방으로 모시지 않는다.
- 67. 시체를 산 사람이 넘어 다녀서는 않된다.
- 68. 상가에 다녀온 사람은 문 밖에서 짚불을 쏘여준다.
- 69. 상가에 다녀오면 소금을 뿌린다.
- 70. 상중에 빨래를 넣어두면 우환이 든다.

## 5 . 식사 (食事)

- 71. 밥상 모서리에 앉으면 모난소리 듣는다.
- 72. 누어서 밥을 먹으면 아니된다.
- 73. 다리를 뺏고 밥을 먹으면 가난하다.
- 74. 마루에서 밥을 먹을때는 방문을 열어 놓는다.
- 75. 문지방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빌어 먹는다.
- 76. 문지방에 식기를 올려놓고 먹으면 귀머거리 된다.
- 77. 바가지들 밥상위에 올려 놓으면 가난하다.
- 78.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으면 가난해진다.
- 79.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으면 여러차례 이사한다.
- 80. 밥그릇에 손을 받치고 먹으면 가난하다.
- 81. 밥먹을때 밥그릇을 겹쳐놓고 먹으면 줄 초상난다.
- 82. 밥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 83. 밥먹을때 수저 든 손을 흔들면 복 달아난다.
- 84. 밥먹은 자리에서 즉시 누우면 아니된다.
- 85. 밥먹을때 턱을 고이고 먹으면 복 달아난다.
- 86. 밥먹다가 수저를 떨어 뜨리면 재수없다.
- 87. 밥먹고 수저를 상위에 놓을때 소리가 나면 아니된다.
- 88. 밥을 비벼 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마시면 체증이 없어진다.
- 89. 밥상위에 칼을 올려 놓으면 부부 싸움한다.
- 90. 밥상앞에서 울면 부모가 돌아가신다.



91. 밥그릇을 깨끗이 먹지 않으면 복다라난다.
92. 밥그릇에 물을 부어 먹지 않으면 복 다라난다.
93. 밥먹은 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면 복 다라난다.
94. 밥상을 삼년간 한손으로 밀거나 당기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95. 수저를 짧게 잡는 처녀는 가까운곳에 멀리 잡을 때는 멀리 시집간다.
96. 식사중에 변소가면 복달아 난다.
97. 식사중에 말을 많이하면 해롭다.
98. 식사중에 밥을 많이 흘리면 복달아 난다.
99. 밥먹을때 밥그릇의 뒷면부터 먹으면 도둑된다.
100. 식사하면서 이를 보이면 가난해 진다.
101. 식사 도중에 청소하면 빌어 먹는다.
102. 식사중에 입안의 음식이 보이면 아니된다.
103. 음식을 문턱에 놓았다 먹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104. 음식을 칼로 베어 먹으면 아니된다.

## 6 . 여성의 예절 (禮節)

105. 손에 가루를 무치고 밖에 나가면 재수없다.
106. 깨진 거울을 보면 근심이 생긴다.
107. 고부간에 화합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한다.
108. 떡을 가지고 장난하면 품보신랑 얻는다.
109. 떡찌다가 변소가면 떡이 설익는다.
110. 말며느리가 외출이 잦으면 집안이 망한다.
111. 여자가 말이 많으면 그 집의 장맛이 쓰다.
112. 여자가 문지방에 앉으면 남편이 재수 없다.
113. 여자가 밤에 머리를 빗으면 팔자가 사납다.
114. 여자가 밤에 머리 빗고 변소에 가면 귀신이 모인다.
115. 여자가 밤에 거울을 보면 품보신랑 얻는다.
116. 밤화장하고 자면 혼이 나간다.
117. 벼개를 깔고 앉으면 소박 맞는다.

- 118. 여자가 새벽에 보이면 재수 없다.
- 119. 시아버지 앞에서 젓을 먹이면 아니된다.
- 120. 시집가서 큰 그릇을 깨면 재앙이 생긴다.
- 121. 시집가서 사발을 깨면 계속 깬다.
- 122. 여자가 아침에 큰 소리 내면 재수 없다.
- 123. 여자가 다른 남자의 신을 신으면 후생에 그사람과 부부가 된다.
- 124. 여자가 남자의 길을 앞질러가면 재수 없다.
- 125. 여자가 책을 넘으면 공부를 못한다.
- 126. 여자가 날뛰면 집안이 망한다.
- 127.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넘으면 그 남자의 허리가 아프다.
- 128. 여자가 자면서 발장난 하면 시집가서 쫓겨난다.
- 129. 여자가 휘파람 불면 팔자가 사납다.
- 130. 여자의 소리가 담 넘어가면 집안이 망한다.
- 131. 여자가 다듬이돌 위에 앉으면 쫓겨난다.
- 132. 여자가 문지방을 베고자면 평생 다른집은 구하지 못한다.
- 133. 여자가 치마를 태우면 부모와 이별한다.
- 134. 여자가 임신중에 화로를 넘으면 불효를 낳는다.
- 135. 여자의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복이 나간다.
- 136. 여자가 숲속에서 소변을 보면 뱀을 낳는다.
- 137. 처녀가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으면 시집을 못간다.
- 138. 처녀가 머리를 풀고 부엌에 들어가면 생전 고생한다.

## 7. 잠자는 자세 (姿勢)

- 139. 누어서 발을 벽에다 올려놓고 자면 아니된다.
- 140. 밤에 하늘을 보고자면 입이 삐뚤어 진다.
- 141. 밤이슬을 맞고자면 입이 돌아간다.
- 142. 머리를 북쪽으로 두르고 자면 북 달아난다.
- 143. 벼개를 높게 베고자면 빨리 죽는다.
- 144. 여자가 이마에 손을 얹고자면 남편이 죽는다.

- 145. 아랫목에 머리를 두르고 자면 해롭다.
- 146. 아침에 엎드려자면 복이 나간다.
- 147. 버선을 머리맡에 벗어놓고 자면 꿈자리가 사납다.
- 148. 입을 벌리고 자면 복이 나간다.
- 149. 이를 갈면서 자면 복이 나간다.
- 150. 발을 포개고 자면 복이 나간다.
- 151. 팔을 베고자면 가난하다.
- 152.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은 복이 많다.
- 153. 허리띠를 맨채로 자면 귀신이 저울질하고 저울질할때 떨어지면 죽는다.

## 8 . 정 직 성 ( 正 直 性 )

- 154. 거짓말 하면 엉덩이에 빨난다.
- 155. 길에서 칼을 주어오면 동티난다.
- 156. 나이를 줄이거나 늘이면 쉬 죽는다.
- 157. 호박을 흠치면 죽을때 호박같이 붓는다.
- 158. 머리빗을 주어오면 재수있다.
- 159. 도둑을 맞고 물고기의 눈에 바늘을 꽂으면 도둑의 눈이 먼다.
- 160. 임신부가 임신하지 않았다고하면 병어리를 낳는다.

## 9 . 일 상 생 활 ( 日 常 生 活 )

- 161. 간난아이에 꿀을 많이 먹이면 말을 더디 배운다.
- 162. 손톱을 밖에 버리면 울베미가 먹는다.
- 163. 고기의 눈알을 먹으면 효성이 적어진다.
- 164. 고기의 눈알을 먹으면 부모의 상에도 울지 않는다.
- 165. 풀을 먹이면 바보가 된다.
- 166. 김치를 잘먹는 사람은 기와집에서 살수 있다.
- 167. 나무를 잘타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 168. 남들이 손을 잡고갈때 그 가운데를 뚫고가면 재수 없다.

169. 남에게 악담하면 그 악이 되돌아 온다.
170. 어른에게 인사할때 맨발이면 아니된다.
171. 남에게 침을 뱉으면 버짐이 난다.
172. 남을 비웃으면 입이 삐뚤어진다.
173. 남의 집에서 손톱을 깎으면 그집과 사이가 멀어진다.
174. 남의 곡식을 먼저 가져다 먹으면 죽어서 소가 된다.
175. 남의 봄을 넘어가면 재수가 없다.
176. 낮에 대문을 잠그어 놓으면 재산이 늘지 않는다.
177. 누른밥을 좋아하면 다시 그집에 태어난다.
178. 늦잠이 많은 사람은 가난해진다.
179. 다듬이 돌을 베고자면 입이 삐뚤어진다.
180. 다듬이 돌에 앉으면 치질이 생긴다.
181. 다듬이 돌위에 앉으면 앓은뱅이가 된다.
182. 다듬이 돌위에 먹을것을 놓았다 먹으면 귀먹어리가 된다.
183. 다리미질을 끌고루하지 않으면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
184. 떡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185. 뒷박으로 동냥을 주면 가난해진다.
186. 두사람이 한대야에서 손을 씻으면 싸운다.
187. 뜨거운 물건을 잘 드는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는다.
188. 마을의 느티나무(당산나무)를 베면 동터난다.
189. 모자를 쓰고 식사하면 가난해진다.
190. 문턱을 밟으면서 넘어다니면 재수가 없다.
191. 물건을 주었다 빼앗으면 이마에 빨난다.
192. 밤에 휘파람불면 뱀이 나온다.
193. 밤에 휘파람불면 호랑이가 나온다.
194. 밤에 휘파람불면 도둑이 든다.
195. 밤에 손톱을 깎으면 인절없는 사람이 된다.
196. 밤에 휘파람불면 귀신 나온다.
197. 밤에 손톱을 깎으면 복 달아난다.
198. 밤에 손톱깎으면 올빼미가 눈알 빼간다.

- 199 . 밤에 다듬이질하면 우환이 든다.  
 200 . 밥먹을때 다듬이질하면 귀먹는다.  
 201 . 복숭아 벌레를 먹으면 예뻐진다.  
 202 . 부모의 출상중에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203 . 부엌 바닥에 침을 뱉으면 죄가 된다.  
 204 . 아궁이에 먹을것을 버리면 가난해진다.  
 205 . 불때면서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그 빗자루가 도깨비된다.  
 206 . 부엌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빗지고 산다.  
 207 .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싼다.  
 208 . 비올때 머리감으면 부모상때 비운다.  
 209 . 비오는날 머리감으면 비오는날 죽는다.  
 210 . 빈다듬이돌을 두드리면 가난해진다.  
 211 . 사다리밧을 지나면 복이 나간다.  
 212 . 남의 머리를 넘어가면 키가 크지 않는다.  
 213 . 삶은 밤을 많이 먹으면 살이 쪼든다.  
 214 . 쌀을 볶아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  
 215 . 새벽잠이 없으면 부자가 된다.  
 216 . 생쌀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217 . 벼를 까 먹으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다.  
 218 . 설달 그믐날 밤에 자면 눈썹이 썬다.  
 219 . 소고뼈는 넘지말고 밟으면서 지나야 한다.  
 220 . 손톱을 썬으면 아니된다.  
 221 . 손톱을 깎아서 불에 태우면 아니된다.  
 222 . 솔뚜껑위에 바가지 얹어 놓으면 도둑이 든다.  
 223 . 남자가 시루밧의 떡을 굶어 먹으면 꿈보아내를 얻는다.  
 224 . 아침일찍 집안을 청소하면 평화롭다.  
 225 . 어두울때 빨래하면 동네가 망한다.  
 226 . 어릴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227 . 어른에게 눈을 흘기면 사팔뜨기 된다.  
 228 . 아이들이 어른의 신발을 신으면 해로운 일이 생긴다.

- 340. 꿈에 관을 쓰고 높은 산을 오르면 벼슬이 높아진다.
- 341. 꿈에 금은을 주으면 재수가 있다.
- 342. 꿈에 도끼로 나무를 베면 큰 돈이 생긴다.
- 343. 꿈에 도끼와 칼을 얻으면 벼슬을 한다.
- 344. 꿈에 독의 물이 넘치면 재물이 들어온다.
- 345. 꿈에 바늘과 실을 얻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 346.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운이 트인다.
- 347. 꿈에 버선을 만들면 부지런해진다.
- 348. 꿈에 글을 배우면 벼슬길에 오른다.
- 349. 꿈에 새로운 벼슬을 하면 귀한 자식을 얻는다.
- 350. 꿈에 수레를 타면 좋은 일이 생긴다.
- 351. 꿈에 신발을 얻으면 좋은 일이 있다.
- 352. 꿈에 여자가 칼을 빼면 자식을 얻는다.
- 353. 꿈에 저울질하면 재수가 있다.
- 354. 꿈에 독에 물을 담으면 좋은 일이 있다.
- 355. 꿈에 가지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 356. 꿈에 감과 복숭아를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 357. 꿈에 자기집이 불타는 것을 보면 성공한다.
- 358. 꿈에 대추를 따먹으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 359. 꿈에 물을 먹으면 좋은 일이 있다.
- 360. 꿈에 옷을 만들면 부자가 된다.
- 361. 꿈에 우물을 파면 재수가 있다.
- 362. 꿈에 죽은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일이 있다.
- 363. 꿈에 집위에다 집을 지으면 큰 벼슬을 한다.
- 364. 꿈에 집을 고치면 재수가 있다.
- 365. 꿈에 팔죽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 366. 꿈에 흰옷을 입으면 남에게 존경을 받는다.
- 367. 꿈에 거북이가 집이나 우물안에 들어오면 재운이 있다.
- 368. 꿈에 공작을 보면 대길하다.

369. 꿈에 과일을 따서 치마폭에 감추면 큰 아들을 낳는다.
370. 꿈에 나무를 태우면 부자가 된다.
371. 꿈에 난초의 꽃이피면 미인을 낳는다.
372. 꿈에 황소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373. 꿈에 단풍을 보면 가정이 화목하다.
374. 꿈에 당나귀를 타면 재물을 얻는다.
375. 꿈에 돼지를 보면 재수가 있다.
376. 꿈에 돼지새끼 낳은것을 보면 운수 대길한다.
377. 꿈에 말을 타고 달리면 기쁜일이 있다.
378. 꿈에 뱀을 보면 돈이 생긴다.
379. 꿈에 뱀이 사람을 물면 재물이 생긴다.
380. 꿈에 부인이 비둘기를 보면 기쁜일이 생긴다.
381. 꿈에 붉은 고추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382. 꿈에 소가 새끼를 낳으면 대길한다.
383. 꿈에 소나무를 보면 벼슬을 할 징조이다.
384. 꿈에 수답을 보면 성공한다.
385. 꿈에 숲속에서 나무가 올라오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386. 꿈에 오곡이 쌓이면 재물이 생긴다.
387. 꿈에 용을타고 물에 들어가면 운수대통한다.
388. 꿈에 용을타고 하늘을 오르면 귀한 벼슬을 한다.
389. 꿈에 임신한 사람이 용을 보면 큰 인물을 낳는다.
390. 꿈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벼슬을 한다.
391. 꿈에 제비를 보면 반가운 손님이나 소식이 온다.
392. 꿈에 큰 나무가 썩어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
393. 꿈에 땅을갈면 부자가 된다.
394. 꿈에 무덤위에서 꽃이피면 좋은 일이 생긴다.
395. 꿈에 무덤을 보면 술이 생긴다.
396. 꿈에 무지개를 보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397. 꿈에 옷을 태우면 재수가 없다.

- 398. 꿈에 우물속에 빠지면 병이난다.
- 399. 꿈에 지붕위에 올라가면 불길하다.
- 400. 꿈에 개에게 물리면 재수가 없다.
- 401. 꿈에 개를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 402. 꿈에 거북이를 죽이면 초상난다.
- 403. 꿈에 소에 밟히면 불길하다.
- 404. 꿈에 소나무가 마르면 근심이 생긴다.
- 405. 꿈에 쥐에게 물리면 불길하다.
- 406. 꿈에 비가오면 흉한 일이 생긴다.
- 407. 꿈에 해와달이 떨어지면 부모에게 근심이 생긴다.

## 11. 기타 (其他)

- 408. 꿩이 몹시 울면 지진이 일어난다.
- 409. 나비를 잡고 눈을 비비면 장님이 된다.
- 410. 남의 집에서는 머리를 빗지 않는다.
- 411. 남의 귀를 파주면 재수가 없다.
- 412. 가래뚝은 굴뚝에다 대고 “가래뚝 구워 먹는다.” 하면 낳는다.
- 413. 머리의 가리마가 길면 명이 길고 멀리 시집장가 간다.
- 414. 가마끈이 줄어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415. 가름에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 416. 가름에 개미들이 열을 지어가면 비가온다.
- 417. 가름에 제비가 땅을 훑으면 비가 온다.
- 418. 가물때 처녀가 솔뚜껑을이고 동서남북에 절하면 비가 온다.
- 419. 가물때 햇무리나 달무리가 생기면 비가 온다.
- 420. 가슴에 손을 얹고자면 좋은 꿈을 꾀다.
- 421. 가운데 손가락이 길면 재수가 있다.
- 422. 하늘을 향하고 빈가위질을 하면 재수없다.
- 423. 가위질을 거꾸로하면 잘 산다.
- 424. 가재먹고 사탕 먹으면 해롭다.



425. 가축이 새끼를 낳은뒤에 상제가 출입하면 부정탄다.
426. 간장독을 깨트리면 집안이 망한다.
427. 간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
428. 갓난아이를 무겁다고 하면 살이 빠진다.
429. 갓난 아이의 입을 맞추면 병이 생긴다.
430. 갓을 비트러지게 쓰면 상치한다.
431. 이사와서 팔죽 쑤어 먹으면 부자 된다.
432. 갓난아이를 예쁘다고 하면 해롭다.
433. 개가 땅을파면 바깥주인이 해롭다.
434. 개가 마루밑을 파면 흉년이 든다.
435. 개가 지붕위에 올라가면 집안이 망한다.
436. 개가 나가버리면 재수가 없다.
437. 개가 풀을 뜯어먹으면 비가 온다.
438. 사람이 개잠자면 부자 된다.
439. 개구리가 처마밑에 들어오면 장마진다.
440. 개미들이 개미집문을 막으면 장마진다.
441. 거꾸로 자면 재수없다.
442. 거미가 천정에서 낮에 내려오면 손님이 온다.
443. 거미가 밤에 내려오면 도둑이 든다.
444. 밤에 거울보면 재수없다.
445. 거울에 도배하면 복 달아난다.
446. 거울이 습지 않으면 그해는 병이 많다.
447. 거울날씨가 추우면 여름에 질병이 없다.
448. 거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가 풍년 든다.
449. 거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450. 여자가 말띠에 나면 팔자가 사납다.
451. 혼인날 그릇을 깨면 불길하다.
452. 혼인날 신부가 들어가는 방의 처마끝에 서 있는 사람은 해롭다.
453. 혼인날 신랑이 타고간 말이 신부택에 도착하여 큰 소리를 치면 첫 아들을 낳는다.

- 454. 혼인날을 받아놓고 임신한 사람을 보면 불운하다.
- 455. 신을 꺼꾸로 신으면 해롭다.
- 456. 신을 도둑맞으면 재수가 없다.
- 457. 제사에 참석한 사람이 개고기를 먹고가면 해롭다.
- 458. 고양이가 관을 넘어가면 죽은 사람이 일어선다.
- 459. 고양이가 시체가 있는 방의 용마루를 넘으면 시체가 일어선다.
- 460. 고양이가 얼굴을 씻으면 비가 온다.
- 461. 고양이가 초상때 방밑의 고래에 들어가면 시체가 일어선다.
- 462. 고양이를 죽이면 다른 고양이가 해를 부린다.
- 463. 고양이를 죽이면 집안에 액운이 든다.
- 464. 곡식을 가지고 장난하면 곰보색시 곰보신랑을 얻는다.
- 465. 공것을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 466.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은 팔자가 세다.
- 467. 광주리를 머리에 이면 귀신이 찾아온다.
- 468. 9월에 분을 달면 해롭다.
- 469. 국수를 잘먹는 사람은 오래산다.
- 470. 굴뚝이 무너지면 재수가 없다.
- 471. 궁합이 맞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면 이혼한다.
- 472. 귀가 내려붙은 사람은 운수가 사납다.
- 473. 귀가 작은 사람은 단명하다.
- 474. 귀가 칼귀이면 팔자가 사납다.
- 475. 귀문이 넓은 사람은 복이 달아난다.
- 476. 귀뿌리를 만지고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다.
- 477. 귀가 긴 사람은 장수한다.
- 478. 귀가 아래로 수그러진 사람은 오래산다.
- 479. 귀가 크고 귓밥이 늘어진 사람은 오래산다.
- 480. 귀구멍이 큰 사람은 돈을 많이 쓴다.
- 481. 귀문이 좁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
- 482. 그물을 머리에 쓰면 그날 고기는 잡히지 않는다.
- 483. 그릇이 깨뜨리면 집안에 근심이 생긴다.

- 484 . 그릇을 상위에 포개 놓으면 복이 나간다.
- 485 . 그릇을 포개서 가지고 다니면 빛을 많이 진다.
- 486 . 그믐날 머리를 감으면 좋다.
- 487 . 찻눈을 먹으면 좋다.
- 488 . 입으로 기름병을 훔으면 죽을때 유언을 못한다.
- 489 . 기둥에 낮으로 자국을 내면 가난해진다.
- 490 . 기골이 장대한 사람은 벼슬을 한다.
- 491 . 기침할때 등을 두들겨 주면 수월하게 한다.
- 492 . 길에서 담뱃대를 주으면 재수가 없다.
- 493 . 길에서 칼을 주으면 불길하다.
- 494 . 길을 가다가 고양이 앞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 495 . 길을 가다가 까마귀가 가로질러 날아가면 재수가 없다.
- 496 . 길가다가 상제를 보면 재수 있다.
- 497 . 길가다가 돈을 주으면 부자가 된다.
- 498 . 길가다가 허리끈이 풀어지면 좋은일이 있다.
- 499 . 길가다가 꿩이나 노루가 앞을 지나가면 되돌아 가야 한다.
- 500 .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진다.
- 501 . 까마귀가 많이 울면 마을에 초상이 난다.
- 502 . 까치가 높은 나무에 집을 지으면 큰 바람에 불지 않는다.
- 503 . 까치가 물을치면 날씨가 개인다.
- 504 .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이나 소식이 온다.
- 505 . 까치가 자기집 남쪽의 나무에 집을 지으면 큰 인물이 나온다.
- 506 . 까치가 정월 열 나흘날 울면 그해는 수수가 풍년 든다.
- 507 . 까치집이 있는 나무의 씨를 받아서 심으면 벼슬할 사람이 나온다.
- 508 . 까치집을 변소에서 태우면 병이 없어진다.
- 509 . 까치집이 있는 나무밑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
- 510 . 깨진 거울을 보면 재수가 없어진다.
- 511 .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몸에 해롭다.
- 512 . 남의 말을 엿들으면 재수 없다.
- 513 . 남의 자식 흉보면 자기 자식도 그렇게 닮는다.

- 514. 남의 대사 음식을 어린이에게 먼저 먹이면 해롭다.
- 515. 남자가 여자에게 눌러서 살면 집안이 망한다.
- 516.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넘으면 재수가 없다.
- 517. 남에게 먹을 갈아주면 글씨를 못 쓴다.
- 518. 남에게 빗자루를 주면 복 달아난다.
- 519. 남자가 바가지에 밥을 먹으면 가난해진다.
- 520. 남자가 여자옷을 입어보면 재수가 없다.
- 521. 남자가 바가지로 물을 마시면 수염이 나지 않는다.
- 522. 낮에 옛날 이야기하면 가난해진다.
- 523. 낮에 천정에서 귀가 부스럭거리면 재수없다.
- 524. 낮에 별을 보면 흉한 일이 생긴다.
- 525. 낮에 지네가 천정에서 내려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526. 냇가의 여울소리가 크게 들리면 비가 온다.
- 527. 널떨때 널 가운데 앉으면 어머니가 가슴앓는다.
- 528. 노인의 빠졌던 이가 다시나면 장수하고 자손에게 좋다.
- 529. 노인이 늘 울면 집안이 망한다.
- 530. 눈에 거머리가 많으면 농사가 잘 된다.
- 531. 누어있는 사람에게 절을하면 해롭다.
- 532. 누룽지를 버리면 복이 달아난다.
- 533. 눈 깜짝이를 흉내내면 따라서 깜짝이 된다.
- 534. 눈의 다래끼는 문고리에 비비면 낳는다.
- 535. 눈이 아프면 형집을 나무에 달아누면 낳는다.
- 536. 눈의 다래끼는 뜨거운 빗살로 지지면 낳는다.
- 537. 눈에 다래끼 났을때 고기를 먹으면 다달이 난다.
- 538. 눈 두덩이가 부른사람은 심술이 많고 인정이 없다.
- 539. 눈밑에 점이 있으면 물어야 할 일이 많다.
- 540. 눈아래 점이 있으면 팔자가 세다.
- 541. 눈이 찢어진 사람은 성미가 사납다.
- 542. 눈이 크면 단명하다.
- 543. 눈이 크면 겁이 많다.

- 544 . 눈을 자주 흘기면 백새 눈이 된다.
- 545 . 눈섭속에 검은점이 있으면 대성한다.
- 546 . 눈섭이 길면 오래 산다.
- 547 . 눈섭이 많고 검은면 형제가 많다.
- 548 . 눈섭이 위로 올라 붙은 사람은 성격이 용맹스럽다.
- 549 . 다리미 불을 켜면 죽을 때 발가벗고 죽는다.
- 550 . 발을 떨면 복이 달아난다.
- 551 . 다리를 꼬고자면 집안일이 꼬인다.
- 552 . 다리미질을 웃고름부터 하면 빌어먹는다.
- 553 . 달무리가 생기면 비가 온다.
- 554 . 개가 달을 보고 짖으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
- 555 . 달이 몹시 붉으면 가뭄이 든다.
- 556 . 달밤에 고양이가 지붕위에서 울면 도둑이 들지 않는다.
- 557 . 여자가 새고기를 먹으면 그릇을 깬다.
- 558 . 여자가 닭머리를 먹으면 그릇을 깬다.
- 559 . 닭발을 먹으면 성미가 급해진다.
- 560 . 닭발을 먹으면 손에 땀이 나지 않는다.
- 561 . 닭발을 먹으면 돈을 험하게 쓴다.
- 562 . 닭이 지붕위에 올라가면 비가 오지 않는다.
- 563 . 닭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울면 비가 오지 않는다.
- 564 . 닭뻐를 아무곳이나 버리면 지네가 쾜다.
- 565 . 닭이 초저녁에 울면 계사를 지내지 못한다.
- 566 . 닭의 목을 먹으면 목청이 좋아진다.
- 567 . 닭이 감나무에 올라가면 재수가 좋다.
- 568 . 닭이 쌍알을 낳으면 집안이 흥한다.
- 569 . 대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몸이 마른다.
- 570 . 대나무 꽃이 피면 나라가 망한다.
- 571 . 대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살 내린다.
- 572 . 대나무로 빗물을 받아내면 가난해진다.

- 573. 대보름날밤에 불피우면서 콩을 구어 먹으면 부스럼이 안난다.
- 574. 대보름날밤에 망월을 처음 본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 575. 대문을 함부로 내면 집안에 불길하다.
- 576. 대문쪽으로 하수구를 내면 불행해진다.
- 577. 덜마른 옷을 입으면 뜻밖의 누명을 쓰게 된다.
- 578. 도마위에 바가지틀 올려 놓으면 가난해진다.
- 579. 뉘대 떡을 해주지 않으면 잘 넘어진다.
- 580. 뉘떡을 얻어 먹으면 무엇이든 갚아 주어야 아이의 명이 길다.
- 581. 뉘상에서 어린이가 쌀을 집으면 복이 많다.
- 582. 어린이가 뉘상에서 연필을 집으면 공부를 잘 한다.
- 583. 어린이가 뉘상에서 책을 집으면 대학자가 된다.
- 584. 어린이가 뉘상에서 활을 집으면 장군이 된다.
- 585. 어린이가 뉘상에서 실을 집으면 명이 길다.
- 586. 마을 초상때 머리를 감으면 해롭다.
- 587. 동쪽으로 머리틀 두르고 자면 해롭다.
- 588.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면 집안이 좋지 않다.
- 589. 마을 초상때 바느질하면 해롭다.
- 590. 동짓날 팔죽을 먹어야 더위를 타지 않는다.
- 591. 된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 592. 된장맛이 좋으면 집안에 복이 있다.
- 593. 돼지꼬리를 먹으면 글씨를 잘 쓴다.
- 594. 두사람이 한 대야에서 씻으면 싸우게 된다.
- 595. 두손을 목에 베고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596. 두꺼비를 잡으면 죄 받는다.
- 597. 두꺼비가 나오면 장마가 든다.
- 598. 엄지 발가락보다 둘째 발가락이 길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 599. 뉘통수가 나온사람은 재주가 있다.
- 600. 등에 점이 일곱개 있으면 큰 인물이 될 징후다.
- 601. 딸꾹질할 때 물그릇위에 젓가락을 십자로 놓고 물을 마시면 딸꾹질이 멈춘다.
- 602. 딸이 아버지를 닮으면 잘 산다.

603. 딸꾹질을 하면 떡 먹을 일이 생긴다.
604. 딸이 친정에 빗자루를 주면 해롭다.
605. 생감 먹고 기름 먹으면 해롭다.
606. 떡 고물을 밥에 찌 먹으면 해롭다.
607. 떡 시루변을 먹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다.
608. 또아리를 방에 들여놓고 자면 딸만 낳는다.
609. 싸리비로 뜯을썰면 사나운 며느리를 얻는다.
610. 마른매를 벗기면 억울한 소리들 듣는다.
611. 마른매를 벗기면 어머니에게 해를 끼친다.
612. 마당비로 부엌을 썰면 복이 나간다.
613. 마루끝에 앉아서 식사하면 가난해진다.
614. 마늘 껍질을 불에 태우면 부스럼이 난다.
615. 마른 번개가 잦으면 감음이 든다.
616. 말떠에 난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617. 매월 초 닷새날 여자가 출입하면 가족이 앓된다.
618. 땃돌위에 올라서면 곱보색시 또는 곱보신랑을 얻는다.
619. 머리에 가마가 들이면 장가 두번 간다.
620. 머리에 가마가 들이면 쌍가마 타고 간다.
621. 머리맡에 칼이나 가위를 놓고 자면 해롭다.
622. 머리에 책을 이면 공부를 못한다.
623. 머리에 이가 많으면 궁하다.
624. 새가 버린 머리카락을 물어가면 평생 가난하다.
625. 머리 색깔이 노란 사람은 영리하다.
626. 머리가 큰 사람은 힘이 세다.
627. 머리에 세치가 많은 사람은 재주가 있다.
628. 머리결이 거센 사람은 힘이 세다.
629. 곱슬머리는 성질이 날카롭다.
630. 머리를 북쪽으로 두르고 자면 병이 잦다.
631.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632. 머리결이 억센 사람은 마음도 억세다.

- 633 . 먼길을 손있는 날 가면 해롭다.
- 634 . 명석을 세워두면 복이 나간다.
- 635 . 매주를 짝수로 만들면 불길하다.
- 636 . 매주를 예쁘게 만들면 예쁜딸을 낳는다.
- 637 . 머느리가 등잔불 뒤에 앉으면 소박 맞는다.
- 638 . 머느리가 닭의 머리를 먹으면 시어머니의 눈밖에 난다.
- 639 . 명절날 바늘 만지면 생손 앓는다.
- 640 . 명절날 일하면 어린 자식 두고 죽는다.
- 641 . 모자를 잃어버리면 재수가 없다.
- 642 . 목침을 깔고 앉으면 치질걸린다.
- 643 . 못하나에 기름병 두개를 걸면 쌍둥이 낳는다.
- 644 . 몽당비를 발에 버리면 도깨비 된다.
- 645 . 묘지의 좌청룡 우백호가 좋으면 자손이 출세한다.
- 646 . 묘자리 파놓은 곳을 어린이가 보면 일찍 죽는다.
- 647 . 무우를 보약과 함께 먹으면 머리가 빨리 희어진다.
- 648 . 무지개를 보고 손가락질 하면 생손 앓는다.
- 649 .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방안 사람이 해롭다.
- 650 . 문지방을 걸터 앉으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 651 .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 652 . 미친 사람은 동쪽으로 빨은 복숭아 나무로 두들기면 낫는다.
- 653 . 미인은 팔자가 세다.
- 654 . 바느질 실을 길게 꿰면 먼곳으로 시집간다.
- 655 . 바느질의 실끝을 다른 사람이 뺏어주면 죽어서도 풀지 못한다.
- 656 .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흉년이 든다.
- 657 .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부스럽난다.
- 658 .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키가 크지 않는다.
- 659 . 바가지를 상위에 올려 놓으면 가정 싸움이 일어난다.
- 660 . 바가지를 태우면 집이 가난해진다.
- 661 . 바가지에 돌이 박히면 헛 바늘이 선다.
- 662 . 바가지로 물을 먹으면 수염이 나지 않는다.



663. 바구니를 머리에 쓰면 장가갈때 호랑이가 떨어온다.
664. 바늘을 벽에 꽂아 놓으면 남편이 앓는다.
665. 반지를 둘째 손가락에 끼면 어머니가 해롭다.
666. 발가락끼리 맞대면 복이 나간다.
667. 어린이가 밤에 자주 울면 불길하다.
668. 밤에 마을 뒤에서 여우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669. 밤에 옛날이야기 할때는 세가지를 하여야 한다.
670. 밤에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면 우환이 생긴다.
671. 밤에 거울을 보면 쉬 늙는다.
672. 밤에 돈이나 쌀을 주면 복이 나간다.
673. 밤에 멧돌을 돌리면 불길하다.
674. 밤에 방을 쓸면 가난해진다.
675. 밤에 베개를 세워 놓으면 도둑든다.
676. 밤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복 달아난다.
677. 밤에 장을 퍼내면 가난해진다.
678. 밤에 피리불면 뱀이 나온다.
679. 밤에 까치나 까마귀가 울면 국상 당한다.
680. 밤에 까치나 까마귀가 울면 난리가 난다.
681. 밤에 참새가 울면 초상이 난다.
682. 밤에 손톱을 깎으면 재수없다.
683. 밤에 주막에 가면 도깨비 만난다.
684. 밤에 부엉이가 울면 풍년든다.
685. 밤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면 무서움이 든다.
686. 밤에 거울보면 미움 받는다.
687. 자면서 이를 갈면 팔자가 사납다.
688. 밥그릇을 엮어 놓으면 재앙이 온다.
689. 개도 밥 먹을때에는 안 때린다.
690. 시험볼때 배내저고리를 품고 보면 합격한다.
691. 뱀에게 물렸을때 뱀보다 먼저 흙을 먹으면 독이 오르지 않는다.
692. 뱀에게 물렸을때 콩잎을 붙이면 쉽게 낫는다.

693. 뱀을 죽이다 말면 살아서 원수 갚으러 온다.
694. 뱀이 길가는 사람의 앞을 가로질러 가면 재수 없다.
695. 뱀이 집에서 나오면 초상이 난다.
696. 버선을 다리미질하면 소박 맞는다.
697. 버선을 뒤집어 신으면 재수 없다.
698. 버선을 베고자면 귀머거리 된다.
699. 베게를 낮게 베고자면 오래 산다.
700. 벽에 손그림자 비추면 도둑든다.
701. 변소에서 넘어지면 죽는다.
702. 보름날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 먹지 않는다.
703. 보름날 처음 만난 처녀 총각은 부부가 되기 쉽다.
704. 보름날 밤에 자면 눈섭이 희어진다.
705. 보이지 않는 곳의 사마귀는 복 사마귀이다.
706. 복숭아 벌레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707. 복숭아 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미친다.
708. 봄에 노랑나비와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709. 봄에 흰나비를 먼저 보면 삼복을 입는다.
710. 봄에 재비를 일찍 본 사람은 부지런해 진다.
711. 봄에 벌을 일찍보면 부지런하다.
712. 부엌 바닥에 흙이 높게 채여 올라가면 부자가 된다.
713.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 치면 난리난다.
714. 비올때 마루에 걸터앉으면 벼락 맞는다.
715. 비둘기 고기 먹으면 자녀를 남매 밖에 낳지 못한다.
716.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 해롭다.
717. 빗자루로 얻어 맞으면 삼년 재수 없다.
718. 빠진 이를 아무데나 버리면 새이가 나지 않는다.
719. 빠진 이를 지붕위에 던져야 새이가 빨리난다.
720. 뽕마디가 쭈시면 비가 온다.
721. 잠자면서 얇은 소리를 하면 고생이 많다.
722. 사주판자가 센 여자는 후처로 가야 잘 산다.

723. 밤사이에 눈이 많이 쌓이면 풍년이 든다.
724. 산모에게 처녀가 밥을 주면 해롭다.
725. 산후에 창구멍을 막으면 해롭다.
726. 산속에서 호랑이 이야기하면 호랑이가 나온다.
727. 산속에서 까마귀 울음소리 들으면 재수 없다.
728.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나면 오래 산다.
729. 상여의 앞길을 건너가면 불길하다.
730. 상여를 메고가면서 무겁다고 하면 더 무거워진다.
731. 상제는 남의 경사에 가지 않는다.
732. 새벽 방아를 쪼으면 재수가 없다.
733. 새끼 손가락이 길면 아들덕 본다.
734. 이사가면 거꾸로 자야 부자가 된다.
735. 새벽에 낳은 아이는 머리가 좋다.
736. 생일날 매 맞으면 항상 매 맞는다.
737. 생일에 죽썰어 먹으면 가난해진다.
738. 생일에 국수 먹으면 명이길다.
739. 생일에 잠곡밥 먹으면 자손이 많아진다.
740. 서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자면 명이 짧다.
741. 서쪽에 무지개가 뜨면 장마진다.
742. 석류가 하나도 열리지 않으면 집안이 불길하다.
743. 설날 그믐날 늦게 자면 길하다.
744. 설날은 떡국을 먹어야 오래 산다.
745. 설날에 돈을 빌려주면 복이 나간다.
746. 설날에 일하면 죽을때 헛손질한다.
747. 설날 아침에 남자손님이 먼저 오면 길하다.
748. 설날에 널을 뛰면 발이 건강해 진다.
749. 성황당 고개에는 돌이나 나무가지를 던지고 가야 좋다.
750. 소가 새끼 낳을때 여자가 보면 해롭다.
751. 소쩍새가 울면 풍년 든다.
752. 속눈썹이 길면 양친중 한분이 일찍 돌아가신다.

- 753 . 손바닥에 잔금이 많으면 고생 한다.
- 754 . 손장난이 심하면 해롭다.
- 755 . 손가락이 긴 사람은 예능에 소질이 있다.
- 756 .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부지런하다.
- 757 . 손가락이 길면 게으르다.
- 758 . 손이 두툼하면 잘 산다.
- 759 . 손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다.
- 760 . 손톱에 흰 점이 생기면 재수가 좋다.
- 761 . 손톱에 윤이나면 재수가 있다.
- 762 . 소가 새끼 낳을때 밤으로 곡식을 내가면 해롭다.
- 763 . 시체를 보고 냄새 난다고 하면 더난다.
- 764 . 수저를 던지면 밥벌어 먹는다.
- 765 . 술먹고 안주를 먹지 않으면 손자를 늦게 본다.
- 766 . 시험볼때 개란 먹으면 낙방한다.
- 767 . 시험보는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 768 . 시집갈때 바느질 상자를 가지고 가면 잘 살지 못한다.
- 769 . 시루떡을 구어 먹으면 가난해진다.
- 770 . 시체를 보고서 장독을 열면 장맛이 변한다.
- 771 . 식전에 노래부르면 삼대를 빌어 먹는다.
- 772 . 식전에 뺨 맞으면 재수 없다.
- 773 . 식전에 상제가 가게오면 재수가 좋다.
- 774 . 식사후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산다.
- 775 . 신발을 바깥쪽으로 벗어 놓고 들어가면 해롭다.
- 776 . 실패에 실이 감겨있지 않으면 부모가 험 벗는다.
- 777 . 싸리나무로 매를 맞으면 마른다.
- 778 . 쌀저루를 베고자면 귀머거리가 된다.
- 779 . 쌀바가지를 햇빛보이면 복 달아난다.
- 780 . 아침에 원숭이 말을하면 재수가 없다.
- 781 . 어린이의 손을 때리면 손재주가 없다.
- 782 . 아침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크게나면 재수가 없다.

- 783 . 아침에 어깨 짚으면 재수 없다.
- 784 . 아침에 발을 밟히면 재수 없다.
- 785 . 아침에 가게에서 외상주면 재수 없다.
- 786 . 아침밥상에 젓가락의 짝이 안 맞으면 재수 없다.
- 787 . 아래옷을 윗옷으로 고쳐 입으면 재수 없다.
- 788 . 아침에 신을 얹어 놓으면 재수 없다.
- 789 . 아침에 여자가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면 재수 없다.
- 790 . 아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닮으면 좋다.
- 791 . 아래턱에 살이 많으면 복이 많다.
- 792 . 여자가 아침 일찍 남자를 만나면 재수가 있다.
- 793 . 아침에 상제를 만나면 재수가 있다.
- 794 . 아침에 상여를 보면 먹을것이 생긴다.
- 795 . 아침에 거미를 보면 그날 돈이 생긴다.
- 796 . 아침에 호랑나비를 보면 재수가 많다.
- 797 .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798 . 암사슴을 죽이면 죄 받는다.
- 799 . 앞머리의 수가 많으면 효자 된다.
- 800 . 어린애 낳고 3일간 동남을 주지 않는다.
- 801 . 어린애들이 키를 맞대어 보면 키 얹는다.
- 802 . 어린애 낳을때 대문에 못 박으면 재수 없다.
- 803 .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서 딸에게 주면 딸이 못 산다.
- 804 . 어린애 낳고 빨래를 삶으면 어린애 얼굴에 흠이 생긴다.
- 805 . 어린애 낳고 상가에 가면 해롭다.
- 806 . 어린애 귀저귀를 방망이로 두들겨 빨면 어린애가 보챈다.
- 807 . 어린애 낳을 때 닭 잡으면 그 아이가 부정탄다.
- 808 . 어린애가 코를 많이 흘리면 커서 힘이 세다.
- 809 . 어린애가 엄지손가락을 빨면 남동생 본다.
- 810 . 어린애가 머리에 이는 버릇이 있으면 여동생 본다.
- 811 . 어린애가 창문을 잘 찢으면 동생을 일찍 본다.
- 812 . 어린애가 목에다 끈을 걸면 동생을 일찍 본다.

- 813. 얼굴에 죽은 껌이 많으면 팔자가 세다.
- 814. 광대뼈가 나온 여자는 내 주장한다.
- 815. 광대뼈가 나온 여자는 고집이 세다.
- 816. 남이 자기를 칭찬하면 오른쪽 귀가 가렵다.
- 817. 엷드려 자면 복이 나간다.
- 818. 여자가 손 발이 크면 팔자가 사납다.
- 819. 여자가 밤에 머리 풀면 집안 망한다.
- 820. 여자가 대머리이면 늦게 결혼해야 잘 산다.
- 821. 여자의 목소리가 크면 과부되기 쉽다.
- 822. 여자가 비오는날 머리 빗으면 시부모 장사날에 비가 온다.
- 823. 여자가 한숨쉬면 될일도 안된다.
- 824. 여자가 셋이 모이면 종지가 흔들린다.
- 825. 밤에 빨래 방망이질 하면 동네 처녀 바람난다.
- 826. 여자의 입술이 푸르거나 검붉으면 초년에 과부된다.
- 827. 여자가 잔소리하면 집안 일이 잘 안된다.
- 828. 여자가 초하룻날 남의집에 가면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
- 829. 여자가 칼을 갈면 해롭다.
- 830. 여우가 조상의 묘를 파면 자손이 해를 입는다.
- 831. 여자가 발이 크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 832. 치마끈이 저절로 풀어지면 좋은일이 생긴다.
- 833. 여자는 코가 작아야 부자로 산다.
- 834. 연장을 씻으면 비가 온다.
- 835. 열두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밤 꿀는다.
- 836.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 837. 오월 단오날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
- 838. 오월에 서쪽으로 이사하면 불운하다.
- 839. 오월 단오날 청포물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 840. 옷을 입고 꿰매면 옷 얻어 입을 복이 없어진다.
- 841. 옷고름을 자르면 재수가 없다.
- 842. 옷을 뒤집어 입으면 미움 받는다.

843. 옷을 입고 단추를 달면 도둑 누명 쓴다.
844. 옷장문 열어 놓으면 복이 나간다.
845. 옷투정하면 가난하게 산다.
846. 우물속의 고기를 잡아 먹으면 봉사 아이를 낳는다.
847. 우물안에 고기가 생기면 부자가 된다.
848. 집안에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849. 유월 초하루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아프다.
850. 유월에 고추장과 간장을 담으면 안 좋다.
851. 유월에 문을 바르면 도둑 맞는다.
852. 유월에 서쪽으로 이사하면 불운하다.
853. 윤달에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면 좋다.
854. 은하수가 부엌문 앞에 오면 햇쌀밥 먹는다.
855.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몸에 털이 많이 난다.
856. 음식을 훔쳐 먹으면 딸꾹질 한다.
857. 이가 앞으로 뺨어나면 팔자가 세다.
858. 이마가 넓은 사람은 남의 덕을 많이 본다.
859.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너그럽다.
860. 이불깃으로 딸의 치마를 만들어 주면 오래 산다.
861. 이사가는날 시루떡 해먹어야 운수대통 한다.
862. 이사갈때 문을 찢고 가야 좋다.
863. 정월에 개고기 먹으면 재수 없다.
864. 입술이 크면 먹을 복이 많다.
865. 자는 사람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해롭다.
866. 자는 사람의 허리를 넘으면 해롭다.
867. 잔치집에 독수리가 지나가면 불화가 온다.
868. 잠을 곱게 자야 귀인이 된다.
869. 장독위에 칼을 올려 놓으면 해롭다.
870. 장독에 쥐가 빠지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871. 하루에 장님을 셋 만나면 그날 재수가 좋다.
872. 절에 갈때 남의 집을 들어서가면 해롭다.

873. 절에 갈때 고기 먹고가면 해롭다.  
 874. 절에갈때 짐승잡는 것을 보고가면 해롭다.  
 875. 절에 빈대 기둥이 생기면 망한다.  
 876. 정월 보름날은 밖에 나가서 지내야 좋다.  
 877. 정초에 물고기 꿈을 꾸면 그해 농사가 잘 된다.  
 878. 정월에 상가에 가는것은 불길하다.  
 879. 정월 초하룻날은 비로 방을 쓸지 않는다.  
 880. 정초에 화로를 없지르면 재수 없다.  
 881. 정월에 난 개를 잡아 먹으면 재수 없다.  
 882. 정초에 복조리들 사두어야 복이 들어온다.  
 883. 여자의 젓꼭지가 작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884. 젓은 옷을 입으면 누명 쓴다.  
 885. 젓을 짜서 굴뚝에 넣으면 젓이 많아진다.  
 886. 젓과 젓의 사이가 넓으면 남편의 덕을 본다.  
 887. 제비를 잡으면 학절에 걸린다.  
 888. 제비고기 먹고 배를 타면 풍랑을 만난다.  
 889. 제사날 빨래를 다리면 곰보자식 낳는다.  
 890. 제비 새끼가 집에서 떨어지면 잠마진다.  
 891. 제비집을 옮기면 복이 나간다.  
 892. 제사지낸 밥을 먹으면 집이 없어진다.  
 893. 제사지낸 밥을 먹으면 마른 버짐이 없어진다.  
 894. 제사지낸 송충을 먹으면 무서움이 없어진다.  
 895. 제사지내고 대추를 먹어야 늙지 않는다.  
 896. 제사지내고 음복을 해야 자손이 잘 된다.  
 897. 제사떡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좋다.  
 898. 제삿날 묘를 깨끗이 단장하면 복을 받는다.  
 899. 제삿날 빨래줄을 매면 영혼이 오다가 돌아간다.  
 900. 제삿날 바느질하면 영혼이 오지 않는다.  
 901. 제사지내기 전에 닭이 울면 영혼이 오지 못한다.  
 902. 집안에 족제비가 살면 부자가 된다.



- 903 . 죽은 사람의 신을 신으면 재수 없다.
- 904 . 쥐가 이불을 물어 뜯으면 삼복 입는다.
- 905 . 쥐가 무성하면 세상이 시끄럽다.
- 906 . 지계를 방문앞에 세워 놓으면 사람이 죽는다.
- 907 . 지계를 불태우면 육손을 낳는다.
- 908 . 여우가 오래 살면 둔갑한다.
- 909 . 짐승을 좋아하면 자식이 귀하다.
- 910 . 집안의 구렁이를 죽이면 불운하다.
- 911 . 집안에 쥐가 한마리도 없으면 가난하다.
- 912 . 집을 지키는 구렁이가 주인의 눈에 떠면 집안이 망한다.
- 913 . 성주하고 상가에 가면 해를 본다.
- 914 . 집안쪽을 보고 키질을 하면 복 달아난다.
- 915 . 집안에 벌레가 많으면 가난해 진다.
- 916 . 집안에 쥐가 많으면 우환이 생긴다.
- 917 . 집안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길하다.
- 918 . 집안에 비둘기가 들어와서 살면 흥한다.
- 919 . 참외밭에 여자가 들어가면 외가 곤다.
- 920 . 참나무로 매를 맞으면 마른다.
- 921 . 창문으로 음식을 받아 먹으면 해롭다.
- 922 . 창문을 삼월에 고치면 복 달아난다.
- 923 . 처마물로 손을 씻으면 사마귀 난다.
- 924 . 처마의 고드름을 털면 농사가 앓된다.
- 925 . 처마에 고드름이 많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
- 926 . 처서에 비가 오면 흉년 든다.
- 927 . 천둥 번개칠때 화로에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하여 비락을 막는다.
- 928 . 청개구리가 나무위에 올라가서 울면 비가 온다.
- 929 . 초저녁에 닭이 울면 재앙이 온다.
- 930 . 초저녁에 닭이 울면 불이 난다.
- 931 . 초복에 비 오면 삼복에 비가 온다.
- 932 . 치마를 뒤집어 쓰면 해롭다.

- 933. 칼로 문지방을 찍으면 복이 나간다.
- 934. 칼을 빌려주면 점이 떨어진다.
- 935. 칼을 사람에게 겨루면 살이 내린다.
- 936. 어두운 밤길을 많이 걸으면 수명을 단축한다.
- 937. 코웃음을 잘치는 사람은 가난하다.
- 938. 코가 뽀족한 사람은 입이 가볍다.
- 939. 코가 긴 사람은 참을성이 많다.
- 940. 코가 큰 사람은 입이 가볍다.
- 941. 코가 매부리코로 생긴 사람은 부자가 된다.
- 942. 코가 뽀족한 사람은 재주가 있다.
- 943. 콩을 볶아서 껍질을 벗겨 먹으면 가난해진다.
- 944. 큰 뱀이 집안에 나오면 불을 피워서 쫓아낸다.
- 945.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은 걱정이 생긴다.
- 946. 큰 나무를 베는 사람은 쉬 죽는다.
- 947. 키가 큰 사람은 싱거웁다.
- 948. 키가 크면 오래 산다.
- 949.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으면 귀신이 못들어간다.
- 950. 태양 주위에 별이 나타나면 나라에 변이 생긴다.
- 951. 탱자나무를 때면 머느리가 억세다.
- 952. 턱을 괴고 있으면 미움 받는다.
- 953. 턱이 뽀족하면 부자로 산다.
- 954. 턱이 주걱턱이면 평생 밥 걱정을 하지 않는다.
- 955. 토끼 새끼 낳을 때 들여다보면 새끼를 잡아 먹는다.
- 956. 낮을 넘어가면 손을 벤다.
- 957. 하루에 새마리의 뱀을 보면 고기 먹을 일이 생긴다.
- 958. 한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다.
- 959. 밤중에 울음소리가 나면 불길하다.
- 960. 한사람의 머리를 들어서 벗기면 해롭다.
- 961. 함박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 징조다.
- 962. 산고든 집부근에서 짐승을 죽이면 해롭다.

963. 산모는 9일동안 거울을 보지 말아야 한다.
964. 여자가 해진뒤에 세수하면 남편은 침을 얻는다.
965. 해진뒤에 방이나 부엌을 쓸면 복이 나간다.
966. 길을 가다가 쉬면 공부를 못한다.
967. 산모가 개란 먹으면 해롭다.
968. 허리띠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매면 해롭다.
969. 허리띠를 베고 자면 해롭다.
970. 호박이 많이 열면 딸을 많이 낳는다.
971. 박이 많이 열리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
972. 첫 호박은 남자가 따야 계속 많이 연다.
973. 혼인날 바람이 많이불면 풍파가 많다.
974. 결혼할 사람은 남의 결혼식에 아니간다.
975. 홍두깨를 세워두면 도둑이 든다.
976. 홍역할때 개를 잡으면 해롭다.
977. 환갑잔치는 앞당겨서 하면 좋다.
978. 황새가 마을뒤나 옆에 살면 그 마을은 부자가 된다.
979. 흰 뱀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980. 집안의 큰 나무를 함부로 베면 화를 입는다.
981. 어른에게 드릴물을 먼저 마시면 입술이 붓는다.
982. 나무를 많이 태우면 신령으로부터 미움을 산다.
983. 뜨거운 것을 잘먹는 사람은 처가의 덕을 본다.
984. 덧문을 닫고 자면 밤이 길다.
985. 미인은 눈섭이 길다.
986. 약수건을 빨래줄에 널면 병이 떠나지 않는다.
987. 머리털이 억센 사람은 마음도 억세다.
988. 발등을 밟히면 재수없다.
989. 결혼식에 손수건 선물하면 울면서 산다.
990. 남자가 여자옷을 입어보면 재수 없다.
991. 담 넘어다니면 해롭다.
992.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안 망한다.

- 993 . 돛자리를 덮고자면 일찍 죽는다.
- 994 . 약을 두사람이 함께 먹으면 효력이 없다.
- 995 . 남의 개가 들어와서 살면 액운이 온다.
- 996 . 고목이 쓰러지면 흉사가 생긴다.
- 997 . 꽃을 불속에 넣으면 해롭다.
- 998 . 상치쌈 많이 먹으면 잠이 잘온다.
- 999 . 여자가 배추뿌리 먹으면 소박 맞는다.
- 1000 . 이마가 넓으면 너그럽다.

## 제 4 장 오락(娛樂)

옛날 선조들은 어렸을때 맨손 또는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여러가지의 놀이를 즐겼다. 계절에 따라 실내외에서 남녀가 구분되어 그야말로 다양한 놀이를 했다.

놀이의 대부분은 오락적인 흥미 위주였으나 강한 승부의욕과 단체의 협동심을 요구했으며 강한 체력과 용기와 지혜로 겨루는 다툼이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전승해 왔던 놀이들이 근대 사회의 문화와 체육시설에 밀려나 차츰 우리들의 주변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아쉬워 하면서 여기에 우리 고장의 놀이를 모아 본다.

### 1 . 농악 (農樂)

농악은 예로부터 농부들 사이에 전해 온 향토 음악이며 민속 무용이다.

농악의 시원 (始原) 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위지동이전 (魏支東夷傳) 에 의하면 常用十月祭天晝夜飲酒歌舞 (10 월은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하늘에 제사지냈음) 라는 기록으로 보아 하늘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려 (高麗) 28대 충렬왕 (忠烈王) 이 농악에 대한 관심이 지대 했으며 이조 (李朝) 7대 세조 (世祖) 는 선농가자 (善農歌者) 를 부르고 연주하게 했다는 문헌이 있다.

농악 놀이는 팽가리, 날라리, 북, 징, 장고, 소고, 피리등 여러가지 악기가 화음을 이루며 노래와 춤이 어울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 놀이이다.

농악은 농사를 비롯하여 당산굿, 기우제, 지신밟기, 판굿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향토예술로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 가 . 당산굿

음력 정월 보름 또는 그믐날에 마을의 신 (神) 으로 받들고 있는 당산제를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치는 농악을 당산굿이라 한다.

나 . 기우제 ( 祈 雨 祭 )

옛날 하지 ( 夏至 ) 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를 할 수 없고 밭곡식이 타고 있을때 나라와 각지방의 민간인들이 산위에 제단을 마련하고 비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낼때 농악을 앞장 세웠다.

다 . 지신 ( 地 神 ) 밟기

음력 정월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샘굿을 치고 골목을 누비며 고삿굿을 치면서 각 가정에 들어가 먼저 부엌의 조앙굿과 장광굿을 치고 마당에 나와 한판 놀이를 벌인다.

주인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상 ( 床 ) 에다 돈과 쌀을 성의껏 놓는 풍습이 있다.

라 . 결립 ( 乞 粒 ) 굿

마을의 공공목적에 사용할 기금 또는 불우이웃을 도움기 위하여 농악대를 구성해서 집집을 방문하여 계획적으로 쌀과 돈을 모금했다.

마 . 판굿

농악놀이의 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다. 추석과 정초등의 명절과 마을 단위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때 한마당 농악을 올리면서 장고와 소고등 부문별로 제 마다의 기예를 마음껏 자랑하기도 한다.

2 . 씨름 ( 角 觚 )

씨름은 남자들의 기 ( 技 ) 와 예 ( 藝 ) 가 합쳐서 이루어진 경연이다. 씨름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 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905년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만주 통화성 집야현 통구 ( 滿州通化省輯安縣通溝 ) 에서 발견된 각저총현실 ( 角觚塚玄室 ) 에서 씨름의 고분벽화 ( 古墳壁畫 ) 가 나타난것으로 보아 최소한 삼국시대의 초기 이전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로부터 5월 5일 단오절이면 그네뛰기와 씨름의 민속경연으로 즐거운 놀이를 펼쳐 왔었다.

이날은 부녀자들이 모처럼 집안을 나와서 그네도 뛰고 멀리서 씨름도 구경할수 있어서 매우 기다러지는 명절이었으며 그밖에 백중, 추석, 중구에도 씨름판은 열렸었다.

씨름은 오른씨름 왼씨름 떠씨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은 안다리걸기, 앞다리걸기, 바깥다리 걸기, 안다리 후리기, 무릎치기, 둘러치기, 팔걸이등 그야말로 다양하며 힘과 지혜가 조화되어 겨루는 경기로서 앞으로 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 될것으로 믿어진다. 모래판의 왕자가 되어 황소를 물고가는 무명의 장사는 명성이 떨쳐지고 만약 그가 머슴살이를 하고 있을때는 새경을 더 받기도 한다.

씨름판은 처음에 애기씨름으로 시작하여 총각 씨름에 이어서 장사 씨름이 절정을 이룬다.

### 3 . 팔씨름

팔씨름은 실내 경기로써 팔의 힘을 겨루는 놀이이다.

오른팔과 왼팔을 번갈아 가면서 상대방의 손을 마주잡고 또는 팔을 맞대고 넘어 뜨리는 것이다.

옛날 사랑방에서 편을 짜고 팔 씨름으로 내기도 했다.

### 4 . 닭싸움

닭싸움하면 명칭 그대로 닭의 싸움을 의미 하겠으나 본고(本稿)에서는 무릎 싸움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쪽의 발을 다른 한쪽의 무릎위에 얹고서 상대방의 무릎을 툭툭치면서 넘어 뜨리는 일종의 경기이다.

이 경기가 닭싸움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차라리 무릎 씨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닭싸움은 편을 짜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이다.

### 5 . 윷놀이

윷놀이는 점초를 비롯하여 단오절 백중, 추석등 명절은 물론 상가(喪家) 또는

삼복의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면서 즐기기도 하고, 한편 주점에서 술 내기로 놀매가 있으며 때로는 도박까지 벌일 때가 있다.

웃의 유래는 문헌(日本萬葉集)에 의하면 삼국시대로 추정할 수 있고 김문표(1568-1608)의 상도설(相圖說)에는 웃판의 중앙은 추성(樞星-북극성)을 의미하고 이를 원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것은 28숙의 별로 풀이 했으며 추성을 중심으로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의 사계절에 비유했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웃은 신라의 궁녀들이 정초에 놀이로 즐겼다고 한다. 이 지방의 웃은 탕자나무로 직경이 1cm 정도 길이가 2cm 미만으로 만들며 4쪽의 웃을 짝쟁이에 넣고 명석에 던진다.

웃은 4쪽 모두가 명석 가운데에 그려진 웃판(말판)의 중앙선을 넘어서 떨어져야 하고, 말 4마리가 먼저 가야 이긴 것이다.

웃은 4쪽을 던져서 4개가 다 떨어지면「모」라 하여 5간을 갈수 있고, 반대로 4개가 젓혀지면「숫」(웃)이라 하여 4간을, 3개가 젓혀지면「걸」이라 하여 3간을, 2개가 젓혀지면「개」라 하여 2간을, 1개가 젓혀지면「도」라 하여 1간을 가며 뒤에 노는 사람의 웃이 앞사람의 말자리와 같으면 잡아 먹고 한번 더 놀며 또 모와 숫이 나올때도 한번씩 더 놀 수있는 기회를 갖는다.

웃놀이는 편을 짜서 노는 것이 더욱 흥겨웁고 관객들도 말 쓰는데 혼수를 거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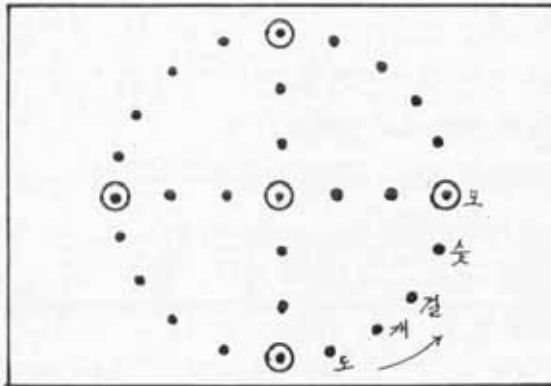
정초에는 웃점이라 하여 3회씩 던져서 그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

- 도도도 - 어린이가 자모를 만나다.
- 도도개 - 쥐가 창고속에 들어가다.
- 도도걸 -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다.
- 도도모 - 과리가 봄을 만나다.
- 도개도 - 큰 물이 꺼꾸로 흐르다.
- 도개개 - 쇠 있는 중에 꿈을 세우다.
- 도개걸 · 나르는 나비가 등잔을 치다.
- 도개모 - 쇠가 불을 만나다.
- 도걸도 - 학이 깃을 잃었다.
- 도걸개 -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얻다.
- 도걸걸 - 용이 큰 바위에 들다.
- 도걸모 - 거북이가 대밭에 들다.



- 도모도 - 나무에 뿌리가 없다.
- 도모개 - 죽은이가 다시 살아나다.
- 도모걸 - 추운이가 옷을 얻다.
- 도모모 - 가난한이가 보배를 얻다.

○ 율판



## 6 .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예로부터 주인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요구했던 경기요 오락이었다.

정월 보름날 인접된 마을끼리 또는 같은 마을의 남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서 수십명, 많으면 수백명의 남자들이 동원되어 힘을 겨룬다. 줄다리기의 유래는 문헌에 의하면 당(唐)나라(琉球)에서 6월중에 날을 받아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정초부터 젊은이들이 벼 짚단을 수집하여 직경 10 cm 정도, 길이 100 m 정도의 동아줄을 꼬고 다시 이 동아줄을 모아서 직경 50 cm 정도의 두꺼운 줄을 만드러서 행사당일 숫(雄)과 암(雌)을 꽃대로 연결한다.

양쪽에서는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농악대가 동원되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대단하다.

속설에 의하면 여자들이 줄을 넘거나 줄에다 바늘을 꽂으면 패한다 하며 또 이 줄을 눈에다 넣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 7. 강강술래

추석날 수십명의 부녀자들이 곱게 단장하고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원(圓)을 그리며 춤을 추면서 강강술래의 노래를 부르고 노는 놀이이다.

이 유희(遊戱)는 임진왜란시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인 이순신(李舜臣)이 왜군과 해전(海戰)할 때 적군으로 하여금 해안의 경비가 튼튼함을 보이고 한편 적군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곳에 불을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강강수월래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강강수월래의 어원은 强羌水越來 또는 江江水越來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사실은 “강강”의 「강」은 주위(周圍) 즉 원(圓)이라는 뜻으로 호남지방의 방언이고 “술래”는 순라(巡邏)에서 온 말로써 경계(警戒)하라는 뜻이며 이는 「주위를 경계하라」는 당시의 구호(口號)였다고 한다.

강강술래가 강강수월래로 기록된 것은 노래가 진양조로 길게 부르므로 수월래로 들리기 때문이다.

노래는 한 사람이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강강수월래하고 후렴하면서 원무(圓舞)를 한다.

노래는 쿵박자로 Waltz의 무용곡과 비슷할때도 있으나 처음에는 진양조로 느리게 춤을 추다가 차츰 빨라져서 중머리 송중머리 자진머리로 변하고 선창자의 능력에 따라 변화 있는 춤으로 바뀌어져서 실증이 나지 않으며 힘이 지쳐야 끝난다.

### ○노래말

대밭에는 대도 총총 강강수월래  
 솔밭에는 솔도 총총 강강수월래  
 하늘에는 별도 총총 강강수월래  
 꽃밭에는 꽃이 총총 강강수월래  
 해는지고 달떠 온다 강강수월래

이 노래말은 반복되며 선창자가 즉흥(卽興)하기도 한다.

## 8 . 널뛰기

널뛰기는 정초에 시작하여 보름까지 여성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이 지방의 널판은 보통 길이가 2 m, 넓이가 50 cm, 두께가 7 cm 정도이며 중심부 하단에 짚다발 혹은 가마니 뭉치를 놓고 그 위에 널판을 걸쳐 놓는다.

널판의 양쪽 끝에 사람이 올라가서 몸 솟음을 구르면 그 탄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뛰어 오르는 마치 See-Saw 게임과 비슷하다.

옛날에는 기다란 치마자락과 기다란 땀가죽이 창공을 가르고 솟구칠 때 보는 이들도 희열을 느끼게 되고 이를 담념어로 흠쳐 보는 총각들에게는 그야말로 매력적이었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널뛰기의 유래는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의 얼굴이라도 넘어다 보기 위해서 다른 죄수의 부인과 함께 널 뛰기를 했다고 전해 온다.

## 9 . 그네뛰기

그네 뛰기는 4월 8일부터 시작하여 단오절에는 경연대회를 갖었으며 추석에도 그네를 뛰었다.

그네 뛰기가 우리나라의 문헌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고려(高麗) 고종(高宗) 때 부터였다.

최충헌전(崔忠獻傳)에 의하면 단오추천회(鞦韆會-그네 뛰기 대회)에 문무(文武) 4품 이상이 참여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의 아들 최이전(崔怡傳)에는 천 수백명이 기악백희(伎樂百戲)에 참석하여 그네도 뛰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그네 뛰기는 이조(李朝)시대에 들어와서는 서민들의 놀이로 정착된 것으로 보아 상류층에서는 외면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네 줄은 여러집에서 벼짚을 모아 직경이 5 - 7 cm 되게 드린 다음, 이를 다시 4겹으로 꼬아 튼튼하게 만들어서 큰 기둥 2개를 세우거나 또는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에 매어댄다.

그네는 처음 청소년들이 뛰고, 밤이면 처녀들이 차지하며 두사람이 맞서서 뛰는 것을 쌍그네라고 한다.

## 10 . 연 ( 鳶 ) 날리기

연 날리기는 정초에 시작하여 정월 보름까지 하는 놀이이며, 오락(娛樂)과 민속신앙(民俗信仰)의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연에 대한 기록을 살펴 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풍연(風鳶), 고려사(高麗史)와 이조(李朝)의 문헌에는 지연(紙鳶)으로 표시 되어 있고, 한글표기의 명칭으로는 초간 박 통사(初刊朴通事)에 「연노히」로서 연놀이를 뜻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김유신전(金庾信傳)에 연과 얽힌 일화가 있다.

647년(眞德王1年)에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이란 두 대신(大臣)이 여왕(女王)에 반란을 일으키고 명활성(明活城)에 진을 치고서 월성(月城)에 있는 정부군과 10여일간 전쟁을 벌이고 있을때 어느날 밤 월성안에 별뚝이 떨어졌다.

비담은 반란군들에게 “별뚝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유혈(流血)이 있다.”면서 이는 여왕이 패망할 조짐이라고 선전하자, 백성들의 여론이 반란군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때 왕군(王軍)의 지휘관인 김유신 장군은 여왕을 진정시키고 인형을 만들어 큰 연에 매달아 불을 붙여서 하늘에 띄우고 마치 떨어진 별뚝이 솟아 오른것처럼 보이게 하고서 이튿날 병사들에게 신동하게도 떨어진 별뚝이 다시 올라 갔으니 이는 분명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것이라고 역선전 하자 반란군들은 도망가고 말았다.

고려 말 최영(崔營)장군은 제주도를 정벌할 때 연을 사용한 일이 있다. 제주도의 주위에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상륙을 못하게 되자 최영장군은 연에다 갈매의 씨를 담은 주머니를 매달아서 가시덤불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해서 그 해 가을 우거진 갈매에 불을 지르자 제주도는 불길과 연기에 싸이게 되었고, 이 때 최영장군의 병사는 무난하게 제주도를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다.

임진왜란때 계월향(桂月香)이란 의기(義妓)는 왜장(倭將)에게 끌려가는 척 하고 평양에 들어가 첩 노릇을 하고, 평양성의 군사 비밀을 적어서 연을성밖에 있는 아군에게 띄워 보냈다는 실화가 있으니, 연은 우리 민족사와 함께 하고 있다.

연의 모형과 크기는 다양하며 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참연」으로 세로 60 cm 가로 30 cm정도이다.

창호지의 중심부에 바람 구멍을 뚫고 대나무로 연살 5개를 만들어 상하 중앙 대각(X)으로 붙이고 상부와 중앙 부분을 연살이 붙은 쪽으로 휘어서 상부 양쪽과 하단 중앙의 연살에 먹줄을 삼각이 되게 매어댄다.

연날리기는 높이 올리기, 멀리 띄우기, 연싸움등의 놀이가 있고 액(厄) 막이가 있다. 연에다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이란 글씨를 쓰고 정월 보름날 연줄에다 썩불을 쬐어서 멀리 띄워 보내면서 한해의 행운을 기원했다.

연을 날릴때는 바람의 방향과 강약에 따라 요령껏 올려야 하고, 이때 소년들은 "바람아 불어라" "연아 올라라"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연 싸움은 유리조각을 가루로 만들어 찹쌀풀에 이겨서 연실에 발라 말리면 다른 연줄이 닿기만 해도 끊어진다.

#### ○연의 종류

- 꼭지연.....연의 이마에 표시(꼭지)
- 반달연.....연의 이마에 반달표시
- 치마연.....위는 희고 아래는 색칠해서 마치 사람이 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이 보임
- 동이연.....연의 이마와 허리를 동여 맨 것
- 초 연.....연의 전체를 색칠함
- 박이연.....연의 몸에 여러가지 무늬를 새김
- 발 연.....연의 아래 부분에 발 또는 꼬리처럼 붙인것

## 11 . 불놀이

음력 정월 열나흘 밤에 논두렁과 밭두렁에 불을 질러오는 습관을 불놀이, 혹은 쥐불놀이라고도 하며 이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논, 밭 두렁에 서식하고 있는 쥐를 잡고 농작물 해충의 알을 태워서 없애자는 것과 다른 뜻으로는 액(厄)을 쫓는다는 속설이다.

달이 떠 오르기전에 소년들은 깡통에 불씨를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자기 나이 대로 불을 지르고 인접마을의 경계까지 가서 경계다툼을 할 때도 있다.

## 12 .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축(軸)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팽이를 한번쳐서 누구것이 더 오래 도느냐를 겨루기도 하고 또 팽이끼리 부딪치게 하여 싸우기도 한다.

팽이치기는 추운 얼음위에서 손을 후후하고 불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놀이이며, 지금도 시중에는 나무를 비롯하여 금속성 팽이가 많이 나오고 있다.

## 13 .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연달리기 팽이치기와 같이 소년들이 정초에 많이 하는 놀이이다.

분헌에 의하면 고구려의 축국(蹴鞠-공에 꿩의 깃을 꽂고 이를 차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종의 유희)이 있고, 또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장군은 축국을 할 때 김춘추(金春秋)의 웃고름을 밟은 것이 인연이 되어 그후 누이인 문희(文姬)를 왕후로 맞이해 갔다는 구전(口傳)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축국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언제 부터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축국이 제기차기로 변형(變形)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제기는 엽전과 동전을 한지(韓紙) 또는 얇은 천으로 싸서 가운데에 뚫린 구멍으로 빼내어 7~8cm 정도의 길이로 자르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 만든다.

제기차기는 한발차기, 한발들고차기, 양발차기, 뒷발차기등이 있으며, 편을 짜서 경연을 하기도 한다.

## 14 . 돈치기

돈치기는 정초에 시작하여 이른봄까지 소년들이 양지바른 담장 아래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즐기는 놀이이다.

돈치기는 땅 바닥에 동전(銅錢)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파 놓고, 5~6m 떨어진 곳에서 먼저 순위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그 구멍을 향해 돈을 던진다. 돈이 구멍에 들어간 사람이 첫째, 그 다음은 구멍과 가까운 순서로 정해진다.

첫째의 소년이 돈을 모두 거두어 구멍을 보고 던져서 우선 구멍에 들어간 돈을 따 먹고, 지적해준 동전을 손바닥 만한 돌로 마추어서 따 먹으며, 다음 순위로 진행 한다.

## 15 . 들독놀이

들독놀이란 무거운 돌을 들고 힘을 자랑하는 놀이이다.

봄, 여름, 가을 특히 명절이면 마을단위로 들독놀이로 힘을 겨룬다. 들독은 대개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 혹은 모정 부근에 있고 모형은 모가 나지 않고 둥글며 길게 생긴 자연석으로 무게는 100 - 200 kg 정도이다.

들독놀이는 30 대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장사뽕기와 머슴들의 힘 자랑, 그리고 편을 짜서 단체 경기로 진행하기도 한다.

경연을 앞둔 부모나 고용인의 주인들은 인삼밭과 닭이 없는 집에서는 산야초를 먹이고 온근히 우승을 후원했다. 들독놀이가 시작되면 마을의 부녀자들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자기가 이겨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마음의 박수를 보내며 구경했다.

### ○ 들독놀이의 종류

- 뿌리떠기.....땅에서 돌이 떨어지게 든다.
- 무를들기.....돌이 무를까지 올라와야 한다.
- 허리떠기.....돌을 들고 몸을 바로 세운다.
- 어깨올리기.....돌이 가슴위 어깨까지 올라와야 한다.
- 열발떠기.....돌을 들고 열걸음 이상 걸는다.

### ○ 들독놀이의 방법

- 맨손들기.....돌을 맨손(작지손)으로 든다.
- 또가리들기.....돌 밑에 잡을 것을 넣고 든다.

## 16 . 자치기

자치기는 봄, 가을 동네 골목 또는 넓은 운동장에서 소년들이 즐기는 놀이로써 그 방법이 여러가지 있으나 이 지방에서는 주로 다음 2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땅 바닥에 깊이 5cm 길이 15cm 정도로 홈을 파 놓고 그 위에 메 뛰기(跳 - 약 10cm 정도)를 교차되게 걸쳐 놓은 다음, 자막대기(尺 - 약 50cm 정도)를 그

밑으로 뛰어서 힘껏 요령을 부리며 멀리 던진다. 이때 상대편이 공중에서 메뚜기를 잡으면 죽고 못 잡고 땅에 떨어지면 그 지점에서 흙에 걸쳐 놓은 자막대기를 마쳤을 때 죽게 된다. 그러나 맞추지 못하면 메뚜기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자막대기로 3번의 기회로 메뚜기를 쳐올려 다시 이를 받아 멀리 보낸다. 다음 자막대기 길이의 어림으로 몇자라고 불러서 누계하여 정해놓은 수치에 먼저 달하면 이기는 것이다. 물론 어림자수에 승복하지 않고 실지로 자를 채기도 한다. 다른 하나의 자치는 땅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자막대기로 메뚜기를 때려서 멀리 보낸다.

앞서와 같이 상대편이 메뚜기를 공중에서 잡으면 죽고 땅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원을 향하여 던져서 원안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나 메뚜기가 자막대기로 쳐서 원으로 부터 1자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1 차례, 한자이상의 거리이면 3 차례의 기회로 메뚜기를 자막대기로 높이 쳐올려, 이를 다시 받아서 멀리 보낸다. 다음 몇자라고 불러서 누계하여 정해 놓은 수치에 먼저 달하면 이기는 것이다.

자치는 개인대 개인보다는 편을 짜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재미있으며, 간혹 얼굴을 다칠 때가 있어 위험부담이 있다.

## 17 . 낫치기

낫치기는 여름에 청소년들이 풀베기 하다가 잠시 쉬면서 하는 놀이이다.

6~7m 전방에 선(線)을 그어 놓고, 둘 또는 여러사람들이 행렬로 서서 자기 낫을 선 밖으로 던진다. 낫이 땅에 꽂이면 이기는 것으로서 결정하기에 따라 꽂이는 회수가 많은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된다. 이때 패자는 승자에게 정해진대로 풀을 베어 주거나 술을 사기도 한다.

## 18 . 못치기

못치기는 여름철의 비온뒤에 소년들이 큰 못을 땅에 꽂으며 노는 놀이이다.

자기 선(線)의 끝(처음은 자기집)에서 한 뼘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다 못을 박으며, 선을 이어서 땅을 점령한다. 이때 상대방의 선을 넘거나 건드려도 안되며 될 수 있는한 상대방을 가두어서 못 나오게 하는 머리 싸움이다.



## 19 . 옛치기

옛치기는 옛가락을 부러뜨려서 구멍이 크면 이긴다.

지금처럼 마을에 가게도 없었던 옛날 옛장수의 인기는 대단 했었다. 그 증거로 「맛보기를 주고 안 주고는 옛장수 마음」이라는 속언이 전해올 정도이다. 그러나 때로는 청장년들이 지나친 옛치기로 옛을 공짜로 먹고 옛장수를 괴롭히는 일도 없지 않았다.

옛치기의 요령은 3 - 4명이 옛가락을 골라서 하나, 둘, 셋의 구렁에 맞추어 옛가락의 가운데를 부러뜨려서 구멍이 가장 작은 사람이 옛값을 부담한다.

## 20 . 딱지치기

딱지치기는 국민학생들이 학교 운동장과 교실 또는 골목길에서 들이만 모여도 쉽게 할수 있는 놀이이다.

딱지는 둥근 모양에 동물이나 만화가 인쇄되어 팔기도 하고 현책을 이용하여 스스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딱지치기는 가위 바위 보로 순위를 정한 다음, 각자의 딱지 한장씩을 땅에다 놓는다. 처음 순위자가 자기 딱지로 내려쳐서 바람을 일으켜 땅에 있는 딱지가 뒤집어진 수 만큼 따 먹고 다음 차례로 넘겨서 없어질때까지 반복하여 계속된다. 딱지를 많이 빼앗긴 소년은 화가 나서 친구에게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사기도 하여 열심히 치다 보면 어머니의 부름도 아랑곳 없고 해지는 줄도 모른다.

## 21 . 서리

「서리」란 옛날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닭을 훔쳐오거나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를 따다 먹는 행위를 말한다.

주인은 후일 알고도 너그러이 봐주고 오락으로 여기고서 오늘날처럼 법정에 고소하지 않았으니, 그때 그 시절의 인심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두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계속할때는 장난으로 보아 주지 않고 도둑으로 물렸으며

우리 속언에 참외밭에 모자가 떨어져도 줍지 말라고 했으니, 「서리」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1950 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 수변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서리」는 계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눈오는 겨울밤에는 「담서리」 봄철에는 「밀서리」 「감자서리」, 여름철에는 「참외서리」, 가을에는 「고구마서리」 「콩서리」 등 다양했으며, 이때 이밭 저밭에서 조금씩 「서리」 하므로써 한 농가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았다.

## 22 . 숨박꼭질

숨박꼭질은 달 밝은 밤에 주로 소녀들이 많이하는 놀이이다.

처음 가위 바위 보로 술래가 정해지면 술래로 하여금 건물의 벽이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눈을 가리게하고 정해놓은 수(數 - 50~100)를 세이게 하는 동안에 다른 소녀들은 보이지 않게 무근에 숨는다.

술래는 셈을 다하고 나서 “숨었니?” 하고 물으면 소녀들은 “찾아라”하고 응답해 주고 “꼭꼭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며 합창하면서 술래를 혼돈시킨다. 이때 가장 먼저 발견된 사람이 다음의 술래가 되고, 찾기전에 어느 한 사람이 술래의 집을 밟으면 다시 술래가 된다.

숨박꼭질 놀이에서 나이 어린 아이가 술래가 되었을때 이웃의 언니가 대신해 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경이었다.

## 23 . 발치기

발치기는 비사지기라고도 하며, 국민학교의 여학생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운동장 또는 넓은 곳에 길이 약 3m 정도로 1m 정도의 직사각형선에 세로 한줄, 가로 다섯줄을 그어서 12 칸을 만든다.

가위 바위 보로 순위를 정해서 첫번째의 순위자가 4돌(남작하고 작은 돌)을 처음의 칸에 놓고 한쪽말로 차서 다음 칸으로 또 다음칸으로 이렇게하여 먹돌이 선에 안 물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 12 번째의 칸까지 무사히 돌아오면 이어서 두번째의 칸에 먹돌을 던져놓고 또 차기 시작하여 누가 먼저 12 번째까지 먼저 돌아 오느냐 하는 것이 승부다.

## 24 .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돌치기라고도 하며 이 놀이는 청소년 소녀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이다. 약 3m전방에 상대방의 비석(손바닥크기의 돌)을 세워 놓고서 자기 비석을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넘어지게 하고 이때 넘어지지 않으면 다음 순위 또는 상대방과 교대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기 비석을 던져서 세워 놓은 비석을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적당한 위치에 던져 놓고서 모뎀발로 3발 뛰어가 한발차기로 상대 비석을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눈 감고 던져 놓고 그 앞에 와서 발로 차서 상대의 비석을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가랑이 밑으로 던져 놓고 그 앞에 와서 발로 차서 상대의 비석을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뒷발질로 3번 밀고 가서 역시 뒷발로 차서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엮고 가서 떨어뜨려서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머리에 이고 가서 떨어뜨려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뺨에 엮고 가서 떨어뜨려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목에 끼고 가서 떨어뜨려 넘어지게 한다.
- 비석을 무릎사이에 끼고 모뎀발로 3번 뛰어가서 떨어뜨려 넘어지게 한다.

## 25 . 닷자갈놀이

닷자갈 놀이는 여름철에 소녀들이 그늘 아래에서 둥글고 작은 돌 다섯개를 가지고 논다.

닷자갈 놀이는 다섯개의 돌을 손 안에 쥐고 그 중 한개를 공중으로 던지면서 네 개는 땅에다 놓음과 동시에 공중으로 던진 돌을 받는다. 이어서 돌 한개를 공중으로 던져서 다시 떨어질때 받음과 동시에 땅에 있는 돌 한개를 줍는 것은 기본으로 하여 하나와 둘 하나와 셋, 하나와 넷, 모두를 줍는 것으로 한 게임이 끝나고, 반대로 하나 던지고 하나 줍고, 둘 던지고 하나를, 셋 던지고 하나를, 넷 던지고 하나를 줍는 것으로 두번째의 게임이 끝난다. 또 하나를 던지고 되받는 순간 돌을 줍고, 다음은 먼저 주워 두개를 놓음과 동시에 다른 두개를 갈아 주으며, 또는 셋을 던지는 순간 남은 돌을 여러가지 형태로 줍

는 놀이이다. 또 돌놀이가 많이 따느냐하는 놀이가 있다. 처음 손 안에 여러개의 돌을 쥐고 공중으로 던져서 손등으로 받고 이를 다시 공중으로 던져서 손바닥으로 받는다. 이때 한개라도 떨어지면 실격되고 상대방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돌을 세어서 많은 사람이 이긴 것이다.

## 26 . 땅빼앗기

땅 빼앗기는 따스한 봄날 혹은 여름의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작고 남작한 돌 한개만 있으면 손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놀이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땅위에 적당한 크기의 정방형 또는 원형의 선(線)을 그어놓고 각자는 자기집을 정한 다음 가위 바위 보로 이기는 사람이 자기 뺨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자기 영역을 넓혀가기도 하고 상대방의 집에 돌을 세워 놓고서 자기돌을 손끝으로 뿜겨 맞추어서 따먹는 방법도 있으며 또 선안에다 여러개의 선을 그어서 한칸씩 인접선을 지워서 점령한 다음 나중에는 앞서와 같이 돌을 맞추어서 상대방의 땅을 빼앗는다.

## 27 . 말타기

말타기는 주로 소년들이하고 놀이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으며 허리를 다칠 위험 부담이 있으나 단체심과 인내력을 길러주는 일종의 경기다.

첫째의 말타기는 여러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끝까지 진 사람은 말이 되고 그 다음이 마부가 된다.

마부는 말 머리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눈을 가리고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때 다른 사람이 빠른 동작으로 말위에 뛰어 오른다. 이때 말을 타기전에 말의 뒷발질에 걸리면 그 사람이 대신 말이 되고 앞의 말은 마부가 되며 그 마부는 자유롭게 말을 탈 수 있다.

둘째의 말타기는 우선 두패로 편을 가르고 양쪽대표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지는편이 말이 된다.

말편의 대표가 적당한 지형지물을 기대고 버티어서면 다른 한 사람이 대표의 허리를 잡고 엎드리며 남은 사람들도 이어서 앞사람을 잡고 길게 엎드려서 말이되면 이긴

편 사람들은 한사람씩 멀리서 달려와 말을 탄다. 이때 한사람이라도 못 타거나 떨어지면 바꾸어서 말편이 되고, 반대로 말편이 못 건디고 쓰러지면 다시 말이 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말편의 대표와 말을 타고 있는 앞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편이 말이 된다.

셋째의 말타기는 기마전이라고도 한다. 한 사람이 두 손을 뒤로 내밀면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한 사람씩 서서 한 손은 앞사람의 손과 각지를 끼고 한 손은 앞사람의 어깨위에 없어서 말이 만드러지면 다른 사람이 이 말위에 탄다.

기마전은 청백군으로 갈려서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며 지금도 국민 학교 운동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종목의 하나이다.

## 28. 공치기

공치기는 소녀들이 공을 한손으로 치면서 노래에 맞추어하는 놀이가 있고 소년들이 주먹으로 공을 치는 경기로써 현재의 야구와 비슷하다.

여자들의 공치기는 일정한 속도로 땅에다 치면서 오른손 왼손으로 교대하기도 하고 공이 튀는 순간 한쪽 다리를 들어서 그 밑으로 공을 돌리기도하며 빠른 속도로 한바퀴 돌아서 치는 등 여러가지 묘기가 있다.

공치기는 노래에 맞추어하고 "일른 감추어라"는 노래말과 함께 공을 치마폭으로 감싸버린다. 정해진 수에 달하거나 실수를 했을때는 다음 차례로 계속된다.

## 29. 줄넘기

줄넘기는 소녀들이 6~7m 정도의 새끼줄을 가지고 노는 놀이이다.

두사람이 새끼줄을 땅에 닿게 반원을 그리면서 돌리면 다른 사람 또는 수인이 새끼줄안으로 들어가서 새끼가 손발은 물론 몸 어느곳에도 닿지 않게 뛰어야 한다. 이때 수를 세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높이 뛰기도하고 돌아서면서 뛰기도 한다. 새끼줄이 몸이 어느곳이라도 닿을 경우는 줄잡이를 교대하며 처음 시작할때는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한다.

## 30.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는 국민학교 여학생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5 ~ 6 m의 고무줄을 두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있으면 다른 소녀들이 노래에 맞추어 짱총짱총 뛰면서 고무줄을 넘는다.

고무줄의 높이는 처음 무릎높이로 시작하여 배꼽 가슴 머리의 순으로 각기 한 소절의 노래를 마치면 이긴다. 이때 실수를 하여 고무줄을 넘지 못할때는 줄잡이를 교대하며 처음은 가위 바위 보로 정한다.

### 31. 실놀이

실놀이는 소녀들이 둘이상 모여서 방안 또는 학교 교실의 거울칠 유리창가에서 쉬는 시간에 잠시 지해를 겨루는 놀이이다.

약 60 cm정도의 실끝을 매어서 원을 만들어 이를 손목에 걸고 오른손으로는 왼쪽손의 실을, 왼손으로는 오른쪽 손목의 실을 손가락에 걸고 당겨서 X형을 만들면 상대방이 손가락을 걸어서 뒤집거나 빼내어 여러가지 모형을 만든다. 이때 실이 뺏이거나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잡이를 교대하며 처음은 가위 바위보로 결정한다.

### 32. 고누

고누는 이 지방 사투리로 꼬누라고 하며 한자로는 저기(地基)라 한다.

고누는 단순한 원리로 어른 아이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박한 서민들의 놀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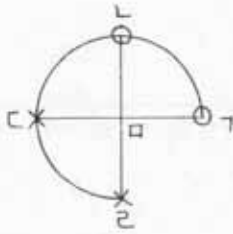
7. 8월 서늘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는 시간에 작은 돌과 나무가지를 꺾어서 말을 만들고 땅에다 말판을 그리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다. 고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 지방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가. 사발고누



세마리의 말(馬)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상대방의 말을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이긴다. 말이 후퇴할 수 없으며 상대편의 집에 들어가서 1렬로 점렬하면 이긴다.

## 나. 우물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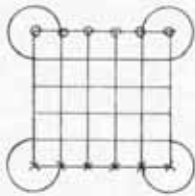


우물고누는 강고누라고도 한다.

그림과 같이 원을 넷으로 나누어 한쪽 변을 없애고 마치 우물을 만들어 말이 이곳을 건너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가두면 이긴다.

이때 ○쪽이 먼저 두게 되면 “ㄴ”의 말이 “ㄷ”에 먼저 옮기지 못하며 ×쪽이 먼저 두게 될 때 “ㄷ”에서 “ㄷ”에 먼저 옮기지 못한다. 반대로 처음에는 “ㄴ”에서 “ㄷ”으로 또는 “ㄷ”에서 “ㄷ”으로 옮겨야 한다.

## 다. 바퀴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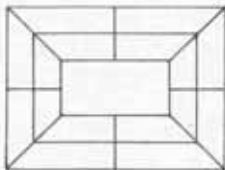


바퀴고누는 그림과 같이 네 귀에 원을 그린다.

상대방의 말 1마리를 직선상에서 2마리가 둘러싸고 네 귀중한 곳을 둘 수 있으면 상대방의 말은 죽게 된다.

바퀴를 둘 때 가로막는 말이 없어야 하며 바퀴를 도는 말은 한칸을 두지 않고 여러 칸을 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라. 곤질고누



곤질고누는 참고누라고도 한다.

그림과 같이 말판위에 색(또는 모형)이 다른 양쪽의 말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둔다.

말 한마리씩 말판이 교차되는 지점에 놓아가며 자기 말이 일직선상에 3마리가 되면 이때 “곤”이라 하여 상대방의 말 1마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는 ×표시를 하여 말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여 말을 놓은 자리가 없게 되면 다음에는 놓여있는 말을 움직여서 “곤”을 만들고 그때마다 상대방의 말이 “곤”을 만들 수 없을때 즉 3마리 이하가 되면 지는 것이다.

## 33 . 장기 (將棋)

장기는 동등한 수와 성능을 가지고 방어와 공격에 대한 지혜다툼으로 승패를 겨루는 전쟁놀이이다.

장기의 유래는 확실한 분헌은 없고 구설에 의하면 고대 인도의 승려들이 수도 시간 외에 속세의 잡념을 잊기위해 장기를 둔 것이 동양의 중국과 한국으로 들어왔고 서양쪽으로 전래된 것이 "체스"라고 한다.

한편 고대 버마의 왕비(타리잉)가 장기를 발명하여 사랑하는 왕으로 하여금 장기에 집념시키고 다른 잡념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설이 있다.

장기는 가로 10 선(線) 세로 9 선이 그어져 있고 초(楚)와 한(漢)나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쪽의 말은 각각 차, 마, 포, 상, 사가 2씩 있고 졸이 5 있다.

말에 쓰여진 글씨는 해서(楷書)와 초서(草書)로 되어 있고 해서는 홍(紅)색 초서는 청(靑)색으로 되어 있으며 노홍소청(老紅少靑)이라 하여 연장자가 홍색을 차지 한다.

말(馬)이 갈 수있는 방향을 보면 차(車)는 좌우 전후 직선으로 갈 수 있고 마(馬)는 날(日)자로, 상(象)은 쓸(用)자로, 포(包)는 말 하나를 뛰어넘어야 하며 포가 포를 넘을 수는 없다.

사(士)는 궁(宮)안에서 한칸씩만 방향관계없이 갈 수 있고 졸(卒)은 좌우와 앞으로 한칸씩 다니며 후퇴는 할 수 없다.

장기두는 기법은 원앙 마포진(馬布陣), 면상포진(面象包陣), 귀마포진, 양귀마포진, 양귀상포진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어떤것이 더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어느 기법이든 자신있는 기법으로 연구해서 숙련되어야 이길 수 있다. 초보자는 원앙 마포진과 귀마포진이 어느 정도 유리하고, 원앙 마포진법은 말 1마리는 면포앞으로 진출하여 뒷말과 관련성을 갖게하고 상대편의 농포를 막으면서 중앙마의 원호로써 자기편의 병졸을 진출시키며 어느 정도 병졸이 죽은뒤에는 상대편의 면포를 공격할 수 있다. 면상포진법은 상 1마리가 중앙면(面)으로 진출하여 양쪽 졸을 중앙으로 모아서 상대의 면포위험을 방지하면서 양포를 적절히 농포하여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전법이다.

귀마포진법은 말 1마리가 궁성의 귀로 진출하고 다른 말로 하여금 궁성의 중간에 걸마로 위치케하여 수비를 튼튼히 한다.

양귀마포진법은 양귀로 양마가 나가고 그 앞에 양상이 진출하여 중앙의 졸을



1 줄 올려놓고 이 5 조각이 연관성을 갖게하여 연속적으로 농작할 수 있게 된다.

양귀상포진법은 변포 좌우에 양상을 위치하고 양상 위주의 공격을 시도하며 이에 앞서 줄을 진출시켜 1대1로 사살하여 상이 다니기에 좋게 한다. 중앙지대에 양상이 미치는 거리가 8개소나 되므로 상대방의 중앙진출을 곤란케 한다.

## 34 . 바둑

바둑은 한자로 기(碁) 혁(奕) 또는 위기(圍碁)라고도 한다.

바둑판은 총횡으로 19 줄이 그어져 있고 교차된 십자로를 집(戶)이라 하며 모두 361 점이 있다.

바둑은 흑백(黑白) 두가지의 돌이 361로(路), 국상(局上)에서 서로 싸워서 집수의 차(差)로 승부를 결정한다.

바둑의 문헌은 찾아 볼 수 없고 중국에서 발상된 것으로 여러가지 전설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요(堯) 임금의 아들 단주(丹朱)를 가르치기 위해 장기를 만들었다 하고, 또 순(舜)임금이 아들 상균(商均)을 가르치려고 장기를 발생했다는 등 전설이 있으나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장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가 확실하다.

삼국사기 권 25 (卷二十五) 백제본기(百濟本記) 개로왕(蓋鹵王)편을 보면 고구려 장수왕(長壽王: 394-491)은 백제를 침략에 앞서 도림(道琳)이란 중을 백제에 간첩으로 보냈으며 그 도림이 개로왕과 바둑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바둑의 기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돌을 잡는 법

적(敵)의 돌을 잡는 법은 직선(直線)을 전부 막아 버리면 되고 이때 보통 한점을 먹는데 네수(四手)를 요한다.

### 나. 돌이사는 법

돌이 살기위해서는 완전한 집이 2 이상 있어야 한다.

다. 돌의 생사와 치중(置重)

두집을 내고 완전히 살 수 있는 경우에도 적의 방해 즉 적의 선수(先手)를 받으면 못살고 죽게 되며 생사에 관계되는 1점을 치중이라 한다.

라. 잘독집(不完全戶)과 먹여집

2집중에 1집은 완전하나 1집이 잘록이로 완전하지 못 할때는 죽는다. 흑백이 서로 선수를 써서 1점을 가지고 적을 먹여치면 적의 집이 파호(破戶)가 되어서 죽게 된다.

마. 축(逐)

축이란 적이 돌을 피할 수 없도록 연단수(連單手)로 몰아나가는 수법을 말한다.

바. 호구(虎口)

호구란 내집 만들기에 편하며 적이 끊지 못하게 하는 점이다.

사. 작문(作門)

작문이란 문이라는 수이며 1수로 적을 피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아. 양코(兩鼻)

양코란 적이 이르려고 하는 곳을 잘라서 2점중 1점 또는 양편중 한편을 잡는 수를 말한다.

자. 쌍립(雙立)

쌍립이란 내 말이 2쪽으로 끊어진 곳을 쌍점(雙點)으로 잇는 수를 말한다.

차. 환타(換打)

적이 일단 내말을 치더라도 내가 도로쳐서 적을 잡는 수를 말한다.

### 카. 패 ( 霸 )

바둑에 있어 패하는 법칙은 가장 묘미있는 것이다. 만일 패법이 없다면 바둑경기의 흥미는 없으며 패법이란 예를 들면 " ㄱ " 부분의 패 요점을 두기 위하여 " ㄴ " 부분에 수(패)를 써 보는것을 말한다. 이때 적의 패에 응하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유이다.

## 35 . 골패 ( 骨牌 )

골패는 검은 나무 바탕에 흰 수골을 붙이거나 상하(象牙) 또는 나무나 대로 만든 장방편(長方片)으로서 오락과 도박 또는 점복(占卜)에 사용한다.

골패는 1에서 6까지의 수를 새겨서 32쪽(片) 227점(點)을 만든다. 중국에서는 원래 상하로 만들었다고하며 천패이선(天牌二扁) 24점은 24기(氣), 지패이선(地牌二扁), 4점은 사방(四方)을 인패이선(人牌二扁), 16점은 사단(四端)을 화패이선(和牌二扁), 8점은 태화원기유행팔절지간(太和元氣流行八節之間)을 상징했으며 성숙(星宿)을 배열 상징한 것이다.

골패의 승부는 2인 또는 4인이 할 수 있으며 오늘의 마작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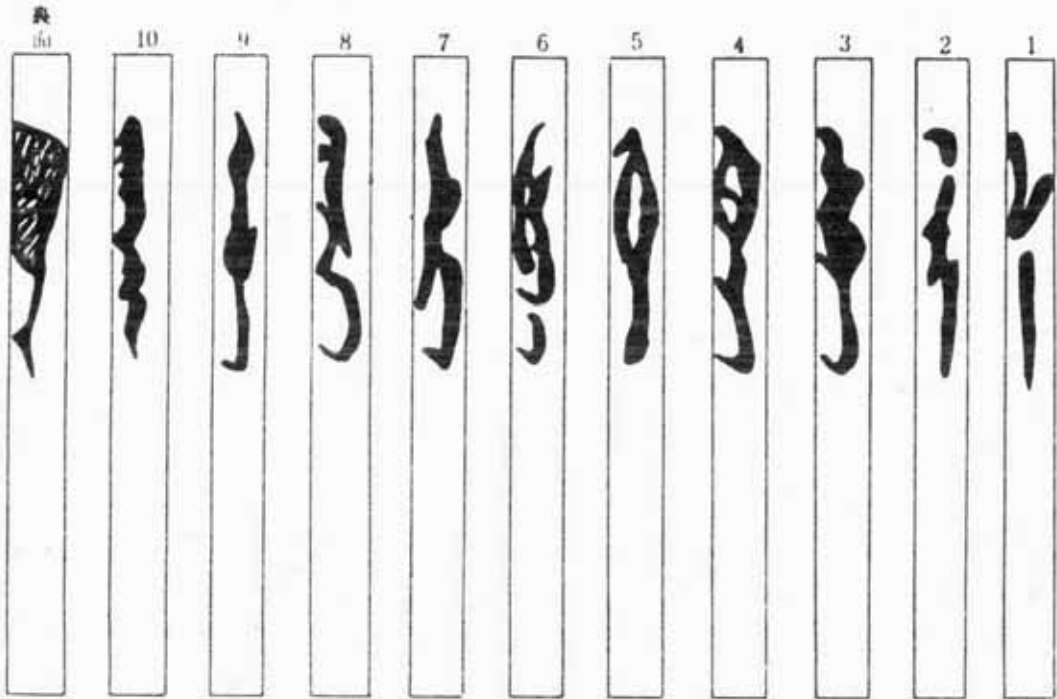
## 36 . 투전 ( 鬪錢 )

투전은 오락이기 보다 도박행위이다.

투전은 가로 약 1.4 cm, 세로 14-15 cm의 두꺼운 기름종이에다 인물(人物), 새 짐승, 벌레, 고기등의 형상을 그리거나 또는 문자(文字), 시구(時句)를 그림으로 그렸으며 각각 끝수를 표시하는 부호를 넣었다.

1에서 10까지의 수를 글자도 그림도 아닌 괴상한 모양을 먹으로 표시한 4쌍에서 8쌍까지를 만들어 쓰는데 필요에 따라 60~80매로 사용하기도 하며 이를 40매 또는 25매로 줄이기도 하지만 보통 40매가 통례이다.

노는 용령은 주로 감오잡기로써 1을 따라지, 5를 진주, 6을 서시, 7을고비, 8을 덜머리, 9를 감오, 10을 무대라하며 같은 숫자 2장을 뺑이라 한다.



### 37 . 화투 ( 花鬪 )

화투놀이는 정월에 친척들이 모여서 내기로 놀았는데 최근에는 도박행위가 심하다.

화투놀이는 미리서 수를 정해 놓고 그 수에 먼저 달한자가 이긴다. 놀이의 종류는 민화투, 육백, 섯다, 지꼬맹등이 있고 최근에는 삼봉, 고스톱이 개발되었다.

화투는 1월에서 12월까지를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1월은 소나무(松) 2월은 매화(梅花), 3월은 벚꽃, 4월은 흑싸리, 5월은 난초(蘭草), 6월은 목단(牡丹), 7월은 홍싸리, 8월은 공산명월(空山明月), 9월은 국화(菊花), 10월은 단풍(丹楓), 11월은 오동(梧桐), 12월은 비(雨)로 표시하며 매월마다 4매씩 합계 48매이다.

## 짱 치 기 (오늘날의 하키와 같음)

옛날에는 네모난 논이나 밭, 그렇지 않으면 넓은 잔디밭에서 가로(橫)를 세로(縱)보다 배나 길게하여 가운데에 중앙선을 긋고 양쪽 경기장 끝선에는 지게를 빗어서 꼰대를 만들고 지게 대구리를 이어서 꼰선을 만들어 경기장을 만들고

① 중앙선에는 양편의 주장과 부주장 각 3명씩이 각각 대치하고 있다가 심판이 공을 위로 높이 던지면 양편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경기가 시작되어 서로 자기편끼리 연락하여 상대편 꼰문에 넣게되면 한점을 얻게 된다. 이때 공을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거나 장대로 사람을 치는 것을 반칙으로 하며, 반칙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은 피리를 불며 큰소리로 「어겼다」고 하며 「라인」밖으로 나가면 역시 심판은 피리를 불며 「나갔다」 소리질러 경기를 중단시킨다. 옛날용어는 「아웃:서리」 「골인:덤」 「반칙:어럴렐릴」 「이겼다:멍멍재개재개」란 용어를 곡성 지방에서는 사용했다.

## 正月 대보름 액막이 놀이

毎年 正月 대보름이면 그해 마을 사람들의 病害, 火災, 旱害, 風害等 各種 災殃으로 부터 액운을 막기 위해 마을사람들이 洞口에 장승과 솟대를 세우고, ①堂山 祭를 지내고 民俗놀이로 ②햇불을 들고 다리밟기 ③客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짚섬으로 만든 정점다리 걷기 ④액막이 옷 불사르기 ⑤액막이 연날리기 ⑥액막이 디딜방아 훑치기 ⑦액막이 질굿놀이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의 和合과 協同心을 불러 일으켰으며, 1940年代에 이르기까지 谷城郡 谷城邑 竹洞里를 中心으로 傳承되어 온 民俗놀이이다.

## 編輯後記

日帝 36 年間 日本사람들은 우리 民族思想을 完全 抹殺하려는 政策을 썼다. 심지어는 固有의 傳統文化인 歲時風俗마저 段階的으로 自己네 風俗으로 바꾸려 가진 彈壓을 했으므로 代表的인 몇가지 命脈을 持續해왔고 如他는 形態마저 사라져가는 이때 내고장 歲時風俗과 民俗儀禮, 참고로 宮舍보기, 風水地理等을 收錄하오니 永遠히 保存될 수 있도록 後世들에게 傳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08

### 谷城歲時風俗

題字：雲庵 趙鏞敏

1987년 12월 5일 인쇄

1987년 12월 20일 발행

發行人 金 吉 榮

發行處 谷 城 文 化 院

印刷處 清 進 文 化 社

光州直轄市 東區 錦洞107

T. 365 - 4346

※ 本誌는 韓國文化藝術振興基金과 全羅南道文藝振興基金으로 만들어진 것임.